

서유기

西遊記 · 오승은 100회본

제8권 (제71회 ~ 제80회)

오승은 (吳承恩, 약 1500-1582)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5-26

책 정보

원전

오승은 『서유기(西遊記)』 世德堂本(1592년 명대), 10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西遊記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
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6

번역 정책

- 인명·지명은 한국 한자음(孫悟空 → 손오공, 玄奘 → 현장)
- 별칭·법명·도호는 본명으로 통일(美猴王 → 손오공, 八戒 → 저팔계, 三藏 → 당승)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卻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한편", 詩曰/偈曰 → 시·계송 형식 유지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71회 — 행자가 가명으로 괴물 흥을 굴복시키고, 관음이 형상을 나타내어 요괴 왕을 제압하다	5
제72회 — 반사동에서 일곱 가지 감정에 미혹되고, 탁구천에서 저팔계가 본성을 잇다	32
제73회 — 정 때문에 옛 원한이 재앙을 낳고, 마음의 주인은 고난을 겪다	61
제74회 — 장경이 마두의 흉악함을 전하고, 행자가 변화의 능력을 펼치다	89
제75회 — 마음의 원숭이가 음양의 몸을 꿰뚫고, 마귀가... ..	117
제76회 — 심신이 집에 머물러 마귀가 본성을 되찾고, 목모가 함께 내려와 괴이한 몸의 참모습을 드러내다	144
제77회 — 무리 지은 마귀들이 본성을 속이고, 온몸으로 진여를 예배하다	175
제78회 — 비구는 자식을 가엾게 여겨 음신을 보내고, 금전에서 마귀를 알아보고 도덕을 논하다	205
제79회 — 동굴을 찾아 요괴를 잡다 노인을 만나고, 조정의 주인이 어린아이를 구하다	229
제80회 — 요녀가 양기를 길러 배우자를 구하고, 마음의 원숭이가 주인을 보호하며 묘사한 것을 알아보다	248

제71회 — 행자가 가명으로 괴물 흥을 굴복시키고, 관음이 형상을 나타내어 요괴 왕을 제압하다

行者假名降怪狢 觀音現像伏妖王

색이 곧 비어 있음은 예부터 그러했고, 비어 있음이 곧 색임을 말로써
알 수 있네.

사람이 색과 비어 있음의 선을 철저히 깨닫는다면, 어찌 단사로 약을
달여 만들 필요가 있으랴.

덕행을 온전히 닦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공력을 들어 고통스럽게 정
진하라.

때가 되어 공덕이 가득 차면 비로소 하늘에 오르리니, 신선의 얼굴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이야기는 이러하다. 요왕은 앞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손오공을
살살이 뒤졌으나, 황혼이 질 때까지도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요왕은

결국 벗겨진 가죽을 말리는 정자에 앉아 요괴들을 불러 모아 명령을 내렸다. 모든 문지기는 종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고, 북을 치고, 딱따이를 두드리게 했다. 요괴들은 저마다 활시위를 당기고 칼을 칼집에서 뽑아든 채, 밤새도록 경계하며 자리를 지켰다.

한편, 손오공은 파리 한 마리로 변신하여 문 옆에 가만히 붙어 있었다. 안쪽의 경비가 매우 삼엄한 것을 본 손오공은 즉시 날개를 펼쳐 후궁 문 앞까지 날아 들어갔다. 그곳에서 금성궁이 어안(御案)에 엮드린 채 맑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슬프게 흐느끼는 모습을 보았다. 손오공은 문 안으로 날아 들어가 그녀의 검은 머리칼 위에 살며시 내려앉아, 그녀가 무엇을 울며 말하는지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금성궁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아아, 임이시여! 전생에 끊어진 향(斷頭香)을 태운 탓에, 이번 생에 흉악한 요괴 왕을 만났네요. 부부가 헤어진 지 3년, 언제 다시 만날까요? 원앙이 두 곳에 갈라져 슬픔만 가득합니다. 보내신 장로께서 이제 막 소식을 전했건만, 좋은 인연이 놀라 흩어지고 한 목숨이 스러졌네요. 그저 금령의 비밀을 풀지 못하니, 그리움은 예전보다 더욱 미칠 듯합니다.”

이 말을 들은 손오공은 얼른 그녀의 귀 뒤로 몸을 옮겨 몰래 속삭였다.

“성공 마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마님 나라에서 보내온 신통한 승려 손 장로입니다. 마님의 목숨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성미가 급한 나머지, 화장대에 다가가 금령을 훔쳤습니다. 마님

께서 요왕과 술을 마시는 동안 저는 앞뜰로 몰래 빠져나와 금령을 열어 보지 않고는 건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입구를 막은 솜뭉치를 건드리는 바람에, 방울이 울리며 연기와 불꽃, 그리고 황사가 뿔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만 금령을 떨어뜨리고 말았고, 본래 모습이 드러나 철봉을 휘두르며 싸웠으나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독한 손에 당할까 두려워 파리로 변신해 문지방에 붙어 있다가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왕이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으려 하니, 마님께서 다시 부부의 예로 그를 달래어 안방으로 들여보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몰래 빠져나가 다른 방도를 찾아 마님을 구해드리겠습니다.”

금성궁은 그 말을 듣자마자 온몸을 벌벌 떨며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심장이 망치로 두들겨 맞는 듯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눈물을 펄펄 쏟으며 물었다. "당신은 지금 사람인가요, 아니면 귀신인가요?" 손오공이 말했다. "나도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요. 지금은 파리 한 마리로 변해서 여기 있는 것이요. 겁내지 말고 어서 저 요왕을 불러오시오." 금성궁은 믿기지 않는 듯 눈물을 흘리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를 홀리려는 건 아니겠지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내가 어찌 감히 당신을 홀리겠소? 못 믿겠다면 손바닥을 펴 보시오. 내가 그 위로 내려앉는 것을 직접 확인하면 될 것이요." 금성궁이 정말로 왼손을 짹 펴자, 손오공은 가볍게 날아 내려가 그녀의 옥 같은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다. 그 모습이 마치 다음과 같았다.

연꽃 꽃술 끝에 검은콩 하나가 박힌 듯하고, 모란꽃 위에 벌 한 마리가 쉬어가는 듯하며, 자수 놓은 꽃송이 속에 포도알이 떨어진 듯하고, 백합 줄기 옆에 검은 점이 짙게 찍힌 듯하구나.

금성궁은 떨리는 손을 높이 치켜든 채 "신승님!" 하고 외쳤다. 손오공이 잉잉거리는 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바로 그 신승이 변신한 것이오." 그제야 금성궁은 믿음이 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요왕을 모셔 오는 동안,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 손오공이 말했다. "옛말에 '평생을 망치는 것은 술뿐이다'라고 했고, 또 '만사를 해결하는 데 술만한 것이 없다'라고도 했소. 술을 쓰는 법은 아주 다양하니, 당신은 그저 술을 마시는 데만 집중하시오. 대신 곁에 있는 시비 중 한 명을 불러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 아이의 모습으로 변신해 곁에서 시중을 들며 기회를 엿보겠소."

황후가 정말로 그 말에 따라 "춘교는 어디 있느냐?" 하고 불렀다. 그러자 병풍 뒤에서 옥면호리 하나가 나타나 무릎을 꿇고 말했다. "마님, 춘교를 부르시다니 무슨 분부이신지요?" 황후가 말했다. "가서 사등(얇은 비단 등불)을 좀 가져오고, 뇌사(향료의 일종)를 피우게 하거라. 그리고 나를 앞뜰로 데려가 대왕께서 편히 주무시도록 모시도록 해라."

춘교는 즉시 몸을 돌려 일곱 여덟 마리의 괴이한 사슴과 여우 요괴들을 불렀다. 그들은 두 쌍의 등불과 한 쌍의 화로를 들고 좌우로 늘어섰다. 황후가 몸을 굽혀 예를 갖추는 사이, 손오공은 이미 날아간 뒤였다. 손오공은 날개를 펼쳐 옥면호리의 머리 위로 곧장 날아가더니, 털 한 가닥을 뽑아 입으로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손오공은 털을 줄음이 쏟아지게 하는 벌레로 변하게 한 뒤, 옥면호리의 얼굴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이 벌레는 사람 얼굴에 닿자마자 콧구멍 속으로 기어 들어갔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상대를 잠들게 했다. 과연 춘교는 점점 줄음이 쏟아져 발을 제대로 딛지 못하고 비틀거리더니, 급히 원래 자리를 찾아가 머리를 대자마자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손오공은 바닥으로 뛰어내려 몸을 흔들며 춘교의 모습으로 변신한 뒤, 병풍을 돌아 요괴 무리 사이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다.

한편, 금성궁이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것을 본 작은 요괴가 요왕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대왕님, 황후께서 오셨습니다!” 요왕은 급히 벗기정 밖으로 나가 황후를 맞이했다. 황후가 말했다. “대왕님, 불길이 잦아지고 도둑놈도 이미 자취를 감추었으니, 이 깊은 밤에 부디 편히 쉬게 해주십시오.” 요왕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대답했다. “황후님,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방금 그 도둑놈은 손오공이었습니다. 그는 제 선봉대를 패퇴시키고 부하들을 죽인 뒤, 변신술로 몰래 들어와 우리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살살이 뒤졌는데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으니,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렇습니다.” 황후가 말했다. “그놈은 아마 도망쳤을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어서 잠자리에 드십시오.” 요괴는 황후가 곁에서 정중히 권하자 감히 거절하지 못했다. 그는 부하 요괴들에게 불빛을 잘 살피고 도둑을 경계하라고 엄히 명한 뒤, 황후를 모시고 후궁으로 향했다. 그사이 손오공은 시비 춘교로 변신하여, 두 줄로 늘어선 시비들 틈에 섞여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금성궁이 말했다. "술을 준비하여 대왕의 피로를 풀어드리게 하시오."

요왕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고말고, 바로 그거야! 어서 술을 가져오너라. 내가 황후와 함께 놀란 가슴을 좀 달래야겠다."

가짜 춘교는 요괴들과 함께 과일과 음식을 차리고, 생고기 등을 정돈한 뒤 탁자와 의자를 배치했다. 황후가 잔을 들자 요왕도 잔을 들어 올렸고, 두 사람은 서로 잔을 바꾸어 마셨다. 곁에 있던 가짜 춘교가 술병을 들고 말했다. "대왕님, 그리고 황후님. 오늘 밤에야 비로소 두 분이 술잔을 나누시니, 부디 남김없이 마셔 두 분의 기쁨이 쌍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가짜 춘교는 다시 술을 따르고 두 사람이 잔을 비우게 했다. 그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대왕님과 황후님께서 즐거우시니, 노래를 잘하는 시비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잘 추는 이들은 춤을 추게 할까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악기 소리에 맞춰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어떤 이는 노래를 부르고 어떤 이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술을 계속 들이켰고, 황후가 노래와 춤을 멈추게 하자 시비들은 조를 나누어 병풍 밖으로 나와 줄을 섰다. 오직 가짜 춘교만이 술병을 들고 위아래로 술을 따랐다.

황후와 요왕은 부부 사이의 정겨운 대화에 푹 빠져 있었다. 황후가 온갖 애교를 부리며 다정하게 구니 요왕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황홀해했다. 다만 운이 나쁘게도 황후의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하고 있었

다. 가련하게도, 마치 고양이가 소변을 보려는 듯 애만 쓰고 실속은 없는 헛된 기쁨이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웃던 중, 금성궁이 물었다. "대왕님, 보물은 상하지 않았습니까?" 요왕이 대답했다. "이 보물은 태초부터 빚어진 물건인데 어찌 상하겠소? 다만 그 도둑놈이 입구를 막은 솜을 잡아당겨 빼버리고, 표범 가죽으로 만든 보따리를 태워버렸을 뿐이요." 금성궁이 말했다.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요왕이 말했다. "수습할 것 없소, 그냥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 되니까."

가짜 춘교로 변신한 손오공은 이 말을 듣고 즉시 자신의 털을 한 움큼 뽑아 입안에서 잘게 씹어 가루로 만들었다. 그리고는 살금살금 요왕에게 다가가 털을 그의 몸에 내려놓은 뒤, 신령한 기운을 세 번 불어넣으며 속으로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그 털들이 순식간에 이, 벼룩, 빈대라는 세 가지 해로운 벌레로 변하여 요왕의 몸속으로 파고들어 피부를 사정없이 물어뜯기 시작했다. 요왕은 참을 수 없는 가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품 안으로 집어넣어 몸을 긁고 비벼대다가 손가락으로 이 몇 마리를 꼬집어 꺼내 들고는 등불 가까이 가져가 살펴보았다.

그 모습을 본 금성궁이 속으로 생각하며 말했다. "대왕님, 아마 속옷이 더러워진 모양입니다. 오랫동안 빨지 않아서 이런 벌레가 생긴 것이겠지요." 요왕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나는 평소에 이런 벌레가 생기는 법이 없었는데, 하필 오늘 밤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구려." 금성궁이 웃으며 말했다. "대왕님, 망신이라니요? 옛말에 '황제의 몸에도 세 마

리의 이가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 옷을 벗어 보세요, 제가 잡아 드릴게요." 요왕은 정말로 허리띠를 풀고 옷을 벗기 시작했다.

가짜 춘교는 곁에 서서 요왕의 옷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옷가지마다 벼룩이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겹겹이 쌓인 옷마다 커다란 빈대가 들끓고 있었다. 자모 이(母-子)가 붙어 있는 이들은 마치 개미 떼가 굴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뱅뱅했다. 그러다 옷을 세 겹째 들춰 살결이 드러난 곳을 보니, 금령에 달라붙은 벌레들이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았다.

가짜 춘교가 말했다. “대왕님, 그 방울을 좀 이리 주세요. 저도 같이 이를 잡아 드릴게요.”

요왕은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겨를도 없이 금령 세 개를 가짜 춘교에게 건네주었다. 가짜 춘교는 방울을 받아 들고 한참 동안 흥내를 내며 만지작거렸다. 요왕이 고개를 숙인 채 옷을 털며 몸을 떨고 있는 사이, 손오공은 금령을 몰래 숨기고는 자신의 털 한 가닥을 뽑아 똑같이 생긴 금령 세 개로 변하게 하여 등불 아래에서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요염하게 뒤척이며 몸을 한 번 떨더니, 옷에 있던 이와 빈대, 벼룩들을 모두 자신의 몸 안으로 거두어들이고 가짜 금령을 요괴에게 건네주었다.

요괴는 방울을 받아 들고는 정신이 혼미해져 어찌할 바를 몰랐으니,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턱이 없었다. 요괴는 두 손으로 방울을 받쳐 들고 금성궁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꼭 잘 챙겨 두시오. 지난번처럼 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하오.”

금성궁은 방울을 건네받아 조심스레 옷케를 열고 가짜 금령을 넣어 황금 자물쇠로 잠갔다. 그리고는 요왕과 술을 몇 잔 더 마신 뒤 시비에게 명령했다. “침상을 깨끗이 닦고 비단 이불을 펴 두어라. 내가 대왕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 것이다.”

그러자 요왕이 연신 대답하며 말했다. “아이고, 제가 복이 없어 대왕님을 모실 처지가 못 됩니다. 저는 궁녀를 데리고 서궁으로 가서 잠을 자겠으니, 마님께서는 편히 쉬십시오.”

말을 마친 요괴는 각자의 잠자리로 돌아갔다.

한편, 춘교의 모습으로 변신한 손오공은 금령을 허리춤에 차고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몸을 한 번 흔들어 잠들게 했던 벌레를 거두어들인 뒤 곧장 앞으로 걸어갔다. 마침 밤을 알리는 타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삼경(밤 11시~새벽 1시)을 지나고 있었다. 손오공은 주문을 외워 몸을 숨기는 은신술을 부려 문 앞까지 다가갔으나, 문이 쇠사슬로 꽂꽂 묶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즉시 여의봉을 꺼내 문을 가리키며 자물쇠를 푸는 법을 부렸고, 그러자 문이 가볍게 열렸다.

손오공은 서둘러 문밖으로 나가 서서히 발을 떼며 매서운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세태세! 우리 금성궁 황후를 돌려보내라!"

그가 두세 번을 연달아 외치자, 놀란 요괴들이 앞다투어 몰려나와 앞문이 열린 것을 확인했다. 요괴들은 급히 등불을 들고 와 자물쇠를 채우더니, 몇몇은 안으로 뛰어 들어가 보고했다. "대왕님, 웬 사람이 대문 밖에서 대왕님의 존호를 부르며 금성궁 황후를 내놓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안에 있던 시비들이 궁궐 문으로 나와 몰래 속삭였다. "조용히 해! 대왕님께서 막 잠드셨단 말이야."

손오공이 다시 문 앞에서 크게 소리쳤지만, 작은 요괴들은 감히 대왕을 깨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런 일이 서너 번 반복되었으나 요괴들은 끝내 보고를 하지 못했다. 손오공은 밖에서 계속 떠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날이 밝을 때까지 버텼다. 결국 참다못한 손오공이 철봉을 휘두르며 대문을 쿵쿵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요괴들이 혼비백산하여 문을 지키던 놈은 보고를 하고, 보고하던 놈은 문을 막아서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겨우 잠에서 깬 요왕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옷을 챙겨 입고 비단 휘장 밖으로 나오며 물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냐?"

시비들이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대왕님, 누군가 밤새도록 동굴 밖에서 욕설을 퍼부르며 소리를 지르더니, 이제는 아예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요왕이 궁문을 나서니, 소식을 전하러 온 어린 요괴들이 허겁지겁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밖에서 어떤 자가 금성궁 마마를 부르며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만약 ‘아니오’라는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듣기 거북한 헛소리를 수없이 늘어놓습니다. 대왕님께서 나오지 않으시니, 아예 문을 부수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요왕이 말했다. "일단 문을 열지 마라. 가서 그자가 어디서 왔는지, 성명은 무엇인지 얼른 물어보고 보고해라."

어린 요괴가 급히 나가 문밖에서 물었다. “문을 부수겠다는 자가 누구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나는 주자국에서 정중히 모셔 온 외공(外公)이다! 금성궁 마마를 모시고 나라로 돌아가려 한다!”

어린 요괴가 이 말을 듣고 즉시 요왕에게 보고했다. 요왕은 곧장 후궁으로 가서 사정을 살폈다.

알고 보니 금성궁은 막 잠에서 깨어나 아직 세수도 채 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때 시비가 달려와 보고했다. “나으리께서 오셨습니다!”

금성궁은 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궁 밖으로 마중을 나갔다. 그러나 자리에 앉아 채 묻기도 전에 다시 어린 요괴의 보고가 들려왔다. “그 외공이라는 자가 이미 문을 부수고 있습니다!”

요왕이 웃으며 물었다. “마마, 조정에 장수와 군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금성궁이 대답했다. “조정에는 사십팔위의 군사와 천 명의 양장, 그리고 각지의 원수와 총병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요왕이 다시 물었다. “그럼 ‘외(外)’ 씨 성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금성궁이 말했다. “저는 궁 안에 머물며 임금을 보필하고 밤낮으로 후궁들을 가르칠 뿐, 바깥일은 알지 못하니 그 사람의 성명을 어찌 기억하겠습니까?”

요왕이 말했다. “그자가 스스로를 ‘외공’이라 칭하니, 내 생각에 《백가성》을 뒤져봐도 ‘외’ 씨 성을 가진 사람은 없는 듯합니다. 마마께서는 총명하시고 고귀한 신분으로 황궁에서 지내시니 책을 많이 읽으셨을 터, 혹시 책에 그런 성씨가 나온 적이 없습니까?”

금성궁이 대답했다. “《천자문》에 ‘외수부훈(外受傳訓, 밖으로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다)’이라는 구절이 있으니, 아마 그 글자를 말하는 모양입니다.”

요왕이 기뻐하며 말했다. “분명 그렇고말고, 틀림없어!” 요왕은 곧 몸을 일으켜 황후에게 작별을 고하고는 박피정(剝皮亭)으로 가서 옷매무새를 정갈히 다듬었다. 그러고는 요괴 병사들을 점고하여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요왕은 손에 큰 선화월부(도끼)를 들고 위엄 있는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주자국에서 온 외공(外公)이란 자가 어느 놈이냐?”

손오공은 여의금고봉을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 그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조카야, 나를 무슨 일로 부르느냐?”

그 모습을 본 요왕은 속으로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네 이놈, 생김새는 원숭이요, 낮 짝은 잔나비 같구나. 칠 할은 영락없는 귀신이거늘, 대담하게 감히 사람을 속이려 드는가!”

손오공이 웃으며 대꾸했다. “임금을 속이고 윗사람을 기만하는 이 고약한 요괴 녀석이 눈이 멀었구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오백 년 전 천궁을 크게 어지럽혔을 때, 구천의 신장들은 나를 보면 하나같이 ‘노(老)’자를 붙여 불렀을 뿐 감히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 그러니 네가 나를 외공이라 부른들 네가 손해 볼 게 무엇이냐?”

요왕이 호통을 쳤다. “어서 네 성명과 무예가 무엇인지 밝혀라! 감히 내 앞에서 날뛰는 것이냐!”

손오공이 말했다. “네가 이름을 묻지 않았다면 모를까, 내 이름을 듣는 순간 너는 발붙일 곳조차 없어질 것이다. 자, 이리로 올라와 똑바로 서서 내 말을 잘 들어보아라!”

시로 이르되, “나를 낳은 부모는 천지요, 일월의 정기가 성스러운 태를 맺었네. 선석(仙石)의 품 안에서 세월을 잊었으니, 영험한 뿌리가 자라남이 참으로 기이하구나. 그 옛날 삼양(三陽)이 열리는 길한 때에 나를 낳았고, 오늘날 진리에 귀의하여 만 가지 인연이 어우러졌네. 일찍이 요괴들을 모아 우두머리가 되었고, 못 괴물을 굴복시켜 단애(丹崖)에 절하게 했었지. 옥황대제께서 칙지를 내리고, 태백금성이 조서를 받들어 찾아왔네. 나를 하늘로 불러 직책을 맡겼으나, 필마온(弭馬溫) 벼슬을 내리니 마음에 차지 않았네. 처음 마음으로 반란을 일으켜 산속 동굴을 도모하고, 대담하게 군사를 일으켜 옥좌 앞을 어지럽혔지. 탑을 받든 천왕과 그 태자도, 한바탕 맞붙으니 모조리 꺾어버렸네. 금성이 다시 하늘의 황제에게 아뢰니, 또다시 회유하는 칙지가 내려왔네. 제천대성(齊天大聖)이라는 참된 칭호를 내리니, 그때야 비로소 동량의 재목이라 불렸네. 그러다 반도(蟠桃) 잔치를 어지럽히고, 술김에 금단을 훔쳐 재앙을 불러왔지. 태상노군이 직접 어전에 아뢰고, 서지(西池)의 왕모가 요대(瑤臺)에 배알하였네. 내가 왕법을 업신여긴 줄 알기에, 곧 천병을 점고하고 화패(火牌)를 내렸네. 십만의 홍성과 악한 별들이, 창과 칼을 뿔뿔이 늘어세웠네. 천라지망(天羅地網)이 온 산을 뒤덮고, 일제히 무기를 들고 크게 에워쌌네. 한바탕 격렬히 싸웠으나

승패를 가리지 못하니, 관음보살이 이랑신을 천거해 보냈네. 두 편이 맞서 높낮이를 겨루니, 그에게는 매산(梅山)의 형제들이 있었네. 저마다 영웅답게 변신술을 부리니, 하늘 문의 세 성인이 구름을 헤쳤네. 노군이 금강투(金剛套)를 던지자, 못 신들이 나를 잡아 금계(金階)로 끌고 갔네. 자세히 죄목을 따져 진술서를 받을 것도 없이, 능지처참의 형벌을 내리려 했네. 도끼로 찍고 망치로 두드려도 목숨을 상하지 못했고, 칼로 휘두르고 검으로 베어도 몸을 다치게 못 했네. 불로 태우고 번개로 쳐도 이러할 뿐, 나의 장생하는 태를 꺾을 길이 없었네. 태청(太淸) 도솔원(兜率院)으로 압송하여, 화로 속에 넣어 단련하려 안배했네. 날이 다 차 술을 열 무렵, 나는 그 한가운데서 필쩍 뛰어나왔네. 이 여의봉을 손에 곧추세우고, 몸을 뒤집어 옥룡대(玉龍臺)로 쳐올라갔네. 별과 별자리들이 모두 숨어버린 사이, 천궁을 크게 어지럽히며 내 멋대로 날뛰었네. 순시하던 영관(靈官)이 급히 부처를 청하니, 석가여래가 나와 영재를 겨루었네. 부처의 손바닥 안에서 근두운을 뒤집으며, 온 하늘을 두루 돌아 다녔네. 부처가 미리 알고 속임수를 쓰니, 그에게 놀려 하늘 끝에 갇히고 말았네. 지금까지 오백여 년이 흘러, 미천한 몸을 벗어나 다시 재주를 부리는구나. 특별히 당승을 보호하여 서역으로 가니, 오공 행자의 행보가 참으로 명백하도다. 서천 가는 길에 요괴를 행복시키니, 그 어떤 사악한 놈인들 두려워하지 않으랴!”

요왕은 손오공이 ‘오공 행자’라 말하는 것을 듣고 말했다. “네놈이 바로 천궁을 어지럽혔던 그놈이었구나! 이미 몸을 빼내어 당승을 모시고 서천으로 가는 길이면 네 갈 길이나 갈 것이지, 어찌 쓸데없이 참견하여 주자국을 위해 종노릇을 하며 내 이곳까지 죽으러 찾아왔느냐?”

손오공이 호통을 쳤다. “이 고약한 요괴 녀석아, 말버릇이 무지하구나! 나는 주자국에서 정중히 청하는 예를 받았고 또 후하게 대접받은 은혜를 입었으니, 내 지위가 저 임금 자리보다 천 배는 높다! 그들은 나를 부모처럼 공경하고 신명처럼 섬기는데, 네놈이 감히 어디서 ‘종’이라는 두 글자를 입에 올리느냐? 임금을 속이고 윗사람을 기만하는 요괴 녀석, 달아나지 말고 이 외공의 매를 받아라!”

요왕은 당황하여 몸을 날려 피하고는 선화부(도끼)로 얼굴을 향해 맞췄다. 이 한바탕 싸움이 불만하였다!

시로 이르되, “여의금고봉과 날카로운 선화부가 맞붙으니, 한쪽은 이를 갈며 흥포하게 덤비고, 한쪽은 이를 악물며 위세를 떨치네. 한 명은 제천대성이 인간 세상에 강림한 것이요, 한 명은 요괴 왕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라. 구름과 안개를 내뿜으며 천궁을 뒤덮으니, 돌과 모래가 날려 두부(斗府)를 가리네. 수많은 초식과 기묘한 기술이 오가고, 번쩍이는 금빛이 끊임없이 솟구치네. 저마다 온갖 신통력을 다해 승부를 겨루니, 한 명은 황후를 빼앗아 도읍으로 데려가려 하고, 한 명은 황후와 함께 산속에 살려 하네. 이 싸움은 모두 까닭 없이 벌어진 듯하나, 나라님을 위해 죽음을 무릅쓴 것이라.”

두 사람은 쏜 합을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요왕은 손오공의 수단이 너무 뛰어나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도끼로 철봉을 막아내며 말했다. “손행자, 잠시 멈춰라! 내가 아직 아침 식사를 못 했으니, 밥을 먹고 나서 다시 너와 자웅을 겨루겠다.”

손오공은 요왕이 (자기) 방울을 가지러 가려는 속셈임을 눈치채고 철봉을 거두며 말했다. “‘사내대장부는 지친 토끼를 쫓지 않는 법이다.’ 가거라, 가서 배불리 먹고 와서 죽음을 받아라!”

요괴가 급히 몸을 돌려 안으로 들이닥치며 황후에게 말했다. "어서 그 보물을 내놓으시오!" 황후가 물었다. "보물은 어찌 쓰려고 그러십니까?" 요왕이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 싸움을 걸어난 놈은 경전을 구하러 온 스님의 제자로, 이름은 손오공 행자라고 하더군. 외할아버지라고 속이기까지 했어! 내가 그놈과 싸우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승부가 나지 않았단 말이다. 이제 내가 보물을 가지고 나가서 불꽃과 연기를 일으켜 저 원숭이 놈을 태워 죽일 것이다."

황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보물을 내놓지 않자니 요괴가 의심할까 두려웠고, 내놓자니 손오공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걱정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황후가 한참을 망설이고 있을 때, 요왕이 다시 재촉하며 소리쳤다. "어서 내놓으란 말이다!"

황후는 어쩔 수 없이 자물쇠를 열고 세 개의 금령을 요왕에게 건네 주었다. 요왕은 금령을 챙겨 들고 동굴 밖으로 나갔다. 황후는 궁 안에 앉아 눈물을 비 오듯 흘리며, 손오공이 과연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 걱정하며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금령이 가짜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요괴가 문밖으로 뛰어나오더니 기세를 올리며 외쳤다. "손오공, 거기 서라! 내 방울 흔드는 솜씨를 보여주마!"

손오공이 웃으며 맞받아쳤다. "당신에게 방울이 있다면 나에게는 없겠소? 당신이 흔들 줄 안다면 나는 못 흔들 줄 아나?"

요왕이 말했다. "네놈에게 무슨 방울이 있다는 말이나? 어디 한번 내놓아 보아라!"

손오공은 여의봉을 자그마한 바늘 모양으로 만들어 귀 뒤에 숨겼다. 그러고는 허리춤에서 진짜 보물 세 개를 풀어 요왕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것이 나의 자금방울이 아니겠소?"

요왕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 이럴 수가! 저놈의 방울이 어째서 내 것과 이토록 똑같이 생겼단 말인가? 설령 같은 틀에서 찍어냈다고 해도 갈아낸 흔적이 있거나 모양이 조금은 다를 법한데, 어찌 이리 티끌만큼의 차이도 없이 완벽하단 말인가?'

요왕이 다시 물었다. "그 방울은 어디서 난 것이냐?"

손오공이 되물었다. "조카님, 당신의 방울은 어디서 난 것이요?"

요왕은 정직한 성격이라 곧바로 대답했다. "내 방울은 이러하다.

태청선군 도원 깊은 곳에서, 팔괘로 속에서 오래도록 단련했네. 방울로 맺혀 지고至寶(지보)가 되었으니, 노군께서 남기어 지금까지 전해졌도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늙은 손오공의 방울도 그때 온 것이오."

요왕이 물었다. "어디서 왔단 말이나?"

손오공이 말했다. "내 방울은 이러하다.

도조끼서 도술궁에서 단약을 구울 때, 금방울이 화로 속에서 함께 단련되었지. 둘이 합쳐져 보물이 순환하니, 내 것은 암컷이고 당신 것은 수컷이라네."

요왕이 말했다. "방울은 금단의 보물이지만, 어찌 날짐승이나 길짐승도 아닌데 암수를 구별한단 말이나? 그저 방울을 흔들어 보물을 불러 내기만 하면 그만이지."

손오공이 대꾸했다. "말로는 증명할 수 없으니 직접 해보면 알 것이오. 우선 당신이 먼저 흔들어 보시오."

요왕은 정말로 첫 번째 금령을 세 번 흔들었으나 불이 나오지 않았고, 두 번째 금령을 세 번 흔들어도 연기가 나오지 않았으며, 세 번째 금령을 세 번 흔들어도 모래가 나오지 않았다. 요왕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괴이하구나, 참으로 괴이해! 세상 이치가 변했나 보군. 이 방울이 분명 안주인을 무서워하는 모양이라, 수컷이 암컷을 보고는 겁을 먹어 나오지 않는 것이로구나!”

그때 손오공이 말했다.

“여보게 조카, 그만두게. 나도 한번 흔들어 자네에게 보여줍세.”

이 영리한 원숭이는 금령 세 개를 한꺼번에 움켜쥐더니 동시에 세차게 흔들었다. 그러자 붉은 불길과 푸른 연기, 누런 모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나무를 태우고 산을 불사르며 휩쓸었다. 대성은 입으로 또 주문을 외우며 손방(巽方, 동남쪽)을 향해 외쳤다.

“바람아, 불어라!”

과연 바람이 불의 기세를 부추기고 불이 바람의 위세를 빌려, 붉은 불꽃이 이글거리고 시커먼 연기가 자욱하니, 온 하늘에 연기와 불이 가득하고 온 땅에 누런 모래가 뒤덮였다. 새태세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칠 길조차 찾지 못했으니, 저 거센 불길 한가운데서 어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는가?

공중에서 매서운 외침이 들려왔다. “손오공, 내가 왔다!”

손오공이 급히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다름 아닌 관음보살이었다. 보살은 왼손에 정병을 들고 오른손에는 버들가지를 든 채, 감로수를 뿌려 불길을 끄고 있었다. 깜짝 놀란 손오공은 얼른 방울을 허리춤에 숨기고는 두 손을 모아 엎드려 절했다. 보살이 버들가지로 감로수를 몇 번 휘두르자, 순식간에 불길과 연기가 사라지고 황사도 흔적 없이 자취를 감추었다.

손오공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대자대비하신 보살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시는 줄도 모르고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보살님께서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보살이 대답했다. “내가 특별히 이 요괴를 거두러 왔다.”

손오공이 물었다. “이 요괴가 대체 어떤 내력을 가졌기에 보살님께서 친히 강림하여 잡으려 하십니까?”

보살이 말했다. “이놈은 내가 타고 다니던 금모후다. 목동이 잠든 사이에 방심한 틈을 타서, 이 짐승 같은 놈이 쇠사슬을 물어 끊고 달아나 주자국 국왕의 재앙을 없애주려 한 것이란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급히 몸을 굽히며 말했다. “보살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이놈은 여기서 임금을 속이고 황후를 해치며 풍속을 어지럽히고 국왕에게 재앙을 일으켰는데, 어찌 재앙을 없애는 것이라 하십니까?”

보살이 설명했다. “너는 잘 모르는구나. 예전에 주자국의 선왕이 재위할 때, 지금의 국왕은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인 동궁 태자였다. 당시 그는 어릴 적부터 사냥을 무척 좋아했지. 어느 날 그가 군사를 거느리고 매와 사냥개를 풀어 사냥을 하다가 낙봉과 앞에 이르렀는데, 마침 서천의 불모이신 공작대명왕보살께서 낳으신 두 마리의 새끼 공작이 산비탈 아래 쉬고 있었다. 그런데 이 태자가 활을 쏘아 수공작을 맞혀 다치게 했고, 암공작마저 화살을 맞은 채 서천으로 돌아가 버렸단다. 이에 보살께서 참회하며 그에게 벌을 내리시니, 3년 동안 봉황이 꺾이는 재앙을 겪으며 병에 걸려 고생하게 되었지. 그때 내가 이 금모후를 타고 그 말을 듣고 있었단다. 그런데 이 짐승 같은 놈이 눈치껏 황후를 속여 국왕의 재앙을 없애주려 한 것이야. 이제 3년의 업보가 다 찼으니, 다행히 네가 와서 국왕의 병을 구하게 되었구나. 나는 그저 이 요괴를 거두러 온 것이다.”

손오공이 말했다. “보살님,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황후를 더럽히고 풍속을 어지럽히며 인륜을 저버린 죄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입니다. 보살님께서 친히 오셨으니 죽을 죄는 면해 드린다 해도, 살 죄는 면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놈을 스무 대만 때린 뒤에 보살님께 바치게 해주십시오.”

보살이 말했다. “오공아, 내가 세상에 내려온 것을 알았으니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렴. 그것도 요괴를 잡은 공으로 쳐주마. 만약 네가 몽둥이를 휘두르면 이놈은 죽고 만다.”

손오공은 감히 보살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고 절하며 말했다. “보살님께서 이놈을 거두어 바다로 데려가신다면, 다시는 인간 세상에 몰래 내려와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관음보살이 호통을 쳤다. “이 죄 많은 짐승아! 어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느냐?”

그러자 요괴가 바닥을 데굴데굴 구르더니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요괴가 털가죽을 한번 탈탈 털어내자, 보살은 그 위에 올라탔다. 보살이 다시 그 목 아래를 살펴보니, 그 금령 세 개가 보이지 않았다.

보살이 말했다. “손오공, 내 방울을 돌려다오.”

손오공이 대답했다. “이 몸은 모르는 일입니다.”

보살이 다시 꾸짖었다. “이 도둑 원숭이 같으니! 네가 이 방울을 훔치지만 앓았어도, 손오공 하나는커녕 열 명이 온다 해도 이 짐승 곁에 감히 다가오지 못했을 것이다. 어서 내놓아라!”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로 본 적이 없습니다요.”

보살이 말했다. “본 적이 없다면, 내가 긴고주(緊箍咒, 머리테 조이는 주문)를 외우겠다.”

그 소리에 당황한 손오공이 다급히 외쳤다. “아이고, 안 됩니다! 제발 외우지 마세요! 방울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야말로 이러하다. “짐승 목에 걸린 금령을 누가 풀 것인가? 방울을 풀 이는 결국 방울을 맨 이에게 물어야 하리.”

보살은 금령을 짐승의 목에 걸어준 뒤 몸을 날려 높이 올라앉았다. 그 짐승을 보니 네 발에서는 연꽃이 피어 불꽃이 이글거리고, 온몸에는 금빛 실 같은 털이 뽁뽁이 곤두서 있었다. 대자대비한 보살은 이 이야기는 여기서 접고 남해로 돌아갔다.

한편, 손오공은 옷차림을 정돈한 뒤 철봉을 휘두르며 해치동으로 들어닥쳤다. 그는 그곳에 모여 있던 요괴들을 모조리 때려눕혀 깨끗이 소탕했다. 그러고는 궁 안으로 들어가 금성궁을 찾아가 나라로 돌아가자고 청했다. 금성궁은 손오공에게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표했다. 손오공은 관음보살이 요괴를 굴복시킨 일과 낙봉파에서 벌어졌던 재앙의 전말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이어 손오공은 부드러운 풀을 모아 용 모양으로 엮어 만든 뒤 금성 궁에게 말했다. "황후님, 이 풀룡 위에 올라타 눈을 꼭 감고 계십시오. 겁내실 것 없습니다. 제가 황후님을 모시고 궁으로 돌아가 국왕님을 뵈게 해 드리겠습니다." 금성궁이 그 말에 따라 명령을 받들자, 손오공이 신통력을 부렸다. 그러자 귓가에 세찬 바람 소리가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반 시진 만에 성 안으로 데려와 구름을 낮게 내려앉히며 손오공이 말했다. "마님, 눈을 뜨십시오." 황후가 눈을 뜨고 보니 화려한 궁궐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황후는 기쁜 마음으로 풀로 만든 용을 내려놓고 손오공과 함께 보전으로 들어갔다.

그 모습을 본 국왕은 급히 용상에서 내려와 황후의 부드러운 손을 잡고 그간의 이별을 달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국왕이 바닥에 털썩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손이야! 손이 아프구나!"

이 광경을 본 저팔계가 배를 잡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꼴 좋네! 복을 누릴 줄도 모르고. 만나자마자 쏘여 죽을 뻔했군!"

손오공이 꾸짖듯 말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감히 그분을 한번 잡아당겨 보겠느냐?"

저팔계가 대꾸했다. "잡아당기면 좀 어때서요?"

그러자 손오공이 설명했다. "황후님의 몸에는 독가시가 돌아 있고, 손에는 쏘는 독이 있단 말이다. 기린산에 와서 저 새태세와 3년을 지내

는 동안에도 그 요괴는 황후님 몸에 닿은 적이 없었다. 몸에 닿으면 몸이 아프고, 손에 닿으면 손이 아프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은 관리들이 “이 일을 어찌하면 종단 말인가?”라며 당황했다. 밖에서는 관리들이 걱정과 의구심에 휩싸였고, 안에서는 비빈들이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이때 곁에 있던 옥성궁(玉聖宮)과 은성궁(銀聖宮) 두 왕비가 국왕을 부축해 일으켰다.

모두가 황망함에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허공에서 누군가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대성, 제가 왔습니다!”

손오공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다음과 같은 모습이었다.

엄숙한 기운은 하늘을 찌르고 학의 울음소리처럼 드높으며, 너울너울 곧장 조정 앞으로 날아온다. 상서로운 빛은 줄기줄기 휘감기고, 신령스러운 기운은 너울너울 춤을 춘다. 종려 도롱이(棕衣)를 몸에 걸치고 구름과 안개를 피워 올리며, 짚신을 신고 나타나니 참으로 보기 드문 모습이라. 손에는 용수염 같은 불자(拂子)를 들고 허리에는 싯피를 둘렀으니, 천지 곳곳에 인연을 맺으며 대지를 유유자적 누비는 이라. 바로 대라천(大羅天) 위의 자운선(紫雲仙)이 오늘 세상에 내려와 재앙을 풀려는 것이로다.

손오공이 앞으로 나가 맞이하며 물었다. “장자양(張紫陽)께서는 어디를 가시는 길이요?”

자양진인이 전각 앞까지 이르러 몸을 굽혀 예를 갖추며 말했다. “대성, 소선 장백단(張伯端)이 인사 올립니다.”

손오공이 답례하며 물었다. “어디서 오신 것이요?”

진인이 대답했다. “소선이 삼 년 전 불회(佛會)에 가다가 이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자국 국왕에게 부부가 생이별할 근심(拆鳳之憂)이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저는 요괴가 황후를 욕보여 인륜을 해치고, 훗날 국왕과 다시 합치기 어려워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입던 낡은 종려 도롱이를 빗이 오색으로 영롱한 새 노을옷(霞裳)으로 변하게 한 뒤 요왕에게 바쳐, 황후가 그 새 옷을 입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황후가 옷을 입자마자 온몸에 독가시가 돌아났으니, 그 독가시란 바로 종려 도롱이였습니다. 이제 대성께서 일을 성공시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재앙을 풀기 위해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소. 어서 재앙을 풀어 주시오.”

진인이 앞으로 걸어가 황후를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그 종려 도롱이가 스르르 벗겨졌다. 그러자 황후의 온몸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다. 진인이 그 옷을 가볍게 털어 다시 몸에 걸치며 손오공에게 말했다. “대성, 부디 노여워 마십시오. 소선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국왕께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게 해야겠소.”

진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럴 것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길게 읊을 한 뒤 허공으로 솟구쳐 사라졌다. 황제와 황후, 그리고 크고 작은 신하들이 모두 황망히 하늘을 향해 연신 절을 올렸다.

절을 마친 국왕은 즉시 동각(東閣)을 활짝 열게 하여 네 승려에게 보답하는 잔치를 베풀었다. 국왕과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자, 그제야 부부는 다시 화목하게 재회할 수 있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손오공이 불렀다. “스승님, 그 도전장(戰書)을 좀 가져와 보세요.” 삼장법사가 소매 안에서 그것을 꺼내 손오공에게 건네주었다. 손오공은 그것을 국왕에게 전달하며 말했다. “이 글은 그 요괴가 부하 소교(小校)를 시켜 보내온 도전장입니다. 그 소교는 제가 먼저 때려죽인 뒤 (그 일을) 아뢰어 공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제가 다시 산으로 가서 그 소교로 변신해 동굴로 들어가 복명하니, 덕분에 황후님을 뵙고 금령을 훔쳐낼 수 있었지만 하마터면 요괴에게 붙잡힐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변신하여 금령을 몰래 빼낸 뒤 요괴와 맞서 싸웠습니다. 다행히 관음보살님을 만나 요괴를 거두어 가셨고, 그 과정에서 부부를 생이별시킨 까닭도 알려주셨습니다…….” 손오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설명했다. 온 나라의 군신과 백성 가운데 손오공을 감사하며 칭송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첫째는 현명하신 국왕님의 복이요, 둘째는 제 제자의 공입니다. 이제 성대한 잔치까지 베풀어 주셨으니 이만하면 지극합니다. 이대로 작별을 고하겠으니, 이 가난한 승려가 서천으로 가는 길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왕이 간곡히 만류했으나 뜻을 굽히지 못하자, 결국 통행 문서(關文)에 도장을 찍어 내어주고 화려한 어

가를 크게 차려 삼장법사를 용차에 모셨다. 국왕과 비후(妃后)는 직접 수레바퀴를 밀며 일행을 배웅하고 작별했다.

시로 이르되, “인연이 닿아 근심과 의심의 병을 다 씻어내니, 잡념과 망상이 끊겨 마음이 절로 평온하구나.”

결국 이들이 떠난 뒤에 또 어떤 길흉화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2회 — 반사동에서 일곱 가지 감정에 미혹되고, 탁구천에서 저팔계가 본성을 잇다

盤絲洞七情迷本 濯垢泉八戒忘形

죄송합니다. 입력하신 내용이 한문 본문이 아니라 서식의 일부로 보입니다. 번역할 『서유기』의 한문 본문 단락을 입력해 주시면, 설정 해주신 번역 원칙과 [회 사실 시트], [등장 사전]에 따라 즉시 번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승은 주자국의 왕과 작별한 뒤, 말과 안장을 정돈하여 서쪽으로 향했다. 수많은 산과 언덕을 넘고 끝없는 물길을 지나다 보니, 어느덧 가을이 가고 겨울이 지나 다시 따스한 봄별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계절이 되었다. 스승과 제자들이 길을 가며 봄 경치를 즐기고 있을 때, 문득 숲 사이에 자리 잡은 암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당승은 말에서 내려 큰길가에 멈춰 섰다.

손오공이 물었다. "스승님, 이 길은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왜 멈추시는 겁니까?"

저팔계가 거들었다. "형님은 참 눈치도 없으시네요. 스승님께서 말 위에 오래 앉아 계셔서 지루하실 텐데, 잠시 내려서 바람도 좀 쐬시려는 거 아니겠어요?"

당승이 말했다. "바람을 쐬려는 게 아니라, 저기에 민가가 있는 것 같아 직접 가서 공양을 좀 청해볼까 한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공양을 드시고 싶으시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속담에 '하루 스승은 평생 아버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제자가 높이 앉아 있고 스승님이 직접 공양을 구하러 다니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승이 대답했다. "그런 뜻이 아니다. 평소에는 눈앞에 보이는 집도 없이 끝없이 멀리 가야 해서 너희가 멀고 가까운 곳을 오가며 공양을 구하러 다녔지만, 오늘은 저렇게 가까이 집이 있으니 불려서 응답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도 한번 가보겠다."

저팔계가 다시 말했다. "스승님은 참 결단력이 없으시네요. 옛말에 '세 사람이 길을 나서면 막내 아이가 고생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스승님은 어른이시고 저희는 모두 제자들 아닙니까? 옛 글에도 '어떤 일이 생기면 제자가 수고를 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저팔계가 다녀오겠습니다."

당승이 말했다. "제자들아,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비바람이 몰아치던 때와는 다르다. 그때는 너희가 멀리까지 가야 했지만, 이 집은 가까우니 공양이 있든 없든 금방 다녀와서 다시 길을 떠나면 된다."

옆에 있던 사오정이 웃으며 말했다. "형님, 더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스승님의 성품이 원래 그러신데 굳이 거스르실 필요 있겠습니까? 만약 스승님을 성가시게 해드려 공양을 구해온다 해도, 스승님께서서는 드시지 않을 겁니다."

저팔계는 말한 대로 바루를 꺼내 그와 옷과 모자를 바꾸었다. 그리고 발걸음을 재촉해 그 장원 앞에 이르러 살펴보니, 그곳은 머물며 공양을 청하기에 딱 좋아 보였다. 풍경은 이러했다.

돌다리는 높이 솟아 있고, 고목들은 뻗뻗하게 들어섰구나. 높은 돌다리 아래로는 맑은 물이 졸졸 흘러 긴 시냇물로 이어지고, 뻗뻗한 고목 사이로는 산새들이 지저귀며 먼 산을 울리네. 다리 너머에는 초가집 몇 채가 있어, 맑고 우아한 모습이 마치 신선의 암자 같고, 창문이 달린 방은 하얗고 밝아 도관처럼 깨끗하구나. 창가에는 네 명의 아리따운 여인이 앉아, 봉황과 난초를 수놓으며 바느질에 여념이 없네.

당승은 그 집에 남자는 없고 여자만 넷뿐인 것을 보고는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그저 나무가 우거진 곳에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다. 그 여인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이러했다.

마음씨는 돌처럼 굳고 단단하며, 성품은 봄날처럼 상냥하구나. 고운 얼굴은 붉은 노을을 머금은 듯하고, 붉은 입술은 연지를 바른 듯 고르네. 눈썹은 초승달처럼 가늘고 아름다우며, 구름처럼 풍성한 머리 모

양은 새로 단장한 듯하구나. 만약 꽃 사이에 서 있다면, 노니는 벌이 꽃인 줄 착각할 정도라네.

잠시 반 시진쫘 지났을까,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해지고 닭 울음소리나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당승은 혼자 생각했다.

'내가 만약 제때 공양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제자들에게 비웃음을 사겠구나. 스승인 내가 공양을 구해오지 못하는데, 제자들이 어찌 부처님께 절을 올릴 수 있겠느냐?'

삼장은 어쩔 도리가 없어 미안한 마음을 안고 서둘러 다리 위로 올라갔다. 몇 걸음 더 나아가니 초가집 안에 나무로 만든 향기로운 정자가 하나 보였는데, 그 정자 아래에서 여인 셋이 공을 차며(축국, 蹴鞠) 놀고 있었다. 그 세 여인은 앞서 본 네 명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비취색 소매를 휘날리며 고운 치마를 흔드는데, 소매가 내려앉으니 옥순처럼 가냘픈 손가락이 보이고, 치마를 흔들며 움직이니 금련처럼 가냘픈 발끝이 살짝 드러났다. 몸가짐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고, 움직이는 발짓 하나하나가 천 가지 양식의 신발을 신은 듯 변화무쌍했다. 머리를 맞대고 논을 때는 키가 큰 듯 작은 듯하며, 서로 주고받는 몸짓이 참으로 정갈했다. 담장 너머로 공을 차 올리다가도 뒷걸음질 치며 바다를 건너듯 크게 넘겼다. 흙덩이 같은 공을 가볍게 받아내며 창처럼 찌르기도 하고, 불상 위의 명주를 잡듯 뽀족한 신발 끝을 짝 쥐기도 했다. 좁은 벽돌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물고기가 헤엄치듯 발을 놀렸다.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며, 고개를 돌리고 발꿈치를 치

켜들기도 했다. 의자에 앉아 소란을 피우는 듯하다가도 어깨를 드러내며 훌쩍 벗어 던지기도 했다. 옷자락을 여미며 왔다 갔다 하고, 목을 가누며 몸을 흔들었다. 공을 차는 모습은 마치 황하의 물이 거꾸로 흐르는 듯했고, 금빛 물고기가 노니는 여울에서 물건을 사는 듯했다. 누구 하나가 우두머리인 듯 잘못 짚으면, 다른 이는 몸을 돌려 잼싸게 받아냈다. 단정하게 다리를 올리고 앉아 공을 다루는 모습이 참으로 정교했다. 짚신을 들고 뒤로 쫓으며 공을 낚아채기도 했다. 뒷걸음질 치며 어깨를 흔드는 모습은 마치 갈고리로 낚아채는 듯했다. 공을 차는 재미에 폭 빠져 있다가도, 문득 기운이 빠지면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여인들은 하나같이 땀을 흘려 분칠한 얼굴과 비단 옷이 젖을 정도로 놀아대며, 기운이 빠져 흐트러진 모습조차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워 시로 증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시로 이르되,

꽃피는 삼월날 마당에서 공을 차니 선계의 바람 타고 선녀들이 내려왔네. 땀방울 맺힌 얼굴은 이슬 머금은 꽃 같고 먼지 묻은 눈썹은 안개 낀 버들 같구나. 비취 소매 낮게 드리워 옥순 같은 손을 감싸고 고운 치마 비스듬히 흔들며 금련 같은 발을 드러내네. 몇 차례 공을 차다 기운이 다하니 구름 같은 머리카락은 형클어지고 보배로운 머리 모양도 흐트러졌구나.

삼장이 보기에 시간이 꽤 지체된 듯하여, 다리 머리까지 걸어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보살님들, 빈승이 인연이 닿는 대로 공양을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 여인들은 저마다 바느질하던 것과 차던 공을 내팽개치고는, 싱글벙글 웃으며 문밖으로 마중 나와 말했다. "스님, 저희가 미처 마중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황량한 곳까지 오셨는데 감히 스님의 공양을 막을 수는 없지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그 말을 들은 삼장은 속으로 생각했다. '참으로 선하도다, 선해! 서천이 바로 부처님의 땅이라더니, 여인들조차 이토록 스님을 공양하는 데 정성을 다하니, 남자들은 어찌 부처님께 마음을 다하지 않겠는가?'

삼장이 앞장서서 인사를 건네자, 여인들이 그를 따라 초가집 안으로 안내했다. 향기로운 나무가 있는 정자를 지나 안을 들여다보니, 아! 그곳에는 제대로 된 방이나 복도조차 없었다. 그 풍경은 이러했다.

산봉우리는 높이 솟아 구름과 안개에 맞닿아 있고, 땅의 맥은 멀리 뻗어 바다와 큰 산까지 이어져 있구나. 문 앞에는 돌다리가 있고, 굽이 굽이 흐르는 물줄기가 돌아나간다. 정원에는 복숭아와 오얏나무가 천 그루, 천 송이씩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덩굴 식물은 서너 그루의 나무에 매달려 있으며, 지란의 향기는 만천화락 속에 흩날린다. 멀리서 보면 동굴이 섬처럼 떠 있는 듯하고, 가까이서 보면 산림이 태화산처럼 웅장하다. 참으로 요괴나 신선이 은거할 만한 곳이니, 이웃 하나 없이 홀로 집을 이룬 모양이라.

그때 한 여인이 앞으로 나와 돌문을 두 쪽으로 밀어 열더니, 삼장에 게 안으로 들어와 앉으라고 권했다. 삼장은 별수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문득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놓여 있는 것이라고는 온통 돌로 만든 탁자와 의자뿐이라 냉기가 서늘하게 감돌았다. 삼장은 가슴이 철렁 내

려앉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곳은 길한 기운보다 흉한 기운이 훨씬 많으니, 분명 예사로운 곳이 아니로구나.'

여인들은 싱글벙글 웃으며 입을 모아 말했다. "스님, 어서 앉으세요." 삼장은 어쩔 도리가 없어 자리에 앉았으나, 머지않아 몸에 한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여인들이 물었다. "스님은 어느 보산에서 오셨습니까? 어떤 인연을 구하러 오셨나요? 다리를 놓거나 길을 닦는 일인가요, 아니면 절을 짓고 탑을 세우는 일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불상을 만들고 경전을 새기는 일인가요? 인연 장부를 좀 보여주시지요."

삼장이 대답했다. "나는 보시를 받으러 다니는 스님이 아니오." 여인이 되물었다. "보시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면 여기까지 무엇 하러 오셨습니까?" 삼장이 말했다. "나는 동토 대당에서 서천 대뇌음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사람이라고. 마침 이쪽을 지나던 차에 배가 너무 고파서, 특별히 이 저택을 찾아와 공양을 청하러 왔소."

여인들이 말했다. "좋습니다, 좋아요. 흔히들 '멀리서 온 스님이 경전을 잘 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들아, 소홀히 대접해서는 안 된다. 어서 공양을 준비해 오너라."

이때 세 여인이 곁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인연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나머지 네 여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불을 지피며 솥을 닦았다. 그들이 차려낸 음식이 무엇인지 아는가? 알고 보니 사람의 기름으로 볶고 사람의 고기를 달여 만든 것이었다. 고기는 검게 늘어붙을 때까지 달여서 마치 밀가루 반죽(면근)처럼 만들었고, 사람의 뇌는 파내어 두부 조각처럼 지저냈다.

그들은 음식을 두 접시에 담아 돌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스님에게 말했다. "드십시오. 급하게 준비하느라 제대로 된 공양을 마련하지 못했으니, 우선 이것으로 배를 채우시지요. 뒤이어 다른 음식도 더 가져오겠습니다."

스님이 냄새를 맡아보니 비릿하고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여 감히 입을 떼지 못하고, 몸을 굽혀 합장하며 말했다. "보살님, 빈승은 태생부터 채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인들이 웃으며 말했다. "스님, 이것도 채식입니다."

스님이 대답했다. "아미타불! 만약 이런 것이 채식이라면, 제가 이것을 먹고는 부처님을 뵙기는커녕 경전은 구경도 못 할 것입니다."

여인들이 말했다. "스님, 출가하신 몸이 어찌 음식을 가려 드십니까?"

스님이 말했다. "어찌 감히 그러겠습니까. 저는 대당 황제의 명을 받들어 서천으로 가는 길에,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고통받는 이를 보면 구제하며, 곡식 알갱이 하나라도 있으면 입에 넣고 실 한 가닥이라도 몸을 가리며 살아왔습니다. 어찌 주인을 가려 보시를 받겠습니까?"

여인들이 웃으며 말했다. "스님이 비록 사람을 가려 보시를 받지 않으신다지만, 남의 집에 오셔서는 트집을 잡으시는 데가 있군요. 음식이 거칠더라도 일단 좀 드셔 보십시오."

스님이 말했다. "정말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계울을 어길까 두렵사
웁니다. 보살님, 생명을 기르려거든 차라리 저를 놓아주어 살려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노승은 벗어나려 몸부림쳤으나, 여인들은 문을 가로막고 서서 도
무지 놓아줄 기미가 없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손님이
직접 찾아온 장사를 어찌 쉽게 끝내겠어요? '방귀는 끼어 놓고 손으로
가리려 드는 격'이라더니, 대체 어디로 가시려는 건가요?"

여인들은 저마다 무예를 조금씩 갖추고 있었던 데다 몸놀림도 날쎈
탓에, 노승을 붙잡아 그대로 바닥에 팽개쳐 버렸다. 그러고는 사람들
을 불러 노승을 짓누르게 한 뒤, 밧줄로 단단히 묶어 대들보에 거꾸로
매달았다. 이 매달린 모양새는 이른바 '선인지로(神仙이 길을 가리키
는 형상)'라고 불릴 만했다. 한 손은 앞으로 뻗어 실에 매달고, 다른 한
손은 허리를 묶어 매달았으며, 두 발은 뒤로 뻗어 밧줄에 묶인 채였다.
세 줄의 밧줄에 묶여 대들보에 매달린 노승은 등은 위를 향하고 배는
아래를 향한 채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노승은 고통을 참으며 눈물을 머금은 채 속으로 원망을 삼켰다. '내
팔자가 참으로 기구하구나. 그저 좋은 집에 가서 공양이나 좀 받으려
했을 뿐인데, 이렇게 불 구덩이에 빠질 줄이야. 제자들이여, 어서 나를
구하러 오너라. 그래야 다시 얼굴을 볼 것 아니냐. 만약 두 시진(네 시
간)만 더 늦어진다면 내 목숨은 끝이로구나.'

그 장로(당승)는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눈을
떼지 못하고 그 여인들을 살폈다. 여인들은 그를 대들보에 단단히 매달

아 놓은 뒤,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당승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들이 옷을 벗는 걸 보니, 나를 덮치려는 모양이구나. 어쩌면 나를 잡아먹으려는 속셈일지도 모르겠어.'

알고 보니 그 여인들은 상의인 비단 저고리만 벗어 배를 드러낸 채, 각자 신통력을 부리고 있었다. 여인들의 허리춤에서 오리알 굵기만 한 굵직한 거미줄들이 쉼 새 없이 뿔어져 나왔다. 그 실타래가 마치 은빛 구슬이 튀듯 사방으로 흩날리며 순식간에 저택의 문을 뱅뱅하게 뒤덮어 버렸다.

한편,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은 큰길가에 있었다. 저팔계와 사오정은 말을 풀어 풀을 뜯게 하며 짐을 지키고 있었으나, 손오공은 워낙 장난기가 심한 데다 몸놀림이 빨라 나무 위를 뛰어다니며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가 잎을 따거나 열매를 찾으려 놀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눈앞이 번쩍이며 빛이 났다. 깜짝 놀란 손오공이 나무에서 뛰어내리며 외쳤다.

"큰일이다, 큰일이야! 스승님이 운이 없으시구나!"

손오공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저택 좀 봐!"

저팔계와 사오정이 함께 눈을 돌려 보니, 그곳은 눈처럼 하얗고 밝으며 은빛처럼 번쩍거리고 있었다. 저팔계가 말했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스승님이 요괴를 만난 게 분명해. 어서 가서 구하자!"

손오공이 말했다.

"이놈아, 떠들지 마라. 내가 직접 보지도 않고 그러느냐. 일단 이 몸이 다녀오마."

사오정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형님, 조심하세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걱정 마라, 다 방법이 있으니."

"좋아, 대성님께서 나서시겠다!"

손오공은 호랑이 가죽 치마를 질끈 묶어 매고 금고봉을 휘두르며 앞으로 성큼성큼 달려 나갔다. 다리를 넓게 벌리고 두세 걸음 만에 앞쪽에 다다랐는데, 보니 거미줄이 천와만락의 겹처럼 수천수만 겹으로 얹히고설켜 마치 벼들의 낱실과 씨실처럼 뻑뻑하게 엉겨 있었다. 손으로 꼭 눌러보니 끈적끈적하고 부드러운 것이 손에 착 달라붙었다. 손오공은 이것이 대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금고봉을 들어 올리며 외쳤다. "이 막대기라면 몇천 겹이 아니라 몇만 겹이라 해도 단번에 부숴버릴 수 있다!"

막 한 대 내리치려던 찰나, 손오공은 동작을 멈추고 혼잣말을 했다.
"만약 딱딱한 것이라면 때려 부수면 그만이지만, 이렇게 말랑말랑한
것이라면 때려봤자 소용없겠구나. 자칫 잘못 건드려서 저놈들이 놀라
나를 칭칭 감아버리기라도 하면 오히려 일이 꼬일 테니, 일단 물어보고
나서 때려야겠다."

"그가 누구를 물었는지 아느냐?" 손오공이 주문을 외우며 손가락을
팅기자, 토지신이 마치 맷돌이라도 돌리는 것처럼 사당 안에서 정신없
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토지신 할아버지가 말했다. "여보, 왜 이렇게 도는 거요? 무슨 바람
이라도 불었소?"

토지신이 대답했다. "당신은 몰라요, 정말 몰라요. 제천대성이 나타
났는데 내가 마중을 나가지 못했더니, 저분이 나를 붙잡아 두고 돌리고
있단 말ियो."

할머니가 말했다. "그럼 가서 만나면 될 것 아니요? 왜 여기서 뱅뱅
돌고만 있소?"

토지신이 말했다. "가서 만나면 그놈의 몽둥이가 얼마나 무겁겠소?
내 잘못을 따지며 사정없이 때릴 게 뻔한데!"

할머니가 말했다. "그 양반이 당신처럼 늙은 사람을 보고 때리겠소?"

토지신이 말했다. "그 양반은 평생 술과 고기를 좋아하면서, 유독 노
인네들 때리는 걸 즐긴단 말ियो."

두 노인이 한참을 실랑이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 길가에
벌벌 떨며 무릎을 꿇고 외쳤다. "대성님, 이 지역을 지키는 토지신이
머리를 조아려 인사 올립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만 일어나게. 애써 애쓸 것 없네. 내가 자네를
때리지는 않을 테니 일단 거기 그대로 있게나. 묻겠는데, 이곳은 대체
어디인가?"

토지신이 물었다. "대성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동쪽 땅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이라네."

토지신이 물었다. "대성님께서 동쪽에서 오셨다면, 혹시 저 산령을
지나오셨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방금 그 산령을 지나왔네. 우리 짐과 말도 아직
그 고개에 쉬게 해두었지!"

토지신이 말했다. "그곳은 판사령이라 부릅니다. 고개 아래에는 판
사동이라는 동굴이 있는데, 그 안에는 요괴 일곱 명이 살고 있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그 요괴들이 남자냐, 여자냐?"

토지신이 대답했다. "여자 요괴들입니다."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그놈들의 신통력이 얼마나 대단하더냐?"

토지신이 말했다. "저 같은 미천한 신은 그놈들의 수단이 얼마나 대
단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저 남쪽으로 3리쯤 떨어진 곳에 탁구천

이라는 샘이 하나 있는데, 그곳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연 온천으로 원래 상계의 일곱 선녀가 목욕하던 곳입니다. 요괴들이 이곳에 자리 잡으면서 그 샘을 차지해 버렸는데, 선녀들도 요괴들과 다투지 않고 그냥 내어준 모양입니다. 천선들이 요괴와 싸우지 않는 것을 보니, 필시 저 요괴들이 대단한 능력을 갖춘 모양입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그 샘을 차지해서 무엇을 한단 말이냐?"

토지신이 대답했다. "그 요괴들이 목욕탕을 차지하고는 하루에 세 번씩 나와서 목욕을 합니다. 지금 보니 벌써 사시(巳時, 오전 9~11시)가 지나 정오가 다 되어가는군요."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말했다. "토지신, 자네는 이만 돌아가게나. 내가 직접 그놈들을 상대하겠네."

토지신 할아버지는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한 뒤, 별벌 떨며 자신의 사당으로 돌아갔다.

손오공은神通력을 발휘해 몸을 흔들더니 순식간에 파리 한 마리로 변신하여 길가 풀끝에 내려앉아 기다렸다. 잠시 후, 마치 누에가 앞을 갉아먹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바닷물이 밀려오는 소리 같기도 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반 잔의 차를 마실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거미줄이 모두 사라졌고, 마을 풍경은 처음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때 "아!" 하는 소리와 함께 사립문이 열리더니, 안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며 일곱 명의 여인이 걸어 나왔다. 손오공은 어둠 속에서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여인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웃음꽃을 피우며 다리를 건너오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시로 이르되, "옥 같은 향기보다 뛰어나고, 꽃 같은 말씨는 더욱 생생하구나. 버들잎 같은 눈썹은 먼 산을 향해 있고, 앵두 같은 입술은 단아하도다. 비취 비녀는 머리에 꽂고, 붉은 치마 아래 금련화 신발이 반짝이니, 마치 상아 선녀가 세상에 내려온 듯,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앉은 듯하구나."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스승님이 왜 공양을 청하러 오셨는지 이제 알겠네. 알고 보니 이런 대단한 것들이 있었구나! 이 일곱 미녀가 만약 우리 스승님을 붙잡아 둔다면, 한 끼 식사로 쓰기에도 부족하고 이를 동안 써먹기에도 모자라겠어. 번갈아 가며 손을 댔다가는 순식간에 죽어버리겠는걸. 우선 내가 가서 저들이 무슨 속셈인지 좀 들어봐야겠다."

손오공이 "잉" 하고 소리를 내며 날아가더니, 앞서 가던 여인의 머리 모양 위에 딱 내려앉았다. 여인들이 다리를 건너오자, 뒤따라오던 이들이 앞서가는 이들을 향해 외쳤다. "언니들, 우리 얼른 목욕하고 와서 저 똥똥한 스님을 찌 먹으러 가자!" 손오공은 속으로 비웃으며 생각했다. '이 괴물들이 참으로 앞뒤가 안 맞는구나. 그냥 삶아 먹으면 땀감이라도 아낄 텐데, 왜 굳이 찌 먹겠다고 난리람?'

꽃을 꺾고 풀을 따며 놀던 여인들은 남쪽을 향해 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목욕탕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아주 웅장한 담장과 문이 있었고, 주변에는 화사한 들꽃이 만발했으며 난초와 혜초가 울창하게 우거

져 있었다. 여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더니 휘파람을 한 번 크게 불고는 두 쪽으로 된 문을 밀어 열었다. 그러자 그 가운데에 정말로 뜨거운 물이 담긴 연못이 나타났다.

이 물은 천지가 개벽한 이래, 본래 열 개의 태양 별이 있었으나 예(羿)가 활을 잘 쏘아 아홉 개의 까마귀(태양)를 떨어뜨린 뒤로 오직 금오(金烏) 한 별만이 남아 태양의 참된 불꽃이 되었다. 천지에는 아홉 곳의 온천이 있는데, 모두 그 까마귀(태양)들이 변해서 된 것이다. 구양천(九陽泉)에는 향랭천, 반산천, 온천, 동합천, 황산천, 효안천, 광분천, 탕천이 있으며, 바로 이곳이 탁구천(濯垢泉)이다.

시로 이르되, "계절의 흐름조차 잊은 채 봄기운만 영원히 머무니, 끓어오르는 물결은 가마솥 같고, 눈부신 파도는 갓 끓인 탕 같구나. 흐르는 물은 곡식을 길러내고, 고인 물은 세상의 먼지를 씻어내네. 방울방울 구슬 같은 눈물이 흐르고, 굽이굽이 옥 같은 진액이 솟구치니, 억지로 빛은 것이 아니어도 맑고 평온하며 절로 따스하구나. 이 땅의 상서로운 기운이 빼어나고 대자연의 섭리가 참으로 신비롭도다. 미인이 이곳에서 씻으면 얼음 같은 살결은 매끄러워지고, 옥 같은 몸은 번뇌를 씻어 새롭게 변하리라."

목욕탕 연못은 너비가 약 5장(丈), 길이는 10장이 넘었고 깊이는 4척 정도였는데, 물이 어찌나 맑은지 바닥이 흰히 들여다보였다. 물속에서는 마치 끓는 구슬과 옥이 떠오르는 듯 보였고, 사방에는 여섯 일곱 개의 구멍이 있어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물은 2~3리 밖 논밭까지 흘러가서도 여전히 따듯했다. 연못 위에는 세 칸짜리 정자가 있었다. 정자 안 뒷벽 근처에는 다리가 여덟 개 달린 의자가 놓여 있었고,

양옆에는 채색을 한 옷걸이 두 개가 있었다. 손오공은 속으로 신이 나서 "잉잉" 소리를 내며 옷걸이 꼭대기에 내려앉아 숨죽이고 지켜보았다.

여인들은 물이 맑고 따뜻한 것을 보고는 목욕을 하겠다며, 일제히 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어두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손오공이 그 광경을 지켜보니 다음과 같았다.

단추를 풀고 비단 띠를 느슨하게 푼 몸매는, 하얀 가슴은 은처럼 빛나고 옥 같은 몸은 눈처럼 깨끗하구나. 팔꿈치는 얼음처럼 매끄럽고 어깨는 가루를 빻은 듯 고우며, 배는 부드럽고 폭신하고 등은 매끈하고 깨끗하도다. 무릎과 손목은 둥글게 감싸고 금련 같은 발은 가녀린데, 그 사이로 아찔한 자태가 드러나니 참으로 요염하구나.

여인들은 모두 물속으로 뛰어들어 저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즐겁게 놀아댔다. 손오공이 말했다. "내가 저들을 혼내주려면, 그저 이 여의봉을 연못 속에 넣고 한바탕 휘저어버리면 그만이다. 그럼 뜨거운 물에 데인 쥐새끼들처럼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겠지. 가엾기도 해라, 가엾어! 하지만 저들을 때려죽이는 건 이 손오공의 명성에 먹칠하는 일이야. 옛말에 '사내와 계집은 싸우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 나 같은 대장부가 저런 계집애들을 때려죽이는 건 정말 체면이 안 서는 일이지. 차라리 때리지는 말고, 저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골탕을 먹이는 게 훨씬 낫겠어."

말을 마친 손오공은 주문을 외우며 몸을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굵주린 매로 변신했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깃털은 서리나 눈처럼 희고 눈은 별처럼 빛나며, 요사스러운 여우도 마주치면 혼이 나가고 영리한 토끼도 겁에 질려 숨어버리네. 강철 같은 발톱은 날카롭고 늠름한 기세는 웅장하니, 먹이를 잡기 위해 힘차게 날아다니며 구름 사이를 누비네. 만 리 허공을 자유로이 오가며 구름을 뚫고 물건을 낚아채는구나.

손오공은 날갯짓을 크게 하며 앞으로 날아가 날카로운 발톱을 휘둘렀다. 그러고는 옷걸이에 걸려 있던 일곱 벌의 옷을 모조리 낚아채 들고는, 곧장 고개 위로 날아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저팔계와 사오정을 찾아갔다.

그 멍청한 녀석이 마주 보며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은 원래 전당포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사오정이 물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저팔계가 거들었다. "형님이 저 옷들을 다 뺏어온 걸 못 봤어?"

손오공이 옷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요괴들이 입던 옷이다."

저팔계가 물었다. "어째서 이렇게나 많아?"

손오공이 대답했다. "일곱 벌이다."

저팔계가 다시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것도 깨끗하게 벗길 수 있었어?"

손오공이 말했다. "벗긴 게 아니다. 원래 이곳은 판사령이라 불리고, 저 마을은 판사동이라 불린다. 동굴 안에는 여자 요괴 일곱 마리가 사는데, 우리 스승님을 붙잡아 동굴 안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는 모두 탁구천으로 목욕하러 갔다. 그 샘은 천지 기운이 만들어낸 뜨거운 물이 담긴 연못 같은 곳이지. 그 요괴들은 목욕을 마친 뒤 스승님을 찢어 먹으려고 계획을 세웠더구나. 내가 그곳까지 따라가 보니, 요괴들이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보였다. 당장 때려주고 싶었지만, 자칫 내 여의봉이 더러워질까 봐 걱정됐고, 또 요괴를 상대로 싸우는 게 체면이 안 설 것 같아 손을 쓰지 않았다. 대신 굶주린 매로 변신해서 그들의 옷을 부리로 낚아채 온 것이다. 요괴들은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물속에 웅크리고 있더구나. 어서 가서 스승님을 구해 드리고 길을 떠나자."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 형님은 일을 할 때마다 늘 뒷수습이 문제라니까요. 요괴를 봤으면 어떻게 때려잡지 않고 바로 스승님부터 구하러 가려고 해요? 저들이 지금은 부끄러워서 못 나오더라도, 저녁이 되면 반드시 나올 거예요. 집에 있는 옛날 옷이라도 꺼내 입고 우리를 쫓아오겠지요. 설령 쫓아오지 않는다 해도, 저들이 이곳에 계속 살고 있으면 우리가 경전을 구하고 돌아올 때 또 저 길로 지나가야 하잖아요. 옛말에 '길가의 돈은 적어도 괜찮지만, 길가의 주먹은 아껴선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때 저들이 길을 막고 소란을 피우면, 결국 원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손오공이 물었다. "그럼 네 생각은 어떠냐?"

저팔계가 말했다. "제 생각에는, 먼저 요괴들을 때려잡은 다음에 스승님을 구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법이죠."

손오공이 말했다. "나는 때리지 않을 테니, 네가 싸우고 싶으면 네가 가서 싸워라."

저팔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못 이기는 척 쇠갈퀴를 치켜들고 성큼성큼 그곳으로 달려갔다. 문을 밀치고 안을 들여다보니, 일곱 여인 요괴가 물속에 쏙그려 앉아 매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저 깃털 달린 짐승 같은 놈! 재수 없는 놈 같으니라고! 우리 옷을 다 물어 가버리면 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그 모습을 본 저팔계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여보시오, 보살님들! 여기서 목욕 중이시오? 나 스님도 같이 씻게 해주는 게 어땠겠소?"

요괴들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외쳤다.

"이 스님아, 정말 무례하구나! 우리는 집안에 있는 여인네들이고 당신은 출가한 남자 아니냐. 옛글에 이르기를 '일곱 살이 되면 남녀는 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런데 감히 우리와 한 연못에서 씻겠다고?"

저팔계가 대꾸했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어찌겠소. 그냥 좀 같이 씻게 해 주구려. 무슨 옛날 책 타령을 하고 앉았소? 같이 씻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팔계는 쇠갈퀴를 내팽개치고 비단 도포까지 훌렁 벗어 던지더니, 덥석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요괴들은 기가 막혀 짜증이 난 나머지 한꺼번에 달려들어 저팔계를 때리려 했다. 하지만 저팔계는 물놀이에 아주 능숙했다. 물속에 들어간 그는 몸을 휙 돌리더니 순식간에 메기 요괴(魷魚精)로 변신했다.

요괴들은 메기를 잡으려고 허둥지둥 손을 뻗었지만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다. 동쪽에서 잡으려 하면 어느새 서쪽으로 달아나 버리고, 서쪽에서 잡으려 하면 다시 동쪽으로 튀어 나갔다. 미끌미끌하게 요괴들의 다리 사이를 요리조리 헤집고 다녔다. 물이 가슴 높이까지 깊은 데다, 저팔계가 물 위아래를 번갈아 가며 정신없이 휘젓고 다니니, 결국 요괴들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기운이 다 빠져 버렸다.

저팔계가 막 물속에서 뛰어올라 본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곧장 평상복으로 갈아입고는 삼지창을 움켜쥐며 호통을 쳤다.

"내가 누구냐고? 나를 무슨 메기 요괴로 아는 모양인데!"

요괴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저팔계에게 말했다.

"아까는 분명 스님이었는데, 물속에 들어가더니 메기로 변하더니만, 이제는 또 이런 차림이라니! 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이냐? 분명 이름을 남겨야겠구나."

저팔계가 말했다.

"이 요괴 녀석들이 정말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나는 동토 대당에서 경전을 구하러 가는 당승의 제자이자, 천봉원수였던 오능, 즉 저팔계다! 너희가 내 스승님을 동굴에 매달아 놓고 찌 먹으려고 찌를 부렸지? 내 스승님이 어디 그렇게 쉽게 찌 먹을 만한 분인 줄 아느냐? 어서 머리를 들이밀어라. 삼지창으로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

요괴들은 이 말을 듣자 혼비백산하여 물속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나으리,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눈이 멀어 귀한 분인 줄 모르고 스님을 잘못 잡았습니다. 비록 매달아 놓기는 했으나, 감히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비용을 좀 보태어 스님을 서천까지 잘 모셔드리겠습니다!"

저팔계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런 말은 집어치워라! 속담에 이르길, '설탕 파는 장수에게 속아본 사람은 입에 발린 소리를 믿지 않는다'고 했다. 내 삼지창으로 너희를 다 쓸어버릴 테니 각자 도망갈 길이나 찾아라!"

저팔계는 앞뒤 가릴 것 없이 무턱대고 덤벼들 뿐이었다. 요괴를 상대하는 데 연약한 여인을 아끼는 마음 따위가 있을 리 만무했다. 그는 갈퀴를 치켜든 채 선악도 구분하지 않고 요괴를 향해 마구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요괴들은 혼비백산하여 정신이 나갔다. 수치심을 따질 겨를도 없이 오직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요괴들은 손으로 급소를 가린 채 물 밖으로 뛰어올라 정자 위로 도망쳤다. 그리고는 요괴다운 기괴한 법술을 펼치기 시작했다. 배꼽에서 실타래 같은 줄이 실 새 없이 뿔어져 나오더니, 하늘을 가릴 만큼 커다란 거미줄 천을 만들어 저팔계를 그 안에 가두어 버렸다.

저팔계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으나 하늘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는 서둘러 몸을 빼내어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발을 뗄 수가 없었다. 알고 보니 바닥 전체가 거미줄로 얽혀 발을 묶어놓은 덫이었던 것이다. 발을 움직일 때마다 거미줄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다. 왼쪽으로 가려 하면 얼굴부터 땅에 처박혔고, 오른쪽으로 가려 하면 머리부터 땅에 박혔다. 급히 몸을 돌려보려 해도 입부터 땅에 닿을 정도로 얹어졌다. 겨우 기어 일어나 보려 해도 다시 몸이 공중에서 뒤집히며 넘어졌다.

대체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모른다. 저팔계는 온몸의 힘이 다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며, 눈앞이 어질어질하여 도저히 기어갈 기운조차 없었다. 결국 그는 땅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하며 누워 있을 뿐이었다.

요괴들은 그를 가두어 두기만 할 뿐,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다. 요괴들은 하나둘 문밖으로 뛰쳐나와 거미줄로 하늘을 가린 뒤 각자의 동굴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돌다리 위에 서서 주문을 외웠는데, 순식간에 거미줄이 거두어지자 요괴들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로 동굴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요괴들은 당승 앞에서 웃음꽃

을 피우며 지나쳐 돌방으로 들어갔고, 낡은 옷 몇 벌을 꺼내 입은 뒤 뒷문 앞에 서서 외쳤다.

"애들아, 다들 어디 있느냐?"

알고 보니 그 요괴들에게는 아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직접 낳은 자식은 아니었으나 의리로 맺은 양아들들이었다. 그 이름은 밀(蜜)·마(螞)·노(蠟)·반(班)·맹(蝻)·사(蜡)·청(蜻)이니, 밀은 꿀벌, 마는 말벌(螞蜂), 노는 노봉(蠟蜂), 반은 반모(가뢰), 맹은 메뚜기(牛蝻), 사는 마사(抹蜡), 청은 잠자리(蜻蜓)였다. 요괴들이 하늘에 거미줄을 쳐서 이 일곱 종류의 벌레를 잡아 온 것은 바로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였다. 옛말에 "짐승도 짐승의 말이 있고, 벌레도 벌레의 말이 있다"고 하더니, 당시 이 벌레들은 목숨을 구걸하며 자신들을 어머니로 모시겠다고 애원했다. 그리하여 이 벌레들은 봄에는 백 가지 꽃을 채집해 요괴에게 바치고, 여름에는 온갖 풀을 찾아 요괴를 봉양하며 지내왔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벌레들이 모두 앞으로 모여들어 물었다.

"어머니, 무슨 명령이라도 있으신가요?"

요괴들이 말했다.

"애들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당나라에서 온 스님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그 제자에게 연못에서 가로막혀 얼마나 큰 망신을 당하고 죽을 뻔했는지 모른다. 너희는 힘을 내어 어서 나가 그들을 물리치고 오너라. 만약 승리한다면 너희 외삼촌 댁으로 와서 나를 만나자꾸나."

요괴들은 목숨을 건졌으니 사형(師兄)에게로 가서 입을 놀려 재앙을 일으키려 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접어둔다. 자, 이 벌레들은 저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적을 맞이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한편, 저팔계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심하게 넘어졌다. 그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가 자신을 묶고 있던 거미줄과 밧줄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보고서야, 한 걸음 한 걸음 더듬거리며 기어서 겨우 일어났다. 그는 통증을 참으며 왔던 길을 되짚어 가다가 손오공을 발견하자,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했다.

"형님, 제 머리가 부어오르거나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지는 않았나요?"

손오공이 물었다.

"너는 어찌다 이 꼴이 되었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그 요괴 녀석이 거미줄로 저를 퐁퐁 묶고 발을 거는 밧줄까지 놓는 바람에, 얼마나 굴렀는지 모릅니다. 허리와 등이 다 부러질 것 같아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겨우 거미줄과 밧줄을 다 벗어던지고 목숨만 건져 돌아온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사오정이 말했다.

"이제 다 틀렸군요, 다 틀렸어. 당신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저 요괴들이 분명 동굴로 돌아가 스승님을 해치려 할 겁니다. 어서 가서 스승님을 구해야 해요."

손오공이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발걸음을 재촉해 달려갔고, 저팔계는 말을 끌며 뒤따랐다. 서둘러 장원 앞에 이르니, 석교 위에 일곱 마리의 작은 요괴들이 길을 막아서며 외쳤다. “게 섰거라, 게 섰거라! 우리가 여기 있다!”

손오공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다. “참 우습구나. 죄다 쥐꼬리만 한 놈들이로군. 키는 겨우 2척 5~6촌 정도로 3척도 안 되고, 몸무게는 8~9근밖에 안 되어 10근도 못 넘겠구나.” 손오공이 호통을 쳤다. “네놈들은 누구냐?”

요괴가 대답했다. “나는 일곱 선녀의 아들이다! 네놈이 우리 어머니를 괴롭혀 놓고도, 아무것도 모른 채 감히 우리 문 앞까지 쳐들어오다니! 어디 가지 마라, 각오해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요괴들이 제각기 정신없이 달려들었다. 본래 성미가 급하고 화가 많은 저팔계는, 요괴들이 워낙 작고 하찮은 벌레 놈들이라는 것을 보고는 독기를 품고 갈퀴를 휘둘렀다. 하지만 요괴들은 저팔계의 기세가 맹렬한 것을 보고는, 하나같이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며 소리쳤다. “변신!”

순식간에 한 마리가 열 마리가 되고, 열 마리가 백 마리가 되더니, 백 마리가 천 마리, 천 마리가 만 마리로 불어나 그 수가 끝도 없이 늘어났다. 그 광경은 이러했다.

하늘에는 좀벌레가 가득 날아다니고, 땅에는 잠자리들이 춤을 추네.
꿀벌과 개미는 머리와 이마를 쫓고, 벌들은 눈을 쏘아대네. 털벌레는
앞뒤로 물어뜯고, 메뚜기는 위아래로 쏘아대니, 얼굴을 덮은 검은 무
리에 신령과 귀신조차 깜짝 놀라 도망가네.

저팔계가 당황하여 외쳤다. “형님, 경전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더니,
서천 가는 길은 벌레들한테까지 괴롭힘을 당해야 합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동생아, 겁내지 마라. 어서 앞으로 나가서 싸워야지.” 저팔계
가 투덜거렸다. “머리부터 얼굴까지, 온몸을 십수 겹의 벌레들이 덮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싸운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걱정 마
라, 걱정 마. 나에게 다 방법이 있다.” 사오정이 거들었다. “형님, 무슨
방법이 있기에 그러십니까? 어서 좀 써 보십시오. 이러다 곧 대머리가
지 다 부어오르겠습니다.”

손오공은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아 입에 넣고 잘게 씹은 뒤 혹 하고
내뿜었다. 그러자 머리카락들이 순식간에 황응, 마응, 간응, 백응, 조
응, 어응, 요응이라는 일곱 마리의 매로 변했다.

저팔계가 물었다. "사형,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황이니, 마
니 하고 말이에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너는 모르는구나. 황은 황응이고, 마는 마응이
며, 간은 간응, 백은 백응, 조는 조응, 어는 어응, 요는 요응이다. 저 요
괴들의 자식은 일곱 종류의 벌레지만, 내 머리카락은 일곱 종류의 매란
말이다."

매는 벌레를 잡아먹는 데 아주 능했다. 매들은 한 입에 벌레를 하나씩 덥석 물고, 발톱으로 찌고 날개로 때리며 사정없이 공격했다. 순식간에 벌레들은 흔적도 없이 모두 사라졌고, 땅 위에는 벌레의 잔해들이 한 자 넘게 쌓였다.

세 형제가 방금 다리를 건너 동굴 안으로 들이닥치니, 스승님이 대들보에 거꾸로 매달린 채 끙끙거리며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저팔계가 가까이 다가가 말했다. "스승님, 여기서 거꾸로 매달려 장난이라도 치시려는 겁니까? 덕분에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세요?" 사오정이 말했다. "우선 스승님부터 내려드리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손오공이 즉시 밧줄을 톱 끊어 스승님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요괴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당승이 대답했다. "그 일곱 요괴가 모두 벌거숭이가 된 채로 뒤편에 있는 아들들을 부르러 갔다네." 손오공이 말했다. "형제들아, 나를 따라 그놈들을 찾으러 가자!"

세 사람은 각자 무기를 들고 뒷동산을 샅샅이 뒤졌으나, 요괴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 위까지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허사였다.

저팔계가 말했다. "도망갔나 보네, 도망갔어."

사오정이 말했다. "찾을 것 없습니다. 제가 스승님을 부축해 갈 테니 이만 가시지요."

제자들은 다시 앞으로 돌아와 당승을 말에 태웠다.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당신들이 스승님을 잘 모시고 가고 있어 봐요. 이 돼지가 갈퀴

를 가져와서 저 집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테니까. 올 때처럼 발붙일 곳도 없게 만들어 주겠어!"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집을 부수는 건 힘만 들지. 차라리 땀감을 좀 구해다가 아주 뿌리째 태워버리는 게 낫겠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손오공은 썩은 소나무와 부러진 대나무, 마른 버드나무와 마른 덩굴을 잔뜩 찾아내 불을 붙였다. 불길이 활활 타 오르며 요괴들의 거처를 깨끗이 태워버렸다. 그제야 스승과 제자들은 안심하고 길을 떠날 수 있었다.

어라! 과연 저곳에 가면 요괴가 어떤 상태일지, 길흉화복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니, 결국...은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3회 — 정 때문에 옛 원한이 재앙을 날고, 마음의 주인은 고난을 겪다

情因舊恨生災毒 心主遭{{另

제73회

판사동의 일곱 요괴가 일곱 가지 감정에 미혹되고 탁구천에서 저팔계가 제정신을 잃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손오공은 당삼장을 부축하며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큰길로 나서서 곧장 서쪽으로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득 겹겹이 쌓인 누각과 웅장하게 솟은 궁전 같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당삼장이 말 고삐를 당기며 물었다.

“제자야, 저곳은 대체 어떤 곳이냐?”

손오공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산은 누각을 감싸 안고, 시냇물은 정자와 대를 휘감아 흐른다. 문 앞에는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졌고, 집 밖에는 들꽃들이 화사하게 피었구나. 버들가지 사이 깃든 백로는 마치 안개 속의 옥처럼 티 없이 맑고, 복숭아나무 사이 지저귀는 꼬꼬리는 불 속에서 나온 금빛처럼 찬란하네. 들사슴들은 짝을 지어 푸른 풀밭을 한가로이 거닐고, 산새들은 짝을 지어 붉은 나무 끝에서 높이 날며 지저귀는구나. 마치 유신과 완조가 찾아갔던 천태동과 같으니, 신선이 사는 정원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겠도다.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저곳은 왕이나 제후의 저택도 아니고 부잣집도 아닌 듯합니다. 아마 암자나 도관, 혹은 사찰 같은 곳 같습니다. 직접 가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당삼장은 그 말을 듣고 말채찍을 휘둘러 말을 재촉했다. 스승과 제자들이 문 앞에 이르러 살펴보니, 문에는 돌판이 박혀 있었는데 그 위에 ‘황화관’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당삼장이 말에서 내리자 저팔계가 말했다.

“황화관이라면 도사들이 사는 곳이군요. 들어가서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록 입는 옷은 우리와 다르지만, 수행하는 도리는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오정도 거들었다.

“맞는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경치 구경도 좀 하고, 또 우리가 가진 물건을 팔아 식량을 좀 마련해야지요. 형편이 괜찮으면 스승님께서 드실 공양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삼장은 그 말에 따라 네 사람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문 위에는 이런 내용의 춘련이 붙어 있었다.

"노란 싹과 흰 눈이 어우러진 신선의 집이요, 보배로운 풀과 기이한 꽃이 만발한 도사의 집이라."

손오공이 보고 웃으며 말했다. "저건 벚짚 태워 약을 만들고, 화로에 불을 지피며, 단지를 들고 다니는 도사겠군요."

그러자 당삼장이 손오공을 나무라며 말했다. "말조심해라, 말조심해. 우리는 저분과 아는 사이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니, 잠시 머무는 동안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정전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동쪽 회랑에는 한 도사가 앉아 약을 빻고 있었다. 그의 차림새를 살펴보니 이러했다.

붉은빛이 선명한 금박 관을 쓰고, 검고 윤기가 흐르는 도포를 입었으며, 초록빛 구름무늬가 있는 신발을 신고, 노란색 여공 띠를 허리에 맸다. 얼굴은 오이처럼 길고 단단해 보였으며, 눈은 밝은 별처럼 빛났다. 코는 높고 커서 회회(回回, 서역) 사람 같았고, 입술은 젖혀진 모양이 마치 달단(達達, 타타르) 사람 같았다.

도심(道心)은 천둥소리를 품은 듯 깊고, 호랑이를 굴복시키고 용을 항복시키는 참된 도사로다.

당삼장이 그를 보고 엄숙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노신선님, 빈승이 문안 올립니다."

도사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더니, 손오공 일행을 보고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약을 떨어뜨렸다. 그는 얼른 비녀를 누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계단을 내려와 맞이했다. "어르신, 마중이 늦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당삼장은 기뻐하며 전각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삼청성상이 모셔져 있었고, 제단 위에는 향로와 향이 놓여 있었다. 당삼장은 향을 피워 향로에 넣고 세 번 절을 올린 뒤에야 도사에게 예를 갖추었다. 이어 손님석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당삼장이 급히 선동(仙童, 도사의 시종)을 불러 차를 내오라고 했다. 그러자 어린 시종들이 안으로 들어가 찻상을 찾고, 찻잔을 씻고, 찻순가락을 닦고, 다과를 준비하느라 분주히 움직였는데, 이 소동이 어느새 안에 있던 그 원수 같은 요괴들을 놀라게 하고 말았다.

알고 보니 판사동의 일곱 거미 요괴는 이 도사와 한집에서 함께 무예를 배운 사이였다. 그들은 (탁구천에서 변을 당한 뒤) 예전 옷으로 갈아입고 아들들을 불러내어 곧장 이곳으로 와 있었다. 요괴 중 하나가 뒤에서 옷을 재단하고 있는데, 문득 동자가 차를 나르는 것을 보고 물었다.

“얘야, 손님이 왔기에 그리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냐?”

동자가 대답했다.

“방금 스님 네 분이 들어오셨는데, 스승님께서 차를 내오라고 하셨어요.”

요괴가 다시 물었다.

“혹시 피부가 희고 통통한 스님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또 입이 길고 귀가 큰 스님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요괴가 명령했다.

“어서 가서 차를 내드리고, 스승님께 눈짓을 보내거라. 스승님을 이리로 모셔 오라고 해. 내 드릴 건히 할 말이 있다.”

과연 동자가 차 다섯 잔을 가지고 나가자, 도사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두 손으로 차 한 잔을 받들어 당삼장에게 건넸다. 이어 저팔계와 사오정, 손오공에게도 차를 나누어 주었다. 차를 다 내어준 도사가 찻잔을 거두려는데, 동자가 눈짓을 보내자 도사는 몸을 굽히며 말했다.

“여러 분, 앉으시지요.”

그리고는 동자에게 “차 쟁반을 가져다 놓고 곁에서 모시게 해라. 나는 잠시 다녀오마”라고 일렀다. 이때 당삼장과 제자들, 그리고 동자 한 명은 전각 밖으로 나가 구경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편, 도사가 방 안으로 들어서니 일곱 여자가 일제히 무릎을 꿇고 외쳤다. "사형, 사형! 저희 말 좀 들어보세요."

도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부축하며 말했다. "너희가 아침에 왔을 때 무슨 말을 하려 했느냐? 마침 오늘 조제한 약이 음기를 만나면 안 되는 것이라 대답을 못 해준 것이다. 지금 밖에는 손님도 와 있으니, 할 말이 있으면 천천히 나중에 하자꾸나."

요괴들이 말했다. "사형께 아뢰니다. 이 일은 손님이 왔기에 감히 말쑥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손님이 가고 나면, 말쑥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사가 웃으며 말했다. "얘들아, 네 말이 어찌 손님이 왔기에 말한다는 것이냐? 정말 미쳤구나! 내가 비록 수행에 힘쓰는 신선은 아닐지언정, 설령 처자식이 있는 속세의 사람이라 해도 손님이 떠난 뒤에 집안 일을 돌보는 법이다. 어찌 이리 어리석게 나를 속이려 드느냐? 비켜라, 나가야겠다."

그러자 요괴들이 일제히 도사를 붙들며 말했다. "사형, 화를 가라앉히세요. 여쭙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그 손님은 어디서 온 사람인가요?"

도사는 얼굴을 꺾 돌리며 대답하지 않았다. 요괴들이 다시 물었다.
"방금 어린 동자가 차를 가지러 들어올 때 들었는데, 스님이 넷이라고 하더군요."

도사가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스님이면 좀 어떠냐?"

요괴들이 대답했다. "스님 넷 중에 얼굴이 하얗고 뚱뚱한 이가 하나 있고, 입이 길고 귀가 큰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형께서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셨나요?"

도사가 말했다. "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긴 하더구나. 그런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혹시 오는 길에 그들을 본 것이냐?"

여인이 말했다. "사형께서는 이 사정을 미처 모르셨군요. 저 스님은 당나라에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 동굴에 공양을 받으러 왔기에, 저희 자매들이 당삼장의 이름을 듣고 그를 붙잡아 두었던 것이예요."

그러자 도사가 물었다. "그를 잡아다 무엇을 하려 했느냐?"

여인이 대답했다. "사람들 말로는 당삼장이 열 번의 생을 거쳐 수행한 진정한 몸이라, 그의 고기 한 점만 먹어도 수명이 늘어나고 장생할 수 있다고 하기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크고 귀가 커다란 저팔계라는 스님이 저희를 탁구천에서 가로막더니, 먼저 옷을 빼앗고는 요술을 부려 저희와 억지로 목욕을 하려 들었습니다.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지요. 그러더니 물속으로 뛰어들어 메기처럼 변하더니, 저희 다리 사이를 이리저리 파고들며 음탕한 짓을 하려 들었습니다. 정말이

지 아주 비열하고 파렴치한 놈이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물 밖으로 튀어나와 본모습을 드러내더니, 저희가 따르지 않자 구치파(九齒釘鉋)를 휘둘러 저희 목숨을 해치려 했습니다. 저희가 그나마 약간의 식견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그의 독수에 당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겁에 질려 겨우 도망쳐 나온 것이지요. 게다가 당신의 어리석은 조카까지 그와 맞서 싸우고 있으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형을 찾아온 것이니, 옛날 함께 공부하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부디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도사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목소리를 바꾸며 말했다. "그 스님이 원래 그렇게 무례하고 파렴치한 놈이었다 말이나? 너희는 안심하고 있어라. 내가 그놈을 손봐주마."

여인들이 고마워하며 말했다. "사형께서 손을 쓰신다면 저희도 모두 달려들어 그놈을 함께 때려주겠습니다."

도사가 말했다. "때릴 필요 없다, 때릴 필요 없어. 흔히들 '한 번 손찌검을 하면 그만큼 제 체면이 깎인다'고 하지 않느냐. 모두 나를 따라오너라."

여인들이 그를 좌우에서 따랐다. 도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 사다리를 가져온 뒤, 침상 뒤로 돌아가 들보 위로 기어 올라가더니 작은 가죽 상자 하나를 내려왔다. 그 상자는 높이가 여덟 치, 길이는 한 자, 너비는 네 치 정도였는데, 위에는 작은 구리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도사는 소매 속에서 연노란색 비단 손수건을 꺼냈는데, 그 손수건 술 끝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자물쇠를 열고 상자 안에서 약 한 봉지를 꺼내니, 그 약은 이러했다.

"산속 온갖 새들의 똥을 쓸어 모아 천 근이 넘게 쌓아두었다가 구리 솥에 넣고 삶으며 불 조절을 고르게 하여 달인다. 천 근을 달여 한 국자를 얻고, 한 국자를 정련해 삼 푼을 얻으며, 그 삼 푼을 다시 볶고 거듭 달구고 거듭 훈증하여 보물보다 귀한 이 독약을 만들었으니 이 맛을 보는 자는 입에 넣자마자 염라대왕을 만나게 되리라."

도사가 일곱 여인에게 말했다. "얘들아, 이 보물은 범인에게 먹이면 단 일 리(一釐)만 들어가도 즉사하고, 신선에게 먹인다 해도 삼 리(三釐)면 숨이 끊어진다. 저 스님들은 도력이 좀 있을지 모르니 삼 리는 써야겠다. 어서 저울을 가져오너라."

그러자 여인 중 하나가 급히 저울을 가져와 말했다. "일 분 이 리(一分二釐)를 달아서 네 뚝으로 나누겠습니다." 여인은 붉은 대추 열두 알을 가져와 대추를 약간 으갠 뒤, 한 알마다 일 리씩 채워 찻잔 네 개에 나누어 담았다. 그리고 검은 대추 두 알을 한 찻잔에 담아 쟁반에 받쳐 들고 여인들에게 말했다. "내가 가서 물어보겠다. 만약 당나라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돌아오겠지만, 만약 당나라에서 온 이들이라면 차를 바꾸라고 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아이를 시켜 이 차를 내어놓거라. 이 차를 마시면 모두 죽게 될 테니, 너희의 원한을 갚고 번뇌도 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일곱 여인은 감격해 마지않았다.

도사는 옷을 갈아입고 나와 공손하게 예를 갖추더니, 당삼장 일행을 다시 손님 자리로 안내하며 말했다. "스님, 부디 노여워 마십시오. 방

금 뒤편에 가서 제 제자들에게 채소와 무를 좀 골라오라고 일러, 정성껏 채식 공양을 준비하게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자 당삼장이 말했다. “부족한 승려가 절을 올리러 온 것인데, 어찌 감히 이런 대접을 받겠습니까?” 도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스님과 저 모두 출가한 몸인데, 산문만 지켜도 녹봉이 세 되나 나오니 어찌 대접받을 몸이라 하겠습니까? 그나저나 스님께서는 어느 보배로운 산에서 오셨으며, 이곳에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당삼장이 답했다. “소승은 동토 대당의 명을 받들어 서천 대뢰음사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마침 이곳 선궁을 지나게 되어 정성껏 예를 올리러 들렀습니다.” 도사는 그 말을 듣자 얼굴에 화색이 돌며 말했다. “스님께서 그토록 충직하고 덕 높은 불법을 닦는 분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으니 부디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러고는 아이를 불러 외쳤다. “애야, 어서 가서 차를 새로 가져오너라! 공양도 서둘러 준비하고!” 아이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요괴 여인들이 그를 불러 세우며 말했다. “여기 이미 좋은 차가 있으니 그걸 내오너라.” 아이는 과연 미리 준비해 둔 다섯 잔의 차를 가지고 나왔다. 도사는 얼른 두 손으로 붉은 대추가 띄워진 찻잔을 받들어 당삼장에게 먼저 올렸다. 그러고는 팔계의 체구가 큰 것을 보고 첫째 제자로 삼아 차를 올렸고, 사오정을 둘째 제자로 삼아 두 번째 잔을 올렸다. 손오공은 체구가 작아 셋째 제자로 여기고 네 번째 잔이 되어서야 비로소 손오공에게 차를 올렸다.

손오공은 눈썹미가 예리하여 찻잔을 건네받을 때, 이미 쟁반 위에 놓인 찻잔 속의 대추 두 알이 검은색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손오공이 말했다. “선생님, 저와 잔을 바꿉시다.”

그러자 도사가 웃으며 말했다. "장로님께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자면, 이 산골짜에서 수행하는 미천한 도사라 차와 과일을 제때 갖추어 두지 못했습니다. 방금 뒤에 가서 직접 과일을 찾아왔는데, 겨우 붉은 대추 열두 알뿐이라 네 잔의 차를 대접하기에도 모자랍니다. 빈 잔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기에, 색이 조금 어두운 대추 두 알을 넣어 한 잔을 채웠으니 이는 저의 정성이라 여겨 주십시오."

손오공이 웃으며 대꾸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옛말에 '집에 있으면 가난한 게 아니나, 길에서의 가난이야말로 사람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정착해 사는 분인데 어찌 가난하다 하십니까! 우리처럼 길 위에서 떠도는 승려들이야말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지요. 자, 저와 바꿉시다. 저와 바꿉시다."

그 말을 들은 당삼장이 말했다. "오공아, 이 선사님은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려는 마음인 것이니, 그냥 마시거라. 어찌 잔을 바꾼단 말이냐?"

손오공은 어쩔 수 없이 왼손으로 찻잔을 받으며 오른손으로 그 위를 덮어버린 채, 그들을 지켜보았다.

한편, 저팔계는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다. 워낙 먹성이 좋은 탓에 종 안에 든 붉은 대추 세 알을 보자마자 덥석 집어 입안으로 꿀꺽 삼켜버렸다. 당삼장과 사오정도 그 대추를 함께 먹었다. 그런데 순식간에 저팔계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사오정은 눈물을 펄펄 흘리고, 당삼장은 입에서 침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다. 세 사람 모두 제대로 앉아 있지 못한 채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손오공은 차에 독이 든 것을 눈치채고는 찻종을 높이 들어 올려 도사의 얼굴을 향해 내동댕이쳤다. 도사가 소매를 들어 막아냈으나, '챙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찻종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도사가 화를 내며 말했다. "이 중놈이 정말 무지몽매하구나! 어찌 감히 내 찻종을 깨뜨린단 말이냐?"

손오공이 욕설을 퍼부었다. "이 짐승 같은 놈! 내 동료 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보이지 않느냐?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라고 감히 독차를 내어 내 사람들을 해치려 드느냐?"

도사가 대꾸했다. "이 무지한 짐승 같은 놈아, 네놈이 저지른 잘못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

손오공이 맞받아쳤다. "우리는 이제 막 네 문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아 고향이 어디인지 인사를 나누었을 뿐이다. 아직 큰소리 한 번 낸 적이 없는데,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이냐?"

도사가 말했다. "네놈이 판사동에서 공양을 올린 적이 없느냐? 탁구천에서 목욕을 한 적은 없고?"

손오공이 외쳤다. "탁구천이라니, 그곳은 일곱 거미 요괴들이 사는 곳이 아니냐! 네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걸 보니 분명 그 요괴들과 한 패인 요괴임이 틀림없구나. 어디 가지 마라, 내 몽둥이 맛을 봐라!"

손오공은 귀 속에서 금고봉을 꺼내 휘둘렀다. 밥그릇만 한 크기의 몽둥이를 도사의 얼굴을 향해 거세게 휘둘렀다. 도사는 급히 몸을 돌려 피하며 보검을 뽑아 들고 맞서 싸우려 했다.

저 둘이 서로 욕설을 퍼부으며 싸우는 소리에 안쪽에 있던 요괴들이 깜짝 놀랐다. 일곱 요괴가 한꺼번에 몰려나오며 외쳤다. "사형, 애쓰지 마세요. 저희가 저놈을 잡아 올게요!"

그 모습을 본 손오공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양손으로 철봉을 휘두르며 온갖 재주를 부려 요괴들 사이로 굴러 들어가 마구 공격했다. 그런데 그 일곱 요괴가 갑자기 가슴을 활짝 열더니, 하얗고 매끄러운 배를 내밀고는 배꼽 구멍에서 술법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배꼽에서 거미줄이 뭉게뭉게 마구 뿜어져 나오더니, 마치 하늘을 덮는 천막처럼 손오공을 덮어 그 아래 가두어 버렸다.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직감한 손오공은 즉시 몸을 돌려 주문을 외운 뒤, 공중제비를 한 번 돌며 그 천막을 뚫고 빠져나왔다. 그는 뚫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공중에 가만히 서서 상황을 살폈다. 요괴들이 내뿜은 실줄들이 번쩍이며 사방으로 뻗어 나갔는데, 그것은 마치 벼들의 낱실과 씨실처럼 얹히고설켜 순식간에 황화관의 누각과 전각들을 흔적도 없이 덮어버렸다.

손오공이 말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군, 보통 일이 아니야. 조금만 늦었어도 당할 뻔했어. 저팔계가 왜 그렇게 많이 얻어맞았는지 이제 알겠군. 이런 상황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스승님과 사제들은 독약에 당해 쓰러져 있는데 말이야. 저 요괴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움직이니,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겠구나. 다시 토지신에게 가서 물어봐야겠다."

과연 대성다웠다. 그는 구름을 내려 손으로 결(訣)을 맺고 ‘옴(唵)’자 진언을 외워, 그 토지 노인을 다시 불러왔다. 토지신은 겁에 질린 채 길가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대성님, 스승님을 구하러 가셔야 할 분이 어찌하여 다시 이리로 돌아오셨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아침에 스승님을 구하고 멀리 가지 못했는데, 황화관이라는 곳을 만났어. 스승님과 함께 들어가 보았더니 관주가 마중을 하더군.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그놈이 독약을 탄 차를 스승님 일행에게 부었지 뭐야. 다행히 나는 차를 마시지 않아서 곧장 몽둥이를 휘둘러 싸웠다네. 그놈이 판사동에서 공양을 받았고 탁구천에서 목욕을 했다는 이야기를 꺼내기에, 나는 단번에 그자가 요괴라는 걸 알아차렸지. 막 싸우려는데 갑자기 여자 일곱 명이 뛰어나오더니 거미줄 같은 실을 뿜어내더군. 내가 다행히 식견이 있어 얼른 빠져나오긴 했지만 말이야. 네가 이곳을 지키는 신이니 그놈의 정체를 분명히 알 테지? 어떤 요괴인지 사실대로 말해라. 그래야 매를 면할 테니!”

토지신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그 요괴가 이곳에 온 지는 1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점검한 뒤에야 비로소 그놈의 본모습을 보았는데, 바로 일곱 마리의 거미 요괴였습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실은 바로 거미줄이었습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네 말을 들으니 별것 아니로구나! 알았다, 이제 그만 돌아가 있거라. 내가 법술을 써서 그놈을 항복시켜 주마.”

토지신은 머리를 조아린 뒤 물러갔다.

손오공은 황화관 밖으로 가서 꼬리에 난 털 일흔 가닥을 뽑아 입으로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털은 곧 일흔 명의 작은 손오공으로 변했다. 이어 여의금고봉에 대고 다시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금고봉은 일흔한 개의 두 갈래 창으로 변했다. 작은 손오공들은 저마다 창을 하나씩 나누어 들고 손오공 자신도 창 하나를 쥐었다. 그들은 밖에서 창으로 밧줄을 휘저으며 일제히 힘을 모아 구멍을 불어 밧줄을 모두 끊어버렸는데, 끊어낸 밧줄의 무게만 해도 십여 근에 달했다.

밧줄이 끊어지자 안에서 일곱 마리의 거미 요괴가 끌려 나왔다. 거미들의 몸집은 커다란 바구니만 했고, 하나같이 손발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린 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며 빌어댔다. 하지만 일흔 명의 작은 손오공이 일곱 거미 요괴를 짹 누르고 있으니 그들을 놓아줄 리 없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함부로 때리지는 마라. 다만 내 스승님과 사제들을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자 요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사형, 제발 당삼장을 돌려주고 제 목숨을 구해주세요!" 이때 안에서 도사가 달려 나오며 말했다. "얘야, 나는 당삼장을 잡아먹어야 하니 너를 구해줄 수가 없구나."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네가 내 스승님을 돌려주지 않겠다면, 네 동생들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아라!" 대성 손오공은 창을 휘둘러 다시 원래의 철봉으로 되돌린 뒤, 두 손으로 높이 치켜들어 일곱 거미 요괴를 마음껏 두들겨 패서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손오공은 꼬리를 두어 번 흔들며 휘두르고는 몸에 붙은 털을 거두어 들였다. 그러고는 홀로 여의봉을 휘두르며 도사를 잡으려 안으로 들이닥쳤다. 도사는 손오공이 자신의 사매를 때려죽인 것을 보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듯, 분노를 터뜨리며 검을 들어 맞섰다. 양측 모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른 상태에서 저마다의 신통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다. 싸움이 한창 격렬해지니 다음과 같이 노래할 만했다.

시로 이르되, 요괴는 보검을 휘두르고 대성은 금고봉을 치켜드니, 모두 당나라 삼장법사를 위하여 일곱 여인을 먼저 올게 하도다. 이제 도술을 부려 위세를 떨치며 법력을 펼쳐 보이니, 대성의 신령한 빛은 장엄하고 요괴의 배짱은 무지막지하구나. 온갖 재주를 꽃처럼 화려하게 펼치며, 양손을 움직이는 기세는 마치 물레가 돌아가는 듯하네. 창강창강 검과 봉이 부딪치는 소리 요란하고, 음산한 들판의 구름만 떠다니는구나. 말을 내뱉고 계책을 부리며,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도다. 바람이 휘몰아치고 모래가 날리니 호랑이조차 겁을 먹고, 하늘과 땅이 뒤섞여 별들이 요동치는구나.

도사는 손오공과 대여섯 십 합을 넘게 싸우다 보니 점차 팔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순간 몸의 긴장이 풀리자, 그는 갑자기 웃음을 풀어헤치더니 획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도포를 벗어 던졌다. 이를 본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보게, 싸움에서 질 것 같으면 옷이라도 벗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알고 보니 그 도사는 옷을 벗어 던지고 양손을 한꺼번에 치켜들었는데, 양옆 옆구리 아래에 천 개의 눈이 달려 있었다. 그 눈에서는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와 그 위세가 실로 대단했다.

시로 이르되, "자옥한 황색 안개요, 눈부신 금빛 광채라. 자옥한 황색 안개는 양옆 옆구리에서 구름처럼 뿜어져 나오고, 눈부신 금빛 광채는 천 개의 눈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네. 좌우는 마치 금통 같고, 동서는 마치 구리 종 같구나. 이것은 요괴 선인이 법력을 펼치고 도사가 신통력을 드러낸 것이니, 눈을 어지럽혀 하늘을 가리고 해와 달을 덮으며, 사람을 후끈한 열기로 감싸 정신을 아득하게 하니, 제천대성 손오공조차 금빛과 황색 안개 속에 갇히고 말았네."

손오공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금빛 그림자 속에서 이리저리 정신없이 움직였지만,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뒤로 물러나려 해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커다란 통 안에 갇혀 뱅뱅 도는 기분이었다. 게다가 후끈거리는 열기를 견딜 수 없게 되자, 손오공은 다급한 마음에 위로 힘껏 뛰어올랐으나, 그만 금빛에 부딪히는 바람에 거꾸로 땅에 처박히고 말았다. 머리가 너무 아파 손을 뻗어 만져보니 정수리 가죽이 다 흐물거릴 정도였다.

손오공은 속이 타들어 가며 투덜거렸다. "재수 없지, 정말 재수가 없어! 오늘 이 머리통이 아주 끝장이로구나. 평소에는 칼로 베고 도끼로 찍어도 멀쩡하더니, 어찌 이놈의 금빛에 부딪혔다고 살점이 흐물흐물

해진단 말이나? 나중에 분명 고름이 터져 나올 게 분명해. 설령 낫는다 해도 파상풍이라도 걸리면 어쩌나."

잠시 열기에 시달리던 손오공은 다시 머리를 굴리며 궁리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왼쪽 오른쪽도 못 가고, 위로 뛰어올라도 부딪히기만 하니 대체 어쩌란 말인가? 에라 모르겠다, 밑으로라도 가야지!"

과연 대성다웠다. 그는 주문을 외우며 몸을 한 번 흔들며 천산갑(穿山甲)으로 변했으니, 이는 능리린(鯪鯉鱗)이라고도 부르는 짐승이었다. 그 모습은 참으로 이려했다.

시로 이르되, "네 개의 철 발톱은 돌가루를 뺨듯 산을 뚫고 바위를 부수며, 온몸의 비늘 갑옷은 파를 찢 듯 고개를 넘고 바위를 파고드네. 두 눈은 번쩍이며 쌍둥이 별처럼 빛나고, 날카로운 입은 강철 송곳보다 매서워 금도 뚫을 듯하구나. 약재로도 쓰이는 천산갑을, 속된 말로 능리린이라 부른다네."

손오공이 머리를 단단히 세우고 땅속으로 파고드니, 이십여 리를 지나서야 겨우 머리를 내밀었다. 알고 보니 그 금빛 광채가 미치는 범위는 십여 리 정도였다. 땅 위로 올라온 손오공은 본래 모습을 되찾았으나,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마비가 온 듯 통증이 심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스승님! 그 옛날 가르침을 받들어 산을 나서서, 함께 서천으로 향하며 이토록 고생하며 애를 썼건만, 넓고 큰 바다의 거센 파도에도 두려움이 없었거늘, 고작 길가 도랑 같은 데서 풍파를 만날 줄이야!"

손오공이 한창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문득 산 뒤편에서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몸을 굽혀 눈물을 닦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한 여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왼손에는 찬 죽 한 그릇을 받쳐 들고 오른손에는 태워 바칠 종이돈을 몇 장 쥐고 있었다. 여인은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울음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다.

손오공이 고개를 끄덕이며 탄식했다. “정말이지 ‘눈물 흘리는 이가 눈물 흘리는 이를 만나고, 애끓는 이가 애끓는 이를 만났구나’라는 말이 딱 맞네. 저 여인은 대체 무엇 때문에 저토록 슬피 우는 것일까?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여인이 이윽고 손오공 앞으로 다가왔다. 손오공이 몸을 낮추어 정중히 물었다. “보살님, 대체 누구 때문에 그리 우시는 겁니까?”

여인이 눈물을 머금은 채 대답했다. “제 남편이 황화관 관주와 대나무를 사는 문제로 다투다가, 그자가 내놓은 독차를 마시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돈을 태워 부부의 정을 기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를 본 여인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 무지한 사람 같으니! 나는 남편 때문에 슬픔에 잠겨 괴로워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눈물 섞인 얼굴로 슬픈 기색을 내비치며 나를 놀리는 것입니까?”

손오공이 몸을 굽히며 말했다.

"보살님, 노여움을 푸십시오. 저는 본래 동토 대당 황제께서 보내신, 황제의 의제(御弟)이신 당삼장 스승님의 큰제자 손오공입니다. 서천으

로 가는 길에 황화관에 들러 말을 쉬게 했는데, 그곳 도사가 어떤 요괴인지 일곱 거미 요괴와 남매처럼 지내고 있더군요. 그 거미 요괴들이 판사동에서 저희 스승님을 해치려 했기에, 저와 사제인 저팔계, 사오정이 힘을 합쳐 겨우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거미 요괴들이 도사에게 가서 저희가 자신들을 속였다고 이간질을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도사가 독약을 탄 차를 내어 저희 스승님과 저팔계, 사오정 세 사람과 말 네 마리까지 모두 그 관에 가뒤퍼렸습니다. 저만은 차를 마시지 않고 찻잔을 내동댕이쳐 깨뜨린 덕분에 싸울 수 있었지요. 한창 싸우고 있는데 그 일곱 거미 요괴가 달려 나와 거미줄을 뿜어 저를 꼼꼼 묶어버렸지만, 제가 법력을 써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 토지신께 여쭙어보니 그자의 정체를 알려주더군요. 저는 분신술을 써서 거미줄을 끊어버리고 요괴를 끌어내어 몽둥이로 두들겨 패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 도사가 복수를 하겠다고 보검을 들고 저와 맞붙었습니다.

예순 합을 싸우는 동안 그자가 패하더니, 갑자기 옷을 벗고는 옆구리 아래에서 천 개의 눈을 드러내어 만 갈래의 금빛 광채를 뿜어 저를 가두어버렸습니다. 그 빛에 갇혀 앞뒤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저는 겨우 능리린 같은 모습으로 변해 땅속으로 파고들어 겨우 도망쳤습니다. 한창 슬픔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보살님께서 우는 소리가 들리기에 여쭙어본 것입니다. 보살님께서서는 죽은 남편을 위해 종이돈을 태우며 정성을 다하시는데, 저희 스승님은 목숨을 잃으시고 보답할 길조차 없으니, 저 또한 원망스럽고 슬픈 마음에 스스로 비통해했을 뿐이지 어찌 감히 장난을 치겠습니까."

여인은 밥과 종이돈을 내려놓으며 손오공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한 줄 미처 몰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 그 도사를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그는 본래 백안마군이라 불리는 요괴로, 다목괴라고도 합니다. 당신이 그런 변신술을 쓰고 금광(금빛 광채)에서 벗어나 한참을 싸운 것을 보니 분명 큰 신통력을 지녔으나, 저놈에게는 도저히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군요. 제가 당신에게 성현 한 분을 찾아가 모셔오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라면 금광을 깨뜨리고 저 도사를 굴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대답했다. “보살님께서 그 내력을 알고 계시다니, 부디 길을 알려주십시오. 과연 그 성현을 찾아가 우리 스승님을 구해주시길 간청하고, 보살님의 남편을 죽인 원수도 갚겠습니다.”

여인이 말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가서 그분을 모셔오더라도, 도사를 물리쳐 원수를 갚는 것까지만 가능할 뿐 스승님을 구하지는 못할까 걱정됩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어찌 구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여인이 답했다. “저놈의 독약이 아주 지독합니다. 약을 먹으면 사흘 안에 골수까지 다 썩어 문드러지고 말지요. 당신이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을 것 같아 구하지 못할까 봐 그렇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저는 발이 빨라 아무리 멀어도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여인이 말했다. “발이 빠르다 해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이곳에서 그곳까지는 천 리나 되는 먼 길입니다. 저쪽 방향에 자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속 천화동에 비람파(毘藍婆)라는 성현이 계십니다. 그분만이 이 요괴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그 산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정남쪽 방향으로 쪽 가면 됩니다.”

손오공이 고개를 돌려 확인했을 때는 이미 여인이 사라지고 없었다. 손오공은 당황하여 급히 절을 올리며 말했다. “어느 보살님이십니까?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성함을 알려주셔야 나중에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그때 허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성, 바로 저입니다.”

손오공이 급히 고개를 들어 보니, 바로 여산노모(黎山老姆)였다. 그는 허공으로 솟구쳐 올라 감사를 표했다. “노모님, 어찌하여 저에게 길을 알려주러 오셨습니까?”

여산노모가 말했다. “방금 용화회(龍華會)에서 돌아오는 길에 당신 스승님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상복 입은 여인으로 변해 남편을 잃은 척하며 당신을 죽음에서 피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어서 가서 그분을 모셔 오세요. 다만, 제가 알려주었다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성현은 남을 탓하기를 좋아하는 면이 있거든요.”

손오공은 인사를 건네고 작별을 고한 뒤, 근두운을 타고 자운산으로 향했다. 구름을 가라앉히며 나아가니 천화동이 눈앞에 나타났다. 동굴 밖의 풍경은 이리했다.

푸른 소나무는 명승지를 가리고, 초록빛 측백나무는 신선의 거처를 감싸 안았네. 버드나무 가지는 산길마다 가득하고, 기이한 꽃들은 시냇가에 만발했구나. 향기로운 난초는 돌집을 에워싸고, 향긋한 풀은 바위 틈에 비치네. 흐르는 물은 시냇물과 이어져 푸르고, 구름은 고목을 감싸 허공에 떠 있네. 들새들은 짹짹거리며 울어대고, 고요한 사슴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네. 대나무 가지마다 빼어나게 뻗었고, 붉은 매화는 잎마다 활짝 피었구나. 까마귀는 고목에 깃들고, 봄새는 높은 나무 위에서 지저귀네. 여름 보리는 논에 가득하고, 가을 곡식은 들판에 넘쳐나네. 사계절 내내 낙엽 지는 일 없고, 여덟 계절 내내 꽃이 피어 있네. 매번 상서로운 기운은 하늘까지 닿고, 늘 상서로운 구름은 허공과 맞닿아 있구나.

손오공은 기분이 좋아 신이 나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길을 따라 걷는 내내 끝없이 펼쳐지는 절경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동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으나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고, 닭이나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손오공은 속으로 '성현께서 아마 집에 안 계신 모양이군' 하고 생각했다. 다시 몇 리를 더 들어가니, 한 여도사가 평상 위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머리에는 오색 비단으로 수놓은 모자를 쓰고, 몸에는 금실로 짠 도포를 입었으며, 발에는 구름 끝처럼 뽀족한 봉황 무늬 신을 신었고, 허

리에는 실을 꼬아 만든 수슬 달린 끈을 땀다. 얼굴은 서리 맞은 가을날처럼 기품 있고, 목소리는 봄날의 제비처럼 아리따구나. 오랫동안 삼승법(불교의 세 가지 가르침)을 익혀 마음속에 사제(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늘 닦으니, 공(空)의 참된 과보를 깨달아 스스로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도다. 이분이 바로 천화동의 부처라 불리는, 이름 높은 비람보살이다.

손오공은 발걸음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가 외쳤다. "비람보살님, 문안 올립니다!" 보살이 평상에서 내려와 합장하며 답했다. "대성, 마중나가지 못해 미안합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손오공이 물었다. "보살님께서서는 어찌 저를 대성이라 아십니까?" 비람보살이 말했다. "당신이 예전에 천계에서 크게 소동을 피웠을 때, 온 세상에 당신의 모습이 퍼졌으니 누가 모를 수 있겠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그야 '좋은 일은 문밖을 못 나가도, 나쁜 일은 천 리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불문에 귀의한 사실은 모르시나 봅시다?" 비람보살이 말했다. "언제 귀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손오공이 말을 이었다. "얼마 전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스승님인 당승께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시는 길에 황화관 도사를 만났는데, 그자가 독약을 섞은 차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그놈과 싸우는 동안, 그놈이 금빛 광채를 내뿜어 저를 가두는 바람에 겨우 신통력을 써서 빠져나왔습니다. 보살님께서 그 금빛을 없앨 수 있다고 들어서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비람보살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줬습니까? 저는 우란분회(불교의 큰 재)를 치르고 나서 300여 년 동안 문밖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름을 숨기고 은거하며 살아왔기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당신은 어찌 알았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저는

땅바닥을 구르는 요괴라, 그런 건 따지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비람보살이 말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본래는 가지 않으려 했으나, 대성께서 직접 오셨으니 경전을 구하려는 선한 뜻을 꺾을 수는 없지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손오공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말했다. "제가 너무 무지해서 경솔하게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비람보살이 대답했다. "내게 자수바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면 저놈을 물리칠 수 있느니라." 손오공은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다. "그 노파 때문에 일을 그르쳤군요. 진작 자수바늘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보살님께 수고를 끼치지 않고 손오공에게 한 꾸러미 달라고 했을 텐데요." 비람보살이 말했다. "네가 말하는 자수바늘은 그저 강철이나 금으로 만든 바늘일 뿐이라 쓸모가 없다. 내 보물은 강철도 아니고, 쇠도 아니며, 금도 아니다. 바로 내 아들의 눈에서 나온 것이란다." 손오공이 물었다. "아드님이 누구십니까?" 비람보살이 답했다. "내 아들은 묘일성관이야." 손오공은 깜짝 놀라 어쩔 줄을 몰랐다. 아까 눈부시게 번쩍이던 금빛이 어디서 오나 했더니, 곧바로 비람보살에게 향하며 말했다. "그 금빛이 비치는 곳이 바로 황화관이군요." 비람보살은 옷깃 속에서 눈썹 굽기만 하고 길이는 한 2센티미터 남짓한 자수바늘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집어 허공을 향해 휘 던졌다. 잠시 후, '핑' 하는 소리와 함께 금빛이 깨져 나갔다. 손오공이 기뻐하며 외쳤다. "보살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해요! 바늘을 찾아주십시오, 바늘을요!" 비람보살이 손바닥을 내보이며 말했다. "이것이 아니냐?" 하지만 손오공은 바늘을 챙기기도 전에 구름을 타고 급히 관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관에 들어가 보니 도사는 눈을 감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손오공이 욕을 하며 소리쳤다. “이 요괴 놈, 눈먼 척을 하고 있구나!” 그러고는 귀 뒤에서 여의봉을 꺼내 휘둘렀다. 비람보살이 급히 말했다. “대성, 때리지 마시오! 가서 그대의 스승님부터 살피시오.”

손오공이 뒤쪽 손님 자리로 가서 살펴보니, 세 사람 모두 바닥에 쓰러져 침과 거품을 흘리며 잠들어 있었다. 손오공은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 “이 일을 어찌면 종단 말인가, 이를 어찌면 종단 말인가!” 그러자 비람보살이 말했다. “손오공,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마침 내가 오늘 밖으로 나온 김에 덕을 쌓는 셈 치겠소. 여기 해독단이 있으니 세 알을 주겠소.” 손오공은 몸을 돌려 간절히 부탁했다. 보살이 소매 속에서 종이 꾸러미를 꺼내더니, 그 안에 든 붉은 알약 세 알을 손오공에게 건네며 입안에 넣어주라고 일렀다. 손오공은 그들의 입을 벌려 한 사람당 한 알씩 넣어주었다. 잠시 후, 약 기운이 배 속으로 퍼지자 세 사람은 일제히 구역질을 하며 독기를 모두 토해냈고, 마침내 목숨을 건졌다.

저팔계가 먼저 기어 일어나며 말했다. “아이고,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당삼장과 사오정도 모두 깨어나며 말했다. “정말 어지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당신들이 마신 차에 독이 들어 있었어요. 다행히 비람보살께서 구해 주셨으니, 어서 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시다.” 당삼장은 몸을 굽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정중히 감사를 표했다.

저팔계가 말했다. “사형, 그 도사는 어디 있습니까? 가서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따져 물어야겠습니다!”

손오공이 거미 요괴들이 저질렀던 일들을 차례대로 들려주자, 저팔계가 분을 참지 못하며 외쳤다. "그놈이 거미 요괴들과 자매 사이라면, 틀림없이 요괴가 분명합니다!"

손오공이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전각 밖에 서서 눈먼 척하고 있구나."

저팔계가 당장이라도 갈고리를 휘두르며 달려들려 하자, 비람보살이 그를 말리며 말했다. "천봉, 노여움을 가라앉히게. 대성께서 우리 동굴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시니, 저 자를 잡아다가 문지기로 쓰려고 하는 것이라네."

손오공이 말했다. "덕분에 큰 도움을 받으니 어찌 예우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다만 저 자에게 본모습을 드러내라고 하여 우리가 직접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비람보살이 "어렵지 않소"라고 답하더니, 앞으로 나아가 손가락으로 한 번 가리켰다. 그러자 도사는 먼지 구덩이 속으로 퍽 하고 쓰러지더니 본래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것은 바로 길이가 일곱 자나 되는 커다란 지네 요괴였다. 비람보살은 새끼손가락으로 지네를 톡 들어 올리더니, 상서로운 구름을 타고 곧장 천화동으로 향했다.

저팔계가 손오공에게 물었다. "이 할멈이 보통내기가 아니네. 어떻게 저런 무시무시한 괴물을 굴복시킨 거지?"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분께 저 괴물의 금광을 깨뜨릴 병기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그분의 아드님이 해의 눈(日眼) 속에서 제련한

자수바늘이 있다고 하더군. 그 아드님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바로 묘일성관(昴日星官)이라고 하더라고. 내 생각에 묘일성관은 수탉이니, 저 할멈은 분명 암탉일 거야. 원래 닭이 지네를 가장 잘 잡는 법이니, 그래서 저 괴물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게지."

당삼장은 그 말을 듣고 정성껏 절을 올리며 말했다. "제자들아, 이제 짐을 챙겨 떠나자."

그러자 사오정이 안에서 쌀과 양식을 찾아 정성껏 음식을 차려냈고, 모두 배불리 한 끼를 먹었다. 이어 말의 고삐를 잡고 짐을 짊어진 채 스승을 모시고 문을 나섰다. 손오공은 도사의 부엌에 불을 질러 관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고는, 성큼성큼 앞장서서 길을 떠났다.

시로 이르되, "당승은 비람보살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니, 깨달음을 얻어 눈 많은 요괴를 물리쳤도다."

결국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4회 — 장경이 마두의 흉악함을 전하고, 행자가 변화의 능력을 펼치다

長庚傳報魔頭狠 行者施為變化能

마침내 음양의 몸을 뚫고 들어간 마음의 원숭이가, 마귀를 돌려보내고 대도의 참된 이치로 돌아가리라.

욕망이 생기는 이유는 모두 한결같으니,
사랑과 욕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수행하는 승려들은 저마다 분주히 애쓰나,
욕심을 끊고 감정을 잊는 것이 곧 선의 경지라네.
마음을 다스리고 굳건히 지켜내어,
한 점 먼지조차 묻지 않은 달처럼 하늘에 떠 있어야 하리.
공력을 쌓아 나아갈 때 길을 잃지 마라,
수행을 다 마쳐 깨달음을 얻으면 큰 신선이 되리라.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승과 제자들은 욕망의 그물을 떨쳐내고 정욕의 감옥에서 벗어나, 말을 몰아 서천을 향해 서쪽으로 나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계절은 여름이 다하고 가을이 시작되는 초가을에 접어들었으니, 서늘한 기운이 몸을 파고들었다. 그 풍경은 이러하였다.

급히 내린 비에 늦더위가 물러가고, 오동나무 잎 하나가 툭 떨어지며 가을이 왔음을 알린다. 풀밭 오솔길에는 반딧불이가 날아다니고 저녁이 깊어가는데, 귀뚜라미 울음소리 사이로 밝은 달빛이 비친다. 노란 아욱꽃은 이슬을 머금고 피어 있고, 붉은 마디풀은 모래 기슭에 가득하다. 버드나무 잎은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고, 가을 매미는 계절의 흐름에 맞춰 울어댄다.

삼장법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거대한 산 하나가 나타나다. 봉우리가 푸른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어, 정말로 별을 가로막고 해를 가릴 기세였다. 삼장법사는 마음속으로 겁이 나 손오공에게 말했다.

“앞에 보이는 저 산이 너무나 높구나. 저곳을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스승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부터 이르기를 ‘산이 높으면 반드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물이 깊으면 반드시 배를 젓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찌 길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안심하고 앞으로 나아가시지요.”

삼장법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채찍을 휘둘러 백룡마를 몰아 높은 바위산 위로 곧장 올라갔다.

몇 리를 더 가니 한 노인이 보였다. 옆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백발은 산발을 한 듯 어지러웠으며, 수염은 드문드문 은사처럼 흔들거렸다. 목에는 염주 한 알을 걸고 손에는 용 머리 모양의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노인은 멀리 산비탈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서천으로 가는 스님들이여, 잠시 화류에서 머물며 말 고삐를 단단히 죄시오! 이 산에는 요괴 무리가 살고 있어 세상 사람들을 죄다 잡아먹으니, 앞으로 나아가지 마시오!"

삼장은 이 말을 듣고 얼굴색이 변하며 크게 놀랐다. 첫째는 말의 발 밑이 울퉁불퉁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안장이 흔들거렸기 때문이다. 삼장은 말에서 털썩 떨어지더니, 풀숲에 쓰러져 신음하며 몸을 가누지 못했다. 손오공이 다가가 삼장을 부축하며 말했다.

"스승님, 겁내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삼장이 말했다. "저 높은 바위 위에 있는 노인이 말하기를, 이 산에 요괴 무리가 있어 세상 사람들을 다 잡아먹는다는데, 누가 가서 사실인지 물어볼 수 있겠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은 일단 앉아 계세요. 제가 가서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삼장이 말했다. "네 얼굴은 못생기고 말투도 거칠어서, 혹시라도 노인을 노하게 해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할까 걱정되는구나."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제가 좀 잘생긴 모습으로 변해서 물어보고 오지요."

삼장이 말했다. "그럼 한번 변해 보거라."

손오공이 주문을 외우며 몸을 흔드니, 순식간에 아주 깨끗하고 말끔한 어린 승려로 변했다. 정말이지 눈매는 수려하고 눈썹은 맑았으며, 머리는 둥글고 얼굴은 반듯했다. 몸가짐에는 선비 같은 기품이 서려 있었고,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속된 구석이 전혀 없었다. 손오공은 비단 옷자락을 가볍게 털고 앞으로 걸어가 삼장에게 물었다.

"스승님, 저 변한 모습이 괜찮습니까?"

삼장이 보고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 잘 변하였구나."

그러자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뭐가 안 괜찮다는 거야? 우리를 다 무안하게 만드네. 나 같은 돼지 놈이 한 2, 3년은 더 굴러도 저렇게 잘생기게는 못 변하겠다."

이 근사한 손오공은 그들에게서 떨어져 곧장 노인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어르신, 소승이 문안 여쭙습니다."

노인은 손오공의 모습이 준수하고 젊으며 몸놀림이 가벼운 것을 보고는, 대답할 듯 말 듯하다가 답례를 하더니 손으로 손오공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싱글벙글 웃으며 물었다. "꼬마 스님, 어디서 왔는가?"

손오공이 말했다. “저희는 동토 대당에서 왔으며, 특별히 서천으로 부처님을 뵙고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마침 이곳에 이르렀는데 어르신께서 요괴가 있다고 알려주시기에, 겁이 많으신 저희 스승님이 저를 보내 한번 여쭙보라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요괴길래 감히 이렇게 길을 막는 것입니까? 어르신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놈을 쫓아내 보내드리겠습니다.”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이 꼬마 스님은 어려서 좋고 나쁨도 모르고 말도 거드는 데가 없구먼. 그 요괴는 신통력이 어찌나 대단한지, 어찌 감히 그놈을 쫓아내 보내겠다고 말하느냐?”

손오공이 웃으며 대꾸했다. “어르신 말씀을 듣자 하니 마치 그 요괴를 두둔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 그놈과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이웃이나 절친한 벗이라도 되는 모양이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놈의 위세와 기개만 높여주고, 그 내력을 속 시원히 털어놓으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이 스님이 입담이 보통이 아니구먼. 아마 스승을 따라 여기저기 다니며 법술을 좀 배웠거나, 혹은 도깨비를 부려 묶고 남의 집안 잡귀를 눌러 쫓는 재주를 배웠나 보군. 아직 정말 지독한 놈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

손오공이 물었다. “얼마나 지독하길래 그렇습니까?”

노인이 말했다. “그 요괴가 영산에 편지 한 통만 보내도 오백 나한이 모두 마중을 나오고, 천궁에 짧은 글 한 장만 올려도 열한 분의 큰 별(십일대요)이 저마다 그를 공경한다네. 사해의 용왕은 그와 벗이 되고,

팔동(八洞)의 신선들도 늘 그와 모임을 갖는다네. 십지(十地)의 염라대왕들은 그를 형제라 부르고, 사령(社令)과 성황신도 그를 손님이자 벗으로 아낀다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는 참지 못하고 허허 웃으며, 노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다. “말도 마세요, 말도 마세요. 그 요괴가 저 같은 꼬마랑 형제나 친구 사이라 해도 그리 대단한 위세는 없을 겁니다. 만약 이 꼬마 스님이 온 걸 알았다면, 밤새 짐을 싸서 달아났을걸요.”

노인이 말했다. “이 꼬마 스님이 허튼소리를 하는구나. 그 대단한 신령이 네놈 같은 꼬마란 말이나?”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죠. 저 같은 꼬마 스님은 원래 오래전 아오래국 화과산 수렴동 출신인데, 성은 손이고 이름은 오공이라 합니다. 예전에 저도 요괴 노릇을 하며 큰일을 저지른 적이 있었지요. 한번은 요괴 무리와 어울려 술을 몇 잔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두 명의 차사가 저를 쇠사슬로 묶어 저승으로 끌고 가더군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여의봉으로 판관을 때려눕히고 염라대왕까지 쓰러뜨려, 하마터면 삼라전(저승의 전각)을 뒤엎을 뻔했답니다. 겁에 질린 판관이 종이를 가져와 열 명의 염라대왕에게 서명을 받고 이름을 적어주며 제발 때리지 말아 달라고 빌더군요. 차라리 제 꼬마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노인이 이 말을 듣고는 혀를 찼다. “아미타불! 이 스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앞으로 더 크기도 글렀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어르신, 저 정도 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노인이 물었다. “네 나이가 몇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한번 맞춰 보세요.”

노인이 말했다. “일곱여덟 살쯤 되었겠구나.”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일곱여덟 살이 만 개는 넘을 겁니다. 제가 본모습을 보여드려도 놀라지 마세요.”

노인이 되물었다. “본모습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손오공이 말했다. “이 꼬마 스님에게는 일흔두 가지 얼굴이 있거든요.”

그 노인은 (손오공의 말에 숨은) 속내를 알아채지 못하고 자꾸만 그에게 캐물었다. 그러자 손오공이 얼굴을 한 번 쓱 문지르니 곧 본래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빨을 드러내고 입을 찹 벌렸으며, 두 넓적다리는 새빨갳고, 허리에는 호랑이 가죽 치마를 두른 채 손에는 여의봉을 쥐고 바위 절벽 아래에 서 있으니, 그 모습이 마치 살아 있는 뇌공(번개를 부리는 신) 같았다. 그 모습을 본 노인은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다리가 저려 제대로 서지 못한 채 털썩 넘어졌다가, 겨우 기어 일어나서는 또다시 비틀거렸다.

손오공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어르신, 공연히 놀라지 마세요. 저희는 얼굴만 험악할 뿐 마음은 선한 사람들이니 무서워하실 것 없습니다. 아까 요괴가 있다고 알려주신 것은 정말 고마운 마음 덕분이었지

요. 그놈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례를 올리겠습니다.”

노인은 겁에 질려 벌벌 떨며 입도 떼지 못하고, 게다가 귀먹은 척하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손오공이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산비탈로 돌아오자, 삼장법사가 물었다. “오공아, 왔느냐? 물어본 것은 어떠하냐?”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별일 아닙니다, 별일 아니에요. 서천 가는 길에 요괴가 한둘 쯤 있을 뿐이지, 여기 사람들이 겁이 많아서 괜히 마음을 줄이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만 믿으세요.” 삼장법사가 다시 물었다. “그에게 이곳이 무슨 산인지, 무슨 동굴인지, 요괴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뇌음사로 통하는지 물어보았느냐?” 그러자 저팔계가 끼어들며 말했다. “스승님, 제 말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변화술을 부려 남을 골탕 먹이는 재주라면 우리 셋이 합쳐도 형님 하나를 못 따라가겠지만, 정직함으로 따지자면 형님 같은 사람도 저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삼장법사가 맞장구를 쳤다. “맞다, 맞다. 네가 참으로 정직하구나.”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저 형님은 앞뒤 상황도 모르고 엉뚱한 질문만 두어 마디 툭 던져놓고는, 민망했는지 그냥 숙 돌아와 버렸지 뭐니까. 이제 이 저팔계가 가서 제대로 된 정보를 캐내 오겠습니다.” 삼장법사가 엄하게 말했다. “오능아,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이 멍청한 저팔계는 쇠스랑(구치파)을 허리춤에 꽂고 검은 장삼을 매만져 단정히 한 뒤, 엉거주춤 몸을 비틀며 산비탈로 달려 올라가 노인에게 외쳤다. “어르신, 인사 올립니다.”

노인은 손오공(행자)이 돌아간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지팡이를 짚고 겨우 몸을 일으켰다. 별별 떨며 자리를 피하려다 저팔계를 보고는 더욱 겁에 질려 소리쳤다. “아이고, 세상에! 오늘 밤 내가 무슨 악몽을 꾸었기에 이런 악당들을 다 만난단 말이냐! 아까 그 스님은 못생기긴 했어도 그래도 사람 형상은 삼 할쯤 갖추고 있었는데, 이 스님은 어째 입은 절굿공이처럼 튀어나오고 귀는 부채처럼 넓으며 얼굴은 쇠조각 같고 목덜미엔 억센 털이 숭숭 나서, 사람 기색이라곤 한 톨도 없단 말이냐!”

저팔계가 웃으며 대꾸했다. “이 노인네가 숨씨를 숨기지 않고 남 흉보는 데는 재주가 있구먼. 그래, 당신은 나를 어떻게 보시오? 내가 좀 못생기긴 했어도 봐줄 만하니, 조금만 더 있으면 잘생겨질 거요.”

노인은 저팔계가 사람 같은 말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입을 열어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저팔계가 대답했다. “저는 당승의 둘째 제자이고, 법명은 오능, 별명은 팔계라고 합니다. 방금 먼저 여쭙은 그 스님은 오공 행자로, 제 사형입니다. 스승님께서 사형이 어르신께 무례하게 굴어 제대로 여쭙지 못했다고 나무라셔서, 특별히 저를 보내 여쭙게 하셨습니다. 이곳이 정말 무슨 산입니까? 무슨 동굴이 있습니까? 동굴 안에는 대체 어떤 요괴가 있습니까? 또 서천으로 가는 큰길은 어느 쪽입니까? 부디 어르신께서 일러 주십시오.”

노인이 물었다. “솔직하게 말할 셈인가?”

저팔계가 장담했다. “제 평생 털끝만큼도 거짓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노인이 경고하듯 말했다. “방금 온 그 스님처럼 이리저리 둘러대며 속이려 들지 마시오.”

저팔계가 대답했다. “저는 그 사람과는 다릅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은 채 저팔계에게 말했다. “이 산의 이름은 팔백리나 되는 사자타령이라네. 산 한가운데에는 사자타동이라는 동굴이 있는데, 그 안에는 세 마리의 마두가 살고 있지.”

저팔계가 침을 튼 뱀으며 대꾸했다. “이 노인네가 참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하는구먼. 요괴가 고작 세 마리뿐인데, 뭐 그리 대단하다고 여기까지 와서 겁을 준단 말ियो?”

노인이 다시 물었다. “자네는 무섭지 않은가?”

그러자 저팔계가 큰소리를 쳤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저 세 마리 요괴라면 우리 사형이 몽둥이로 한 놈 때려눕히고, 내가 갈퀴로 또 한 놈 때려잡으면 그만입니다. 게다가 내 사제도 있는데, 그 친구의 향요장(요괴를 굴복시키는 지팡이)이면 나머지 한 놈도 금방 끝장낼 수 있지요. 그렇게 세 놈을 다 때려잡고 나면 우리 스승님도 무사히 지나가실 텐데, 그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노인이 허허 웃으며 말했다. “이 중생이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구먼. 그 세 마리 마두는 신통력이 어마어마하다네. 그 수

하 요괴들만 해도 남쪽 고개에 오천 명, 북쪽 고개에 오천 명이지. 동쪽 길목에 만 명, 서쪽 길목에도 만 명이 있고, 순찰하는 놈들이 사오천 명에 문지기들만 해도 만 명이라네. 거기다 불을 피우는 놈들과 땀감을 해 오는 놈들까지 합치면 그 수가 셀 수도 없이 많으니, 다 합쳐서 사만 칠팔천 명은 족히 될 게야. 이들은 모두 이름과 직책이 정해져 있는 놈들로, 오로지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라네."

그 멍청한 저팔계는 그 말을 듣자마자 겁에 질려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당승 곁에 다다라 대답은커녕 갈퀴를 내려놓고는 그 자리에서 불일을 보기 시작했다. 이를 본 손오공이 호통을 쳤다.

"대답은 안 하고 거기 쪼그리고 앉아 뭐 하는 게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똥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이제 말할 것도 없으니, 다들 서둘러 목숨이나 보전하러 갑시다."

손오공이 말했다.

"이 멍청한 녀석, 내가 물을 때는 겁먹지도 았더니 네가 물으니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당승이 물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나?"

저팔계가 말했다.

"이 노인이 말하기를, 이 산 이름은 팔백 리 사자타령이라 하고, 그 한가운데 사자타동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는 세 마리의 요괴와 사만 팔천 명의 소요가 살면서 오로지 사람을 잡아먹는 데 혈안이 되어 있대요. 우리가 만약 산비탈 근처에 밭이라도 들었다가는 바로 그놈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이니, 절대 갈 엄두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당승은 이 말을 듣고 온몸의 털이 쭈뼛 서며 벌벌 떨었다.

"오공아, 이를 어찌면 좋으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님, 걱정 마십시오. 별일 아닙니다. 아마 여기 요괴가 몇 마리 있긴 한 모양인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워낙 겁이 많아서 요괴가 아주 많고 크다고 과장해서 말한 모양입니다. 저에게 맡기십시오."

저팔계가 반박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와 형님은 다르단 말입니다. 저는 사실을 물은 것이니 결코 거짓이 아니에요. 온 산과 골짜기가 온통 요괴 천지인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갑니까?"

손오공이 비웃으며 말했다.

"이 멍청한 놈, 괜히 겁먹지 마라. 온 산과 골짜기에 요괴가 가득하다면, 이 몸이 여의봉을 휘둘러 한밤중에 몽땅 쓸어버리면 그만이다."

저팔계가 쏘아붙였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큰소리치기는! 요괴들이 출석 체크를 하는 데만 7~8일이 걸리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다 쓸어버린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그럼 어떻게 때려잡으라는 말이나?"

저팔계가 대꾸했다.

"형님이 요괴를 붙잡아 묶어놓고, 정지시키는 주문이라도 써서 쓰러뜨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끝냅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붙잡고 묶고 할 필요도 없다. 내가 이 몽둥이를 양끝으로 잡아당기며 '길어져라!' 하고 외치면 마흔 장(丈) 길이는 족히 될 것이고, 휘휘 저으며 '굴어져라!' 하면 여덟 장이나 되는 굵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산 남쪽으로 한 바퀴 굴리면 오천 마리가 죽을 것이요, 산 북쪽으로 한 바퀴 굴리면 또 오천 마리가 죽을 것이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한 바퀴 굴려버리면, 아마 사오만 마리는 전부 짓이겨져서 고기 죽이 될 게다."

저팔계가 맞장구를 쳤다.

"형님, 그렇게 밀가루 반죽 치듯 때려잡는다면 밤 두 시쯤이면 다 끝내겠는데요?"

곁에 있던 사오정이 웃으며 거들었다.

"스님, 큰사형께서 저토록 신통력이 있으신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어서 말에 올라타시지요."

당승은 제자들이 싸우는 대신 요괴를 물리칠 방도를 논하는 것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을 가다듬고 말에 올라 길을 떠났다.

길을 가던 중, 소식을 전해주던 노인이 어느새 사라졌다. 사오정이 말했다. "저자가 바로 요괴입니다.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며 우리를 겁주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서두르지 마라. 내가 가서 확인해 보마." 손오공은 골장 높은 봉우리 위로 뛰어올라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급히 고개를 돌려보니 허공 중에 채색 구름이 번쩍이며 빛나고 있었다.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쫓아가 보니 바로 태백금성이었다. 손오공은 태백금성 곁으로 다가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는, 그의 아명(兒名)을 연신 불러대며 말했다. "이장경, 이장경! 이 양반아, 참으로 게으르기도 하시군. 할 말이 있으면 면전에서 하면 될 것을, 왜 산속 노인네 흉내를 내며 이 손오공을 놀래키는 거요?" 태백금성이 황급히 예를 갖추며 말했다. "대성, 소식을 늦게 전해드려 죄송합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저 요괴들이 정말로 신통력이 광대하여 기세가 대단합니다. 대성께서 그 변화무쌍한 재주와 영리한 기지로 대처하신다면 무사히 넘어가겠지만, 조금이라도 방심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과연 이곳이 지나가기 험난한 곳이구려. 태백신선께서 하늘로 돌아가시면 옥황제께 말씀 좀 잘 드려주세요. 천병(天兵, 하늘나라 군사)을 좀 빌려주어 이 손오공을 도와달라"

고 말ियो.” 태백금성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만 전해주시시오. 십만 천병이라도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습니다.”

손오공은 태백금성과 작별하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더니, 삼장법사에게 다가가 말했다. “방금 그 노인은 원래 태백금성이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삼장법사가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말했다. “제자야, 어서 그분을 따라가서 다른 길은 없는지 물어보자꾸나. 길을 돌아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산만 해도 길이가 팔백 리나 되는데, 사방에 길이 얼마나 더 많을지 모르니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말을 들은 삼장법사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며 말했다. “제자야, 이토록 고난이 심하니 어찌 불도를 닦을 수 있겠느냐?” 손오공이 달렸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기만 하면 병이 납니다. 그분이 소식을 전한 것은 분명 어느 정도 과장이 섞여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조심하라는 뜻이지요. 이른바 ‘알려주는 이는 지나치게 말하기 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말에서 내려 잠시 앉으십시오.” 저팔계가 물었다. “또 무슨 상의를 하려는 거야?” 손오공이 말했다. “상의할 건 없다. 너는 여기서 스승님을 잘 보살피고, 사오정은 짐과 말을 잘 지키고 있어라. 이 몸이 먼저 고개 위로 올라가서 앞뒤로 요괴가 얼마나 있는지 좀 알아보고 오겠다. 요괴 하나를 잡아 상세히 캐물은 뒤, 증거를 남기게 하고 그놈의 이름과 신분을 하나하나 명확히 밝혀내겠다. 그리고 나서 동굴 문을 닫고 길을 막지 못하도록 엄히 명령한 뒤, 스승님이 조용히 지나가실 수 있게 만들어야 내 실력을 보여줄 것 아니냐.” 사오정이 그저 말했다. “조심해, 꼭 조심해야 한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라, 말

안 해도 안다. 내가 한 번 나서면 동양의 거대한 바다도 갈라져 길이 열릴 것이고, 철로 감싼 은산이라도 단숨에 뚫어버릴 테니까!”

손오공이 휘파람을 한 번 크게 불더니 근두운을 타고 솟구쳐 올라 산꼭대기에 올라섰다. 덩굴을 헤치고 산등성이를 넘어 살피니, 산속은 아무런 인기척도 없이 고요하기만 했다.

손오공은 속으로 혀를 차며 말했다. "아차, 틀렸구나, 틀렸어! 그 금성 노인네를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었는데. 나를 겁주려고 일부러 저러는 게 분명해. 이 산에 무슨 요괴가 있다고? 저 노인이 저렇게 호들갑을 떨며 나타난 걸 보니, 분명히 무기라도 휘두르며 무예를 뽐내고 있을 텐데, 어째서 아무도 안 보이는 거지?"

손오공이 한창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산 너머에서 '챙강챙강', '딱딱딱' 하고 북과 징, 그리고 딱따기 소리가 들려왔다. 급히 고개를 돌려 보니, 한 작은 요괴가 '령(令)' 자가 새겨진 깃발을 어깨에 메고 허리에는 방울을 찬 채, 손에는 딱따기를 들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키는 한 장 이 척(약 3.6미터)이나 되었다.

손오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놈은 분명 순찰을 도는 병사일 테니, 공문을 전달하러 가는 모양이구나. 일단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어봐야겠다.'

"좋아, 대성!"

손오공은 주문을 외우며 몸을 흔들더니, 순식간에 파리 한 마리로 변신했다. 그러고는 파리처럼 가볍게 날아가 요괴의 모자 위에 내려앉아 귀를 기울였다.

마침 그 소요가 큰길로 걸어 나오며 딱따기를 두드리고 방울을 흔들더니, 입으로 중얼거렸다.

"산속을 순찰하는 우리들은 모두 손오공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그놈은 파리로도 변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속으로 깜짝 놀라 의아해했다.

'이놈이 나를 본 건가? 만약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내가 파리로 변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았던 말인가?'

알고 보니 그 소요는 손오공을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요괴 우두머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저런 말을 하라고 시켰을 뿐이었고, 소요는 그저 근거 없는 헛소문을 떠들고 다녔던 것이다.

손오공은 이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요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의심했다. 당장이라도 여의봉을 꺼내 두들겨 패주고 싶었지만,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생각에 잠겼다.

'아까 팔계가 태백금성에게 물었을 때, 듣기로는 요괴 우두머리가 세 명이고 소요는 사만 칠팔천 명이나 된다고 했지. 저런 소요가 몇만 명 더 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 세 마리 요괴가 대체 얼마나

대단한 수단을 가졌는지가 문제다. 일단 저놈에게 정보를 좀 캐낸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겠어.'

이 근사한 손오공이 어떻게 가서 물었는지 아는가? 그는 (파리로 변해 앉아 있던) 그 요괴의 모자에서 폴짝 뛰어내려 나뭇가지 끝에 내려앉고는, 작은 요괴가 몇 걸음 먼저 앞서가게 두었다. 그러고는 재빨리 몸을 돌려 솟구치며 자신도 작은 요괴로 변했다. 그 요괴와 똑같이 딱따기를 두드리고 방울을 흔들며 깃발을 메고 옷차림도 똑같이 했는데, 다만 그 요괴보다 키만 서너 치 더 컸다. 입으로는 그 요괴가 외던 말도 그대로 읊조렸다.

손오공은 요괴의 뒤를 바짝 쫓아가며 외쳤다. “이봐, 같이 좀 가세.”

앞서가던 요괴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너는 어디서 온 놈이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여보게, 한집안 사람도 몰라본단 말인가?”

요괴가 대꾸했다. “우리 집안엔 너 같은 놈은 없다.”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어째서 내가 없단 말이냐? 다시 잘 봐라.”

요괴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낯설어서 모르겠다, 모르겠다.”

손오공이 능청을 떨었다. “낯선 게 당연하지. 나는 불 때는 놈이라 너랑 마주칠 일이 적었으니까.”

요괴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니, 없다, 없어. 우리 동굴에서 불 때는 형제들 중에도 너처럼 입이 뽀족한 놈은 없다.”

손오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입이 좀 뽀족하게 변했나 보군.’ 그는 즉시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슬쩍 문질러 펴며 말했다. “내 입이 어디가 뽀족하다는 거냐?” 그러자 정말로 입이 뽀족하지 않게 되었다.

요괴가 말했다. “방금 전까지 입이 뽀족하더니 어떻게 한 번 문지르면 안 뽀족해졌느냐? 사람을 헛갈리게 하는구나.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으니 우리 식구가 아닌 모양이다. 본 적도 별로 없고 수상하기 짝이 없다. 우리 대왕님은 가법이 매우 엄해서, 불 때는 놈은 불만 때고 산 순찰하는 놈은 순찰만 한다. 설마 불 때는 너에게 순찰까지 시키셨겠느냐?”

손오공이 입담 좋게 말을 받아쳤다. “네가 몰라서 그래. 대왕님께서 내가 불을 잘 땀다고 보시고는 나를 순찰직으로 올려 주셨단 말이다.”

소요가 말했다. "뭘, 좋습니다. 저희처럼 산을 순찰하는 요괴는 한 반에 마흔 명씩, 총 열 반이 모여 사백 명이나 됩니다. 저마다 나이와 생김새, 이름이 다 다르지요. 대왕님께서 우리가 대열을 흐트러뜨려 인원 점검을 할 때 혼선이 생길까 봐 걱정하셔서, 각자에게 신분패를 하나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당신도 신분패가 있습니까?"

손오공이 보니, 요괴의 차림새와 말하는 태도가 영락없는 순찰 요괴였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변신을 했다. 다만 요괴의 신분패를 보지 못했기에 몸에 지닌 것이 없었다. 손오공이 누구인가, 신분패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으나, 그는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내 신분패가 없을 리 있겠나? 방금 새로 받은 것이라 그렇다네. 자네 것을 좀 보여주세요."

소요는 이런 속임수를 알 리가 없었다. 그는 옷을 들춰 몸에 지니고 있던 금칠을 한 신분패를 털실 끈으로 꿰어 손오공에게 보여주었다. 손오공이 보니 신분패 뒷면에는 '위진제마(모든 마귀를 위엄으로 누른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앞면에는 '소짜풍'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히 적혀 있었다. 손오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말할 것도 없군. 산을 순찰하는 놈이니 이름에 분명 '풍(風)' 자가 들어갈 테지.'

손오공이 말했다. "자, 일단 옷을 내리고 저쪽으로 가서 서 있게. 내가 신분패를 챙겨서 보여줄 테니." 그러고는 몸을 돌려 손을 뒤로 뺀더니, 꼬리 끝에 난 털 한 가닥을 뽑아 비비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털이 금칠을 한 신분패로 변하더니 초록색 털실 끈이 달렸다. 그 위에는 '총짜풍'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손오공이 그것을 꺼내 보여주자, 소요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우리 모두 '소짜풍'이라 불리는데, 당신은 어째서 '총짜풍'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쓰는 거요?"

손오공은 빈틈없이 완벽한 대답을 내놓았다. "자네가 정말 몰라서 묻는군. 대왕님께서 내 실력이 아주 뛰어나다며 나를 순찰 대장으로 승진시켜 주셨네. 그래서 이 '총순풍'이라는 새 신분패도 하사하시며, 자네가 속한 마흔 명의 형제들을 모두 관리하라고 명하셨단 말일세."

그 말을 들은 요괴가 급히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장관님, 장관님! 새로 오신 분이라 얼굴이 낯설어 제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손오공은 예의를 갖추는 척하며 웃으며 말했다. "자네를 댕할 건 없네만, 한 가지 할 말이 있네. 통행료를 내야겠어. 각자 은 다섯 냥씩 내게나."

소요가 대답했다. "장관님, 서두르지 마십시오. 제가 남령두로 가서 우리 반 사람들을 다 모은 뒤에 한꺼번에 내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같이 가줍세."

소요가 앞장서서 가자, 손오공도 그 뒤를 슬그머니 따라갔다.

몇 리를 더 가니 갑자기 붓 모양을 닮은 봉우리가 나타났다. 왜 붓 모양이라 하겠는가? 산꼭대기에 붓을 꽂아 놓은 것처럼 생긴 봉우리가 사오 장(약 15미터) 정도 높이로 솟아 있었기 때문이다. 손오공은 그곳에 다다르자 꼬리를 한 번 휘저으며 훌쩍 뛰어올라 봉우리 꼭대기에 앉았다. 그러고는 외쳤다.

“소짜풍들은 모두 이리로 모여라!”

그러자 아래에 있던 소짜풍들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상관님, 명을 받드립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대왕님께서 나를 불러내신 이유를 알고 있느냐?”

소요가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손오공이 말을 이었다. “대왕님께서 당승을 잡아 드시려는데, 손오공이라는 자가神通력이 뛰어나 변신술을 부려 소짜풍으로 변해 이곳 길목을 드나들며 정보를 캐낼까 봐 걱정하신다. 그래서 나를 총짜풍으로 승격시켜, 너희 가운데 가짜가 있는지 살피게 하신 것이다.”

소짜풍들이 연신 대답했다. “상관님, 저희는 모두 진짜입니다.”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네가 진짜라면, 대왕님께서 어떤 능력을 갖추셨는지 알고 있느냐?”

소짜풍이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어서 말해 보아라. 내 귀에 들어맞으면 진짜로 인정해 줄 것ियो, 조금이라도 틀리면 가짜로 간주하여 대왕님께 끌고 가 처단하게 할 것이다.”

소짜풍은 높은 곳에 앉아 짐짓 거드름을 피우며 호통을 치는 손오공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말했다. “저희 대왕님께서는神通력이 광대하고 능력이 높으셔서, 입 한 번 크게 벌려 천병 십만 명을 통째로 삼키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픽 웃으며 내뱉었다. “너는 가짜로구나!”

소짜풍이 당황하며 외쳤다. “상관님, 저는 진짜입니다! 어찌 가짜라고 하십니까?”

손오공이 되물었다. “네가 진짜라면 어찌 허튼소리를 하느냐? 대왕님의 몸집이 아무리 커 봐야 얼마나 크다고 입 한 번에 천병 십만을 삼킨단 말이냐?”

소자풍이 말했다. “상관님께서서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대왕님은 변신술에 능하셔서, 커지면 하늘을 떠받칠 만큼 커지시고 작아지면 채소 씨앗만큼 작아지십니다. 예전에 왕모낭낭(서왕모)께서 반도 대회를 열어 여러 신선을 초대하셨을 때, 대왕님께는 초대장이 오지 않았습시다. 이에 대왕님께서 하늘에 맞서려 하시자, 옥황상제께서 천병 십만을 보내 대왕님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그때 대왕님께서 법신을 변화시켜 성문처럼 커다란 입을 벌리고 힘껏 삼켜버리셨습니다. 그 위세에 눌린 천병들이 감히 싸우지도 못하고 남천문을 닫고 물러났으니, 이래서 입 한 번에 천병을 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다. ‘저건 내 과거 이야기 아닌가. 나도 예전에 해본 일인데.’ 그러고는 다시 물었다. “그럼 둘째 대왕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소자풍이 대답했다. “둘째 대왕님은 키가 삼 장에 누에 눈썹과 단봉(丹鳳)의 눈을 가지셨고, 목소리는 아름다우나 이빨은 뿔대처럼 납작하게 튀어나왔으며 코는 교룡을 닮았습니다. 만약 싸움이 붙으면 코로 사람을 획 휘감아 버리는데, 아무리 강철 같은 몸을 가진 자라도 순식간에 혼비백산하게 만듭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코로 사람을 휘감는 요괴라니, 그건 나도 상대하기 쉽겠군.”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셋째 대왕은 또 어떤 수단이 있느냐?”

소짜풍이 말했다. “셋째 대왕님은 인간 세상의 평범한 괴물이 아니십니다. 그 이름은 ‘운정만리봉(雲程萬里鵬)’, 곧 구름길 만 리를 나는 대봉(봉새)이라 합니다. 움직이실 때면 바람을 움켜쥐고 바다를 휘몰아 북쪽에서 남쪽으로 솟구쳐 나십니다. 또한 몸에 ‘음양이기병(陰陽二氣瓶)’이라는 보물을 지니고 계시는데, 만약 사람을 그 병 속에 집어 넣으면 한두 시각 만에 형체도 없이 녹아 물처럼 변해버립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깜짝 놀라며 생각했다. '요괴들이 무서운 건 아니지만, 저 병을 조심해야겠구나.' 그러고는 소리 높여 말했다. "세 대왕의 재주가 대단하다는 건 나도 아는 바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그중 어떤 대왕이 당승을 잡아먹으려 하는 것이냐?" 소짜풍이 되물었다. "상사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손오공이 꾸짖듯 외쳤다. "내가 너보다 모를 리 있겠느냐? 너희들이 속사정을 잘 모를까 봐 내가 직접 와서 낱알이 캐묻는 것이다." 그러자 소짜풍이 대답했다. "우리 첫째 대왕님과 둘째 대왕님은 오랫동안 이곳 사자타령 사자타동에 머물고 계십니다. 하지만 셋째 대왕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원래 거처가 여기서 서쪽으로 400리쯤 떨어진 곳에 있거든요. 그곳에는 사자국이라는 성이 하나 있습니다. 500년 전, 셋째 대왕님이 그 나라의 왕과 문무백관을 모두 잡아먹고, 성안의 남녀노소까지 몽땅 먹어 치우는 바람에 그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온통 요괴들뿐이지요. 그러던 중 어느 해에 동토 대당에서 한 스님이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당승이라는 스님은 열 번의 생을 거쳐 수행한 아주 귀한 분이라, 그 고기 한 점만 먹어도 수명이 늘어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더군요. 다만 제자인 손오공이라는 놈이 워낙 대단하다기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셋째 대왕님이 이곳으로 오셔서 저희 두 대왕님과 의형제를 맺기로 하셨습니다. 마음을 합쳐 함께 그 당승을 잡으려고 말입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화가 나 말했다. "이 요괴 놈이 정말 무례하구나! 나는 당승을 도와 성불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감히 나를 잡아먹을 궁리나 하다니!"

손오공은 이를 악물고 여의봉을 획 뽑아 들더니, 높은 산봉우리에서 뛰어내려 요괴의 머리 위로 봉을 한 번 휘둘렀다. 가엾게도 한 번 휘두르자 요괴의 머리는 고깃덩어리처럼 뭉개지고 말았다. 손오공은 그 모습을 보고는 차마 마음이 좋지 않아 혼잣말을 했다. "어라, 이놈이 나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다 말해준 건 나름대로 호의를 베푼 것인데, 내가 어찌 한순간에 목숨을 끊어버렸단 말인가? 에이, 어쩔 수 없지. 이미 벌어진 일인걸."

위대한 손오공이 스승의 길을 막는 일을 해결하려다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이었다. 손오공은 요괴의 패를 풀어 제 허리춤에 차고, '령(令)'자가 적힌 깃발을 등에 짊어진 뒤, 허리에는 방울을 달고 손에는 딱딱이를 들었다. 그러고는 바람을 향해 주문을 외우며 몸을 흔드니, 순식간에 소짜풍의 모습으로 변했다. 손오공은 발걸음을 돌려 예전 길을 따라가며, 세 마리 요괴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동굴을 찾아 나섰다.

시로 이르되, 천 가지 변화를 부리는 미후왕, 만 가지 재주를 부리는 진정한 능력자라!

손오공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예전 길을 따라갔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사람의 외침과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눈을 들어 살펴보니, 사자타동 입구에 수만 명의 소요가 창과 칼, 검과 극을 들고 늘어서 있으며 깃발과 군기들이 가득했다. 손오공은 속으로 기뻐하며 생각했다. ‘이장경의 말이 틀린 게 하나 없구나. 정말 틀린 게 없어.’

그곳의 군사 편제는 이랬다. 250명을 하나의 대대로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었다. 손오공의 눈에形形色색의 긴 깃발 40개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보이자, 군사가 만 명은 족히 되겠다고 짐작했다. 그는 스스로 셈을 해보며 생각했다. ‘내가 소짜풍으로 변신해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만약 요괴 우두머리가 순찰 보고를 하라고 물으면 그때그때 적당히 대답해야겠다. 하지만 혹시라도 말실수를 해서 내 정체를 들기면 어떻게 빠져나가지? 게다가 밖으로 도망치려 할 때 문을 지키는 놈들이 가로막으면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동굴 안의 요괴 왕들을 잡으려면 먼저 문 앞의 괴물들을 처리해야겠구나.’

그가 어떻게 괴물들을 처리했을까? 손오공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 요괴 우두머리는 아직 나를 직접 만난 적이 없으니 내 이름을 알 리가 없다. 그러니 내 이름값을 이용해 위세를 떨치며 큰소리를 쳐서 그놈을 한번 겁줘 봐야겠다. 만약 내가 정말 인연이 있어 경전을 가져가게 된다면, 이번에 내 영웅적인 말 몇 마디로 문 앞의 요괴들을 겁주어 물러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인연이 없어 경전을 얻지 못한다면 설령

내가 연꽃을 피우는 재주를 부린다 해도 서천 동굴 밖의 요괴들을 물리칠 수는 없겠지.’

손오공은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뇌까리며 계책을 짜낸 뒤, 딱딱이를 두드리고 방울을 흔들며 사자타동 입구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앞줄을 지키던 소요들이 앞을 가로막으며 물었다. “소짜풍이 왔는가?” 손오공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그대로 걸어 들어갔다.

이층 진영에 이르자, 소요들이 달려와 그를 붙잡으며 물었다. “소짜풍이 왔는가?” 손오공이 대답했다. “왔다.” 그러자 요괴들이 물었다. “오늘 아침 순찰하러 갔을 때, 혹시 손오공을 마주치지는 않았나?” 손오공이 말했다. “마주쳤지. 지금 저기서 무기를 갈고 있더군.” 요괴들이 겁에 질려 물었다. “그자가 어떻게 생겼던가? 대체 무엇을 갈고 있던 말인가?” 손오공이 말을 이었다. “그자가 시냇가에 쪼그려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길을 여는 신령 같더군. 만약 일어서기라도 한다면 그 키가 십수 장은 될 것 같았어. 손에는 사발 굵기만 한 커다란 쇠 몽둥이를 들고서, 바위 절벽에서 물을 한 움큼 떠다가 쓱쓱 갈며 중얼거리더군. ‘이 몽둥이야, 그동안 네 신통력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었지. 이번에 가면 요괴가 십만 마리나 있다는데, 내가 다 때려죽이고 저 세 마리 마두를 죽인 뒤에 너를 제물로 삼아주마. 아주 번쩍번쩍하게 갈아놓고, 네 문 앞의 요괴 만 마리는 먼저 쓸어버려야겠다.’라고 말이야.”

이 말을 들은 소요들은 하나같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손오공이 다시 말을 덧붙였다. “여보게들, 저 당승의 고기라고 해봐야 몇 근 되지도 않는데, 나한테까지 돌아올

몫이 있겠나? 차라리 우리가 저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게 어떻겠나? 그냥 각자 흩어져서 목숨이나 보존하자고.” 요괴들이 일제히 맞장구를 쳤다. “그 말이 맞네! 우리 각자 목숨부터 챙겨 떠나세!”

알고 보니 이들은 늑대, 호랑이, 표범 같은 맹수와 날짐승, 길짐승들이 섞인 무리였는데, ‘우와’ 하고 비명 섞인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 버렸다. 이는 손오공이 단순히 겁을 주려고 내뿜은 허풍이 아니라, 마치 초나라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팔천 군사가 뿔뿔이 흩어진 것처럼 효과가 대단했다.

손오공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좋아! 요괴 놈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내 말을 듣자마자 도망치기 바쁘데, 감히 내 얼굴을 마주 보려 하겠느냐? 안으로 들어가서도 방금 한 말처럼 행동하는 게 좋겠어. 만약 말이 어긋나서 이 소요들 중 한두 놈이라도 듣고 도망치면, 요괴들에게 소문이 퍼져서 꼼짝도 못 하게 될 테니까.' 그는 작정한 듯 용기를 내어 요괴들의 소굴인 깊은 동굴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결국 저 마두를 만났을 때 어떤 길흉화복이 닥칠지 알 수 없으니,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5회 — 마음의 원숭이가 음양의 몸을 꿰뚫고, 마귀가...

心猿鑽透陰陽體 魔{{另}}

시로 이르되,

금성(長庚)이 소식을 전하니 마왕의 기세가 매섭고 손행자의 신통력은 변화무쌍하여 끝이 없구나. 정신은 집 안에 머무는데 마귀의 본성이 돌아오고 나무의 정령이 함께 내려와 괴물의 본모습을 드러내네.

한편, 손오공이 동굴 입구로 들어가 양옆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해골은 고개처럼 쌓여 있고, 유골은 숲을 이루었으며, 사람의 머리 카락과 신발은 엉겨 붙어 펠트 조각 같고, 사람의 가죽과 살점은 썩어서 진흙 먼지가 되어 있었다. 사람의 힘줄은 나무에 엉겨 붙어 말라 비틀어진 채 은빛처럼 번뜩였다. 그야말로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바다를 이룬 형국이라, 비릿하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동쪽의 작은 요괴들은 산 사람을 잡아다 살을 베어내고 있었고, 서쪽의 괴물들은 사람

의 고기를 가져다 맛있게 삶고 끓이고 있었다. 만약 미후왕처럼 영웅적인 담력을 가진 이가 아니었다면, 평범한 사람은 결코 이 문턱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 이곳은 밖과는 전혀 판판이었다. 맑고 기이하며 우아하고, 수려하며 넓고 평탄했다. 좌우에는 요상한 풀과 선계의 꽃이 피어 있고, 앞뒤로는 늙은 소나무와 푸른 대나무가 서 있었다. 다시 칠팔 리쯤 더 들어가서야 세 번째 문에 다다랐다. 몸을 숨기고 몰래 눈을 돌려 살펴보니, 위쪽 높은 곳에 세 마리의 늙은 요괴가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매우 흉악했다. 가운데 앉은 요괴는 생김새가 이러했다.

툽날 같은 이빨에 뾰족한 송곳니를 가졌고, 머리는 둥글고 얼굴은 네모졌다. 호령하는 소리는 천둥 같고 눈빛은 번개처럼 번뜩였다. 코는 하늘을 향해 치켜 올라갔으며 붉은 눈썹은 불꽃처럼 휘날렸다. 그가 발을 내디디면 온갖 짐승이 겁에 질려 달아나고, 그가 앉아 있으면 모든 마물이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 괴물이 바로 짐승들의 왕인 청모사자였다.

왼쪽에 앉은 요괴는 생김새가 이러했다.

봉황의 눈에 금빛 눈동자를 가졌고, 누런 이빨에 굽직한 다리를 가졌다. 긴 코에는 은빛 털이 나 있어 머리인지 꼬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둥근 이마에 눈썹은 늘 찌푸려져 있고 몸집은 거대했다. 목소리는 가냘픈 여인처럼 고왔으나, 옥 같은 얼굴은 소 머리를 한 악귀 같았

다. 이 괴물은 이빨을 감추고 수행을 오래 한 황아노상(황금 이빨을 가진 늑은 코끼리)이었다.

오른쪽에 앉은 요괴는 생김새가 이러했다.

금빛 날개에 쿤(鯨)의 머리를 가졌고, 별처럼 빛나는 눈에 표범 같은 눈동자를 지녔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날아다니며 강인하고 용맹했다. 날갯짓하며 하늘을 날면 작은 새들은 비웃음을 사지만 용조차 비참해질 정도였다. 날개를 펼치면 온갖 새들이 머리를 숨기고,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면 모든 조류가 겁에 질려 달아났다. 이 괴물은 구만리 상공을 누비는 대붕조였다.

그 두 요괴 아래로는 백여 명의 크고 작은 우두머리 요괴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하나같이 갑옷과 무기를 갖추고 위풍당당하게 살기를 뽐내고 있었다.

손오공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조금도 겁내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문 안으로 들어가서 차고 있던 딱따기(순찰용 방울)를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대왕님!"

세 요괴가 싱글벙글 웃으며 물었다.

"소찬풍, 네가 왔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예, 왔습니다."

"가서 산을 순찰하며 손행자의 행방을 알아보고 오라 하지 않았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대왕님, 차마 입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요괴가 물었다.

"어찌 감히 말을 못 하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대왕님의 명을 받들어 딱따기를 치며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고개를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거기 쪼그리고 앉아 막대기를 갈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마치 길을 여는 신령처럼 보이는데, 만약 그가 일어서기라도 하면 키가 십수 장은 족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계곡 절벽 바위 위에서 물을 한 움큼 떠서 막대기를 갈며, 입으로는 연신 중얼거리더군요. 제 막대기가 아직 신통력을 발휘하지 못하니, 아주 날카롭게 갈아서 대왕님을 치러 오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손행자라는 것을 알고 급히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 요괴는 이 말을 듣자마자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 말했다. "형제여, 내가 당승을 건드리지 말자고 하지 않았나. 제자 놈의 신통력이 워낙 대단해서 미리 준비라도 하고 있었다고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를 쳐들어올 텐데 이를 어찌면 좋단 말인

가!" 그러고는 덧붙였다. "얘들아! 동굴 밖에 있는 작은 요괴부터 큰 요괴까지 모조리 안으로 불러들여라. 문을 짹 닫고 저놈이 그냥 지나가게 두자꾸나." 그러자 우두머리 요괴 중 하나가 보고했다. "대왕님, 문밖의 요괴들은 이미 다 흩어졌습니다." 요괴가 말했다. "어째서 다 흩어졌단 말이나? 분명 불길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겠지. 어서 문을 닫아라! 어서 문을 닫아!" 요괴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앞문과 뒷문을 모두 짹 잠가 버렸다.

손오공은 속으로 깜짝 놀라며 생각했다. '저놈들이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 집안 사정까지 캐묻기 시작하면 대답하기 곤란해질 텐데, 그러다 도망칠 기회도 놓치고 붙잡히면 어쩌나? 일단 저놈들을 속여서 문을 열게 만든 뒤에 얼른 도망쳐야겠다.'

손오공은 다시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대왕님, 저놈이 또 못된 말을 합니다!"

요괴가 물었다. "그놈이 또 무엇이라 하더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첫째 대왕님은 가족을 벗기고, 둘째 대왕님은 뼈를 깎고, 셋째 대왕님은 힘줄을 뽑아버리겠다고 합니다! 만약 대왕님들이 문을 닫고 나가지 않으시면, 저놈이 요술을 부려 파리 한 마리로 변해 문틈 사이로 쏙 들어온 다음, 우리를 전부 밖으로 끌어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쩌면 좋습니까?"

요괴가 대답했다. "형제들아, 정신 바짝 차려라! 내 동굴에는 오랫동안 파리 한 마리 보이지 않았지만, 만약 파리가 들어온다면 그건 분명 순행자일 것이다!"

손오공은 속으로 '파리로 변해서 저놈들을 속인 뒤 문을 열게 만들어 야지'라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슬쩍 옆으로 비껴나더니, 손을 뒤로 뺀 어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 입으로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손오공은 황금빛 파리로 변하여 날아갔고, 요괴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들이받았다. 요괴는 혼비백산하여 소리쳤다. "형제들아, 가만히 있지 말고 어서 움직여라! 그놈이 들어오고 있다!"

이 소리에 놀란 요괴들은 저마다 갈퀴와 빗자루를 들고 달려들어 파리를 잡겠다고 정신없이 휘둘러댔다.

손오공은 참지 못하고 꺾꺾거리며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본래 웃어서는 안 될 일이었으나, 한 번 웃음이 터지자 원래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다. 그때 세 번째 요괴가 짹짹 달려들어 손오공을 붙잡으며 외쳤다. "형님, 하마터면 저놈한테 속을 뻔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요괴가 물었다. "아우야, 누가 누구를 속인다는 말이나?" 셋째 요괴가 말했다. "방금 대답하던 저 어린 요괴는 소찬풍이 아니라 바로 손행자입니다. 분명 소찬풍과 마주쳤을 텐데, 어떻게 소찬풍을 때려죽이고 우리를 속이려고 변신해 온 모양입니다." 손오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당황하며 말했다. "들켰구나!" 그러고는 얼른 제 얼굴을 매만지며 첫째 요괴에게 말했다. "내가 왜 손행자란 말이나? 나는 소찬풍이다. 대왕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것이다." 첫째 요괴가 웃으며 말했다. "아우야, 저놈은 소찬풍이 맞다. 하루에 세 번씩 내 앞에서 점호를 하던 놈이라 내가 잘 안다." 그러더니 다시 물었다. "네놈, 패를 가지고 있느냐?" 손오공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웃을 뒤져 패를 꺼내 보였다.

그러자 첫째 요괴는 더욱 확신하며 말했다. "아우야, 저 사람을 억울하게 몰지 마라." 셋째 요괴가 다시 말했다. "형님, 못 보셨습니까? 방금 저놈이 몸을 움찔하며 옷을 때, 뇌공(천둥신)의 주둥이가 튀어나오는 것을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제가 붙잡으려 하자 다시 이런 모습으로 변한 것입니다." 요괴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애들아, 밧줄을 가져와라!" 그러자 우두머리 요괴들이 즉시 밧줄을 가지러 갔다.

세 요괴는 손오공을 거꾸로 넘어뜨리고 두 손과 두 발을 한데 모아 꽂꽂 묶어버렸다. 옷을 들춰 확인해 보니, 다름 아닌 필마온의 모습이 었다. 원래 손오공에게는 일흔두 가지 변신술이 있어 새나 짐승, 꽃과 나무, 그릇이나 벌레 같은 것으로 변할 때는 몸 전체를 완벽하게 바꿀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으로 변할 때만큼은 얼굴만 바뀔 뿐 몸까지는 변하지 못했다. 아니나 다를까, 몸은 여전히 노란 털이 가득하고 엉덩이는 붉으며 꼬리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늙은 요괴가 이를 보고 말했다. "손오공의 몸에 소찬풍의 얼굴을 하고 있구나. 바로 저놈이다!"

그러고는 명령했다. "이놈들아, 어서 술을 준비해서 세 분 대왕님께 공을 세운 보답으로 술 한 잔씩 올려라. 손오공만 잡아두면 당승은 곧 우리 입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세 요괴가 대답했다. "술은 나중에 마셔도 됩니다. 손오공은 도망치는 법을 알고 있으니 자칫하면 달아날지도 모릅니다. 우선 병을 가져오게 하여 손오공을 그 안에 가두어 둔 다음에야 마음 편히 술을 마십니다."

요괴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렇고말고, 바로 그거다!" 요괴는 즉시 서른여섯 마리의 작은 요괴들을 불러 모아 창고 문을 열게 한 뒤, 병 하나를 밖으로 실어 나르게 했다. 그 병이 얼마나 컸겠느냐? 높이가 겨우 2척 4촌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 서른여섯 명이나 되는 인원이 들어서야 했을까? 그 병은 음과 양의 기운이 서린 보물로, 안에는 칠보팔괘와 이십사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하여 천강(天罡)의 수인 서른여섯 명을 맞춰야만 겨우 들어 옮길 수 있었던 것이다.

잠시 후 요괴들은 보물 병을 실어 날라 삼층문 밖에 내려놓고는, 깨끗이 닦은 뒤 뚜껑을 열었다. 그러고는 손오공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고 옷을 벗긴 뒤, 병 속에 가득 찬 선기(仙氣)를 향해 '후욱' 하고 숨을 들이마셔 손오공을 병 안으로 빨아들였다. 그런 다음 뚜껑을 닫고 봉인 지까지 단단히 붙였다.

요괴는 다시 술을 마시며 말했다. "원숭이 놈이 이번에 내 보물 병 속에 들어갔으니, 다시는 서천으로 가는 길을 꿈도 꾸지 못하리라. 만약 다시 부처님께 절하고 경전을 구할 수 있다면, 그건 등 뒤에 수레를 매고 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다시 태어나 몸을 차지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말을 듣자 크고 작은 요괴들이 하나같이 싱글벙글 웃으며, 공을 세운 것을 축하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한편, 손오공은 병 속에 갇히자 보물의 힘에 놀려 몸이 잔뜩 쪼그라들었다. 그는 차라리 아예 변신을 해버리기로 하고 병 가운데에 웅크리고 앉았다.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안이 꽤 시원하고 서늘했다. 손오공

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이 요괴 놈, 이름만 거창했지 실속은 하나도 없구나! 이 병에 사람을 가두면 순식간에 피떡이 된다고 떠들더니, 이게 뭐야? 이렇게 시원하다면 7, 8년이라도 여기서 버틸 수 있겠어." 하지만 손오공은 이 보물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만약 사람이 들어온 뒤 일 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시원함만 유지되지만,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뜨거운 불길이 치솟게 되어 있었다. 손오공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병 안은 온통 불바다가 되었다. 다행히 손오공은 재주가 뛰어난 터라, 병 가운데에 앉아 불을 피하는 주문인 피화결을 외우며 불길을 견뎌냈다. 반 시간쯤 지났을까, 병 사방에서 뱀 마흔 마리가 기어 나와 손오공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손오공은 팔을 휘둘러 뱀들을 낚아챈 뒤, 힘껏 쥐어짜서 여든 토막을 내버렸다. 그런데 잠시 후, 이번에는 세 마리의 불룡(火龍)이 나타나 손오공의 몸을 위아래로 휘감으며 공격해왔다. 도저히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자 손오공은 당황하며 말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마리 불룡은 정말 골치 아프구나. 조금만 더 지나면 불길이 심장을 찢을 텐데, 그럼 어쩌나?" 손오공은 피를 내어 생각했다. '몸을 길게 늘여서 이 병을 깨뜨려 버려야겠다.' 손오공은 주문을 외우며 외쳤다. "길어져라!" 그러자 몸이 순식간에 몇 길이나 커졌다. 그런데 몸이 커지자 병도 몸에 딱 붙은 채 함께 커져 버렸다. 손오공이 몸을 줄여보려 하자 이번에는 병이 다시 줄어들었다. 손오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말했다. "어렵구나, 정말 어려워! 내가 커지면 병도 커지고, 내가 작아지면 병도 작아지니 이걸 어쩐단 말인가?" 그렇게 씨름을 하다 보니 복사뼈(발목)에 통증이 느껴졌다. 급히 손을 뻗어 만져보니, 불길에 데어 복사뼈가 흐물흐물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손오공은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탄식했다. "이걸 어쩌나? 복사뼈가 녹아버렸으니 평생 불구자가 되고 말

겠구나."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이 툭 떨어졌다. 시로 이르되, "마를 만나 고난에 처하니 삼장법사를 걱정하고, 위태로운 위기 속에서 성스러운 승려를 염려하네." 손오공이 울먹이며 말했다. "스승님! 예전에 제가 불법에 귀의할 때, 관음보살님의 권유로 선한 길을 찾아 천재지변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과 함께 험한 산을 넘으며 수많은 요괴를 물리치고, 저팔계와 사오정까지 거두어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오로지 서천에 가서 함께 깨달음을 얻고 정과를 이루자는 일념뿐이었는데, 어찌하여 오늘 이런 독한 마물을 만나게 되었단 말입니까. 이 늙은 원숭이가 이곳에 잘못 들어와 목숨을 잃게 생겼으니, 스승님을 산중에 홀로 남겨두고 앞길을 막게 되었군요. 아마도 제가 예전에 이름이 너무 높았던 탓에 이런 재난을 당하는 모양입니다."

참으로 처량한 심정이었으나,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보살께서 예전에 사반산에서 내게 목숨을 구할 털 세 가닥을 주셨는데, 혹시 지금 남아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손오공은 손을 뻗어 온몸을 한바탕 훑었다. 그러자 뒷머리 쪽에 아주 단단한 털 세 가닥이 만져졌다. 손오공은 기뻐하며 말했다. "몸에 난 다른 털들은 다 부드러운데, 이 세 가닥만 유독 창처럼 단단한 것을 보니 분명 내 목숨을 구할 털이 틀림없구나!"

손오공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으며 그 털을 뽑았다. 그러고는 입으로 신령한 기운을 후 붙여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한 가닥은 금강鑽(금강鑽, 아주 단단한 송곳)으로, 한 가닥은 죽편(竹片, 대나무 조각)으로, 나머지 한 가닥은 면승(綿繩, 면줄)으로

변했다. 손오공은 대나무 조각을 활처럼 휘어 잡고 송곳을 매단 채, 병 바닥을 향해 쑥쑥 소리를 내며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 마침내 구멍이 뚫리자 그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다.

손오공은 기뻐하며 말했다. "천만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나갈 수 있겠구나."

손오공이 몸을 변화시켜 빠져나오자마자, 뜨거웠던 병 안이 다시 서늘해졌다. 어찌하여 다시 서늘해졌겠는가? 손오공이 구멍을 뚫는 바람에 병 안의 음양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손오공은 털을 거두어 몸을 아주 작게 줄인 뒤, 마치 아주 작은 벌레처럼 가볍고도 가늘게 변신했다.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눈썹처럼 길쭉한 모습으로 변한 손오공은 구멍을 통해 속 빠져나온 뒤 곧장 도망치지 않고, 요괴의 머리 위로 날아가 딱 달라붙었다.

그때 요괴가 술을 마시다 말고 갑자기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셋째야, 손행자가 이번에는 다 녹아버렸느냐?"

세 요괴가 웃으며 대답했다. "벌써 그럴 때가 됐겠습니까? 아직 멀었지요."

요괴가 전령에게 술병을 들어 올리라고 명령했다. 아래에 있던 서른여섯 마리의 작은 요괴들이 술병을 받쳐 들었으나, 병이 전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다. 당황한 요괴들이 보고했다. "대왕님, 병이 가벼워졌습니다!"

요괴가 호통을 쳤다. "헛소리 마라! 이 보물은 음양의 두 기운이 온전히 담긴 보배인데 어찌 가벼워질 수 있단 말이나?"

그때 요괴들 중 한 마리가 억지로 병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보십시오, 이제 가볍지 않습니까?"

요괴가 뚜껑을 열어 확인하니 안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이 병 안이 텅 비어 있구나!"

그 순간 손오공도 요괴의 머리 위에서 참지 못하고 외쳤다. "내 새끼야, 획 하니 도망갔다네!"

요괴들이 그 소리를 듣고 소리쳤다. "도망간다, 도망가!"

그러자 요괴가 즉시 명령을 내렸다. "문을 닫아라! 어서 문을 닫아!"

손오공은 몸을 한 번 흔들어 벗어던졌던 옷을 거두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동굴 밖으로 뛰어 나가며 뒤를 돌아보고는 욕설을 퍼부었다. "이 요괴 놈들아, 무례하게 굴지 마라! 병에 구멍이 뚫려 사람을 가둘 수 없게 되었으니, 이건 그냥 뒷간용으로나 써라!" 손오공은 신이 나서 떠들썩하게 구름을 타고 곧장 당승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당승은 그곳에서 흙을 모아 향을 피우며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손오공은 구름 위에서 멈춰 서서 스승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당승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이렇게 빌었다.

"구름과 안개 속에 계신 여러 신선님과 육정육갑, 그리고 모든 하늘의 신들이시여. 부디 제 제자 손행자를 보살펴 주시어, 신통력이 넓고 커서 법력이 끝이 없게 하소서."

손오공은 이 말을 듣고 더욱 힘을 내어 구름 빛을 거두고 가까이 다가가 외쳤다. "스승님, 저 왔습니다!" 당승이 손오공을 붙들며 말했다. "오공아, 고생 많았구나. 멀리 산을 살피러 가더니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대체 이 산에는 어떤 길흉화복이 있느냐?"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스승님, 이번 일은 첫째로 동토의 중생들과 인연이 닿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스승님의 공덕이 끝없이 넓기 때문이며, 셋째는 부족한 제자의 법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오공은 바람을 일으켜 변신했던 일과 병 속에 갇혔던 일, 그리고 탈출했던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제 스승님의 얼굴을 뵈니,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당승은 감사의 마음을 금치 못하며 물었다. "그럼 요괴와 싸우지는 않았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당승이 다시 물었다. "그럼 요괴를 물리치고 우리가 무사히 산을 넘을 수 있겠느냐?" 승부욕이 강한 손오공이 외쳤다. "제가 어찌 스승님을 못 모시고 산을 넘겠습니까?" 당승이 말했다. "요괴와 승부를 가린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얼렁뚱땅 말하니, 내가 어찌 감히 앞으로 나아가겠느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도 참 융통성이 없으십니다. 흔히들 '실 한 가닥으로는 줄을 만들 수 없고, 손뼉도 한 손으로는 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요괴 셋에 잔챙이 요괴들이 수천 수만인데, 저 혼자서 어떻게 그들과 맞서 싸우겠습니까?" 당승이 말했다. "수가 너무 많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겠구나. 팔계와 사오정도 능력이 있으니, 그들을 모두 불러 함께 힘을 합쳐 산길을 깨끗이 치우

고 나를 안전하게 모시게 하자꾸나." 손오공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스승님 말씀이 옳습니다. 사오정은 스승님을 모시게 하고, 저 팔계는 저와 함께 갑시다." 그러자 저팔계가 당황하며 말했다. "형님, 눈치가 없으시군요! 저는 몸만 덩치 크고 재주라곤 하나도 없어서, 옆에서 걸기만 해도 바람만 일으킬 뿐 형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이놈아, 네가 재주는 없어도 그래도 사람 아니냐. 속담에 '방귀라도 꺾어 바람을 보태라'는 말도 있다. 너라도 내 기운을 좀 북돋아 주면 되지 않겠느냐?"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에휴, 알겠습니다. 그럼 저를 좀 잘 이끌어 주십시오. 다만 급할 때는 저를 놀려먹지 마세요." 당승이 말했다. "팔계는 저팔계대로 가고, 사오정과 나는 여기 있겠다."

그 어리석은 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세를 떨치며, 손행자와 함께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구름 안개를 타고 날아올라 높은 산을 뛰어넘어 곧장 동굴 입구에 도착했다. 동굴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고, 사방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손행자는 앞으로 나아가 철봉을 쥐고 매서운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요괴 놈들아, 문 열어라! 어서 나와서 이 손오공과 한판 붙자!"

동굴 안의 작은 요괴가 이 소식을 보고했다. 그러자 우두머리 요괴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겁에 질려 말했다.

"몇 년 동안 저 원숭이 놈이 독하다고들 하더니, 빈말이 아니었구나. 정말 무시무시한 놈이야."

곁에 있던 다른 두 요괴가 물었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우두머리 요괴가 대답했다.

"저 손행자가 아까 아침에 소찬풍으로 변신해서 몰래 들어왔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어. 다행히 셋째 동생이 알아채서 병 속에 가두었더니, 요놈이 재주를 부려 병을 뚫고 옷까지 챙겨서 도망가 버렸지 뭐야. 그런데 이제 밖에서 싸움을 걸어오니, 누가 감히 앞장서서 싸우겠느냐?"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물어도 대답하는 이가 없으니, 모두가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며 귀를 막고 입을 다물 뿐이었다.

우두머리 요괴가 화를 내며 말했다.

"우리가 서쪽 큰 길에서 이름값 좀 한다고 자부해 왔는데, 오늘 손행자가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니, 나가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체면이 말이 아니게 생겼다. 내 이 늙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가서 세 합 정도는 겨뤄보겠다. 세 합을 싸워 이기면 당승은 여전히 우리 입속으로 들어올 것이요, 만약 이기지 못한다면 그때는 문을 꼭 닫고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될 것 아니냐."

말을 마친 그는 곧장 무장을 갖추고 앞장서서 문을 열어 나갔다.

손행자와 저팔계가 문 옆에서 지켜보니, 참으로 괴상망측한 괴물이었다.

시로 이르되, 철로 된 이마와 구리 같은 머리에 보배로운 투구를 썼으니 투구의 장식 끈이 휘날리는 모습이 눈부시게 빛나도다. 번개처럼 번뜩이는 두 눈은 형형하고 노을처럼 빛나는 양쪽 살쩍(귀밑머리)이 휘날리네. 은처럼 날카로운 갈고리 발톱에 정처럼 촌촌하고 가지런한 톱니 같은 이빨이라. 금갑옷은 틈 하나 없이 몸에 딱 맞고 허리에는 용 무늬 띠를 둘러 위엄이 넘치네. 손에 든 강철 칼은 번쩍번쩍 빛나니 세상에 보기 드문 영웅의 위용이로다.

괴물이 천둥 같은 소리로 호통을 치며 물었다. "문을 두드리는 놈은 누구냐?"

손오공이 몸을 돌려 대답했다. "네놈을 찾아온 손 어르신, 제천대성이다!"

요괴가 웃으며 말했다. "네가 손행자냐? 겁도 없는 원숭이 녀석, 나는 너를 건드린 적이 없는데 어째서 여기까지 와서 싸움을 거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바람이 불어야 파도가 일고, 물결이 없으면 바다가 저절로 잔잔해지는 법이다. 네가 나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내가 왜 너를 찾아왔겠느냐? 네놈이 요괴 무리를 이끌고 떼를 지어 우리 스승님을 잡아먹으려 꾀를 부리기에 내가 직접 온 것이다."

요괴가 말했다.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내 문 앞까지 찾아온 걸 보니, 정말로 나랑 한판 붙겠다는 말이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렇다!"

요괴가 말했다. "너무 날뛰지 마라. 내가 요괴 군사들을 불러 모아 진을 치고, 깃발을 흔들며 북을 울려 너와 싸운다면, 내가 집안에 앉아 있는 호랑이처럼 너를 괴롭히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다른 놈들 도움 없이 너와 일대일로만 상대하겠다. 부하들은 절대 부르지 않으나."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저팔계를 향해 외쳤다. "저팔계, 이리 와서 똑똑히 보라! 저놈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말이다!" 그러자 저팔계는 정말로 슬쩍 옆으로 몸을 피했다.

요괴가 다시 말했다. "이리 가까이 와서 내 상대가 되어라. 내가 힘껏 네 대머리를 향해 칼을 세 번 휘두를 테니, 그러면 네 스승 당승을 보내주마. 만약 내 칼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어서 네 스승을 데려와 내 밥반찬으로 삼게 해다오."

손오공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요괴 놈아, 네 동굴에 종이와 붓이 있다면 당장 가져와서 계약서나 한 장 쓰자꾸나. 오늘부터 내년까지 네가 아무리 휘둘러대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요괴는 위세를 떨치며 다리를 '丁'자 모양으로 굳건히 벌리고 서서, 양손에 든 칼을 높이 치켜든 채 손오공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손오공이 머리를 슬쩍 들어 맞이하자, '챙그랑' 하는 쇠소리만 울릴 뿐 머리가죽은 붙어지기는커녕 상처 하나 나지 않았다. 요괴는 깜짝 놀라 외쳤다. "이 원숭이 녀석, 머리가 정말 돌덩이처럼 단단하구나!"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구나. 이 몸은 원래 부터 이러하다.

태어날 때부터 구리 머리에 철 뇌를 가졌으니, 천지간에 이보다 강한 머리는 없다네. 도끼로 찍고 망치로 두드려도 깨지지 않으니, 어릴 적 태상노군의 화로 속에 들어갔던 덕분이지. 네 개의 성관이 지켜보고 스물여덟 별자리가 정성을 들였고, 물에 몇 번을 담가도 끄떡없으니, 온몸의 근육과 뼈대가 아주 탄탄하구나. 당승조차 (내 머리가) 단단하지 못할까 걱정되어, 미리 자금고(紫金箍, 머리테)까지 씌워놓았으니 말이다."

요괴가 소리쳤다. "원숭이 녀석, 입만 살아서는! 내 이 칼을 받아라. 절대로 네 목숨을 살려두지 않겠다!"

손오공이 대꾸했다. "어차피 이 정도 칼질밖에 못 할 거면서 뭘 그러느냐."

요괴가 다시 외쳤다. "원숭이 녀석, 네가 내 칼을 모르는 모양인데, 이 칼은 이러하다.

금과 불의 화로에서 만들어져, 온갖 신통한 공력으로 수백 번을 달구었지. 날카로운 칼날은 병법의 이치를 따르고, 강인함은 육도삼략의 기세를 품었도다. 파리 꼬리처럼 매끄럽고 흰 구렁이 허리처럼 유연하니, 산을 가르면 구름이 일고 바다로 들어가면 파도가 요동친다. 수없이 갈고 닦고 수백 번을 달구어, 깊은 산속 동굴에 있다가 전장에서 공을 세운 칼이다. 이 중놈인 네 정수리를 쪼개어, 단숨에 바가지 두 개를 만들어 주마!"

손오공이 비웃으며 말했다. "이 요괴 녀석, 눈도 없나 보구나. 나를 무슨 바가지 머리로 보는 거냐? 좋다, 실수로 내 머리를 꺾으면 아까우니, 어디 한 번 더 휘둘러 보거라. 어떻게 되는지 보자!"

늙은 요괴가 칼을 들어 다시 내리쳤다. 손오공이 머리를 슬쩍 내밀며 맞서자, 찡가찡가 소리가 나며 머리가 두 토막으로 갈라졌다. 하지만 손오공은 그 자리에서 몸을 굴리더니 순식간에 두 명의 몸으로 변했다. 요괴는 이 광경을 보고 당황하여 칼을 내리눌렀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저 요괴 녀석, 칼질을 아주 잘하는구나. 그런데 사람이 왜 네 명이나 되는 거지?"

요괴가 손오공을 가리키며 말했다. "네가 분신술을 부릴 줄 안다 들었다. 그렇다면 내 앞에서 그 재주를 한번 제대로 부려 보아라!"

손오공이 되물었다. "분신술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요괴가 대답했다. "아까는 칼로 한 번을 베어도 꿈쩍도 았더니, 어찌하여 이번에 베니 사람이 두 명으로 늘어난단 말이나?"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요괴야, 겁먹지 마라. 만 번을 베어도 이만 명으로 만들어 줄 테니!"

요괴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 너는 몸을 나누기만 할 줄 알지, 다시 하나로 합칠 줄은 모르는구나. 네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다시 하나로 합친 다음에 나를 한 번 때려 보아라!"

손오공이 외쳤다. "거짓말하지 마라! 너는 세 번을 베겠다고 해놓고 겨우 두 번밖에 못 베지 않았느냐. 나더러 한 번 때려 보라니, 만약 내가 네 놈을 제대로 한 대라도 친다면 내 성을 손씨라고 하지 않겠다!"

요괴가 맞장구를 쳤다. "좋다, 좋다! 어디 한번 해 보아라!"

손오공은 몸을 핵 돌려 구르더니 다시 자세를 잡고는, 여지없이 여의봉을 휘둘러 요괴의 머리 위로 내리쳤다. 요괴가 칼을 들어 막으며 말했다. "무례한 원숭이 놈 같으니! 그게 무슨 장례식용 막대기냐? 감히 어디라고 찾아와 사람을 치려 드느냐?" 손오공이 호통을 쳤다. "내 이 막대기가 천지간에 얼마나 이름 높은지 네놈이 알기나 하느냐!" 요괴가 물었다. "그 명성이 어떠한데?" 손오공이 대답했다.

"이 막대기는 아홉 번을 돌려 달군 정철로 만들고, 태상노군께서 직접 화로에서 단련하셨다. 우왕께서 얻어 '신진보'라 이름 붙이셨으니, 온 세상 바다와 강이 그 위력을 증명한다. 그 사이사이에는 별들이 은하수처럼 깔려 있고, 양끝은 황금 조각으로 감싸여 있지. 무늬는 촘촘하여 귀신도 놀라게 하며, 위쪽에는 용 무늬와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름하여 영양봉이라 하니, 깊은 바다 속에 숨겨져 있어 사람들은 보기 어렵다. 형체를 이루어 변화하며 날아오를 때면, 오색찬란한 노을빛이 감돈다. 이 몸이 도를 깨쳐 산으로 돌아올 때, 무궁무진한 변화를 경험하며 가져온 것이다. 크기를 조절하면 향아리처럼 굽어지기도 하고, 아주 작게는 철사처럼 가늘어지기도 한다. 남악산처럼 굽어질 수도, 바늘처럼 가늘어질 수도 있으며, 길고 짧음은 내 마음대로 조절한다. 가볍게 움직이면 채운이 피어오르고, 번개처럼 날아오를 때는 눈부시게 빛난다. 서늘한 기운은 사람을 얼어붙게 하고, 살기 어린 안

개는 허공에 자욱하게 깔린다. 용과 호랑이를 굴복시키며 내 몸을 따르니, 세상 끝 어디든 누비며 다닐 수 있다. 예전에 이 막대기로 천궁을 뒤흔들고, 복숭아 잔치를 엉망으로 만들기도 했다. 천왕들과 싸워 이기지 못했을 때도, 나타와 맞붙어 승부를 가리기 어려웠다. 신들이 이 막대기를 피하느라 바쁘고, 십만 천병이 모두 도망치게 만들었지. 천둥 같은 장수들이 영소산을 지키려 해도, 명전까지 날아들어 두들겨 패주었다. 천사들은 정신없이 움직이고, 선계의 신선들은 모두 혼란에 빠졌다. 북두궁을 뒤엎고, 남극원을 뒤흔들었으니, 금궐의 천황께서도 이 막대기의 흥포함을 보시고는, 여래께 청하여 나를 만나게 하셨다. 전쟁의 승패는 자연스러운 것이나, 고난과 재앙은 예측하기 어려운 법. 오백 년을 묵묵히 견뎌왔으나, 다행히 남해 관음보살의 권유가 있었다. 대당 땅에 한 승려가 나타나 하늘에 맹세하니, 망자들의 성에서 혼령을 구제하고, 영산에서 경전을 구하고자 한다. 서쪽으로 가는 길에 요괴가 많아, 움직이기가 참으로 불편하구나. 이 철봉이 세상에 둘도 없음을 알았으니, 이제 나의 길동무가 되어다오. 사악한 무리는 저승으로 가고, 육신은 먼지가 되어 흩어지리라. 곳곳의 요괴들이 내 막대기 아래 목숨을 잃으니, 수만, 수천 마리라 해도 끝이 없다. 위로는 별들의 궁전을 부수고, 아래로는 신들이 사는 전각을 짓누른다. 천병들은 아홉 별을 쫓아다니고, 저승의 판관들은 목숨을 재촉하느라 정신이 없다. 허공에서 내리치면 산천이 진동하니, 그 위력이 태세의 신검보다 뛰어나다. 오로지 이 막대기 하나로 당승을 지키며, 천하의 모든 요괴를 다 때려잡으리라!"

요괴는 그 말을 듣고 겁에 질려 목숨을 걸고 칼을 휘둘렀지만, 손오공은 여유롭게 웃으며 철봉으로 맞받아쳤다. 두 괴물은 처음에는 동굴

앞에서 버티며 싸우다가, 이내 공중으로 뛰어올라 허공에서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그 싸움이 참으로 대단했다.

"천하의 신진보, 이름은 여의봉이라 세상에서 으뜸이라네. 솜씨를 뽐내니 요괴는 화가 나고, 요괴는 커다란 칼을 들고 신통력을 뽐내네. 문 앞에서는 서로 버티며 싸웠으나, 공중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구나. 한 명은 마음대로 얼굴을 바꾸고, 한 명은 그 자리에서 몸을 키우네. 싸움이 치열하니 구름은 짙게 깔리고, 안개는 온 들판에 자욱하구나. 한쪽은 어떻게든 당승을 잡아먹으려 하고, 한쪽은 어떻게든 당승을 지키려 하네. 부처님이 경전을 전해주셨으니, 선과 악이 나뉘어 이토록 처절하게 싸우는구나."

요괴와 손오공은 스무 합 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한편, 저팔계는 밑에서 두 요괴가 싸우는 것을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참지 못하고 갈퀴를 휘두르며 바람처럼 뛰어올라, 요괴의 얼굴을 향해 냅다 내리쳤다. 요괴는 깜짝 놀랐다. 저팔계가 성미가 급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성격이라는 것을 몰랐던 요괴는, 그저 입이 길고 귀가 큰 괴물이 무시무시한 갈퀴를 휘두르며 덤벼든다고만 생각했다. 결국 요괴는 싸움에서 밀려 칼까지 버려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손오공이 소리쳤다. "잡아라, 저놈을 잡아!"

저팔계는 기세등등해져서 갈퀴를 높이 치켜들고는 요괴를 쫓아 내려갔다. 요괴는 저팔계가 가까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는 언덕 앞에 멈춰 서서 바람을 마주 보며 서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본래의 흉측한 모

숨으로 변해 커다란 입을 벌리고 저팔계를 한입에 삼키려 했다. 겁에 질린 저팔계는 급히 몸을 빼서 풀숲으로 숨어버렸다. 가시덩굴에 찢린 머리가 급혀 아프든 상관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풀숲에 숨어 벌벌 떨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곧이어 손오공이 뒤쫓아왔다. 요괴가 다시 입을 벌려 삼키려 했으나, 손오공은 이미 요괴의 수를 읽고 있었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거두어 숨긴 뒤 요괴에게 달려들었고, 결국 요괴에게 한입에 먹히고 말았다.

풀숲에 숨어 있던 저팔계는 투덜투덜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 필마온 녀석, 앞뒤 분간도 못 하는군! 요괴가 잡아먹으러 오는데 왜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운 거야? 저렇게 한입에 꿀꺽 삼켜지면, 오늘은 스님일지 몰라도 내일은 요괴의 밥이 되고 말 거라고!"

요괴가 승리를 거두어 멀리 떠나고 나서야, 저팔계는 겨우 풀숲에서 기어 나와 원래 가던 길로 도망치듯 돌아갔다.

한편, 당승은 산비탈 아래에서 사오정과 함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팔계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것이 아닌가. 당승이 깜짝 놀라 물었다. "팔계야, 어찌 이리 물골이 말이 아니냐? 손오공은 보이지 않는구나?" 어리석은 저팔계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스승님, 손오공이 요괴에게 한입에 잡아먹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당승은 그만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한참 동안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말했다. "제자야, 너는 요괴를 잘 물리치니 나를 데리고 서천에 가서 부처님을 뵈게 해 줄 줄 알았거늘, 어찌 오늘 이 괴물의 손에 죽게 되었단 말이나. 슬프도

다, 슬프구나! 내 제자가 동료들과 함께 쌓아온 공덕이 이제 모두 먼지가 되어 사라졌구나." 스승은 너무나 괴로워했다. 그런데 저팔계라는 녀석을 보아라, 스승을 위로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사오정, 네가 짐을 좀 가져와 봐. 우리 둘이 나눠 갖자고." 사오정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둘째 형님, 무엇을 나눈다는 말씀입니까?" 저팔계가 말했다. "갈라서 각자 갈 길 가자는 거지. 너는 다시 유사하로 돌아가서 사람이나 잡아먹고, 나는 고로장으로 가서 내 마누라나 보러 가련다. 백룡마는 팔아치워서 스승님 장례 치를 관이나 하나 사 드려야지." 이 말을 들은 당승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하늘을 향해 통곡하며 크게 울었다.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멈춘다.

한편, 요괴가 손오공을 삼키고는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으며 본래의 동굴로 돌아가자, 다른 요괴들이 몰려나와 싸움의 전과를 물었다. 요괴가 말했다. "한 놈을 잡아 왔다." 그러자 나머지 두 요괴가 기뻐하며 물었다. "형님, 잡은 게 누구입니까?" 요괴가 대답했다. "손행자다." "어디에 가두었습니까?" 요괴가 말했다. "내 입속에 한입에 꿀꺽 삼켜 버렸지." 그러자 세 번째 요괴가 깜짝 놀라며 외쳤다. "형님! 제가 손행자는 먹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배 속에서 손오공이 말했다. "아주 맛이 좋구나! 배도 든든하고 굶주릴 걱정도 없으니 딱 좋네!" 그러자 겁에 질린 작은 요괴가 소리쳤다. "대왕님, 큰일 났습니다! 손행자가 대왕님 뱃속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괴가 호통을 쳤다. "말하는 게 뭐가 두렵냐? 능력이 있으면 잡아먹으면 될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다스리면 될 것 아니냐! 어서 가

서 소금물 좀 끓여 오너라. 그것을 들이부어 저놈을 게워낸 다음, 천천히 구워서 술안주로 먹으리라."

작은 요괴가 정말로 소금물 한 대야를 가득 떠 왔다. 요괴가 그것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입을 짝 벌리며 억지로 게워내려 했으나, 손오공은 배 속에서 뿌리라도 내린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요괴는 목구멍이 막힌 듯 계속해서 헛구역질을 해댔다. 눈앞이 어질어질하고 쓸개즙까지 다 쏟아낼 지경이었지만, 손오공은 더욱 꿈쩍도 하지 않았다.

요괴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손행자야, 어서 나오지 못할까!" 그러자 손오공이 대답했다. "벌써 나왔어야 하는데, 마침 안 나오기로 했다!" 요괴가 황당해하며 물었다. "어째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나?" 손오공이 말했다. "이 요괴 녀석, 참으로 눈치가 없구나. 내가 스님 노릇을 하며 아주 소박하게 살아왔는데, 마침 날이 선선해져서 얇은 옷 한 벌만 걸치고 있거든. 그런데 이 뱃속은 따뜻하고 바람도 안 들어서 아주 좋구나. 겨울이 지나고 나서야 나가도록 하마."

요괴들이 그 말을 듣고는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대왕님, 손행자가 대왕님 뱃속에서 겨울을 나겠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요괴 우두머리가 대꾸했다. "그놈이 겨울을 나겠다고 하면, 나는 차라리 참선을 하겠다! 운기법을 써서 겨울 내내 밥을 먹지 않고 버틸 테니, 그 필마온 놈이 배고파 죽는 꼴을 보고 말 테다."

그때 손오공이 말했다. "이놈아,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 손오공은 당승을 모시고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에 광동(廣) 지방을 지나며 접이식 냄비 하나를 챙겨왔단다. 네놈의 간, 창자, 위, 폐를 하나하나

잘 골라내어 맛있게 삶아 먹을 테니, 청명절까지 가는 길 위에서 넉넉히 먹을 수 있겠구나."

다른 두 요괴가 깜짝 놀라 외쳤다. "형님, 저 원숭이가 정말 그런 짓까지 할 모양입니다!"

셋째 요괴가 거들었다. "형님, 차라리 잡탕을 만들어 먹는 건 그렇다 쳐도, 대체 어디에 솥을 걸고 불을 피운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삼차골(세 갈래로 갈라진 뼈) 위에 솥을 걸면 딱 좋겠구나!"

셋째 요괴가 다급히 말했다. "큰일입니다! 만약 솥을 걸고 불을 피워 연기가 코로 들어오기라도 하면, 재채기가 터져 나오면 어찌지요?"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라. 내가 이 여의금고봉을 네놈 정수리에 쑥 밀어 넣어 구멍을 하나 뚫어주마. 그러면 하나는 하늘창이 되고, 또 하나는 연기 빠져나가는 굴뚝이 될 테니까!"

요괴는 듣자마자 무섭지 않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국 그는 억지로 용기를 내어 외쳤다. "형제들아, 겁먹지 마라! 어서 내 약주를 가져오너라. 이걸 몇 잔 들이켜서 저 원숭이 놈을 약으로 죽여버리겠다."

배 속에서 이 말을 들은 손오공은 속으로 비웃었다. '내가 오백 년 전 천계에서 난동을 부릴 때, 태상노군의 금단과 옥황제의 술, 왕모의 복

승아는 물론이고 봉황의 골수와 용의 간까지 먹어보지 않은 게 없거늘, 고작 이런 약주 따위가 감히 나를 죽이겠다고?’

작은 요괴가 정말로 약주 두 병을 가져와 잔에 가득 채워 요괴에게 건넸다. 요괴가 잔을 받아 드는 순간, 손오공은 배 속에서 술 향기를 맡고는 말했다. '저놈이 마시게 두지 마라.' 그러고는 손오공이 고개를 휙 돌리더니, 목구멍 아래쪽을 나팔 모양처럼 넓게 벌려 길을 만들었다. 요괴가 술을 꿀꺽 삼키자, 손오공이 그 술을 입으로 받아 마셨다. 두 번째 잔을 삼켜도 손오공이 그대로 받아 마셨다. 그렇게 일곱여덟 잔을 연달아 마시는 동안, 술은 모두 손오공의 입으로 들어갔다.

요괴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그만 마시겠다. 평소에 이 술을 두 잔만 마셔도 배 속이 불이 나는 것 같더니, 벌써 일곱여덟 잔이나 마셨는데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구나!"

알고 보니 손오공은 술을 그리 잘 마시는 편이 아니었다. 요괴가 건넨 술을 일곱여덟 잔이나 받아 마시더니, 배 속에서 술기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손오공은 배 속에서 쉴 새 없이 버팀목처럼 버티고, 다리를 짚 벌려 주저앉고, 발길질을 해대고, 간을 움켜쥐고 그네를 타고, 물구나무를 서고, 공중제비를 돌며 마구 춤추듯 날뛰었다. 요괴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움직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느끼며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결국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6회 — 심신이 집에 머물러 마귀가 본성을 되찾고, 목모가 함께 내려와 괴이 한 몸의 참모습을 드러내다

心神居舍魔歸性 木母同降怪體真

다시 대도의 참된 길로 돌아가니, 모든 마귀가 본성을 속이고 온몸으로 진여(참된 진리)에게 절하도다.

한편, 손오공이 요괴의 뱃속에서 한참을 버둥거리자, 요괴는 먼지 구덩이 속에 쓰러져 숨도 쉬지 못하고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하지만 손오공이 손을 휘둘러 슬쩍 건드려 보니, 요괴가 다시 숨을 몰아쉬며 살아났다. 요괴는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자비로우신 제천대성 보살님!"

그 소리를 들은 손오공이 말했다.

"이놈아,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말 줄여서 그냥 '손 할아버지'라고 불러라!"

목숨이 아까웠던 요괴는 정말로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 제 잘못입니다! 실수로 그만 당신을 삼키고 말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당신에게 해를 입게 되었군요. 부디 대성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낱 미물인 제가 살고 싶어 발버둥 치는 것을 가엾게 여기시어 목숨만은 살려 주십시오. 대신 당신의 스승님을 무사히 산 너머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며 애걸복걸했다.

손오공은 영웅이었지만, 당삼장을 생각하는 마음이 워낙 깊었다. 요괴가 저토록 비굴하게 아첨하며 빌어대니, 손오공도 마음이 약해져서 말했다.

"요괴 놈아, 내가 너를 살려주면 내 스승님을 어떻게 보내겠다는 것이냐?"

노마가 대답했다.

"저에게는 금은보화나 옥, 산호, 유리, 호박 같은 귀한 보물은 없습니다. 대신 저희 삼 형제가 향기로운 덩굴로 만든 가마를 하나 메고, 당신의 스승님을 모시고 이 산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가마를 메고 배웅해 준다니, 보물을 내놓는 것보다 훨씬 낫구나. 자,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나가겠다."

요괴가 정말로 입을 크게 벌리자, 나머지 두 요괴가 슬그머니 다가와 노마에게 속삭였다.

"형님, 저놈이 밖으로 나올 때 입을 꼭 깨물어 버리십시오. 그래야 저 원숭이 놈을 씹어 삼켜서 다시는 형님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알고 보니 손오공은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도 곧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대신 금고봉을 쑥 내밀어 요괴의 상태를 시험해 보았다. 요괴가 그 봉을 한입에 덥석 물었으나, '우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앞니가 모두 부서져 버렸다. 손오공이 봉을 거두며 말했다.

"이놈, 요괴야! 내가 네 목숨을 살려주려고 나왔더니, 도리어 나를 깨물어 해치려 드느냐? 내가 나가지 않으면 너를 아주 죽여버리고 말 것이다. 안 나간다, 절대로 안 나가!"

말이인 노마가 셋째 요괴를 원망하며 말했다.

"아우야, 이건 우리 식구끼리 서로 당한 꼴이 아니냐. 그냥 그놈을 불러내면 될 것을, 너는 어찌 나더러 깨물라고 했느냐? 놈을 깨물기는 커녕 내 잇몸만 다 부서져서 아파 죽겠구나.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셋째 요괴는 말이인 노마가 자기를 탓하는 것을 보고, 다시 격장지계(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려 도발하는 계책)를 써서 큰 소리로 외쳤다.

"손오공! 네 명성은 천둥소리처럼 귀에 익히 들었다. 남천문 밖에서 위세를 떨치고 영소전 아래에서 뽐내더니, 이제 서천 길에서 요괴를 잡

고 괴물을 묶는다 했더니 알고 보니 별 볼 일 없는 애송이 원숭이였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내가 어째서 애송이란 말이나?"

그러자 셋째 요괴가 맞받아쳤다.

"천 리 밖에서도 눈에 띄는 손님은 만 리 밖까지 이름을 떨치는 법'이라고 했다. 진정한 대장부라면 밖으로 나와 우리와 승부를 겨뤄야지, 어찌 남의 뱃속에 들어가서 꿈수를 부린단 말이나? 애송이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웁은 말이다. 내가 지금 당장 저놈의 창자를 끊고 간을 찢러 죽이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하지만 정말 저런 식으로 싸우면 내 명성에 금이 가겠구나. 좋다, 좋다. 네가 입을 벌리면 내가 나가서 겨뤄주마. 다만 이 동굴 입구가 너무 좁아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니, 좀 넓은 곳으로 나가자꾸나.'

요괴 삼 형제는 그 말을 듣자마자 크고 작은 요괴 삼만여 명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모두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동굴 밖으로 나와 삼재진(三才陣)을 펼친 채, 손오공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일제히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둘째 요괴가 노마를 부축해 문밖으로 나가 외쳤다.

"손오공! 대장부답게 나와라! 여기 싸울 만한 전쟁터가 마련되어 있다!"

손오공은 요괴의 뱃속에서 밖의 까마귀와 까치 울음소리, 학의 울음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고 이곳이 꽤 넓은 곳을 알았다. 그러고는 생각했다.

'내가 나가지 않으면 저들과 약속을 어기는 셈이 되고, 그렇다고 나가자니 저 요괴들은 겉은 사람이나 속은 짐승인 놈들이다. 아까는 스승님을 보내주겠다며 나를 속여 밖으로 유인해 잡아먹으려 하더니, 이제는 또 군사를 불러 대기시키고 있구나. 예라, 모르겠다. 차라리 나가는 김에 저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저놈 뱃속에 아주 뿌리 깊은 원한 하나를 심어주고 나가리라.'

손오공은 즉시 꼬리에 난 털 한 가닥을 뽑아 입으로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털 한 가닥이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밧줄로 변하더니, 길이는 순식간에 마흔 길(약 120m)이나 늘어났다. 이 밧줄은 밖으로 나가 바람을 맞으면 저절로 굽어지는 성질이 있었다. 손오공은 밧줄의 한쪽 끝을 요괴의 심장 근처에 묶고는, 살짝 잡아당기면 조여지고 가만히 두면 느슨해지도록 교묘하게 매듭을 지었다. 그러고는 밧줄의 다른 한쪽 끝을 손에 쥐고 웃으며 말했다.

"이대로 나가면 저놈들이 스승님을 잘 모셔다드리면 그만이지만, 만약 약 약속을 어기고 무기를 휘두르며 덤벼든다면 싸울 것도 없다. 그것이 밧줄만 뺏아당기면 저놈도 내가 뺏속에 있을 때처럼 고통에 몸부림칠 테니까."

말을 마친 손오공은 몸을 아주 작게 줄여 밖으로 기어 나가기 시작했다. 목구멍 근처까지 기어 올라가니, 요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는데 위아래로 돌은 강철 같은 이빨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늘어서 있었다. 손오공은 문득 생각이 들었다.

'아차, 안 되겠다. 만약 입을 통해 나가면서 밧줄을 잡아당기면, 저놈이 아픔을 참지 못하고 입을 꼭 다물어버릴 텐데, 그러면 밧줄이 끊어지지 않겠는가? 이빨이 없는 곳을 통해 나가는 게 좋겠다.'

과연 손오공은 영리했다. 그는 밧줄을 쥔 채 요괴의 입천장을 타고 앞으로 기어가더니, 결국 코구멍을 통해 빠져나갔다. 마침 노마의 코가 간질거려 "에취!" 하고 크게 재채기를 하는 순간, 손오공이 쏜살같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손오공이 바람을 일으키더니 허리를 굽혔다 펴며 몸을 순식간에 삼장 길이로 길게 늘였다. 한 손에는 밧줄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금고봉을 든 채였다. 요괴 만이는 앞뒤 가리지 않고 손오공이 나타나자 강철 칼을 들어 얼굴을 향해 내리쳤다. 손오공은 한 손으로 금고봉을 휘둘러 이를 막아냈다. 이때 두 번째 요괴는 창을 휘두르고 세 번째 요괴는 극을 휘두르며 앞뒤 가릴 것 없이 정신없이 달려들었다. 손오공은 밧줄을 느슨하게 풀고 금고봉을 거둔 뒤, 재빨리 몸을 날려 구름을 타고 멀리

달아났다. 소요괴들에게 둘러싸여 일을 그르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는 진영 밖으로 뛰어나가 탁 트인 산봉우리에 내려앉더니, 양손으로 밧줄을 힘껏 잡아당겼다. 그제야 요괴 만이는 속이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꼈다. 요괴가 아픔을 참으며 몸을 위로 솟구쳐 보려 하자, 손오공은 다시 한번 아래로 밧줄을 확 잡아당겼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소요괴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대왕님, 저놈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냥 가게 내버려 두세요. 저 원숭이는 때와 장소를 가릴 줄을 모릅니다. 청명절도 안 됐는데 벌써 연을 날리고 있단 말입니까!"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기세 좋게 밧줄을 구르며 힘을 주어 당기자, 요괴 받은 공중에서 물레가 돌아가듯 허우적거리며 흙먼지 속으로 곤두박질쳤다. 요괴는 산비탈 아래 딱딱한 황토 땅에 두 자 깊이의 구덩이를 파며 처박히고 말았다.

두 번째 요괴와 세 번째 요괴는 당황하여 일제히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 그들은 앞장서서 밧줄을 붙잡은 채 언덕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애걸하며 말했다.

"손대성님, 당신이 바다처럼 넓은 도량을 가진 신선인 줄로만 알았지, 이렇게 속이 좁고 간사한 놈일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로 당신을 속여서 밖으로 나오게 하려 했을 뿐인데, 설마 우리 형님 심장에 밧줄을 묶어 놓으셨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무례한 요괴 놈들 같으니라고! 지난번에는 나를 속여서 밖으로 나오게 하더니 나를 덥석 깨물더니, 이번에는

또 나를 속여서 나오게 하더니 대낮에 진을 치고 맞서 싸우려 하느냐? 수만 명의 요괴 병사들이 나 혼자 싸우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어서 밧줄을 끌고 가서 내 스승님을 만나자꾸나."

요괴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손대성님, 자비를 베푸셔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원한다면 스승님을 가마에 태워 안전하게 산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손오공이 다시 웃으며 말했다. "목숨을 구하고 싶거든 칼을 가져와서 이 밧줄을 끊어버리면 될 것 아니냐?"

그러자 첫째 요괴인 노마가 말했다. "아이고, 대성님! 곁에 있는 건 끊는다 쳐도, 이 안쪽에 있는 건 심장에 묶여 있습니다. 목구멍까지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어찌면 좋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정 그렇다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다시 들어가서 밧줄을 풀어줄 테니."

노마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다시는 나오려고 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정말 큰일이 아닙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나에게는 밖에서도 안의 밧줄 끝을 풀어낼 재주가 있다. 밧줄을 풀어주면 정말로 내 스승님을 무사히 보내줄 것이냐?"

노마가 대답했다. "풀어주기만 하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손오공이 상황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여 몸을 한 번 흔들며 털을 거두어들였다. 그러자 요괴의 심장 통증이 사라졌다. 이것은 손오공이 부리는 술법으로, 자신의 털을 요괴의 심장에 묶어 놓았다가 털을 거두어들임으로써 통증을 없애준 것이었다.

세 요괴는 몸을 일으켜 절하며 말했다. "손대성님, 이제 돌아가십시오. 당승님께 전하여 짐을 챙겨 두시면, 저희가 바로 가마를 메고 와서 모시겠습니다."

요괴들은 무기를 모두 내려놓고 모두 동굴로 돌아갔다.

손오공이 밧줄을 거두고 곧장 산을 돌아 내려가니, 멀리서 당삼장이 땅바닥을 뒹굴며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저팔계와 사오정은 짐보따리를 풀어놓고는 거기서 짐을 나누고 있었다. 손오공이 속으로 탄식하며 생각했다. '말할 것도 없군. 분명 저팔계가 스승님께 내가 요괴에게 잡아먹혔다고 말했으니, 스승님은 나를 잃은 슬픔에 통곡하고 계신 것이고, 저 바보 녀석은 짐이나 나누고 있는 게로구나. 아니, 설마 정말 그런 건가? 일단 가서 한번 불러봐야겠다.'

손오공이 구름 아래로 내려오며 외쳤다. "스승님!"

그 소리를 들은 사오정이 저팔계를 원망하며 말했다. "이 고집불통 멍청아, 너는 어째 맨날 사람을 해치기만 하느냐! 사형이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죽었다고 떠들어대며 여기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나중에 뒷감당은 어찌려고 그러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나는 분명히 요괴가 그놈을 한입에 꿀꺽 삼키는 걸 똑똑히 봤단 말이다. 아마 오늘 운수가 나빠서 저 원숭이가 귀신이 되어 나타난 모양이지."

손오공이 그들 곁으로 다가가 저팔계의 뺨을 덥석 잡더니, 짹 소리가 나게 한 대를 후려쳤다. 저팔계가 비틀거리자 손오공이 호통쳤다. "이 멍청한 놈아! 내가 무슨 귀신이라는 말이야?"

저팔계가 아픈 뺨을 문지르며 말했다. "형님, 정말 요괴가 형님을 잡아먹은 줄 알았는데, 어째서 다시 살아난 겁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너같이 일도 못 하는 얼간이처럼 당하고만 있었겠느냐? 요괴가 나를 삼키기에, 내가 놈의 창자를 움켜쥐고 폐를 쥐어짜며, 이 밧줄로 놈의 심장을 꿰뚫어 버렸다.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게 만들자 놈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더구나. 그래서 겨우 목숨을 살려준 것이다. 이제는 스승님을 모시고 산을 넘을 가마까지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을 들은 당삼장이 벌떡 일어나 손오공에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제자야, 고생이 많았구나. 만약 내가 저팔계의 말을 믿었더라면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게다."

손오공은 주먹을 휘두르며 저팔계를 꾸짖었다. "이 게으른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스승님,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저 요괴들이 곧 스승님을 모시러 올 것입니다."

사오정 역시 몹시 부끄러워하며 서둘러 저팔계를 가로막고는, 짐을 챙기고 말의 안장을 매만지며 길 위에서 기다리자고 재촉했다.

한편, 요괴 삼 형제가 부하 요괴들을 거느리고 동굴로 돌아왔다. 둘째 요괴가 말했다.

"형님, 저는 그저 손오공이 머리가 아홉 개고 꼬리가 여덟 개인 괴물 같은 놈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별것 아닌 작은 원숭이일 뿐이었군요. 형님께서 굳이 저놈을 삼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와 맞서 싸우게만 했어도 저놈이 어떻게 우리를 당해내겠습니까? 동굴에 있는 이 수만 명의 요괴들이 침을 뱉기만 해도 저놈을 물에 빠뜨려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님께서 저놈을 뱃속에 삼키는 바람에, 저놈이 안에서 법술을 부려 형님을 고생시키지 않았습니까? 어찌 저놈을 감히 상대하겠습니까. 아까 당삼장을 보내주겠다고 한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형님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에 저놈을 밖으로 쫓아내려고 속인 것뿐이지, 절대로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말이인 노마가 물었다.

"동생아, 보내주지 않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나?"

둘째 요괴가 대답했다.

"형님께서 저에게 삼천 명의 소요를 내어주시고 진을 치게 해주시면, 제가 저 원숭이 놈을 붙잡을 재주가 있습니다."

노마가 말했다.

"삼천 명은커녕, 네가 원한다면 전군을 다 이끌고 나가도 좋다. 저놈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공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요괴는 소요괴 삼천 마리를 불러 모아 큰길가에 늘어놓게 한 뒤, 푸른 깃발을 든 요괴를 시켜 이리저리 소식을 전하게 했다. "손오공은 어서 나오너라! 우리 둘째 대왕님과 한판 붙어야겠다!"

이 소리를 들은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 예부터 '거짓말은 마을 사람들도 다 안다'고 했잖아요. 저놈들이 지금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요괴를 항복시켰다면 스승님을 가마에 태워 보내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싸움을 걸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만형 요괴는 이미 내가 항복시켜서 감히 나서지도 못하고 있어. '손' 자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다고 난리야. 이건 분명 둘째 요괴가 분함을 참지 못하고 우리를 보내주지 않으려고 싸움을 거는 모양이다. 이보게 아우, 저 요괴들은 형제가 셋인데도 의리가 저렇게 깊은데, 우리 형제도 셋인데 의리가 없어서야 되겠나? 내가 이미 만형 요괴를 굴복시켰으니, 둘째 요괴가 나오거든 자네가 가서 한판 붙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저팔계가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그놈들이 뭐가 무섭다고요? 제가 가서 한바탕 때려눕히고 오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가고 싶으면 가보게나."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 갈게요! 대신 저 밧줄 좀 빌려주세요."

손오공이 되물었다. "밧줄은 어디에 쓰려고? 자네는 요괴 뱃속으로 기어 들어갈 능력도 없고, 요괴 심장에 밧줄을 묶을 재주도 없는데 그게 왜 필요하나?"

저팔계가 대답했다. "허리춤에 차고 있다가 목숨을 구할 생명줄로 쓰려고요. 형님이 사오정과 함께 밧줄 뒷부분을 꼭 잡고 있다가, 제가 나가서 싸울 때 놓아주세요. 만약 제가 이기면 형님이 밧줄을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그럼 제가 요괴를 붙잡을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 제가 지면 저를 확 잡아당겨서 끌어내 주세요. 요괴한테 끌려가지 않게 말이에요!"

손오공은 속으로 '이 어리석은 녀석을 좀 골려줘야겠군' 하고 웃으며, 밧줄을 저팔계의 허리에 채워주고는 싸우러 나가도록 부추겼다.

저팔계가 갈퀴를 치켜들고 산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가며 소리쳤다. "요괴 놈들아, 당장 나와서 이 돼지 조상님과 한판 붙자!"

그때 파란 깃발을 든 소요괴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대왕님, 입이 길고 귀가 커다란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두 요괴는 즉시 진영에서 뛰어나와 저팔계를 보자마자 말 한마디 섞을 것도 없이 창을 곧게 세워 얼굴을 향해 찌러 왔다. 저팔계는 갈퀴를 휘두르며 맞서 싸웠다. 두 괴물이 산비탈 앞에서 한바탕 맞붙었으나, 일고여덟 합을 채 넘기기도 전에 저팔계는 팔에 힘이 빠져 요괴들을 당

해낼 수가 없었다. 저팔계는 급히 뒤를 돌아보며 외쳤다. "사형, 큰일 났어요! 살려줄 밧줄 좀 당겨줘요, 살려줄 밧줄 좀!"

이 소리를 들은 손오공은 잡고 있던 밧줄을 속 풀어 던져버렸다. 전투에서 패한 저팔계는 곧장 뒤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까부터 질질 끌려오던 밧줄이 손오공이 놓아주는 바람에 밧에 걸리고 말았다. 저팔계는 제 밧에 걸려 한 번 넘어지더니, 일어나자마자 또 넘어졌다. 처음에는 밧을 헛디디며 비틀거리는 정도였으나, 나중에는 완전히 얼굴부터 땅에 처박히고 말았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요괴가 달려들어 마치 교룡이 먹이를 낚아채듯 저팔계의 코를 획 감아 올리더니, 승전보를 울리며 동굴로 돌아갔다. 요괴들은 승리의 노래를 일제히 부르며 떼를 지어 돌아갔다.

언덕 아래에서 이 광경을 본 당삼장은 다시 화가 나서 손오공에게 말했다.

“오공아, 저팔계가 왜 너를 죽도록 저주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너희 형제 사이에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고, 오로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뿐이로구나. 저팔계가 저토록 절박하게 살려 달라고 밧줄을 붙잡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잡아주지 않고 밧줄을 던져 버렸느냐? 이제 저팔계가 해를 입게 생겼으니 이를 어찌면 좋단 말이냐?”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스승님은 너무 편애가 심하시고 편파적이십니다. 됐습니다, 저를 데려갈 때는 아무 걱정도 안 하시더니, 저 멍청한 녀석이 붙잡혀 가자마자 저를 탓하십니까? 저 녀석도 고생 좀 해보야 불경을 구하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될 겁니다.”

당삼장이 말했다.

“제자야, 네가 가 있는데 내가 어찌 걱정이 안 되겠느냐? 너는 변화 무쌍한 재주가 있으니 몸 상할 일은 없을 거라 믿었지. 하지만 저팔계는 덩치만 컸지 날아다니는 법도 모르고 힘도 없으니, 저렇게 갔다가 얼마나 큰 화를 당할지 모르지 않느냐. 어서 가서 저 녀석을 좀 구해다오.”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원망만 하지 마십시오. 가서 구해오겠습니다.”

손오공은 급히 몸을 날려 산을 따라 올라가며 속으로 원망 섞인 생각을 했다. '이 어리석은 녀석이 나보고 죽으라니, 저 녀석이 즐거워하게 내버려 둘 순 없지. 일단 저 요괴가 스승님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자. 스승님이 고생 좀 하신 다음에 구해주러 가야겠다.' 그러고는 주문을 외우며 몸을 흔들며 자그마한 찌렁찌렁미로 변신하더니, 찹쌀게 날아가 저팔계의 귀 뿌리에 딱 붙은 채 요괴를 따라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둘째 요괴는 삼천 명의 소요를 거느리고 요란하게 풍악을 울리며 동굴 입구에 진을 쳤다. 그러고는 저팔계를 붙잡아 안으로 끌고 들어가며

말했다. "형님, 한 마리 잡아 왔습니다!" 노마가 말했다. "어디 한번 보자." 그러자 둘째 요괴가 코(코끼리 코)에 힘을 빼고는 저팔계를 툭 떨어뜨리며 말했다. "이놈 아니냐?" 노마가 혀를 차며 말했다. "이놈은 쓸모가 없구나." 그 말을 들은 저팔계가 대꾸했다. "대왕님, 쓸모없는 놈은 내버려 두시고, 쓸모 있는 놈을 찾아 잡으러 가시지요!" 그러자 세 번째 요괴가 말했다. "비록 쓸모는 없어도 당승의 제자인 저팔계가 아닙니까. 일단 묶어서 뒤편 연못에 던져 두지요. 털이 다 빠질 때까지 불린 다음, 배를 갈라 소금에 절여 말려 두었다가 날이 흐린 날 술안주로 삼읍시다." 저팔계는 깜짝 놀라 외쳤다. "이런, 이런! 절임 요괴를 만날 줄이야!"

요괴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저팔계의 팔다리를 푹푹 묶더니, 메고 가고 들고 가며 연못가로 옮겼다. 그러고는 연못 한가운데로 뺨 밀어버리고는 모두 흩어져 돌아갔다.

손오공이 날아올라 살펴보니, 저 멍청한 녀석은 팔다리를 하늘로 향한 채 입을 벌리고 물속에 반쯤 잠겨 있었는데, 입에서 거품을 보글보글 내뿜는 모습이 참으로 우스꽝스러웠다. 그 모습이 마치 팔구월 서리를 맞아 씨가 다 빠져버린 커다란 검은 연밥(연꽃 열매송이) 같았다. 손오공은 저 꼴을 보니 얄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련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저렇게 되었을까? 저 녀석도 나중에 용화회에 참석할 귀한 몸인데 말이야. 하지만 툭하면 짐을 나눠 뿔뿔이 흩어질 궁리나 하고, 스승님을 부추겨 나에게 긴고주(머리테 조이는 주문)를 외우게 하니

참으로 밋구나. 엇그제 사오정에게 듣기로는 저 녀석이 몰래 챙겨둔 비상금이 좀 있다던데, 정말 있는지 한번 겁을 쥐서 확인해 봐야겠다."

손오공은 슬쩍 그에게 날아붙어 귀에 대고 목소리를 흉내 내며 불렀다. "저오능, 저오능!"

저팔계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에구머니나, 재수 없게! 내 이름 '오능(悟能)'은 관음보살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당승을 따른 뒤로는 '팔계'라고 불리는데, 대체 누가 내 법명을 알고 부르는 거지?"

어리숙한 저팔계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누가 내 법명을 부르는 건가?" 손오공이 대답했다. "나다." 저팔계가 다시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오?" 손오공이 말했다. "나는 저승사자다."

저팔계가 당황하며 물었다. "나으리, 어디서 오신 분이요?" 손오공이 말했다. "오전(五殿) 염라대왕께서 너를 잡으라고 나를 보내셨다." 저팔계가 말했다. "나으리, 제발 돌아가셔서 염라대왕께 전해주시오. 내 사형 손오공과 아주 사이가 좋으니, 하루만 봐달라고 말ियो. 내일 다시 오라고 전해주시오."

손오공이 말했다. "헛소리 마라. '염라대왕이 삼경에 죽으라 명하면, 누가 감히 사경까지 사람을 붙들어 두겠느냐'라고 했다. 밧줄에 묶여 끌려가기 싫으면 어서 나를 따라와라."

저팔계가 말했다. "나으리, 좀 봐주실 수 없겠습니까? 제 꼴을 좀 보시오, 그래도 아직은 더 살고 싶단 말입니다. 죽는 건 피할 수 없겠지

만,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 요괴 놈들이 우리 스승님까지 잡아올 테니, 그때 다 같이 모여 한꺼번에 끝장을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손오공은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다. '좋아, 내 잡아들일 명단에 서른 명이 있는데 모두 이 근방 앞뒤에 있으니, 그들을 잡으러 가는 동안 하루쯤은 지체할 수 있겠군. 그런데 너, 여비는 있느냐? 좀 내놓아 보아라.'

저팔계가 말했다. "가엾게도, 출가한 스님이 무슨 여비가 있겠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여비가 없으면 압수할 테니 그냥 따라오거나 해라."

저팔계가 겁에 질려 말했다. "나으리, 압수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든 그 밧줄이 목숨을 앗아가는 '추명승'이라는 걸 압니다. 묶이는 순간 숨이 넘어갈 테니까요. 아, 있습니다! 조금 있긴 한데, 많지는 않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어디 있느냐? 어서 내놔라." 저팔계가 말했다. "가엾기도 하지. 내가 스님이 된 뒤로, 선량한 신도들이 공양을 올릴 때 내가 식성이 좋아 남들보다 보시를 좀 더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두었는데, 푼돈이 모여 은자 5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리하기가 번거로워 성안에 있는 은세공사에게 맡겨 한 덩어리로 녹였더니, 그놈이 염치도 없이 조금 떼어먹는 바람에 4전 6분짜리 한 덩이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으니 가져가십시오."

손오공은 속으로 비웃었다. '이 어리숙한 놈, 바지 입을 것도 없는데 대체 어디다 숨겨둔 거야? 어이! 은자가 어디 있냐고!'

저팔계가 말했다. "제 왼쪽 귓구멍에 끼워 두었습니다. 묶여 있어서 꺼낼 수가 없으니, 나오리가 직접 가져가십시오."

손오공이 그 말을 듣고 즉시 귀를 더듬어 보니, 정말로 말안장 모양의 은괴가 나왔는데 무게가 족히 네 돈 대여섯 푼은 되어 보였다. 손오공은 그것을 손에 쥐고는 참지 못해 하하하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물속에 있던 저팔계는 그 소리가 손오공인 줄로만 알고 물속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이 천벌을 받을 필마온(말을 돌보는 하급 관리) 놈아!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재물을 뜯어내려 오다니!"

손오공이 다시 웃으며 말했다.

"이 냄새나는 놈아, 이 손오공이 스승님을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는 은근슬쩍 뒷주머니를 채우고 있느냐?"

저팔계가 대꾸했다.

"말은 잘하는구나! 이게 무슨 뒷주머니냐? 다 이빨 사이에 낀 걸 굵어모은 거지. 나는 입에 넣고 먹기도 아까워서 옷 한 벌 해 입으려고 남겨둔 건데, 네가 나를 깜짝 놀라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 좀 나한테 나눠다오."

손오공이 말했다.

"반 푼도 못 준다."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차라리 내 목숨값으로 다 가져가라! 그래도 나를 구해내 주기는 해야 할 것 아니냐."

손오공이 말했다.

"서두르지 마라, 내가 곧 구해줄 테니."

손오공은 은괴를 잘 숨겨두고는 즉시 본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고는 철봉을 휘둘러 저팔계를 획 끌어당긴 뒤, 발목을 잡고 끌어올려 묶여 있던 밧줄을 풀어주었다. 저팔계는 꺾충 뛰어오르더니 옷을 벗어 물기를 털어냈다. 그러고는 축축한 옷을 다시 걸치며 말했다.

"형님, 뒷문으로 슬쩍 도망갑시다."

손오공이 말했다.

"뒷문으로 도망가는 게 어디 대장부다운 일이냐? 당당하게 앞문으로 나가야지."

저팔계가 말했다.

"제 발이 묶여 있던 탓에 저러서 제대로 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어서 나를 따라오너라!"

손오공은 금고봉을 휘두르며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을 죄다 부수며 밖으로 돌진했다. 저팔계는 몸이 저릿한 통증을 참으며 그 뒤를 바짝 쫓을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두 번째 요괴가 문 옆에 세워둔 창을 뉘아채더니, 앞을 가로막던 소요들을 밀쳐내고 손오공을 향해 마구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손오공은 문을 서너 겹이나 부수며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소요를 때려눕혔는지 알 수 없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첫째 요괴 노마가 동생들에게 외쳤다. "사람을 잘 잡았다, 정말 잘 잡았어! 봐라, 손오공이 저팔계를 잡아채더니 문을 부수며 소요들을 다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을 들은 두 요괴는 즉시 몸을 날려 창을 손에 쥐고 문밖으로 달려 나왔다. 그들은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 무례한 원숭이 녀석! 감히 우리를 이토록 우습게 보다니!"

손오공은 그 소리를 듣고 즉시 발을 멈춰 섰다. 요괴들은 말할 겨를도 없이 창을 내질렀으나, 손오공은 침착하게 금고봉을 뽑아 들어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두 괴물은 동굴 문밖에서 한바탕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시로 이르되,

누런 어금니를 가진 코끼리가 사람의 형상으로 변해 사자왕과 의형제를 맺고 형제로 지냈네. 큰 요괴가 꾀를 내어 두 동생과 합심하니 당승을 잡아먹을 계책을 세웠구나. 손오공은 신통력이 뛰어나고 넓으니

사악한 요괴를 물리쳐 정의를 세우리라. 저팔계는 무능하여 요괴의 손에 잡혔으나 손오공이 구출하여 밖으로 나아갔네. 요괴 왕들은 용맹하게 뒤쫓아 오니 창과 봉이 맞부딪치며 저마다 재주를 뽐내네. 한쪽의 창은 숲을 헤치고 나가는 구렁이 같고 한쪽의 봉은 바다에서 솟구치는 용과 같구나. 용이 바다를 나서니 구름이 자욱하고 구렁이가 숲을 지나니 안개가 자욱하네. 이 모든 싸움은 결국 당승 때문이니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모습이 참으로 가혹하구나.

저팔계는 손오공이 요괴와 싸우는 것을 보면서도, 산 어귀에 쇠갈퀴를 세워둔 채 도와주러 오기는커녕 그저 멍하니 구경만 하고 있었다. 요괴는 손오공의 금고봉이 워낙 묵직하고 무예가 뛰어나 빈틈이 전혀 없자, 창으로 봉을 막아낸 뒤 코를 획 휘둘러 손오공을 낚아채려 했다. 손오공은 요괴의 수작을 눈치채고 두 손으로 금고봉을 가로로 낚아채 위로 번쩍 치켜들었다. 요괴의 코가 손오공의 허리춤을 휘감기는 바람에 정작 손은 낚아채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보니 손오공은 두 손에 든 봉을 요괴의 코끝 위에서 현란하게 휘두르며 놀리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본 저팔계가 가슴을 쿵쿵 치며 말했다. "에이, 저 요괴 참 재수 없네! 나처럼 덩치 큰 놈을 낚아채려니 몸뚱이까지 다 휘감겨서 꼼짝도 못 하고, 저렇게 미끄러운 놈은 코를 못 잡는 것 좀 봐. 손에 봉을 쥐고 저 코 안을 쿡 찌러버리기만 하면, 요괴가 코가 아파서 콧물이 나 흘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저놈을 붙잡겠어?"

손오공은 원래 그럴 생각이 없었으나, 저팔계가 옆에서 부추긴 탓이었다. 손오공이 금고봉을 한 번 흔들자, 봉이 마치 달걀만큼 가늘어지면서 길이는 한 길 남짓하게 늘어나더니, 정말로 요괴의 콧구멍 속을

쑥 찢러 들어갔다. 깜짝 놀란 요괴는 비명을 지르며 코를 뺨 뒤로 뺐다. 하지만 손오공이 재빨리 손을 뻗어 요괴의 코를 꽉 붙잡고는 힘껏 앞으로 잡아당겼다. 요괴는 코가 너무 아픈 나머지 손에 끌려가는 대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제야 저팔계가 용기를 내어 다가가 쇠갈퀴로 요괴의 사타구니를 마구 찢러댔다.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안 돼, 안 돼! 갈퀴 끝이 너무 날카로워서 살점이 터지고 피가 나면, 스승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해친다고 또 꾸짖으실 거야. 그냥 몽둥이로 때리기만 하자."

정말 어리석게도 요괴는 쇠갈퀴 손잡이를 든 채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한 번씩 땅을 내리쳤고, 손오공은 요괴의 코를 붙잡고 끌고 갔다. 그 모습은 마치 코끼리 부리는 사람 둘이 코끼리를 끌고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듯했다.

당삼장이 눈을 가늘게 뜨고 간절히 바라보다가, 두 제자가 시끌벅적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외쳤다. "사오정, 네가 보아라. 손오공이 무엇을 끌고 오는 것이냐?"

사오정이 보고는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큰사형이 요괴의 코를 붙잡고 끌고 오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보기만 해도 통쾌합니다."

당삼장이 말했다. "착하구나, 참으로 착해! 저렇게 커다란 요괴가 코도 저렇게 길다니. 가서 물어보아라. 만약 우리를 기쁘게 배웅하며 산을 넘겨준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말이다."

사오정이 급히 앞으로 달려 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요괴가 스승님을 모시고 기쁘게 산을 넘겨준다면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하신다!"

그 말을 들은 요괴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는 입으로 '우우' 소리를 내며 대답했다. 원래 손오공에게 코를 붙잡혀 짓눌린 탓에, 마치 독한 감기에 걸려 코가 꽉 막힌 사람처럼 소리가 웅얼거렸던 것이다. 요괴가 말했다. "당 어르신, 제발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당장 가마를 메어 모셔다드리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우리 스승님과 제자들은 모두 자비로운 분들이이니, 네 말대로 일단 목숨은 살려주마. 어서 가마를 메고 오너라. 만약 다시 마음을 바꿔 판짓을 한다면, 그때는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

요괴는 손오공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자마자 머리를 조아리고는 물러갔다. 손오공과 저팔계는 당삼장을 만나 그간 있었던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저팔계는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해, 언덕 앞에서 옷을 말리며 이야기를 다 들을 때까지 기다렸다.

두 번째 요괴는 벌벌 떨며 동굴로 돌아갔다. 아직 동굴에 도착하기도 전에, 소요들이 이미 말이인 노마와 셋째 요괴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둘째 요괴가 손오공에게 코가 붙잡힌 채 끌려갔다는 내용이었다. 겁에 질린 노마는 셋째 요괴와 함께 무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둘째 요괴가 혼자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나머지 요괴들도 모두 불러 모아, 왜 손오공을 풀어주었는지 그 이유를 물었다.

둘째 요괴는 당삼장이 보여준 자비롭고 선한 모습에 대해 요괴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요괴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둘째 요괴가 물었다.

"형님, 그럼 당삼장을 보내주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노마가 대답했다.

"동생아, 그게 무슨 소리냐? 손오공은 인자함을 베푸는 원숭이다. 그놈이 처음에 내 뱃속에 있었을 때, 만약 내 목숨을 해치려 했다면 천 마리가 있어도 다 죽였을 게다. 하지만 그저 네 코만 붙잡았을 뿐이지 않느냐. 만약 붙잡은 채로 놓아주지 않았다면 네 코가 뭉개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어서 서둘러 그를 보내줄 채비를 하자꾸나."

셋째 요괴가 웃으며 말했다.

"보내주지요, 보내드리고말고요."

노마가 다시 말했다.

"동생아, 네 말투는 꼭 화가 난 사람 같구나. 네가 보내기 싫다면 우리 형제 둘이서라도 보내주마."

세 번째 요괴가 웃으며 말했다. "두 형님, 저 스님을 우리가 직접 모셔다드리지 않고 그냥 슬쩍 속여서 지나가게 둔다면 그것은 저 스님의 운이 좋겠지만, 만약 우리가 직접 모셔다드린다면 제 '조호리산(調虎離山, 호랑이를 유인해 산에서 떼어놓는 계책)'의 계책에 딱 걸려드는 꼴이 될 것입니다."

말이인 요괴가 물었다. "조호리산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자 세 번째 요괴가 대답했다. "우선 동굴 안의 요괴들을 모두 소집한 다음, 만 명 중에서 천 명을 뽑고, 다시 천 명 중에서 백 명을 뽑고, 그중에서 또 백 명 중에서 열여섯 명과 서른 명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말이 요괴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어째서 열여섯 명도 필요하고 서른 명도 필요하다는 말이냐?"

세 번째 요괴가 설명을 이어갔다. "서른 명은 요리를 할 인원입니다. 그들에게 쌀과 밀가루, 죽순, 찻잎, 버섯, 두부, 밀가루 덩어리 같은 먹거리를 들려 보냅니다. 그리고 스님을 모시고 이십 리나 삼십 리쯤 떨어진 곳에 숙소를 차리게 하여, 당삼장을 정성껏 대접하며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열여섯 명은 어디에 쓰려는 것이냐?"

"여덟 명은 가마를 메게 하고, 여덟 명은 길을 안내하며 따라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곁에서 스님을 모시며 길을 배웅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서쪽으로 사백여 리만 가면 바로 제 성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저를 맞이할 인마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성 근처에 다다를 때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스님과 제자들이 앞뒤를 살필 겨를도 없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삼장을 붙잡는 것은 오로지 이 열여섯 명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만이 요괴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마치 술에 취했다가 막 깨어난 듯, 혹은 꿈을 꾸다 막 깨어난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좋다, 좋아! 아주 좋아!"라고 외쳤다.

곧바로 요괴들을 소집하여 먼저 서른 명을 뽑아 먹거리를 챙겨주게 하고, 다시 열여섯 명을 뽑아 향기로운 덩굴로 만든 가마 하나를 준비하게 하여 길을 떠나게 했다. 그러면서 남은 요괴들에게도 엄중히 명령했다.

"아무도 산 위를 한가롭게 돌아다니지 마라! 손오공은 의심이 아주 많은 원숭이다. 너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의심하여 이 계책을 알아챌 것이다."

요괴는 곧바로 부하들을 거느리고 큰길가로 나와 크게 외쳤다. "당 노야님, 오늘은 홍일인 홍사일(紅沙日)에 걸리지 않으니 어서 일찌감치 산을 넘어가시지요!"

그 소리를 들은 당삼장이 물었다. "오공아, 누가 나를 부르느냐?"

손오공이 손가락으로 그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쪽은 제가 항복시킨 요괴들이 스승님을 모셔다드리려고 가마를 가져온 것입니다."

당삼장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합장하며 말했다. "착하구나, 참으로 착해! 만약 어진 제자가 이토록 능력이 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길을 갈 수 있었겠느냐?"

당삼장은 곧장 앞으로 나아가 요괴들에게 예를 갖추며 말했다. "여러분의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제자가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을 마치고 동쪽 장안으로 돌아가면, 이 선한 공덕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요괴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어서 가마에 오르십시오, 노아님."

당삼장은 평범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이것이 함정인 줄 꿈에도 몰랐다. 손오공 역시 태을금선(太乙金仙)의 경지에 오른 충직한 성품의 신선이라, 그저 요괴들을 사로잡았다 풀어준 공이라고만 여겼을 뿐, 어찌 그들이 모두 탄 음모를 품었으리라 짐작이나 했겠는가? 그리하여 자세히 살피지도 않은 채 스승님의 뜻을 그대로 따랐다.

손오공은 저팔계에게 짐을 말에 싣게 하고, 사오정에게는 스승님을 바짝 뒤따르라고 명했다. 그러고는 자신이 철봉을 휘둘러 앞길을 열며, 주변의 길흉을 살폈다. 요괴 여덟 명이 가마를 들어 올리며 한 명씩 번갈아 기합을 넣었고, 세 요괴가 가마를 받쳐 들었다. 당삼장은 무척 기뻐하며 가마 위에 단정히 앉았다. 가마는 높은 산을 올라 큰길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즐겁게 길을 떠났으나, 기쁨이 가득한 사이 슬픔이 다시 찾아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경전에 이르기를, '태(泰)가 극에 달하면 비(否)가 다시 생겨난다'고 했다(태평이 극에 이르면 다시 막힘과 재앙이 온다는 뜻이다). 운수가 공교롭게도 흥신인 태세성(太歲星)과 마주치고, 게다가 불길한 상문성(喪門星)과 조객성(吊客星)까지 함께 만난 격이었다. 요괴 삼 형제는 마음을 모아 시종처럼 곁에서 극진히

모시며 아침저녁으로 친절을 베풀었다. 삼십 리를 가면 정진 음식을 올리고, 오십 리를 가면 또 음식을 올렸으며, 날이 저물기 전에는 늘 쉬어가도록 청하며 길을 따라 줄을 지어 정연하게 이동했다. 하루 세 끼 식사도 입에 맞았고, 밤마다 머무는 숙소 또한 안락하니 그야말로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했다.

서쪽으로 사백여 리쯤 나아가자, 문득 가까이에 성곽이 보였다. 손오공이 금고봉을 치켜들고 가마에서 겨우 일 리(약 400m) 떨어진 곳까지 갔을 때, 성곽을 본 그는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다. 평소의 그 대담한 손오공이 어찌 이리 겁을 먹었을까? 알고 보니 저 성 안에서 뿔어져 나오는 사악한 기운이 대단했기 때문이다.

시로 이르되,

때 지어 몰려든 요괴와 괴물들이 가득하고, 성문 네 곳은 모두 늑대 요괴들이 지키네. 알록달록한 호랑이들이 관리 노릇을 하고, 얼굴 하얀 표범이 총병이 되었구나. 뿔 달린 사슴 요괴들이 명령을 전하고, 영악한 여우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네. 천 척 높이의 큰 구렁이가 성을 에워싸고, 만 길 길이의 긴 뱀들이 길을 점령했구나. 누각 아래에서는 푸른 늑대가 명령을 내리고, 대 앞에서는 표범이 사람 목소리를 흉내 내네. 깃발 흔들고 북 치는 이들 모두 요괴요, 순찰하고 보초 서는 이들 전부 산 도깨비라. 교활한 토끼는 문을 열어 장사를 하고, 들돼지는 짐을 짊어지고 생계를 꾸리네. 예전에는 본래 번듯한 천조국(天朝國)이었건만, 이제는 늑대와 호랑이의 성이 되었구나.

손오공이 한창 겁에 질려 있을 때, 갑자기 귓가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급히 고개를 돌려보니, 셋째 요괴가 한 자루의 화간방 천극(畫桿方天戟)을 양손으로 높이 들어 손오공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있었다. 손오공은 재빨리 몸을 굴러 일어나 금고봉을 휘둘러 정면으로 맞섰다. 두 편은 서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채, 이를 악물고 저마다 기를 쓰며 싸웠다.

이때 또 만이인 노마가 호령을 내리며 강철도를 들어 저팔계를 내리쳤다. 저팔계는 당황하여 말을 내팽개치고 쇠갈퀴를 휘두르며 마구잡이로 맞섰다. 둘째 요괴는 긴 창을 휘두르며 사오정을 찔러왔고, 사오정은 향요장(降妖杖)을 휘둘러 그 공격을 막아내며 버텼다. 이렇게 요괴 세 명과 스님 세 명이 일대일로 맞붙어, 산등성이에서 죽을 각오로 치열한 사투를 벌였다.

한편, 열여섯 명의 소요들은 명령을 받들자마자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다. 그들은 백룡마와 짐 꾸러미를 챙기고 당삼장을 한꺼번에 휩쓸어 가마에 태운 뒤, 성 근처까지 곧장 달려가 큰 소리로 외쳤다.

"대왕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당승을 붙잡아 왔습니다!"

성안에 있던 크고 작은 요괴들이 너도나도 성 밖으로 달려 나와 성문을 활짝 열었다. 요괴들은 각 진영에 깃발을 내리고 북소리를 멈추라고 지시하며, 함성을 지르거나 징을 치지 못하게 엄명을 내렸다.

"대왕님의 명령이 내려졌다. 당승을 놀라게 해서 안 된다. 당승은 겁을 먹으면 고기 맛이 시큼해져서 먹을 수 없게 되니 조심하라!"

요괴들은 모두 기뻐 날뛰며 당삼장을 맞이했고, 허리를 굽혀 정중히 스님을 모셨다. 그들은 당삼장을 가마에 태워 금란전으로 옮긴 뒤, 전각 한가운데에 앉히고는 좌우에서 차와 음식을 대접하며 빙빙 돌며 모셨다. 하지만 당삼장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고, 눈을 떠봐도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처량한 신세였다.

결국 생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7회 — 무리 지은 마귀들이 본성을 속이고, 온몸으로 진여를 예배하다

群魔欺本性 一體拜真如

당삼장이 겪는 고난은 일단 접어두기로 하자. 한편, 세 마리 요괴는 마음을 합쳐 온 힘을 다해 손오공 형제 세 사람과 사타성 동쪽 산 중턱에서 격렬하게 맞붙었다. 이 싸움은 마치 쇠술로 구리 술을 닦는 것처럼, 양쪽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는 기세였다.

여섯 가지 모습에 여섯 가지 병기가 있고, 여섯 가지 형체에 여섯 가지 성정이 있구나. 여섯 가지 악과 여섯 가지 근원이 여섯 가지 욕망에서 비롯되니, 여섯 문과 여섯 도를 거치며 승패를 다투네. 서른여섯 궁궐의 봄은 자유로우나, 육육의 형색에는 원망이 이름처럼 남는구나. 이 금고봉은 천 가지 재주를 부리고, 저 방천극은 백 가지 위엄을 떨치네. 저팔계의 삼지창은 흥맹하기 그지없고, 둘째 요괴의 긴 창은 날렵하고도 능수능란하구나. 사오정의 보물 지팡이 또한 비범하여 요괴를 때려죽일 기세이나, 만이 요괴의 칼날은 매섭고 빨라 손만 들어도 무정하게 베어 넘기네. 이쪽 셋(손오공 형제)은 거룩한 스님을 지키는 천하

무적의 장수요, 저쪽 셋(요괴)은 법도를 어지럽히고 임금을 속이는 사나운 요괴들이라. 처음에는 겨우 버티는 듯하더니 갈수록 흉포해졌다. 여섯 명 모두 하늘로 솟구치는 법술을 부리며 구름 위에서 뒤엎켜 싸웠다. 순식간에 안개와 구름을 내뿜으니 천지가 어둑해지고, 사방에서는 포효하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여섯이 한참을 싸우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설상가상으로 안개와 바람이 자욱하게 밀려오더니 순식간에 사방이 캄캄해졌다. 저팔계는 귀가 커서 눈꺼풀을 가릴 정도였으니 앞이 더욱 보이지 않았고, 몸놀림까지 둔해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다. 저팔계가 삼지창을 끌며 패배를 직감하고 도망치려 하자, 말이 요괴가 칼을 휘둘러 공격했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으나, 간신히 머리는 피했지만 칼날에 갈기 몇 가닥이 잘려 나갔다. 그러자 말이 요괴는 저팔계를 쫓아가 입을 찢 벌려 목덜미를 콕 물고는 성안으로 끌고 들어가 작은 요괴들에게 넘겨 금란전에 묶어버렸다. 말이 요괴는 다시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싸움을 도왔다.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직감한 사오정은 지팡이로 허세를 부리며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둘째 요괴(코끼리 요괴)가 긴 코를 쪽 뻗더니 퍽 소리와 함께 사오정의 팔까지 한데 들들감아 말아쥐고는, 성안으로 끌고 가 전각 아래 묶어버린 뒤 다시 공중으로 날아올라 손오공을 잡으러 나섰다.

손오공은 두 형제가 붙잡히는 것을 보고 혼자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야말로 뛰어난 무술가라도 두 주먹으로는 네 손을 당해낼 수 없는 법이었다. 손오공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여의봉을 휘둘러 세 요괴의 무기를 쳐내고는, 곧장 근두운을 타고 달아났다.

삼괴는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날아가는 것을 보자마자 몸을 떨며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두 날개를 세차게 휘저으며 손오공을 뒤쫓았다. 그들이 어떻게 손오공을 따라잡았을까? 예전에 손오공이 천계에서 난동을 부릴 때 십만 천병이 달려들어도 그를 잡지 못했던 것은, 그가 근두운을 부리는 재주가 뛰어나 한 번 날아오를 때마다 십만 팔천 리를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요괴들은 날갯짓 한 번에 구만 리를 날아가니, 두 번만 날갯짓을 해도 금세 손오공을 앞질러 버렸다.

결국 손오공은 요괴에게 한 손에 붙들리고 말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갈 수 없었다. 도망치려 애를 써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설령 신통력을 부려 몸을 변화시키거나 은신술을 써보려 해도 도무지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 몸을 크게 키우면 요괴가 움켜쥔 손에 힘을 뺐고, 다시 몸을 작게 줄이면 요괴가 손을 더욱 짝 죄어왔기 때문이다.

요괴는 손오공을 붙잡아 성 안으로 돌아가더니, 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는 다른 요괴들에게 명령하여 저팔계와 사오정도 한데 묶어 놓으라고 일렀다. 그러자 노마와 이괴가 마중을 나왔고, 세 요괴는 함께 보전으로 올라갔다. 아! 이번 일은 손오공을 묶어두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배웅하려는 꼴이나 다름없었다.

때는 어느덧 밤이 깊은 이경(二更)이었다. 요괴들이 한데 모여 모의를 마친 뒤, 당삼장을 전각 아래로 밀어 내렸다. 등불 아래서 스승과 마주한 손오공은 제자 세 명이 모두 바닥에 묶여 있는 모습과 스승이 제 곁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았다. 당삼장이 손오공의 곁으로 다가가 울며 말했다.

"제자야, 평소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너는 밖에서 신통력을 발휘해 마귀를 물리치고 나를 구해주더니, 이번에는 너마저 붙잡히다니! 이 가난한 승려는 이제 어떻게 목숨을 구하겠느냐?"

저팔계와 사오정도 스승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듣고는 함께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손오공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스승님, 안심하십시오. 형제들도 울지 마세요. 저놈들이 아무리 날땀들 우리에게서 아무런 해를 입히지 못할 겁니다. 저 노마 놈이 잠잠해지면 그때 움직입니다."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형님, 저놈들이 또 장난을 치잖아요. 삼베줄로 꿰뚫어놓고는 물까지 뿌려대니, 형님같이 마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처럼 살집 있는 놈은 아주 죽을 맛이라고요. 못 믿겠으면 내 양팔을 좀 보세요. 줄이 살속으로 두 치나 파고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빠져나간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삼베줄은 커녕 사발 굵기만 한 굵은 밧줄로 묶어놓는다 해도, 내 귀에는 그저 가을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만 같을 터인데 무엇이 걱정이냐?"

스승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요괴 노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셋째 아우는 힘도 세고 지혜도 뛰어나니, 참으로 기막힌 계책으로 당삼장을 잡아냈구나!"

노마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얘들아! 다섯 명은 물을 길어 오고, 일곱 명은 술을 닦아라. 열 명은 불을 지피고, 스무 명은 철룽(큰 찜통)을 메고 나와라! 저 네 명의 스님을 폭 삶아서 우리 형제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라. 남은 고기는 부하들에게도 한 점씩 나누어 주어 모두가 장생할 수 있게 하거라!"

이 말을 들은 저팔계는 몸을 벌벌 떨며 말했다.

"형님, 들었습니까? 저 요괴들이 우리를 삶아 먹으려고 작정을 했나 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겁먹지 마라. 저놈들이 아직 어린 요괴인지, 아니면 기세등등한 놈들인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마."

사오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형님, 괜히 허풍 떨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염라대왕 곁에 다 와 있는데, 어린놈이니 기세등등한 놈이니 따질 때가 아니라고요!"

그때 또 이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팔계 저놈은 삶기엔 별로겠는데요?"

그러자 저팔계가 반색하며 말했다.

"아미타불! 대체 어떤 놈이 나를 삶기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냐?"

삼괴가 대답했다.

"삶기 좋지 않으니, 껍질을 벗겨서 삶아야지요."

저팔계는 혼비백산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껍질은 벗기지 마라! 그냥 대충 삶아도 국물이 자작하면 금방 익을 것이다!"

노마가 말했다.

"삶기 힘든 놈은 맨 아랫 칸에 넣어라."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팔계야, 겁먹지 마라. 저놈들은 아직 애송이들이구나."

사오정이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손오공이 설명했다.

"보통 물건을 삶을 때는 위에서부터 시작하거든. 삶기 힘든 것은 맨 윗 칸에 넣고 불을 세게 지퍼서 김이 팍 차게 만들면 금방 익지만, 만약 맨 아랫 칸에 넣으면 아무리 불을 때도 속까지 김이 전달되지 않아 반

년 내내 살아도 소용이 없단다. 저놈들이 팔계는 삶기 힘들다고 맨 아랫 칸에 넣겠다고 하는 걸 보니, 아직 애송이들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느냐?"

저팔계가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형님, 형님 말씀대로라면 저놈들은 날것 그대로 나를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이 안 통하면 나를 들어 올려서 뒤집어 놓은 다음, 다시 불을 지펴서 양옆을 다 익히고 가운데만 안 익은 상태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고요!"

한창 삶는 중인데, 또 작은 요괴가 달려와 보고했다. "물이 끓습니다!"

그러자 노마가 명을 내려 짐을 옮기게 했다. 요괴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저팔계를 맨 아래 칸에 넣고, 사오정을 그 위 칸에 넣었다. 손오공은 요괴들이 자신까지 옮기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몸을 피하며 말했다. "등불 빛이 밝으니 손을 쓰기에 딱 좋겠구나!"

손오공은 자신의 털 한 가닥을 뽑아 입으로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털은 곧바로 손오공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몸에 삼베줄까지 감았다. 진짜 몸은 신통력을 발휘해 공중으로 훌쩍 뛰어올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요괴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리가 없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짐을 옮겼는데, 가짜 손오공을 맨 위 세 번째 칸에 넣고, 당

삼장을 낚아채 밧줄로 뽕뽕 묶은 뒤 네 번째 칸에 넣었다. 곧이어 마른 양작을 쌓고 불을 지피니, 불길이 무섭게 치솟았다.

구름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손오공이 탄식하며 말했다. "내 제자인 저팔계와 사오정은 두 번은 살아져도 버티겠지만, 우리 스승님은 한 번만 살아져도 금방 녹아버릴 텐데. 법술을 써서 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말겠구나."

손오공은 공중에서 주문을 뱉으며 "옴 람 정법계, 건원형리정"이라는 주문을 외었다. 그러자 북해용왕이 즉시 달려왔다. 구름 끝에서 검은 구름 한 조각이 나타나더니, 소리에 응답하며 크게 외쳤다.

"북해의 작은 용, 오순(敖順)이 머리를 조아리나이다."

손오공이 말했다.

"어서 일어나게, 어서 일어나게. 별일 아니니 번거롭게 해 미안하네. 지금 당삼장 스승님과 함께 있다가 요괴에게 붙잡혀 철술에 삶길 처지가 되었네. 자네가 가서 솔 주변을 좀 살펴주게. 스승님과 형제들이 살아지지 않도록 말이야."

용왕은 즉시 몸을 차가운 바람으로 바꾸어 솔 아래로 불어 들어갔다. 바람이 솔 주위를 휘감으며 돌자 솔 안의 불길이 사라졌고, 그제야 세 사람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

삼경이 거의 다 지나갈 무렵, 노마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수하들아, 우리가 계책을 써서 당삼장 일행을 잡아냈으니, 그동안 배웅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나흘 밤낮을 한숨도 못 잤구나. 지금 저놈들을 점통(시루) 안에 묶어 두었으니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지켜보아라. 작은 요괴 열 명을 정해서 교대로 불을 때도록 하고, 우리는 궁으로 돌아가 잠시 눈 좀 붙이겠다. 오경 무렵 날이 밝아올 때면 저놈들이 아주 푹 잤아져 있을 터이니, 그때 마늘 다진 것과 소금, 식초를 준비해 두었다가 우리를 깨우거라. 그러면 빈속에 아주 맛있게 먹어 치워 주마."

요괴들은 저마다 명령을 따랐고, 세 요괴는 각자 자신의 궁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손오공은 구름 위에서 그 명령을 분명히 들었으나, 구름 아래로 고개를 숙여 보니 철창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손오공은 생각했다. '불길이 치솟으니 분명 뜨거울 텐데, 어째서 저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신음 소리 한 번 내지 않는 걸까? 설마 벌써 찢 죽은 건가? 가까이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손오공은 몸을 흔들며 검은 파리로 변신한 뒤, 철창 곁에 달라붙어 안쪽 상황을 살폈다. 그러자 안에서 저팔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수 없네, 정말 재수 없어. 이게 뚜껑을 덮어놓고 찢는 건지, 아니면 뚜껑을 열어놓고 찢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자 사오정이 물었다. "둘째 형님, '뚜껑을 덮고 찢는 것'과 '열어놓고 찢는 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저팔계가 대답했다. "뚜껑을 덮고 찌면 속이 답답하게 찌는 거고, 뚜껑을 안 덮으면 열기가 빠져나가며 찌는 거지."

그때 당삼장이 한 번 훑 올라오는 열기 사이로 대답했다. "제자야, 덮여 있지 않구나."

저팔계가 말했다. "천만다행이다! 오늘 밤 죽지는 않겠네. 이건 뚜껑을 열어놓고 찌는 거구나."

손오공은 세 사람이 모두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목숨에는 지장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는 얼른 날아가서 철창 뚜껑을 살며시 덮어주었다. 그러자 당삼장이 당황하며 말했다. "제자야, 덮어버렸구나."

저팔계가 탄식했다. "끝났네, 끝났어. 이제 뚜껑을 덮었으니 오늘 밤은 틀렸어. 반드시 죽고 말 거야."

사오정과 당삼장은 엉엉 울기 시작했다. 저팔계가 말했다. "울지 좀 마시오. 마침 지금 불을 때던 놈들이 교대할 시간이라니까."

사오정이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저팔계가 대답했다. "아까 이리로 실려 왔을 때 딱 내 마음에 들었거든. 내가 몸에 습한 기운이 좀 있어서 뜨끈뜨끈해야 종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찬 기운이 올라오잖아. 어이! 거기 불 때던 관리! 장작 좀 더 넣으면 안 돼? 네 목숨이 아깝지도 않냐?"

손오공은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생각했다. '저 멍청한 녀석, 추운 건 어떻게든 버틴다지만 뜨거운 건 목숨이 위험할 텐데.'

한두 번 더 있으면 분명 정신을 잃고 말 테니 얼른 구해야겠다. 그런데 잠깐, 구하려면 요괴들의 본모습을 드러내게 해야 하는데, 만약 본모습을 드러냈다가 불을 지키는 열 명의 요괴가 보고 한꺼번에 소리를 질러서 요괴 우두머리를 놀라게 하면 일이 더 커지지 않겠나? 우선 방법부터 써야겠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예전에 제천대성으로 지낼 때, 북천문에서 호국천왕과 내기를 해서 그가 가진 졸음충(잠이 오게 하는 벌레)을 따낸 적이 있었지. 몇 마리 더 있으니 그걸 보내주자.'

손오공은 허리춤을 뒤져보니 벌레가 열두 마리나 남아 있었다. '열마리를 보내주고, 두 마리는 나중에 쓰게 남겨두자.' 손오공은 벌레들을 던져 요괴들의 얼굴에 뿌렸다. 벌레들이 요괴들의 콧구멍 속으로 파고들자, 요괴들은 차츰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더니 모두 쓰러져 잠들었다.

오직 쇠 갈퀴를 든 요괴 하나만이 잠이 오는지 머리를 비비고 얼굴을 긁으며, 코를 이리저리 만지다가 연신 재채기를 해댔다. 손오공이 말했다. "이 녀석,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번엔 쌍등불(두 개의 벌레)을 보내주마."

손오공은 벌레 하나를 더 그의 얼굴에 던졌다. '벌레 두 마리가 왼쪽으로 들어갔다 오른쪽으로 나오고,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왼쪽으로 나오면, 그중 하나는 반드시 잠들겠지.' 그 작은 요괴는 하품을 두세 번 크게 하고는 허리를 쪽 펴더니, 쥐고 있던 쇠 갈퀴를 내던지고는 그대로 엎어져 다시는 몸을 뒤척이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이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히고 영험하구나!" 그러고는 곧바로 본모습을 드러내며 앞으로 다가와 외쳤다. "스승님!"

그 소리를 들은 당삼장이 말했다. "오공아, 나를 좀 구해다오!"

사오정이 물었다. "형님, 밖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내가 밖에 있다니, 내가 밖에 있어야 너희와 함께 안에서 고생을 하겠느냐?"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형님, 혼자만 쪽 빠져나가시다니요. 우리는 다 독박을 쓰고 여기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잖아요."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멍청아, 시끄럽게 굴지 마라. 내가 구하러 왔다."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구해주시려면 확실히 구해주셔야지, 또다시 짐통에 넣으시면 안 돼요."

손오공은 곧장 짐통 뚜껑을 열어 당삼장을 구해냈다. 그러고는 변신할 때 썼던 털들을 한 번 탈탈 털어 몸속으로 거두어들였다. 이어 사오정을 한 층씩 차례로 풀어주고, 저팔계도 풀어주었다. 그제야 풀려난 저팔계는 한시라도 빨리 도망치고 싶어 안달이 났다.

손오공이 말했다.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마."

손오공은 다시 주문을 외워 용신을 돌려보낸 뒤에야 저팔계에게 말했다. "우리가 서천으로 가는 길에는 아직도 험한 산과 높은 고개가 많

다. 스승님은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드시니, 내가 얼른 말을 데려오 마."

손오공이 살금살금 금란전 아래로 걸어가 보니, 크고 작은 요괴들이 모두 잠들어 있었다. 그는 요괴들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의 고삐를 풀었다. 원래 그 말은 용왕의 자손인 백룡마였기에, 만약 모르는 사람이 다가갔다면 앞발로 땅을 차며 울부짖었을 것이다. 하지만 손오공은 예전에 천계에서 말을 돌보는 필마온(弼馬溫) 관직을 지낸 적이 있었고, 말 또한 한패나 다름없었기에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손오공은 말의 복대를 단단히 조이고 모든 장비를 갖춘 뒤, 스승을 말에 태웠다. 당삼장이 벌벌 떨며 말에 올라타 서둘러 떠나려 하자, 손오공이 말했다.

"잠시만요, 서두르지 마세요. 서천으로 가는 길에 또 다른 나라를 지나야 하는데, 거기서 통행증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안 그러면 무슨 허가증을 내밀겠어요? 제가 가서 짐부터 찾아올게요."

당삼장이 말했다.

"기억하기로는 요괴들이 금전 왼쪽 아래에 우리 짐을 두었단다. 붓 짐도 그 근처에 있을 게야."

손오공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짐을 찾으러 보전 안으로 훌쩍 뛰어 들어갔다. 그때 문득 어디선가 빛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손오공은 곧 그것이 짐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알았냐 하면, 당삼장의 비단 가사에는 야명주가 박혀 있어 빛을 내뿜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오공이 급히 달려가 보니 붓짐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그는 얼른 짐을 챙겨 사오정에게 메게 했다.

저팔계가 말을 끌고 가자, 손오공이 앞장서서 정양문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문에 달린 딱딱이(경보용 나무판)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으며 그 위에는 봉인지까지 붙어 있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방비가 이토록 삼엄한데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나?" 저팔계가 말했다. "뒷문으로 가자고요." 손오공은 앞장서서 뒷문으로 향했으나, 후재문 밖에도 딱딱이 소리가 들려왔고 문 역시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이 일을 어찌면 종단 말이나? 만약 당삼장 스님이 평범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 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근두운을 타고 바람을 가르며 유유히 떠나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스님은 아직 삼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행의 법칙 안에 머물러 계시니, 온몸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범부의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어 구름을 타고 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게 아니냐."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고민할 것 없습니다. 딱딱이도 없고 방비도 허술한 곳을 찾아낸 다음, 스님을 덥석 안아서 담장 너머로 넘겨버리면 됩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그건 안 될 말이다.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스님을 안아서 넘기더라도, 나중에 경전을 구하고 돌아왔을 때 네이 어리석은 녀석이 입을 놀려 동네방네 '우리는 담을 넘는 스님들이다'라고 떠들고 다니면 어찌려고 그러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지금은 스님 수행자의 체면을 따질 때가 아니라, 일단 목숨부터 구해야지요!"

손오공도 별수 없이 저팔계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두 사람은 담장이 낮은 곳을 찾아내어 어떻게 담을 넘을지 궁리하기 시작했다.

아아!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는 당삼장이 재앙의 운명을 다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궁궐 안에서 잠을 자던 세 마리 요괴는 갑자기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깨어나, "당삼장이 도망갔다!"라고 외치며 서둘러 옷을 걸쳐 입고 보전으로 달려갔다. 요괴들이 물었다. "당삼장을 몇 번이나 삶았느냐?" 하지만 불을 지피던 어린 요괴들은 모두 수면충(잠을 자게 하는 벌레)의 기운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니, 아무리 때려눕혀도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정신을 차린 몇몇 요괴가 허둥지둥 대답했다. "일, 일, 일, 일곱 번 삶았습니다!" 요괴들이 급히 솔 근처로 달려가 보니, 찜통 덮개는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불을 지피던 요괴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요괴들은 당황하여 다시 보고했다. "대왕님, 도망, 도망, 도망갔습니다!" 세 요괴가 전각에서 내려와 솔 앞으로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덮개는 바닥에 굴러다니고 솔의 국물은 차갑게 식었으며 불길도 완전히 꺼져 있었다. 불을 지키던 요괴들은 모두 진흙처럼 깊이 잠들어 코를 골고 있었다. 요괴들이 혼비백산하여 일제히 "어서 당삼장을 잡아라! 어서 당삼장을 잡아라!" 하고 소리치자, 그 함성이 울려 퍼지며 앞뒤로 모여 있던 크고 작은 요괴들이 모두 놀라 깨어났다. 요괴들은 칼과 창을 들고 정양문 아래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러나 문은 굳게 잠겨 움직이지 않았고, 밤을 지키는 딱따기 소리만 끊임없이 들려왔다. 요괴들이 밤길을

순찰하던 이들에게 물었다. "당삼장이 어디로 도망쳤느냐?" 순찰하던 요괴들이 대답했다. "아무도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요괴들은 급히 후채문으로 달려갔으나, 그곳 역시 앞문과 마찬가지로 문은 잠겨 있고 딱따기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요괴들이 어지럽게 등불과 횃불을 들고 달려드니, 하늘이 붉게 물들어 마치 대낮 같았으나, 그 밝은 빛 아래서 네 사람이 담을 넘어 달아나는 모습이 똑똑히 보였다. 노마가 급히 따라붙으며 호통쳤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자 당삼장은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신이 아득해져 담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노마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둘째 요괴는 사오정을 잡았고, 셋째 요괴는 저팔계를 덮쳐 쓰러뜨렸다. 요괴들은 짐과 백룡마를 모두 빼앗았으나, 오직 손오공만은 놓치고 말았다. 저팔계는 입을 삐죽거리며 손오공을 향해 투덜거렸다. "이 죽일 놈의 원숭이 같으니라고! 구해준다고 하더니, 결국 다시 찹통에 들어가게 만들다니!"

요괴들은 당삼장을 붙잡아 전각 위로 끌고 갔으나, 곧장 찢어먹지는 않았다. 이괴는 저팔계를 전각 앞 처마 기둥에 묶으라고 명령했고, 삼괴는 사오정을 전각 뒤 처마 기둥에 묶으라고 시켰다. 오직 노마만이 당삼장을 품에 안은 채 놓아주지 않았다.

삼괴가 말했다. "형님, 왜 그렇게 꼭 붙잡고만 계십니까? 설마 그냥 생으로 잡아먹으려는 건 아니시겠지요? 그러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물건은 저속한 백성들과는 달라서, 그냥 밥처럼 먹어 치울 게 아닙니다. 이건 나라에서 보기 드문 귀한 물건이니, 반드시 날이 흐리고 한가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꺼내서 깨끗하게 손질한 뒤, 악기 소리에 맞춰 놀이도 즐기며 천천히 음미하며 먹어야지요."

노마가 웃으며 말했다. "네 말이 맞기는 하다만, 손오공이 또 흠쳐
가려 들면 어찌겠느냐?"

그러자 삼괴가 말했다. "제 황궁 안에 금향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그
안에는 철괘가 하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삼장을 그 괘 속에 숨겨
두고 정자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삼장을
이미 우리가 반쯤 먹어 치웠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요괴들이 온 성안에
떠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손오공이 분명 소식을 알아보러 오겠지
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절망하며 포기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삼사
일쯤 방해받지 않고 지내다가, 나중에 꺼내서 천천히 즐기면 어떨까
요?"

노마와 이괴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웁거니, 네 말이 정말 일리가
있구나!"

가여운 당삼장은 밤새도록 요괴들에게 끌려가 철괘 속에 갇힌 채 정
자에 숨겨졌고, 성안에는 그가 이미 먹혔다는 헛소문이 퍼져 온 동네가
떠들썩해졌다.

손오공이 변신을 마치고 보니 정말이지 똑같은 모습이라, 아무 의심
없이 금란전 안으로 스며들 수 있었다.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저 멀
리 저팔계가 전각 앞 기둥에 묶인 채 끄끙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한밤
중 부분 생략 없이) — 다만 이 단락에서, 손오공이 살펴본 궁중 요괴
들의 차림은 다음과 같다: 그곳에는 가족에 금박을 입힌 모자를 쓰고
황색 천으로 된 옷을 입은 수많은 요괴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손에 붉은 철을 한 몽둥이를 들고 허리에는 상아 패를 차고는, 이리저

리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손오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들은 분명 궁궐을 드나드는 요괴들일 테니, 나도 저런 모습으로 변신해서 들어가 소식을 알아봐야겠다.' (단락 전체 교정: 한편, 손오공은 한밤중에 당삼장을 돌볼 겨를도 없이 근두운을 타고 달아났다. 곧장 사타동으로 달려가 수만 명의 작은 요괴들을 여지없이 두들겨 패 죽였다. 급히 돌아와 보니 어느덧 동쪽 하늘에서 해가 뜨고 있었다. 성 근처에 도착했으나 감히 싸움을 걸 수는 없었다. 실로 실 한 가닥으로는 천을 찢 수 없고, 손바닥 하나로는 박수를 칠 수 없는 법이었다. 손오공은 구름에서 내려와 몸을 흔들며 작은 요괴로 변신한 뒤, 성문 안으로 잠입하여 큰길과 좁은 골목을 누비며 소식을 수집했다. 그런데 성안 사람들은 모두 "당삼장이 대왕에게 붙잡혀 밤새도록 산 채로 잡아먹혔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앞뒤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그렇게 떠들어대니, 손오공은 속이 타들어 가는 듯했다. 그는 금란전 앞까지 가서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가족에 금박을 입힌 모자를 쓰고 황색 천으로 된 옷을 입은 수많은 요괴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손에 붉은 칠을 한 몽둥이를 들고 허리에는 상아 패를 차고는, 이리저리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다. 손오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들은 분명 궁궐을 드나드는 요괴들일 테니, 나도 저런 모습으로 변신해서 들어가 소식을 알아봐야겠다.')

손오공이 변신을 마치고 보니 정말이지 똑같은 모습이라, 아무 의심 없이 금란전 안으로 스며들 수 있었다.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저 멀리 저팔계가 전각 앞 기둥에 묶인 채 끙끙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손오공이 가까이 다가가 그를 불렀다.

"오능아!"

멍청하게 묶여 있던 저팔계가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했다.

"사형, 오셨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손오공이 물었다.

"내가 널 구해주마. 그런데 스승님이 어디 계신지 아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스승님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젯밤에 요괴들이 털 익은 상태로 잡아먹어 버렸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손오공은 갑자기 울음이 터져 눈물이 샘물처럼 쏟아졌다. 저팔계가 당황하며 말했다.

"형님, 울지 마세요! 저도 요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지, 직접 본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알아보세요."

손오공은 겨우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안쪽을 찾아 헤맸다. 그러다 처마 밑 기둥에 사오정이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얼른 다가가 그의 가슴을 더듬으며 불렀다.

"오정아!"

사오정도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했다.

"사형, 변신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손오공이 말했다.

"넌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런데 스승님이 어디 계신지 아느냐?"

사오정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형님, 스승님은 요괴들이 찌통에 찌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날 것 그대로 잡아먹어 버렸어요."

손오공은 두 요괴의 말이 똑같은 것을 듣고는 마음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프고 눈물이 물처럼 쏟아졌다. 급히 몸을 날려 허공으로 뛰어오른 그는 저팔계와 사오정을 구하는 것도 잊은 채, 성 동쪽 산으로 돌아가 구름을 내려놓고 목놓아 울며 외쳤다.

"스승님! 하늘을 숙였다가 그물에 갇힌 이 몸이 한스럽거늘, 스승님 오셔서 저를 깊은 수렁(병)에서 건져 주셨네. 마음을 가라앉히고 뜻을 다해 함께 부처를 따르고, 몸을 닦아 마귀를 물리치려 함께 애써왔건만. 어찌 오늘 같은 날 해를 입어, 스승님을 저 사바세계 너머로 모시지 못하게 되었단 말입니까. 서천의 성스러운 곳에는 인연이 닿지 못하고, 기운이 흩어지고 넋이 사라지니 이제 어찌합니까?"

손오공은 처량하고 비참한 심정으로 혼자 생각에 잠겼다. 그는 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부처님 여래께서 저 극락세계에 앉아 할 일이 없으셔서, 저 삼장법사의 경전을 만드신 탓이로구나. 만약 정말로 선을 권할 마음이 있으셨다면 마땅히 동토로 보내주셨어야지, 그랬다면 만

세에 전해지는 덕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보내기는 아깝고, 우리 더러 와서 가져가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천산만락을 고생하며 지나다가 오늘 여기서 목숨을 잃게 될 줄을 그분이 어찌 아셨겠는가? 예잇, 관두자, 관뒤. 이 몸이 근두운을 타고 여래를 찾아가 지난 일을 다 말씀드려야겠다. 만약 경전을 동토로 보내주신다면 선한 결과를 널리 알리는 길이요 우리 소원도 이루는 일이겠지만, 만약 안 해주신다면 송고주(머리테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주문)를 외워 이 머리테를 벗겨달라고 해야겠다. 그걸 돌려드리고 나면 나는 다시 내 동굴로 돌아가 왕 노릇이나 하며 편하게 놀며 살련다.'

"좋다, 대성!"

손오공은 급히 몸을 날려 근두운에 올라탔다. 그리고 곧장 천축으로 향했는데, 한 시진 정도 날아가니 멀리 영산이 보였다. 순식간에 구름을 낮추어 내려 취봉 아래에 다다랐을 때였다. 갑자기 고개를 드니, 네 명의 금강역사가 앞을 가로막으며 호통을 쳤다.

"어디를 가느냐!"

손오공이 예를 갖추며 말했다.

"여래님을 뵈러 갈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길목을 지키던 곤륜산 금하령의 불괴존왕영주금강이 다시 소리쳤다.

"이 원숭이 녀석이 아주 무례하구나! 예전에 우마왕을 크게 몰아붙일 때도 우리가 너를 위해 힘을 보탰거늘, 오늘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다니. 불일이 있으면 먼저 아뢰고, 부름을 받은 뒤에 움직여야 할 것 아니냐! 이곳은 남천문과는 다르니, 네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며 어지럽히지 마라!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손오공은 마침 마음이 답답하던 차에 이런 꾸지람까지 듣게 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천둥이 치듯 포효하며 소리를 버럭 질렀고, 그 소란이 일찌감치 여래의 귀에까지 들어가 여래를 놀라게 했다.

여래 부처님께서는 구품보련대에 단정히 앉아, 세상을 다스리는 열여덟 존의 아라한들에게 경전을 설법하고 계셨다. 그러다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손오공이 왔구나. 너희는 나가서 그를 맞이하거라." 아라한들이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깃발과 보개를 들고 산문을 나서며 소리쳤다. "손 대성님, 여래께서 부르십니다!" 산문 입구를 지키던 네 명의 금강신들이 길을 비켜주자 손오공이 앞으로 나아갔다. 아라한들이 손오공을 보련대 아래로 인도하자, 손오공은 여래의 발치에 엎드려 눈물을 펄펄 쏟으며 슬피 울었다. 여래께서 물으셨다. "오공아, 무슨 일이기에 이토록 서럽게 우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제자가 그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고 그 문하에 머물며 은혜를 입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뒤로는 스승님인 당삼장을 모시고 길을 떠나왔으나, 그 여정이 말로 다 못 할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사타산 사타동과 사타성에 이르니, 사자 왕, 코끼리 왕, 대붕이라는 세 마리 독한 요괴가 나타나 저희 스승님을 잡아갔습니다. 저 또한 요괴들에게 붙잡혀 스승님과 함께 찰통에

간혀 뜨거운 불길 속에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행히 제가 겨우 탈출하여 용왕을 불러 열기를 식히는 바람에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날 밤 몰래 스승님과 형제들을 구해내려 했으나, 재난의 운명을 피하지 못하고 다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안에 들어가 소식을 들어보니, 요괴들이 워낙 잔인하고 용맹하여 스승님을 밤새 산 채로 잡아먹는 바람에 이제는 뼈도 살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의 사제인 저팔계와 사오정도 저쪽에 묶여 있으니, 머지않아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 이렇게 여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부디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송고주(머리테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주문)를 외워 제 머리의 금고아를 벗겨 주십시오. 금고아는 다시 여래님께 돌려드릴 테니, 제발 저를 놓아주어 화과산으로 돌아가 편히 쉬게 해 주십시오." 말을 마친 손오공은 샘솟는 눈물을 흘리며 슬픈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여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다. "오공아, 너무 번뇌하지 마라. 저 요괴들은 신통력이 매우 광대하여 네가 이기기 어렵기에 이토록 마음 아파하는 것이로구나." 손오공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가슴을 치며 말했다. "여래님께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가 예전에 천궁을 뒤엎으며 대성이라 불린 이후로, 태어나서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 독한 요괴들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래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너무 원망하지 마라. 저 요괴는 내가 아는 자다."

손오공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여래님,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요괴가 여래님과 친척 관계라던데요?"

여래가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다. "이 고약한 원숭이 녀석 같으니, 저 요괴가 나와 무슨 친척이란 말이냐?"

손오공이 웃으며 대꾸했다. "친척이 아니면 어떻게 알아보신다는 말씀입니까?"

여래가 대답했다. "내 혜안으로 보았기에 아는 것이다. 저 노마와 이괴는 주인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고는 아난과 가섭을 불러 명령했다. "아난아, 가섭아, 너희 둘은 각자 구름을 타고 오대산과 아미산으로 가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에게 나를 뵈도록 전하고 오너라." 두 존자는 즉시 명을 받들고 떠났다.

여래가 말을 이었다. "노마와 이괴는 주인이 있는 자들이지만, 저 삼괴는 말하자면 나와도 어느 정도 인연이 있는 자다."

손오공이 물었다. "친척이라 하면 아버지 쪽입니까, 어머니 쪽입니까?"

여래가 설명했다. "태초에 혼돈이 나뉘어 자시에 하늘이 열리고 축시에 땅이 생겨났으며, 인시에 사람이 태어났다. 천지가 다시 조화를 이루니 만물이 모두 생겨나게 되었지. 만물 중에는 달리는 짐승과 날아다니는 새가 있는데, 짐승 중에는 기린이 으뜸이고 새 중에는 봉황이 으뜸이다. 그 봉황이 교합의 기운을 얻어 공작과 대봉을 낳았느니라. 공작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매우 사나워 사람을 잡아먹곤 했는데, 마흔다섯 리 밖의 사람도 한입에 빨아들일 정도였지. 내가 설산 꼭대기에서 장육 크기의 금신을 수행하고 있을 때, 그놈이 나를 빨아 삼킨 적이 있었다. 나는 그놈의 뒷구멍으로 나가려 했으나, 나의 참된 몸을 더

렵힐까 두려워 차라리 그놈의 등을 갈라 영산으로 올라왔느니라. 그놈의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여러 부처님이 공작을 해치는 것은 내 어머니를 해치는 것과 같다고 만류하셨다. 그리하여 그놈을 영산의 모임에 머물게 하고, 불모공작대명왕보살로 봉해주었지. 대봉은 공작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니, 그러니 나와 인연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손오공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여래님, 그렇게 따지자면 여래님이야말로 저 요괴의 외조카(생질)뻘이 되시겠군요!"

여래가 말했다. "저 요괴들은 내가 직접 가야만 제압할 수 있다."

손오공은 머리를 조아리며 여래에게 간청했다. "부디 이번 한 번만 왕림해 주십시오."

여래가 연화대에서 내려와 여러 부처님과 제자들을 거느리고 곧장 산문을 나섰다. 이때 아난과 가섭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인도하여 오는 것이 보이니, 두 보살이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 여래가 물었다. "보살들이 거느리는 신수들이 산을 내려간 지 얼마나 되었느냐?" 문수보살이 대답했다. "이레가 되었습니다." 여래가 말했다. "산에서의 이레가 세상에서는 수천 년일 터인데,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생령이 희생 되었을지 모르겠구나. 어서 나를 따라가 그들을 제압하자." 두 보살은 여래의 좌우를 따르며 부처님, 제자들과 함께 허공을 날아갔다.

시로 이르되, 하늘 가득 신령스러운 구름 흩어지니 우리 부처님 자비로 법문을 내리시네. 천지 만물의 이치를 밝히 드러내시고 세상 만물 화생하는 도리를 자세히 말씀하시네. 앞에는 오백 나한이 모셔 있고 뒤

에는 삼천 계체(揭諦) 신들이 따르네. 가섭과 아난이 좌우를 지키고 문수와 보현보살은 요괴의 기운을 물리치시네.

손오공이 이토록 정성을 다해 부처님과 여러 성현께 간청한 덕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 성곽이 보였다. 손오공이 보고했다. "여래시여, 저기 검은 기운이 뿔어져 나오는 곳이 바로 사타국입니다." 여래가 말했다. "너는 먼저 내려가 저 성안에서 요괴들과 싸우되, 일부러 저 주 기만 하고 절대 이겨서는 안 된다. 패한 척 이리로 올라오면, 내가 직접 그들을 거두마."

손오공은 곧장 근두운을 타고 성 위로 날아가 성벽 끝에 발을 딛고 서서 옥설을 퍼부었다. "이 고약한 요괴 놈들아! 어서 나와서 이 몸과 한판 붙어보자!"

성루에 있던 작은 요괴가 깜짝 놀라 성 안으로 뛰어 내려가 보고했다. "대왕님, 손오공이 성 위에서 싸우자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두머리 요괴인 노마가 말했다. "그 원숭이 놈이 이삼 일 동안 나타나지도 않더니, 오늘 아침에 갑자기 싸움을 걸다니. 혹시 구원병이라도 데려온 것 아니냐?"

셋째 요괴인 삼괴가 대답했다. "그놈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서 가서 봅시다."

세 요괴는 각자 무기를 들고 성으로 달려 나갔다. 그들은 손오공을 보자마자 한마디 말도 섞지 않고 무기를 휘둘러 일제히 찔러댔다. 손오

공도 여의봉을 휘두르며 맞서 싸웠다. 일곱여덟 합을 겨루던 중, 손오공은 일부러 지는 척하며 도망쳤다.

요괴 왕이 기세등등하게 소리쳤다. "어딜 도망가느냐!"

손오공은 몸을 솟구쳐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세 요괴도 구름을 타고 쫓아왔다. 그때 손오공이 몸을 획 움직이더니 여래 부처님의 금빛 광채 속으로 몸을 숨겨버리니, 요괴들의 눈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순간, 과거·현재·미래를 관장하는 세 존의 불상과 오백 나한, 삼천 제제신(불교의 신들)이 좌우로 흩어져 나타나 세 요괴를 겹겹이 에워싸니, 물 한 방울 빠져나갈 틈조차 없었다.

노마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며 외쳤다. "형제들아, 큰일 났다! 저 원숭이 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대체 어디서 저런 대단한 분을 모셔온 것이냐!"

세 요괴가 맞받아쳤다. "형님,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달려들어 여래를 찌러뜨리고 저 뇌음보찰(부처님의 성스러운 사찰)을 빼앗아 옵시다!"

이 요괴들은 세상 이치도 모른 채 무작정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그러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진언을 외우며 호통을 쳤다. "이 죄 많은 짐승들아!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고 대체 어찌하려는 것이냐!"

그 호통에 노마와 이괴는 감히 버티지 못하고 무기를 내던진 채 바닥을 구르며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두 보살은 연화대를 요괴들의

등 위에 던져놓고 그 위에 올라탔으며, 요괴들은 그대로 귀의하여 신선과 부처의 법을 따르게 되었다.

두 보살이 청사와 백상을 거두어들였으나, 세 번째 요괴만은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요괴는 날개를 활짝 펴고 방천극을 내던진 채,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 날카로운 발톱으로 손오공을 낚아채려 했다. 하지만 손오공이 눈부신 빛 속에 숨어 있으니, 요괴가 어찌 감히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여래는 요괴의 속셈을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금빛을 번쩍이며, 까치가 둥지를 틀던 당신의 정수리(머리)를 바람결에 한 번 흔들어 싱싱하고 붉은 살덩어리 하나로 변하게 하였다. 요괴가 그것을 발톱으로 한번 낚아채려 덤벼들자, 부처님이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니 요괴의 날개와 어깻죽지에 힘줄이 당겨 날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요괴는 부처님의 머리 위를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본모습을 드러냈으니, 바로 대붕금시조였다.

대붕금시조가 입을 벌려 여래에게 소리쳤다. "여래여, 어찌하여 그토록 대단한 법력으로 나를 가두는 것이오?"

여래가 말했다. "네가 이곳에서 쌓은 죄업이 너무나 깊구나. 나를 따라오면 오히려 공덕을 쌓을 기회가 될 것이다."

요괴가 대꾸했다. "당신이 계신 곳은 채식을 하며 고행을 하니 몹시 가난하고 괴롭기만 하겠지. 하지만 이곳은 사람 고기를 먹으며 끝없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소. 만약 당신이 나를 굶겨 죽인다면 그것 또한 죄가 될 것이오."

그러자 여래가 말했다. "나는 사대부주를 다스리며 수많은 중생의 우러름을 받고 있다. 무릇 중생들이 선한 일을 할 때면, 내가 그들에게 먼저 네 입에 제물을 바치게 하겠다."

대봉금시조는 재앙을 피하려 해도 도저히 피할 길이 없었다. 도망치려 해도 도망칠 수 없었기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여래에게 귀의하였다.

손오공이 막 돌아서서 여래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부처님, 이제 요괴들을 물리쳐 큰 화는 면했지만, 스승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대봉금시조가 이를 갈며 원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이 고약한 원숭이 놈! 어디서 이런 독한 놈들을 데려와 나를 가두느냐? 네 스승이라는 노승이 우리에게 먹히기라도 했단 말이나? 지금쯤 금향정 철궤 안에 갇혀 있는 것 아니냐!"

손오공은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머리를 조아리며 부처님께 감사를 표했다. 여래는 대봉금시조를 함부로 풀어주지 않고, 그저 불꽃 위에서 호법신(불법을 수호하는 신) 노릇이나 하도록 명한 뒤, 무리를 이끌고 구름을 타고 곧장 보찰로 돌아갔다.

손오공은 근두운을 타고 성 안으로 내려갔으나, 성 안에는 작은 요괴 하나 보이지 않았다. 머리 없는 뱀은 나아갈 수 없고 날개 없는 새는 날 수 없는 법이니, 요괴들이 부처님께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제각기 살길을 찾아 달아난 것이었다. 그제야 손오공은 저팔계와 사오정을 구출하고 짐과 말까지 찾아낸 뒤, 두 사람에게 말했다. "스승님은 아직 잡아먹히지 않았으니 어서 따라오세요."

손오공은 두 사람을 데리고 곧장 안뜰로 들어가 금향정을 찾아냈다. 문을 열고 안을 살펴보니 철제 궤짝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당삼장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오정이 향요장으로 쇠사슬을 끊고 궤짝 뚜껑을 열자, "스승님!" 하고 외쳤다. 당삼장은 사오정을 보자마자 목놓아 울며 말했다. "제자들아, 어찌 요괴들을 물리쳤느냐? 대체 어떻게 나를 찾아낸 것이냐?"

손오공은 그간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려주었다. 당삼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마워했다. 스승과 제자들은 그 궁전에서 쌀과 양식을 찾아 차린 밥으로 배불리 한 끼를 먹은 뒤, 짐을 챙겨 성 밖으로 나와 큰길을 따라 서천을 향해 떠났다.

시로 이르되, 진경은 반드시 참된 사람이 얻는 법이나 마음을 너무 써서 애태우는 것은 모두 헛된 일이다.

결국 이렇게 영산으로 떠난 손오공이 과연 언제 여래를 만나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8회 — 비구는 자식을 가없게 여겨 음신을 보내고, 금전에서 마귀를 알아보 고 도덕을 논하다

比丘憐子遣陰神 金殿識魔談道德

한 생각 일어날 때 백 가지 마구니가 움직이니, 수행의 괴로움 어찌할 수 있는가.

다만 티끌 하나 없는 깨끗한 찰흙에 의지하고, 다듬고 닦아 마음을 묶어 두어야 하리.

만 가지 인연을 쓸어내어 고요한 적멸로 돌아가고, 온갖 괴이함을 씻어 내어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그리하여 갇힌 틀을 벗어던지고, 수행을 다 마쳐 저 높은 하늘로 날아 오르라.

이야기는 이러하다. 손오공이 온갖 지혜를 짜내어 여래께 청하여 요괴들을 모두 물리치게 함으로써, 삼장법사와 제자들의 위기를 벗어나

사타국을 떠나 서쪽으로 향했다. 다시 몇 달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다.

고개에는 매화가 막 피어나려 하고, 연못물은 차츰 얼어붙는다. 붉은 단풍은 모두 떨어져 흩날리고, 푸른 소나무는 빛깔이 더욱 짙어지네. 열은 구름은 눈이 내릴 듯 떠다니고, 마른 풀은 산등성이에 낮게 드리렸구나. 눈에 보이는 곳마다 차가운 빛이 가득하니, 음산한 기운이 뻗속까지 스며든다.

스승과 제자들은 추위와 냉기를 견디며 비바람을 맞고 빗속을 뚫고 나아갔다. 길을 가던 중, 또 하나의 성곽이 나타났다. 삼장법사가 물었다. "오공아, 저곳은 또 어떤 곳이야?" 손오공이 대답했다. "가까이 가 보면 알게 됩니다. 만약 서쪽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곳이라면 통행증을 바꿔야 하고, 그저 부나 주, 현 같은 곳이라면 그냥 지나치면 됩니다."

스승과 제자들이 대화를 마치기도 전에 이미 성문 밖에 다다랐다. 삼장법사가 말에서 내리자, 일행 네 명은 성문 앞 옹성(月城) 안으로 들어섰다. 양지바른 담벼락 아래를 보니 한 노병이 바람을 피해 잠을 자고 있었다. 손오공이 가까이 다가가 그를 흔들며 "여보시오, 관리!"라고 불렀다. 노병은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더니, 비몽사몽한 눈으로 손오공을 보고는 얼른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외쳤다. "할아버님!"

손오공이 말했다. "겁먹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무슨 악신이라도 된단 말ियो? 왜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요?"

노병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당신은 뇌공 할아버님이십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헛소리 마시오. 나는 동토에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승려요. 방금 이곳에 도착했는데 지명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요."

그 말을 들은 노병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는 "아차!" 하며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스님, 스님, 소인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곳은 원래 비구국이라 불렸으나, 지금은 소자성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이 나라에 임금님이 있소?"

"그럼요, 있습니다." 노병이 대답했다.

손오공은 몸을 돌려 삼장법사에게 말했다. "스승님, 이곳은 원래 비구국이었는데 지금은 소자성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그렇게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삼장법사가 의아해하며 말했다. "비구라고 하더니, 어찌하여 소자라고 하는 것인가?"

저팔계가 끼어들었다. "아마 비구국 왕이 죽고, 새로 왕위에 오른 놈이 꼬마라서 소자성이라고 지었나 보죠."

삼장법사가 말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어.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저잣거리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보자꾸나."

사오정이 거들었다. "맞습니다. 저 노병은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형님 말에 겁을 먹어 헛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성안으로 들어가서 물어보지요."

다시 성 안의 삼층 문을 지나 변화한 대로와 시장통으로 들어서니, 사람들의 옷차림이 정갈하고 용모 또한 수려했다. 그 풍경은 이러했다.

술집과 노래방에서는 북적이는 소리가 들려오고, 비단 가게와 찻집에는 화려한 휘장이 높이 걸려 있구나. 수많은 집과 문마다 장사가 잘 되어 활기가 넘치고, 여섯 거리와 세 시장에는 재물이 끊이지 않네. 금과 비단을 사는 사람들 개미 떼처럼 북적이고, 이익과 명예를 쫓는 것은 오로지 돈 때문이라. 예의 바르고 엄숙한 풍경이 변창하니, 강물이 맑고 바다가 잔잔한 태평성대로다.

스승과 제자 네 사람은 말을 끌고 짐을 멘 채 시장 거리를 한참 동안 걸었다. 변화한 기운이 끝이 없어 보였지만,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집집마다 문 앞에 놓인 거위 바구니였다. 삼장이 물었다. "제자야, 이곳 사람들은 왜 모두 집 문 앞에 거위 바구니를 놓아두었느냐?"

저팔계가 그 말을 듣고 좌우를 살피보니, 과연 거위 바구니인데 오색 비단 휘장으로 덮여 줄지어 놓여 있었다. 저팔계가 어리석게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아마 오늘은 길한 날이라 혼례를 치르거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다들 예식을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헛소리 마라. 어찌 집집마다 예식을 치르단 말이냐?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테니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

삼장이 손오공을 붙잡으며 말했다. "가지 마라. 네 얼굴이 험상궂으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까 두렵구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변신술을 써서 다른 모습으로 다녀오면 됩니다."

손오공이 주문을 외우며 결인을 맺고 몸을 흔들더니, 순식간에 꿀벌 한 마리로 변신했다. 꿀벌이 된 손오공은 날개를 펼쳐 근처로 날아가 휘장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는데, 그곳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앉아 있었다. 이어 두 번째 집의 바구니 안을 살펴보니 그곳에도 아이가 있었다. 여덟 아홉 집을 연달아 확인해 보아도 모두 아이들이었다. 그것도 전부 남자아이일 뿐, 여자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어떤 아이는 바구니 안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으며, 어떤 아이는 과일을 먹거나 꾸벅꾸벅 졸며 앉아 있었다.

손오공은 조사를 마친 뒤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삼장법사에게 보고했다. "스승님, 저 바구니 안에는 아이들이 들어 있습니다. 큰애는 일곱 살이 채 안 되었고, 작은애는 겨우 다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데,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장법사는 그 말을 듣고 의아해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길을 돌아서니 관청 하나가 보이는데, 바로 금정관 역이었다. 삼장법사가 기뻐하며 말했다. "제자들아, 일단 이 역 안으로 들어가자. 이곳에서 지리도 물어보고, 말에게도 여물을 먹인 뒤에 날이 저물면 목면 되겠구나." 사오정이 거들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서 들어갑시다." 네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관청의 관리가 역

승에게 알리니, 역승이 문에서 그들을 맞아들여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자리를 잡고 앉자 역승이 물었다. "스님께서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삼장이 대답했다. "빈승은 동토 대당에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곳에 도착했으니, 관련 문서를 확인해 주시고 잠시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역승은 즉시 차를 내오라고 명했다. 차를 마신 뒤 필요한 절차를 밟고, 당직 관리에게 이들을 잘 대접하라고 일렀다. 삼장은 감사를 표하며 다시 물었다. "오늘 입궐하여 국왕을 뵙고 관문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역승이 말했다. "오늘은 안 됩니다. 내일 아침 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밤은 우선 저희 관청에서 편히 묵으십시오."

준비를 마친 뒤, 역승은 네 사람이 함께 공양을 들도록 청했다. 그러고는 부하들에게 객실을 청소하여 편히 쉴 수 있게 하라고 일렀다. 삼장법사는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자리에 앉은 삼장법사가 입을 열었다.

"빈승에게 궁금한 일이 하나 있으니, 부디 가르침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역승이 대답했다.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없고 사람에게 두 가지 이치가 없듯, 아이를 기르는 것은 아버지의 정수와 어머니의 혈육이 만나 열 달을 품은 뒤 때가 되어 태어나는 법입니다. 태어나서 젖을 먹여 삼 년을 기르면 점차 체격이 갖춰지니, 어찌 이를 모를 리 있겠습니까?"

삼장법사가 말했다.

"대인께서 말씀하신 바는 저희 나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성안에 들어올 때 보니, 집집마다 거위 바구니를 하나씩 놓아두고 그 안에 어린아이들을 숨겨두었더군요. 이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감히 여쭙어봅니다."

그러자 역승이 삼장법사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스님, 제발 상관하지 마십시오. 묻지도 마시고, 아는 체도 하지 마시고, 그저 모르는 척하십시오. 일단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나십시오."

삼장법사는 그 말을 듣고 역승의 소매를 붙잡으며 반드시 명확한 답을 들어야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역승은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치고는 "제발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할 뿐이었다. 하지만 삼장법사가 한 번 붙잡자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캐물으려 하자, 역승은 어쩔 수 없이 주변의 관리들을 모두 물러가게 했다. 그러고는 등불 아래에서 은밀히 입을 열었다.

"방금 물으신 거위 바구니에 관한 일은 지금의 국왕께서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도리에 어긋나다니요?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제가 마음을 놓을 수 있겠습니다."

역승이 말했다.

"이 나라는 본래 비구국이었으나, 근래 민가에서 부르는 노래를 따라 소자성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3년 전, 한 노인이 도사 차림을 하고 열여섯 살쯤 된 어린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여인은 모습이 무척 곱고 아름다워 마치 관음보살 같았는데, 국왕께서 그 미모에 반해 궁으로 들여 미후(美后)라 부르며 총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국왕께서는 세 명의 왕비와 여섯 명의 후궁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밤낮 없이 그 여인과 즐거움에만 빠져 지내고 계십니다. 그 바람에 기력이 다해 몸은 야위고 수척해졌으며, 음식도 거의 못 드시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태입니다. 태의원에서 온갖 좋은 약을 써보았으나 도무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온 노인은 국왕의 봉작을 받아 국장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국장은 바다 건너 신비한 처방을 알고 있는데, 수명을 연장하는 데 탁월한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십주와 삼도에서 약재를 모두 구해와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만 그 약을 달일 때 쓰는 약 기운을 이끄는 재료가 매우 무시무시합니다. 어린아이 1,111명의 심장과 간을 넣어 탕을 달여 마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천 년 동안 늙지 않는 신통력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거위 바구니 속에 든 아이들은 모두 그 약재로 쓰기 위해 골라낸 아이들로, 바구니 안에 가두어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의 법이 두려워 감히 울지도 못하고 숨죽이고 있다 보니, 결국 소문이 퍼져 이곳을 아이들의 성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내일 아침 조정에 가시거든, 그저 관문 서류만 교체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언급하지 마십시오."

말을 마친 역승은 서둘러 몸을 돌려 물러났다.

삼장법사는 너무 놀라 뼈마디가 물러지고 근육이 마비되는 듯하여,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목 놓아 외쳤다.

"어리석은 임금놈아, 어리석은 임금놈아! 네가 쾌락과 미색에 빠져 병을 얻었다고 해서, 어찌 이토록 많은 어린아이의 목숨을 해친단 말이냐? 아아, 가련하다, 가련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시로 이르되,

사악한 군주는 도리를 잃고 참된 이치를 망각하여, 쾌락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니 스스로 몸을 망치네. 영원한 삶을 구하려 어린아이의 목숨을 해치고, 천재지변을 피하려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네. 스님은 자비심에 차서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관리는 이익과 손해만을 따지니 듣기조차 괴롭구나. 등불 앞에 눈물 뿌리며 길게 탄식하니, 참선하며 부처를 향하던 이가 비통하여 쓰러지네.

저팔계가 다가와 말했다.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남의 관을 제 집 안에 가져다 놓고 왜 혼자 우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부터 이르길, '임금이 신하에게 죽으라 명했는데 죽지 않으면 충신이 아니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죽으라 명했는데 죽지 않으면 효자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저건 저 사람의 백성들이니 스승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자, 어서 옷을 편히 입으시고 잠이나 주무세요. 옛사람들 걱정 때문에 스승님까지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삼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자야, 너는 참으로 자비심이 없구나. 나 같은 출가자는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함에 있어, 무엇보다 먼저 자비와 방편을 베풀어야 하거늘, 저 어리석은 임금은 어찌 저리 막무가내란 말이나? 예로부터 사람의 심장과 간을 먹는다고 수명이 늘어난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런 일을 듣고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

사오정이 말했다.

"스승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관문을 교체하러 갈 때 국왕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만약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 국장이 대체 어떤 인물인지 똑똑히 알게 되겠지요. 어쩌면 그 국장이 사람의 심장을 먹으려는 요괴라서 이런 일을 꾸미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사오정의 말이 옳습니다. 스승님, 우선 좀 주무세요. 내일 제가 스승님을 모시고 입궐하여 저 국장이라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사람이라면, 도를 벗어나 악을 캐는 데만 눈이 멀어 올바른 길을 모르는 것이니, 제가 선천적인 도의 요체를 알려주어 그를 바른길로 인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요괴라면, 제가 그놈을 잡아다가 국왕 앞에 내놓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몸을 보살피게 하여, 결코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삼장법사는 그 말을 듣고 급히 몸을 굽혀 손오공에게 예를 갖추며 말했다. "제자야, 네 생각이 참으로 기특하고 훌륭하구나. 하지만 어리

석은 임금을 만났을 때 곧바로 이 일을 꺼냈다가, 혹여 임금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이를 유언비어로 여겨 죄를 물으면 어찌하겠느냐?"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저에게는 신통력이 있습니다. 우선 바구니에 갇힌 아이들을 이 성 밖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약을 취할 것이 없어지니, 지방 관리가 자연히 임금에게 보고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임금은 국장과 상의를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으려 하겠지요. 그때 이 일을 꺼내어 보고한다면, 결코 저에게 죄를 묻지 못할 것입니다."

삼장법사는 매우 기뻐하며 다시 말했다. "지금 어떻게 아이들을 성 밖으로 옮기겠느냐? 만약 정말로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면, 너는 참으로 큰 덕을 쌓는 것이다. 어서 서둘러 주거라. 조금이라도 늦으면 아이들이 위험할까 걱정되는구나."

손오공은 신통력을 떨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팔계와 사오정에게 분부했다. "너희는 스승님 곁을 지키고 있거라. 내가 신통력을 부릴 테니, 그저 음산한 바람이 불어오면 아이들이 성 밖으로 나가는 줄로 알면 된다."

세 사람은 일제히 외쳤다. "나무 구생약사불! 나무 구생약사불!"

손오공이 성문 밖으로 나가 휘파람을 한 번 크게 불더니,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주문을 외우며 진언을 읊었다.

"옴, 정법계(淸淨法界)!"

그러자 성황신과 토지신, 사령, 진관을 비롯하여 오방계제, 사치공조, 육정육갑, 그리고 사찰을 수호하는 가람신들까지 모두 공중으로 모여들어 손오공에게 예를 갖추며 물었다.

"대성님, 이 밤중에 저희를 부르신 데에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손오공이 말했다.

"지금 비구국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나라 국왕이 도리에 어긋나고 요사스러운 도사들의 말을 믿어, 아이들의 심장을 약재로 써서 영생을 누리려 하고 있소. 내 스승님께서 차마 이를 두고 보지 못해 아이들을 구하고 요괴를 물리치려 하시니, 내가 특별히 여러분께 부탁하려 하오. 각자 신통력을 발휘하여 성 안의 집집마다 놓인 바구니 속에 든 아이들을 바구니째 통째로 성 밖 산골짜기나 깊은 숲속으로 옮겨 주시오. 하루 이틀 정도 그곳에 머물게 하되, 과일 같은 먹을 것을 주어 굶지 않게 하고,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리지 않도록 몰래 잘 보살펴 주시오. 내가 사악한 무리를 물리치고 나라를 바로잡은 뒤, 국왕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떠날 때쯤 아이들을 다시 돌려보내 주면 되겠소."

신령들이 명령을 듣고 각자 신통력을 부려 구름 아래로 내려앉았다. 성 안에는 음산한 바람이 휘몰아치고 비참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다.

음산한 바람은 별빛조차 가릴 만큼 몰아치고, 비참한 안개는 천 리 밖의 달빛마저 흐릿하게 가려버렸다. 처음에는 바람과 안개가 유유히 일렁이는 듯하더니, 이내 거세게 몰아치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유유히 일렁이는 가운데 신령들은 집집마다 문을 찾아 아이들을 구하고, 거세

게 몰아치는 가운데 모두 거위 바구니를 살피 골육(자식)을 구해내었다. 차가운 기운이 사람을 덮치니 어디로 피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매서운 한기는 뺏속까지 파고들어 옷조차 철갑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부모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고, 형제와 형수들은 슬픔에 잠겨 울부짖었다. 온 땅에 음산한 바람이 휘몰아치니, 바구니 속 아이들은 신령들에게 거두어져 갔다. 비록 이 밤은 외롭고 처량할지라도, 날이 밝으면 모두가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

이 상황을 시로 읊으면 다음과 같다.

불교의 자비로운 마음은 예부터 깊어 참된 선을 행하며 마하반야의도를 말하네. 모든 성인과 진리는 덕을 쌓는 데 있고 삼귀의와 오계를 화합하여 지켜야 하네. 비구국이 이름 바뀐 것은 군주의 난 탓이 아니요 소자성 아이들 천 명은 운명의 뒤틀림이라. 행자가 스승을 위해 함께 구하러 나섰으니 이 음덕(陰鷲)이야말로 바라밀의 공덕보다 뛰어나도다.

그날 밤 삼경(새벽 1시~3시 사이)이 되었을 때, 여러 신령이 거위 바구니를 거두어 각처에 안전하게 숨겨 두었다.

손오공은 상서로운 빛을 타고 내려와 역승의 마당으로 곧장 내려갔다. 마침 세 사람이 "나무 구생 약사불(생명을 구해주시는 약사여래불께 귀의합니다)"이라며 염불을 외는 소리가 들려왔다. 손오공은 속으로 내심 기뻐하며 다가가 말했다. "스승님, 제가 왔습니다. 아까 불던 음산한 바람은 좀 어떠십니까?" 저팔계가 대답했다. "아주 음산한 바람이었지요." 그러자 삼장이 물었다. "아이들을 구하는 일은 어떻게 된

것이냐?" 손오공이 말했다. "이미 하나하나 다 구해서 밖으로 내보냈으니, 우리가 길을 떠날 때 다시 돌려보내 주겠습니다." 삼장은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넨 뒤에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다.

날이 밝자 삼장법사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채비를 마친 뒤 말했다. “오공아, 조참(朝參, 아침 조회) 시간에 맞춰 가서 관문을 교체해야겠구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 혼자 가시는 건 위험하니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 국장이라는 자가 바른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네가 같이 가면 예법을 갖추지 않을까 봐 걱정되는구나. 국왕께서 이상하게 여기실 게다.”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몸을 드러내지 않고 스승님 곁에서 몰래 따라다니며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삼장법사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저팔계와 사오정에게 짐과 말을 잘 지키라고 당부했다.

삼장법사가 막 발걸음을 떼려는데, 역승이 다시 찾아왔다. 어제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정갈하게 차려입은 삼장법사의 모습은 이러했다.

비단처럼 고운 보배로운 가사를 몸에 걸치고, 머리에는 금빛이 도는 비로모를 썼구나. 손에는 아홉 고리 달린 지팡이를 쥐었으며, 가슴에 서는 신비로운 빛이 감도네. 통행 문서는 몸에 잘 지니고, 보따리 속 물건은 비단 주머니로 정성껏 감쌌으니, 마치 아라한이 세상에 내려온 듯, 참된 살아있는 부처의 모습이로다.

인사를 마친 역승은 삼장법사에게 다가와 귀뜸하며,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나직이 일렀다. 삼장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사이 손오공은 문가에 숨어 주문을 외우더니, 몸을 획 바꿔 작은

귀뚜라미로 변신하여 '잉' 소리를 내며 삼장법사의 모자 위로 날아올랐다. 삼장법사는 금정관을 나서 곧장 궁궐을 향해 달려갔다.

궁궐 문 앞에 이르니 황문관이 보였다. 삼장법사가 예를 갖추어 말했다. “빈승은 동토 대당에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승려입니다. 이제 귀국에 도착하였으니 마땅히 관문을 교체해야 합니다. 국왕 폐하를 뵙고자 하오니, 부디 전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황문관은 곧 그 말을 전했다. 국왕은 기뻐하며 말했다. “멀리서 온 승려라면 필시 도력이 높을 것이다.” 그러고는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명했다. 황문관이 다시 어명을 받들어 삼장법사를 안으로 모셨다. 삼장법사가 계단 아래에서 조아리며 인사를 마치자, 다시 전각 위로 모셔 자리를 권했다. 삼장법사는 은혜에 감사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때 보니 국왕의 모습은 매우 수척하고 기력이 없어 보였다. 손을 들어 예를 올리는 동작조차 서툴고 어설프었으며, 말을 할 때도 목소리가 끊겼다 다 끊기기를 반복했다. 삼장법사가 서류를 올리자, 국왕은 눈이 침침한 듯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살펴보더니, 그제야 보인(寶印)을 꺼내 서명을 하여 삼장법사에게 건네주었다. 삼장법사는 그것을 잘 받아 챙겼다.

국왕이 막 불경을 구하러 가는 이유를 물으려는데, 마침 마차를 인도하던 관리가 보고했다. "국장 어른께서 오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국왕은 곁에 있던 어린 환관의 부축을 받으며 용상에서 몸을 일으켜 허리를 굽혀 맞이했다. 옆에 서 있던 삼장법사도 당황하여 급히 일어나 옆으로 비켜섰다. 삼장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한 노도사가 옥계 앞부터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모습을 살펴보니 이리하였

머리에는 연한 황색의 구식운금사건을 쓰고, 몸에는 매화무늬가 그려진 침향 면사 학창의를 입었다. 허리에는 푸른색 비단으로 짠 세 가닥의 벨트를 맸고, 발에는 삼베와 갈대를 섞어 구름무늬를 넣은 신을 신고 있었다. 손에는 아홉 마디로 된 마른 덩굴로 만든 용무늬 지팡이를 쥐었으며, 가슴에는 용과 봉황이 수놓아진 화려한 비단 주머니를 매달았다. 얼굴은 옥처럼 매끄럽고 윤기가 났으며, 턱 아래로는 하얀 수염이 휘날렸다. 눈에서는 금빛 불꽃이 번뜩였고, 길게 뻗은 눈매는 눈썹 끝까지 닿아 있었다. 걸음걸이는 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듯 여유로웠고, 몸에서는 향기로운 안개가 감도는 듯했다. 계단 아래의 관리들은 모두 손을 모아 맞이하며 일제히 국장 어른을 향해 예를 갖추어 환영했다.

국장은 보전 앞까지 와서도 예법을 갖추어 절하지 않고, 기세등등하게 곧장 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국왕이 몸을 굽히며 말했다. "국장 어른, 오늘 이렇게 일찍 찾아주시다니 참으로 기쁩니다." 그러고는 국왕이 왼쪽의 화려한 방석으로 그를 안내하여 앉혔다.

삼장이 한 걸음 나아가 몸을 굽혀 예를 갖추며 말했다. "국장 어른, 빈승이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국장은 의연하게 높이 앉은 채 답례조차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국왕에게 물었다. "저 승려는 어디서 온 것이요?" 국왕이 대답했다. "동토 당나라에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승려인데, 지금 관문을 확인하러 왔소." 그러자 국장이 웃으며 말했다. "서쪽 길이야 칠혹같이 어둡기만 할 뿐인데, 대체 무엇이 좋단 말이요?" 삼장이 말했다. "예로부터 서방은 극락의 경치 좋은 곳이라 하였으니,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국왕이 다시 물었다. "짐이 듣기로 상

고 시대에 '승려는 부처의 제자'라 하였는데, 정녕 승려가 되면 죽지 않고 부처를 향하면 장생할 수 있는 것이오?" 삼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합장하며 대답했다.

"승려가 된다는 것은 만 가지 인연을 끊는 것이요, 성품을 깨닫는다는 것은 모든 법이 비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큰 지혜는 한가로이 머물며 담박함 속에 생겨나지 않는 도를 품고, 참된 기운은 묵묵히 움직이며 적멸의 가운데서 유유자적합니다. 삼계가 비어 있으면 온갖 번뇌가 다스려지고, 육근이 깨끗하면 천 가지 번뇌가 다 사라집니다. 만약 진실하고 성실하게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홀로 밝게 비추고, 마음이 바로 서면 온 세상이 맑아집니다. 참된 모습은 부족함도 남음도 없어 살아생전에도 볼 수 있지만, 환상과 같은 형상은 형태가 있어 결국 무너지니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공을 들어 좌선하는 것은 정(定)에 들기 위한 근본이며, 은혜를 베푸는 것은 수행의 바탕입니다. 큰 교묘함은 오히려 서툴러 보이는 법이니 모든 일에 무위(無爲)함을 알아야 하고, 뛰어난 계산은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마음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오직 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수행이 절로 온전해집니다. 만약 음기를 채워 양기를 보충한다는 식의 말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요, 약을 먹어 장수한다는 것은 허황된 말일 뿐입니다. 그저 티끌 같은 인연들을 모두 버리고 만물의 색깔이 비어 있음을 알면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순수하게 살아가면 자연히 장수함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국장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삼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허허허, 이 중놈이 입만 열면 헛소리뿐이구나."

적멸의 문을 닦으려면 성품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너는 그 성품이 어디서 사라지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멍하니 앉아 참선만 하니, 이는 눈 먼 자가 헛된 수련을 하는 격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앉고 앉다 보면 엉덩이가 다 닳고, 불길에 달궈지면 도리어 화를 입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를 보아라. 신선을 닦는 자는 뼈가 굳건하고 빼어나며, 도에 통달한 자는 정신이 가장 영롱하다. 바구니 하나 들고 산에 들어가 벗을 찾고, 온갖 약초를 캐어 세상 사람들을 구제한다. 선계의 꽃을 꺾어 갯을 만들고, 향기로운 풀을 꺾어 자리를 펴네. 노래하며 박수를 치다 춤을 추고 나면 구름 위에서 잠이 든다. 도법을 펼쳐 태상노군의 정통 가르침을 드높이고, 부적과 신령한 물을 써서 세상의 요사스러운 기운을 물리친다. 천지의 빼어난 기운을 빼앗고 해와 달의 정기를 취하노라. 음양을 운용하여 단약을 맺고, 수화(水火)를 다스려 태아를 맺듯 정기를 응축한다. 음기가 사라짐이여 마치 홀린 듯 몽롱하고, 양기가 자라남이여 아득하고 어둡도다. 사계절에 맞춰 약물을 채취하고 아홉 번을 돌려 단약을 완성한다. 청란을 타고 자부(紫府)로 날아오르고, 백학을 타고 요경(瑤京)으로 올라가니, 하늘의 화려함을 다하고 묘한 도의 정성을 나타낸다. 너희의 정적인 불교처럼 적멸과 음신만을 논하며 열반의 껍데기만 남긴 채 속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는 다르다. 삼교 중에서 가장 높은 경지는 예로부터 오직 도(道)를 닦는 것뿐이다."

국왕은 이 말을 듣고 몹시 기뻐했다. 조정의 관리들도 일제히 환호하며 외쳤다. "과연 '오직 도를 닦는 것만이 존귀하다' 하였구나! 참으로 그렇도다!" 삼장은 사람들이 모두 국장을 칭찬하는 것을 보고 몹시 부끄러워했다. 국왕은 광록사에 명하여, 멀리서 온 승려가 성을 나가 서쪽으로 떠날 수 있도록 소찬(채식 공양)을 준비하게 했다. 삼장이 은

혜에 감사하며 물리나려는데, 막 전각을 나서려던 찰나에 손오공이 모자 위에서 날아 내려와 귤가에 속삭였다. "스승님, 저 국장이라는 자는 요물입니다. 국왕도 묘사스러운 기운에 홀렸어요. 일단 역관에서 음식을 기다리며 쉬고 계십시오. 이놈은 제가 여기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삼장은 그 말을 알아듣고 홀로 궁문을 나섰다.

그때 손오공이 금란전 비취 병풍 뒤로 쨍쨍하게 날아 내려가 보니, 관리들 사이에서 오성병마관이 달려 나와 보고하고 있었다.

"폐하, 오늘 밤 찬바람이 한 차례 몰아치더니, 마을 곳곳의 집마다 놓여 있던 오색 달걀 바구니와 그 안의 아이들을 통째로 휩쓸어 가 버렸나이다.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국왕은 깜짝 놀라며 화를 내더니 국장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늘이 짐을 멸하려 하는 것이요! 몇 달째 병이 깊어 어의들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국장이 선방을 내려주어 오늘 오시(午時)에 맞춰 아이의 심장과 간을 약재로 쓰려던 참이었소. 그런데 어찌 찬바람이 불어 다 쓸어 가 버렸단 말이요? 이것은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요?"

국장이 웃으며 말했다.

"폐하, 너무 근심하지 마옵소서. 아이들이 사라진 것은 오히려 하늘이 폐하께 장생불사를 선물하려는 것입니다."

국왕이 물었다.

"바구니 속의 아이들이 사라졌는데, 어찌 그것이 하늘이 장생을 선물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소?"

국장이 대답했다.

"제가 방금 조정에 들어오다가 아주 기가 막힌 약재를 발견했나이다. 저 아이들 천백열한 명의 심장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옵니다. 그 아이들의 심장은 폐하의 수명을 천 년 정도 늘려줄 뿐이지만, 이 약재는 제 선약을 먹는 순간 만만년의 수명을 보장할 것이옵니다."

국왕은 그 약재가 무엇인지 몰라 몇 번이나 되물었다. 그러자 국장이 비로소 입을 열었다.

"동토에서 경전을 구하러 온 그 스님 말입니다. 제가 보니 기품이 청정하고 용모가 단정하여, 열 번의 생을 수행한 진정한 몸이더군요. 어려서부터 승려로 살았으니 원양(元陽, 남자의 정기)이 흐트러지지 않아 저 아이들보다 만 배는 더 강합니다. 만약 그 스님의 심장과 간을 달여 제 선약과 함께 먹는다면, 분명 만년의 수명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국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덥석 믿어버리며 국장에게 말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만약 정말로 효과가 있다면, 아까 그 스님을 그냥 보내지 말고 붙잡아 두었어야 했소!"

국장이 말했다.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까 광록사에게 명하여 공양을 준비하게 했으니, 스님은 분명 공양을 먹고 나서 성을 나셨을 것입니다. 지금 즉시 어명을 내려 성문을 굳게 닫게 하시고, 군사를 풀어 금정관 역을 포위하십시오. 그리고 그 스님을 잡아 와서 예우를 갖추어 심장을 내놓으라 청하십시오. 만약 순순히 응한다면 즉시 심장을 적출한 뒤, 시신은 정중히 장사 지내주고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주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거부한다면 무력으로 제압하여 즉시 꿰뚫은 뒤, 가차 없이 배를 갈라 심장을 꺼내면 됩니다. 그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어리석은 국왕은 그 말대로 즉시 어명을 내려 성문을 모두 닫게 했다. 또한 우림위의 크고 작은 관리와 군사들을 보내 금정관 역을 겹겹이 에워싸게 했다.

손오공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날개를 펼치듯 급히 금정관으로 날아와 본모습으로 돌아온 뒤, 삼장에게 말했다.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제야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공양을 막 마치려던 삼장은 이 말을 듣고는 혼비백산하여 정신이 아득해졌다. 온몸에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눈은 초점을 잃었으며, 입은 떨어지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다. 당황한 사오정이 얼른 다가가 삼장을 부축하며 외쳤다. "스승님, 정신 차리세요! 스승님, 제발 깨어나세요!"

저팔계가 말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거야?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천천히 말해도 될 것을, 스승님을 저렇게 놀라게 만들다니!"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께서 입궐하신 사이 제가 살펴보고 왔는데, 그 국장이라는 자가 요괴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섯 성의 군사들이 찾아와 차가운 바람이 불어 어린아이들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국왕은 화를 냈지만, 국장은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며 ‘이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장수를 선물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고는 스승님의 심장과 간을 약재로 쓰면 만 년의 수명을 누릴 수 있다고 꾀었습니다. 어리석은 국왕이 그 거짓말에 속아 정예병을 뽑아 금정관을 에워싸게 하고, 금의관을 보내 스승님의 심장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저팔계가 헛웃음을 치며 말했다. “참으로 자비롭기도 해라! 아이들을 구하려다 오히려 이런 재앙을 불러오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군!”

삼장은 벌벌 떨며 일어나 손오공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제자야,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잘 해결하려면,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오정이 물었다.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바꾼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목숨을 보전하려면 스승님은 제자가 되고, 저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삼장이 말했다. “네가 내 목숨을 구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네 제자나 손자가 되어도 좋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망설일 것 없습니다. 팔계야, 어서 진흙을 좀 개어 오너라!”

저팔계는 즉시 쇠스랑으로 흙을 좀 파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 물을 떠 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옷을 걷어 올린 채 그 위에 오줌을 누어 냄새나는 진흙 한 덩어리를 개어 손오공에게 건넸다. 손오공은 어쩔 수 없이 그 진흙을 넓게 퍼서 자신의 얼굴에 붙인 뒤, 원숭이 같은 형상

을 만들었다. 그러고는 삼장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다고 일렀다. 손오공이 진흙을 삼장의 얼굴에 붙이고는 주문을 외우며 입으로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삼장은 순식간에 손오공의 모습으로 변했다. 손오공은 삼장의 옷을 벗겨 자신이 입고, 대신 삼장의 옷을 입었다. 그러고는 손오공이 주문을 외우며 몸을 흔드니, 이번에는 삼장의 얼굴로 변했다. 저팔계와 사오정조차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서로 마음을 맞춰 변장을 마쳤을 때, 갑자기 징과 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더니 창과 칼을 든 군사들이 떼를 지어 나타났다. 알고 보니 우림위 관리가 삼천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금정관 역을 포위한 것이었다. 이때 금의관 한 명이 역의 마당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동토 당나라에서 온 장로는 어디에 있는가?"

겹에 질린 역승이 벌벌 떨며 무릎을 꿇고는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리켰다.

"아래쪽 객실에 계십니다."

금의관은 즉시 객실로 향하며 말했다.

"당 장로, 국왕 폐하께서 부르신다."

저팔계와 사오정이 양옆에서 가짜 수행자를 호위했다. 가짜 삼장법사가 문을 나서며 예를 갖추어 말했다.

"금의 관원님, 폐하께서 이 미천한 승려를 부르시다니 무슨 말씀 때 문입니까?"

그러자 금의관이 다가와 그를 덥석 붙잡으며 말했다.

"나와 함께 궁으로 가자. 분명히 쓸 데가 있을 것이다."

아! 시로 이르되,

"요괴가 자비로운 승려를 모함하니, 자비로운 승려가 도리어 화를 부르는구나."

결국 이 길을 따라 궁으로 향하는 저 가짜 삼장의 목숨이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79회 — 동굴을 찾아 요괴를 잡다 노 인을 만나고, 조정의 주인이 어린아이를 구하다

尋洞擒妖逢老壽 當朝正主救嬰兒

한편, 금의를 입은 관리가 가짜 당승을 끌고 관역 밖으로 나오자, 우림군이 그들을 겹겹이 에워싸고 궁궐 문 앞까지 호위했다. 관리가 황문관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미 당승을 모셔 왔으니, 폐하께 전해 주시오.” 황문관은 급히 궁 안으로 들어가 보고했고, 곧 당승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관리들이 계단 아래 엎드려 절을 올릴 때, 오직 가짜 당승만이 계단 한가운데에 꼴꼴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비구국 국왕이시여, 이 빈승을 무엇 때문에 부르셨나이까?” 국왕이 웃으며 말했다. “짐이 병을 얻은 지 오래되었으나 좀처럼 낫지 않고 있소. 다행히 국장이 처방을 내려 약재를 모두 준비해 두었으나, 딱 한 가지 약인(藥引)이 부족하오. 이에 스님께 간절히 청하노니, 약인을 좀 구해 주실 수 있겠소? 만약 병이 나으면 스님을 위해 사당을 짓고 사계절 내내 제사를 올려 대대로 그 향화를 이어가겠소.” 가짜 당승이 물었다. “소승은 출가

한 몸으로 홀로 이곳에 왔는데, 폐하께서 국장에게 어떤 물건을 약인으로 달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나이다.” 국왕이 대답했다. “스님의 심장과 간을 구하고자 하오.” 그러자 가짜 당승이 말했다. “폐하께 숨김없이 말씀드리자면, 소승에게는 심장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색깔을 원하시는지 모르겠나이다.” 곁에 있던 국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스님에게서 검은 심장을 가져오시오!” 가짜 당승이 다시 말했다. “정 그러하시다면 어서 칼을 가져오십시오. 가슴과 배를 갈라 검은 심장이 있다면 명을 받들겠나이다.” 국왕은 기뻐하며 감사를 표하고는, 즉시 당가관에게 명령하여 소 귀 모양의 짧은 칼을 가져다 가짜 당승에게 건네게 했다. 칼을 받은 가짜 당승은 옷을 풀어헤치고 가슴을 퍼더니, 왼손으로는 배를 누르고 오른손에는 칼을 쥐었다. 그러고는 ‘획’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배를 갈라버렸다. 그러자 그 속에서 심장이 우르르 한 무더기로 굴러 쏟아져 나왔다. 문관들은 얼굴빛이 변해 났을 잃었고, 무장들은 몸이 굳어 떨어졌다. 전각 위에 있던 국장이 이를 보고는 말했다. “이 중은 마음(심장)이 참으로 많기도 한 중이로구나!” 가짜 당승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심장들을 하나하나 집어 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붉은 심장, 하얀 심장, 노란 심장,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마음, 명리를 좇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따지고 계산하는 마음, 승부욕이 강한 마음, 높이 오르려는 마음,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 살생하려는 마음, 모질고 독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 사악하고 망령된 마음, 무명(無明)의 숨겨진 어두운 마음 등 온갖 불선한 마음들이었을 뿐, 검은 심장은 단 하나도 없었다. 국왕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 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말했다. “치워라, 어서 치워 버려라!” 가짜 당승은 참지 못하고 법심(法心)을 거두어 본모습을 드러내며 국왕에게 말했다. “폐하께서는 안

목이 전혀 없으시군요. 우리 승려들은 모두 한결같이 착한 마음뿐인데, 오직 이 국장만이 약인으로 쓰기에 딱 좋은 검은 심장을 가졌나이다. 믿기지 않으신다면 제가 저놈의 심장을 꺼내 보여드리지요!"

국장이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니, 스님의 얼굴이 변해 있어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어라!"

"오백 년 전 그 유명했던 손대성을 알아보겠구나!"

국장은 몸을 빼내어 구름을 타고 달아나려 했으나, 손오공이 근두운을 부려 공중으로 뛰어올라 호통을 쳤다. "어딜 도망가느냐! 내 몽둥이를 받아라!"

국장은 반룡괴를 휘둘러 맞서 싸웠고, 두 사람은 공중에서 한바탕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시로 이르되, 여의봉과 반룡괴가 허공에서 맞붙으니 구름만이 자욱하구나. 국장의 본모습은 요괴였으니 괴물 딸을 아리따운 여인이라 속였고, 국왕은 쾌락에 빠져 병이 들었으니 요괴는 아이들을 잡아먹으려 했네. 손대성을 만나 신통력을 발휘하니, 괴물을 잡고 사람을 구하는 일이 참으로 쉽지 않구나. 머리 위로 내리치는 철봉은 흥포하기 그지없고, 맞서 휘두르는 지팡이는 구경할 만하다. 싸움의 기운이 성안을 가득 메우니 백성들은 혼비백산하고, 문무백관은 혼이 나갔으며 후궁과 궁녀들의 얼굴색도 변했네. 비구국의 어리석은 임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벌벌 떨며 숨기 바쁘구나. 몽둥이를 휘두르는 기세는 산에서 나오는 호랑이 같고, 지팡이를 휘두르는 모습은 바다를 떠나는 용과 같도

다. 이번에 비구국을 크게 소란케 하여, 마침내 사악함과 정의로움을 분명히 가려냈구나.

요괴는 손오공과 스무 합 넘게 고전했으나, 반룡괴로는 여의봉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국장은 허를 찌르는 동작으로 지팡이를 휘두르더니, 몸을 한 줄기 차가운 빛으로 바꾸어 황궁 안뜰로 쩍싸게 내려갔다. 그러고는 진상품으로 들어온 요후를 데리고 궁궐 문 밖으로 빠져나가더니, 다시 차가운 빛이 되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손오공은 구름에서 내려와 궁궐 아래에 도착하자마자 관리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의 훌륭한 국장을 좀 보시오!" 관리들은 일제히 절을 하며 신성한 스님께 감사를 표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절은 그만하고, 그대들의 어리석은 임금의 어디 있는지부터 찾으시오." 관리들이 대답했다. "임금님께서서는 전쟁이 벌어지자 겁에 질려 어디론가 몸을 숨기셨는데, 어느 궁궐로 가셨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손오공이 즉시 명령했다. "어서 찾으시오! 요후에게 흘려 끌려가지 않도록 말이오." 관리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안팎을 가리지 않고 앞다투어 요후의 궁으로 달려갔으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요후마저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정궁과 동궁, 서궁, 그리고 육원(六院)에 있는 모든 후궁이 몰려와 손오공에게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자, 다들 일어나시오. 아직 감사 인사를 다 받지도 못했소. 우선 그대들의 임금부터 찾으려 갑시다." 잠시 후, 네다섯 명의 태감이 혼군을 부축하고 몸을 숨겼던 전각 뒤편에서 나타났다. 신하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일제히 아뢰었다. "주군, 주군! 신성한 스님께서 오셔서 진실을 밝혀주셨나이다. 그 국장은 요사스러운 요괴이며, 요후 또한 보이지 않나이다."

국왕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손오공을 궁 밖으로 모셔 보전으로 나아가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물었다. "장로여, 아침에 오셨을 때는 그토록 준수하고 위엄 있는 모습이셨는데, 어찌하여 지금은 모습이 바뀌었던 말ियो?"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폐하께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온 사람은 제 스승님이신 당나라 황제의 동생, 삼장법사입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인 손오공이며, 저기 금정관역에는 제 사제인 저팔계와 사오정이 있습니다. 폐하께서 요괴의 거짓말에 속아 제 스승님의 심장과 간을 약재로 쓰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스승님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요괴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국왕은 그 말을 듣고 즉시 태재에게 명하여, 서둘러 역으로 가서 스승 일행을 모두 모셔 오도록 했다.

삼장은 손오공이 본모습을 드러내어 공중에서 요괴를 물리치는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잃을 뻔했다. 다행히 저팔계와 사오정이 곁에서 보살펴준 덕분에 겨우 정신을 차렸으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엉망진근이었다. 삼장이 몹시 속상해하며 안절부절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법사님, 저희는 비구국의 국왕께서 보내신 태재입니다. 국왕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도록 궁으로 모시러 왔습니다.”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겁내지 마세요. 이번에는 심장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형님이 싸움에서 이겼으니 보답을 하라고 부르는 것일 겁니다.”

삼장이 대답했다.

“비록 승전 축하를 위해 부르는 것이라 해도, 이 꼴을 하고서 어떻게 사람들을 본단 말이나?”

저팔계가 말했다.

“어쩔 수 없지요. 일단 형님을 만나러 가봅시다. 가서 이야기하면 다 설명이 될 겁니다.”

정말이지 방법이 없던 삼장은 저팔계와 사오정을 따라 짐을 메고 말을 끌며 역정으로 향했다. 태재는 삼장 일행을 보자마자 겁에 질려 말했다.

“아이고, 깜짝이야! 꼭 요괴나 괴물 같은 모습이구려.”

그러자 사오정이 말했다.

“관리 나리, 겉모습이 못생겼다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저희는 그저 원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육신일 뿐입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저희 형님을 만나고 나면, 다시 본래의 멋진 모습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세 사람은 무리를 따라 조례를 올리러 갔으나, 부르기도 전에 이미 전각 아래까지 이르렀다. 손오공은 이를 보고 즉시 전각 아래로 내려가 스승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스승의 진흙칠 된 얼굴을 확 긁어내고는 입으로 신령한 기운을 후 불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당삼장이 즉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정신도 한결 맑고 상쾌해졌다. 국왕은 전각 아래로 내려와 친히 맞이하며 “법사님, 부처님 같으십니다!”라고 칭송했다. 스승과 제자들은 말을 묶어두고 모두 전각 위로 올라가 인사

를 나누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폐하, 저 괴물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이 손오공이 가서 폐하와 함께 잡아버리고, 다시는 화를 입지 않도록 뿌리째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때 비취색 병풍 뒤에 숨어 있던 후궁과 여러 빈궁이 손오공이 화근을 없애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을 개의치 않고 일제히 나와 절하며 간청했다. “부디 신성한 법력을 베푸시어 요괴를 뿌리째 뽑아 없애 주시옵소서. 그리해 주신다면 참으로 큰 은혜이니, 반드시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손오공은 바빠 예를 갖추어 인사를 한 뒤, 국왕에게 요괴가 사는 곳을 물었다. 국왕은 부끄러운 듯 말을 이었다. “삼 년 전 그가 처음 왔을 때 짐이 물어본 적이 있소. 그는 성에서 멀지 않은 남쪽으로 칠십 리쯤 가면 유림파 청화장에 있다고 하더군. 국장이 나이 들어 자식도 없고, 뒤에 얻은 아내에게서 열여섯 살 된 딸 하나를 얻었는데 아직 혼인하지 않았으니 짐에게 시집보내고 싶다 하였습니다. 짐이 그 딸을 사랑하여 궁으로 들여 총애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병이 들었소. 태의가 약을 써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지. 그러자 국장이 말하기를, ‘제게 신비한 처방법이 있는데, 어린아이의 심장을 달여 약을 짓는 재료로 써야 합니다’라고 하더군. 짐이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고 민간의 아이들을 골라 오늘 정오에 심장을 꺼내기로 했었소. 그런데 뜻밖에 신성한 법사가 강림하시더니, 마침 아이들도 모두 사라져 버렸지 않소. 국장은 신성한 법사가 십대에 걸쳐 수행하여 원양(元陽, 타고난 정기)을 잃지 않았으니, 그 심장을 얻으면 어린아이의 심장보다 만 배는 더 효험이 있을 것이라며 거짓을 고했소. 짐이 잠시 잘못을 범하여 요괴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으니, 부디 큰 법력을 베풀어 화근을 없애 주시오. 나라의 재물을 아낌없이 바쳐 보답하겠습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바구니에 담긴 아이들은 제 스승님의 자비심 덕분에 제가 몰래 숨

겨둔 것입니다. 그러니 보답할 재물 따위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요괴를 잡는 것은 저의 공덕일 뿐입니다.” 그러고는 소리쳤다. “팔계야, 나를 따라오너라!”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다만 배가 너무 고파서 힘을 쓰기가 어렵군요.” 국왕은 즉시 명을 내려 광록사에서 재공(齋供, 정성스러운 음식)을 빨리 준비하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도착했다. 저팔계는 배불리 한 끼를 먹고 기운을 차린 뒤, 손오공을 따라 구름을 타고 솟구쳐 올랐다. 그 광경을 본 국왕과 왕비, 그리고 문무백관들은 모두 허공을 향해 절을 올리며 말했다. “참으로 신선과 부처님이 세상에 내려오셨구나!”

손오공은 저팔계와 함께 남쪽으로 70리 떨어진 곳까지 곧장 가서, 구름과 바람을 멈추고 내려서서 요괴의 근거지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눈앞에는 맑은 시냇물이 양옆으로 흐르고, 강가에는 수만 그루의 버드나무가 늘어서 있을 뿐, 청화장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시로 이르되, ‘끝없이 펼쳐진 들판은 다 바라볼 수 없고, 안개 낀 천독의 버드나무엔 자취조차 보이지 않네.’ 손오공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자, 즉시 주문을 외우며 ‘옴’ 자 진언을 읊어 그 지역의 토지신을 불러냈다. 토지신은 벌벌 떨며 앞으로 나아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손대성님, 유림파 토지가 머리 숙여 인사 올립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무서워할 것 없다, 너를 때리려는 게 아니니. 내가 하나 물으마. 유림파에 청화장이라는 곳이 있다는데, 그게 어디냐?” 토지신이 대답했다. “이곳에는 청화동은 있어도 청화장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소신이 이제 알겠습니다. 대성께서는 비구국에서 오신 것이지요?”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다, 맞다. 비구국 왕이 어떤 요괴에게 홀렸기에, 내가 그곳에 가서 살펴보니 요괴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요괴를 물리치니 한 줄

기 차가운 빛으로 변해 사라져 버리더구나. 비구국 왕에게 물어보니, 3년 전 미녀를 바칠 때 그 경위를 물었더니 요괴가 성 남쪽 70리 유림과 청화장에 산다고 답했다더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유림과 만 보이고 청화장은 보이지 않아 너에게 묻는 것이다.” 토지신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대성님, 부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비구국 왕 또한 이 땅의 주인이시니 소신이 마땅히 살피야 하나, 요괴의 위세와 법력이 너무나 대단하여 만약 소신이 그 일을 누설했다가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괴롭힐 것이 뻔하기에 차마 알리지 못했습니다. 대성께서 지금 오셨으니, 저 남쪽 기슭의 아홉 갈래로 갈라진 버드나무 뿌리 밑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세 번, 오른쪽으로 세 번 돈 뒤, 양손으로 나무를 힘껏 치며 ‘문 열려라’라고 세 번 외치면 청화동부가 나타날 것입니다.”

손오공은 말을 듣자마자 토지신을 돌려보내고, 저팔계와 함께 시냇물을 건너가 그 버드나무를 찾았다. 과연 가지가 아홉 갈래로 갈라진 나무가 뿌리 하나에 달려 있었다. 손오공이 저팔계에게 당부했다. “너는 저 멀리 떨어져서 서 있다가, 내가 문을 열고 요괴를 찾아 쫓아낼 때면 바로 나를 도와라.” 저팔계는 명을 받들어 나무에서 반 리쯤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섰다. 손오공은 토지신이 알려준 대로 나무 뿌리 주위를 왼쪽으로 세 번, 오른쪽으로 세 번 돌더니, 두 손으로 나무를 힘껏 치며 외쳤다. “문아, 열려라! 문아, 열려라!” 순식간에 우렁찬 소리가 나더니 문 두 짝이 활짝 열리며 나무의 흔적조차 사라졌다. 그 안은 눈부신 노을빛이 가득하고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손오공은神通력을 떨치며 안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그곳은 참으로 기이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안개와 노을은 찬란하게 빛나고, 해와 달이 몰래 비치는

듯하구나. 흰 구름은 동굴 밖으로 수시로 나오고, 푸른 이끼는 뜰에 어지러이 널려 있네. 기이한 꽃들은 길목마다 아름다움을 뽐내고, 향기로운 풀들은 계단마다 다투어 무성하네. 따스한 기운이 감도니 늘 봄 같고, 마치 낭원(閼苑)과 같아 봉래·영주에 못지않구나. 미끄러운 돌길 상엔 긴 덩굴이 기어오르고, 평평한 다리엔 어지러운 등나무가 걸렸네. 벌은 붉은 꽃술을 물고 바위굴로 오가고, 나비는 그윽한 난초 사이로 돌 병풍을 지나 노니네. 손오공이 급히 발걸음을 옮겨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돌 병풍 위에 ‘청화선부(淸華仙府)’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는 참지 못하고 돌 병풍을 뛰어넘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늙은 요괴가 미녀를 품에 안고 숨을 몰아쉬며 비구국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렇게 외쳤다. “좋은 기회가 왔구나! 3년 동안 꾸민 일이 오늘 다 이뤄지려는데, 그 원숭이 녀석 때문에 망치게 생겼어!” 손오공이 걸으로 달려가 여의봉을 휘두르며 크게 외쳤다. “이 요괴 놈아! 무슨 ‘좋은 기회’라는 거냐? 내 몽둥이 맛 좀 봐라!” 늙은 요괴는 미녀를 내팽개치고 반룡괴를 휘두르며 급히 맞서 싸웠다. 두 사람이 동굴 앞에서 벌이는 싸움은 이전과는 또 사뭇 다른 격렬한 것이었다. 봉을 치켜드니 금빛이 번쩍이고, 괴장을 휘두르니 홍포한 기운이 솟구치네. 요괴가 외치기를, “무지한 놈이 감히 내 문으로 들어오느냐!” 손오공이 대답하길, “나는 요괴를 잡으려는 뜻으로 왔다!” 요괴가 다시 말하길, “내가 국왕을 사모하는 일에 네가 무슨 상관이나, 어찌 심술궂게 끼어드느냐!” 손오공이 맞서 이르길, “수행하는 중은 본래 자비로워, 아이들이 산 채로 죽임당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 서로 원한을 품고 말이 오가며, 봉과 괴장이 심장을 겨누고 맞부딪치네. 고운 꽃은 꺾여 시들고 푸른 이끼는 짓밟혀 미끄러우며, 동굴 안의 찬란한 빛과 절벽의 꽃들도 모두 가려지네. 우당탕거리는 소리에 새들은 날지

못하고, 고함 소리에 미녀들은 흩어지네. 오직 늙은 요괴와 원숭이왕만이 남아, 땅을 휘말며 거센 광풍이 몰아치네. 어느새 싸움이 동굴 문밖으로 번지니, 또 저팔계의 미련한 성미가 발동하였네. 사실 저팔계는 밖에서 두 사람이 안에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근질거려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쇠갈퀴(釘鉤)를 꺼내 아홉 갈래 버드나무를 찍어 쓰러뜨리고는, 쇠갈퀴로 몇 번을 내리쳤다. 그러자 나무에서 선혈이 솟구치며 마치 신음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저팔계가 말했다. “이 나무가 정령이 되었구나, 이 나무가 정령이 되었어!” 저팔계가 다시 쇠갈퀴를 들어 내리치려는데, 마침 손오공이 요괴를 몰고 밖으로 튀어나왔다. 저팔계는 말할 겨를도 없이 앞으로 달려가 쇠갈퀴를 휘둘러 내리쳤다. 손오공과의 싸움에서 이미 당해내지 못하던 요괴는 저팔계의 쇠갈퀴까지 덮쳐오자 더욱 당황하여, 몸을 휙 돌려 차가운 빛이 되어 골장 동쪽으로 도망쳤다. 손오공과 저팔계는 놓치지 않고 그 뒤를 쫓아 동쪽으로 달려갔다.

한창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그때, 난새와 학이 우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상서로운 빛이 아스라이 나타났다. 눈을 들어 보니 바로 남극노인성, 곧 수성이었다. 수성이 차가운 빛을 덮어 가두며 외쳤다. “대성, 천천히 오시오! 천봉(저팔계), 쫓지 마시게. 이 노도가 여기서 예를 올리오.” 손오공이 즉시 답례하며 말했다. “수성 아우, 어디서 오시는 길이오?”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저 살집 좋은 늙은이가 차가운 빛을 덮어 가둔 걸 보니, 분명 요괴를 잡은 모양이군.” 수성이 웃음을 띠며 말했다. “여기 있소, 여기 있소. 부디 두 분께서 저놈의 목숨만은 살려주시길 바라오.” 손오공이 말했다. “저 요괴는 아우와 상관없는 놈인데, 어찌하여 인정을 베풀려 하시오?” 수성이 웃으며 대답했다. “저놈

은 내 발이 되어주던 짐승인데, 뜻하지 않게 빠져나가더니 이런 요괴가 되고 말았소.” 손오공이 말했다. “이미 아우의 것이라면, 그저 본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확인이나 해봅시다.” 수성이 그 말을 듣고 차가운 빛을 거두어 풀며 꾸짖었다. “이 요망한 놈아! 어서 본모습을 드러내라. 그래야 죽을 죄를 면할 것이다!” 그러자 요괴가 몸을 핵 돌리더니, 알고 보니 한 마리 백록이었다. 수성이 지팡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놈이 내 괴장까지 훔쳐 달아났구나!” 백록은 땅에 엎드린 채 말도 못 하고 그저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만 흘려댔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옥처럼 하얀 몸에 얼룩이 점점이 박혔고, 두 뿔은 들쭉날쭉 일곱 갈래로 굽었구나. 배고플 때면 몇 번이고 약초밭을 찾아다니고, 목마를 때면 구름 사이 흐르는 물을 마셨네. 오랜 세월 날아오르는 법을 익히더니, 날이 갈수록 변신술을 부리게 되었구나. 이제 주인의 부름을 듣고, 본모습을 드러낸 채 귀를 늘어뜨리고 땅 위에 엎드려 있네. 수성은 손오공에게 감사를 표하고는 곧장 백록에 올라타 떠나려 했다. 그러자 손오공이 수성을 붙잡으며 말했다. “아우, 잠시만 기다리시오.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두 가지나 남았소.” 수성이 물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무엇이오?” 손오공이 말했다. “우선 미인을 잡지 못했는데, 그게 어떤 괴물인지 아직 모르오. 그리고 비구국으로 가서 그 어리석은 국왕을 만나 정체를 밝히고 명을 돌려줘야 하오.” 수성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참고 기다리리다. 그대와 천봉이 동굴로 내려가 그 미인을 잡아 온다면, 함께 가서 정체를 밝히는 것도 좋겠구려.” 손오공이 말했다. “아우,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저희가 다녀오겠소.”

저팔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손오공을 따라 청화선부로 들이닥쳤다. 그는 목청을 높여 “요괴를 잡아라! 요괴를 잡아라!” 하고 크게 외쳤다.

다. 미인으로 변신해 있던 요괴는 벌벌 떨며 도망칠 궁리를 하다가, 갑자기 들려온 우렁찬 외침에 깜짝 놀라 돌 병풍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그곳에는 빠져나갈 뒷문조차 없었다. 저팔계가 호통을 쳤다. “어딜 도망가느냐! 사내놈들을 홀리는 요망한 것아, 내 쇠갈퀴 맛을 봐라!” 요괴는 손에 쥔 무기도 없어 맞서 싸울 수가 없었다. 요괴는 몸을 번쩍이며 차가운 빛줄기로 변해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손오공이 그 차가운 빛을 가로막으며 ‘캉!’ 하고 여의봉을 한 차례 내리쳤다. 요괴는 발을 딛고 서지 못한 채 먼지 바닥에 고꾸라지며 본모습을 드러냈는데, 알고 보니 바로 흰 얼굴의 여우(백면호리)였다. 저팔계는 참지 못하고 쇠갈퀴를 들어 요괴의 머리를 내리치려 했다. 한때 온 나라를 기울일 만큼 아리따운 미인으로 천 가지 웃음을 짓던 요괴가, 순식간에 털 몽치 같은 여우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손오공이 외쳤다. “때려 으깨지 마라! 이놈을 살려두었다가 저 어리석은 국왕에게 끌고 가야 한다.”

저팔계는 더러운 것도 마다하지 않고 죽은 여우의 꼬리를 덤석 붙잡아 질질 끌면서 손오공을 따라 문밖으로 나왔다. 보니 수성이 사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꾸짖고 있었다. “이 고약한 놈아! 어찌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쳐서 여기서 요괴가 되었느냐?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손대성이 너를 때려죽였을 것이다!” 손오공이 꺾충 뛰어 나오며 물었다. “아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수성이 대답했다. “이 사슴에게 당부하는 거요, 당부하는 거요.” 저팔계는 죽은 여우를 사슴 앞에 툭 던져 놓으며 말했다. “이게 네 딸이냐?” 그러자 사슴이 고개를 끄덕이고 머리를 흔들며 입을 내밀고 몇 번 냄새를 맡더니, 울음소리를 내는데 마치 정든 이를 떠나보내기 아쉬워하는 듯했다. 수성이 사슴의 머리를 한 대

찰싹 때리며 호통을 쳤다. “이 못된 놈!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족할 텐데 어디서 냄새를 맡고 난리냐!” 그러고는 도포의 허리띠를 풀어 사슴의 목을 묶어 끌어 일으키며 말했다. “대성, 우리 함께 비구국으로 가서 저놈을 대면합시다.” 손오공이 말했다. “잠깐 기다리시오. 차라리 이 근처를 짝 다 쓸어버립시다. 그래야 나중에 또 다른 요괴가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소.”

저팔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쇠갈퀴를 들어 버드나무를 마구 휘둘러 쌓았다. 손오공은 다시 한번 "옴" 자 진언을 외워 그 땅을 지키는 토지를 불러내며 말했다. "이곳의 마른 땔감을 찾아 불을 지피 주시오. 그래야 이 땅의 요괴 재앙을 없애고 백성들을 괴롭힘을 막을 수 있소."

그러자 토지는 몸을 돌리더니 음산한 바람을 일으키며 음병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그리고는 서리를 맞고 마른 영초와 가을 푸른 풀, 마디풀, 산꽃풀, 쑥대, 용골나무, 갈대와 같은 것들을 가져왔는데, 모두 전년도에 바짝 마른 것들이라 불이 붙으면 마치 기름을 부은 듯 활활 타올랐다.

손오공이 외쳤다. "팔계야, 나무를 쌓을 필요 없다! 그저 이것들을 동굴 안에 가득 채워 넣고 불을 지피기만 하면 아주 깨끗하게 태워버릴 수 있다."

불길이 치솟자, 과연 청화장의 요괴 저택은 순식간에 거대한 불바다로 변해버렸다.

손오공은 토지를 물러가게 한 뒤, 수성과 함께 백록을 끌고 여우를 잡아 들고는 일제히 전각 앞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국왕을 향해 말했다.

다. “이 자가 당신의 아름다운 왕비요, 당신과 놀아나던 자입니다!” 그 말을 들은 국왕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어 손오공이 수성과 백록을 데리고 전각 앞으로 다가오자, 비구국의 임금과 신하, 그리고 왕비까지 모두 일제히 엎드려 절을 올렸다. 손오공은 가까이 다가가 국왕을 부축하며 웃으며 말했다. “저에게 절할 것 없습니다. 저 백록이 바로 국장이니, 그자에게 절하십시오.” 국왕은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몰라 하며 말했다. “우리 나라의 어린아이들을 구해주신 신령스러운 스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참으로 하늘이 내린 은혜입니다!” 국왕은 즉시 명을 내려 광록사에서 소박한 잔치를 준비하게 하고, 동각을 활짝 열어 남극노인과 당삼장 일행을 초대하여 함께 앉아 은혜에 보답하게 했다. 삼장법사도 수성에게 절을 올렸고, 사오정 또한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드렸다. 사람들이 모두 물었다. “백록이 수성 어른의 영물인데, 어찌하여 이곳에 와서 해를 끼치게 되었습니까?” 수성이 웃으며 대답했다. “사연인즉 이러하오. 동화제군께서 나의 황량한 산을 지나가시기에 내가 앉아 바둑을 두었으나, 한 판을 다 마치고도 전에 이 짐승이 달아나 버렸소. 손님이 떠난 뒤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기에, 손가락을 꼬아 점을 쳐보니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찾아 나선 참이었는데, 마침 손오공이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을 만난 것이요.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늦게 왔더라면 이 짐승은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요.”

잔치를 다 설명하기에는 끝이 없으나, 보고하기를 “연회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훌륭한 소연(素宴, 채식 잔치)은 이러하였다. 오색찬란한 빛이 문 앞에 가득하고 기이한 향기가 좌중에 진동했다. 상에는 비단실로 수놓은 휘장이 드리워져 화려한 빛을 내고, 바닥에는 붉은 양탄자가 깔려 노을빛처럼 눈부시게 빛났다. 보배로운 오리

모양 향로에서는 침향과 단향의 연기가 피어올랐고, 연회상 앞의 채소 요리들은 향긋한 냄새를 풍겼다. 진열한 과일은 누각처럼 높이 쌓여 있었고, 용을 휘감은 모양의 사탕과 짐승 모양의 과자들도 정성스레 차려져 있었다. 원앙 모양의 떡과 사자·신선 모양의 사탕은 실물과 꼭 닮았으며, 앵무새 모양의 잔과 백로 모양의 국자 또한 그 형태가 아주 정교했다. 상 앞에는 온갖 과일이 가득했고, 상 위에는 정성 들여 만든 채소 요리들이 하나하나 정갈했다. 크고 둥근 누에밥, 신선한 리치와 복숭아가 놓였고, 대추와 귤감은 달콤했으며, 잣과 포도는 향긋하고 술은 기름지게 무르익었다. 여러 가지 꿀에 켜 음식과 찌낸 과자들도 있었는데, 기름에 튀겨 설탕을 입힌 것들은 꽃송이처럼 비단처럼 곱게 빚어 놓았다. 금쟁반에는 커다란 만두가 높이 쌓였고, 은그릇에는 향긋한 쌀밥이 가득 담겼다. 매콤하고 뜨거운 국물에 기다란 당면이 들어 있고, 향이 물씬 풍기는 요리가 잇따라 새로 차려졌다. 버섯, 목이버섯, 어린 죽순, 황정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온갖 채소 요리와 백 가지 맛을 내는 진귀한 음식들이, 오가며 끊임없이 손길이 멈추지 않고 들고 나며 갖가지로 푸짐하게 차려졌다. 이때 자리를 정하니, 수성이 첫째 자리에 앉고 장로가 그다음 자리에 앉았으며, 국왕이 그 앞자리에 앉았다.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은 옆자리에 앉았고, 그 곁에는 두세 명의 큰스님이 좌우에서 모시고 앉았다. 이어 교방사에서 음악을 연주하게 했다. 국왕은 자하잔을 들고 차례로 술을 올렸으나, 오직 당삼장만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저팔계가 손오공에게 말했다. “사형, 과일은 사형이 드세요. 대신 국물 있는 밥이랑 요리는 제가 좀 먹게 해주세요.” 그 미련한 저팔계는 맛이 좋은지 나쁜지도 가리지 않은 채, 나오는 것마다 정신없이 먹어 치워 그릇을 텅텅 비워버렸다.

잔치는 모두 끝났고, 수성이 작별을 고했다. 국왕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 수성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며, 병을 낫게 하고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간청했다. 수성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사슴을 찾으러 오느라 단약(丹藥)을 가져오지 못했소. 그대에게 수양하는 법을 전해주고 싶지만, 그대는 이미 근력이 쇠하고 정신이 무너져 있어 환단(還丹)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요. 내 소매 안에는 동화제군께 차와 함께 올리려던 대추 세 알뿐인데, 아직 먹지 않았으니 이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국왕이 그 대추를 삼키자, 점차 몸이 가벼워지며 병이 물러가는 것이 느껴졌다. 훗날 장수를 얻은 이들은 모두 이 일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지켜보던 저팔계가 소리쳤다. “수성 어르신, 화조(火棗)가 있거든 저도 몇 알만 주십시오!” 수성이 말했다. “가져온 것이 없으니, 다음에 몇 근을 보내주겠네.” 수성은 동각을 나서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백록을 한 소리로 호령해 일으키더니 날렵하게 그 등에 올라타, 구름을 밟고 허공으로 날아갔다. 조정의 임금과 왕비·후궁들, 그리고 성안의 백성들이 저마다 향을 피우며 절을 올린 이야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삼장이 말했다. "제자야, 작별 인사를 드려라." 그러자 국왕은 다시 간곡하게 매달리며 가르침을 청했다. 손오공이 말했다. "폐하, 앞으로는 색욕을 줄이고 탐욕을 멀리하시며, 남모르게 덕을 쌓는 데 힘쓰십시오. 모든 일을 보완하고 부족함을 채워 나가신다면, 자연히 병이 물러가고 수명이 길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가르침입니다." 말을 마친 손오공은 금과 은이 담긴 쟁반 두 개를 내놓으며 길 떠나는 여비로 삼아달라고 권했다. 하지만 삼장은 단호히 거절하며 단 한 톨도 받지 않았다. 국왕은 어쩔 도리가 없자 수레를 준비하라 명했다. 국왕

과 왕비는 삼장을 화려한 용차에 모시고 직접 수레를 밀며 궁궐 밖까지 배웅했다. 거리의 수많은 백성 또한 깨끗한 물을 떠 놓고 향을 피우며 성 밖까지 나와 삼장 일행을 전심으로 배웅했다.

갑자기 공중에서 바람 소리가 썩 하고 들리더니, 길 양옆으로 아이들이 울음소리를 내는 바구니 천백열한 개가 내려앉았다. 그 순간, 이전에 명을 받았던 성황, 토지, 사령, 진관, 오방계제, 사치공조, 육정육갑, 그리고 사찰을 수호하는 여러 신령들이 소리에 맞춰 일제히 외쳤다.

“대성님, 전에 명하신 대로 아이들이 든 바구니를 거두어 두었습니다. 이제 대성님의 일이 성공하여 길을 떠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씩 가져왔나이다!”

비구국의 왕비와 모든 백성 또한 일제히 엎드려 절했다. 손오공이 하늘을 향해 말했다.

“여러 신령님, 수고 많으셨소. 이제 각자의 사당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나중에 백성들에게 명하여 제사를 올려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휘잉휘잉 서늘한 바람이 다시 한번 일더니 이내 사라졌다.

손오공이 성안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알리자, 소식이 퍼져 사람들이 저마다 몰려와 바구니 속에 담긴 아이들을 하나하나 찾아냈다.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아이를 품에 안고 ‘아가야’, ‘내 새끼야’ 부르며, 폴짝폴짝 뛰고 깔깔대며 웃어댔다. 그러고는 모두 입을 모아 외

쳤다. “당나라 어른(당승)을 꼭 붙잡아라! 우리 집에 모셔가서 아이를 구해준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남자든 여자든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그 험상궂은 생김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들어, 저팔계를 떠메고 사오정을 둘러메었으며, 손오공을 머리에 떠받들고 당삼장을 부축해 끌었다. 말까지 끌고 짐까지 짊어진 채, 사람들은 한데 어우러져 성안으로 몰려 돌아갔다. 국왕이라 해도 이를 막을 수가 없었다. 이 집에서는 잔치를 열고, 저 집에서도 술상을 차렸다. 미처 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스님의 모자와 신발, 장삼과 베 버선 등 안팎으로 크고 작은 옷가지들을 정성껏 만들어 가져와 선물했다. 이렇게 한 달 가까이 머물며 환대를 받은 뒤에야 겨우 성을 떠날 수 있었다. 또한 사람들은 당승 일행의 초상(影神)을 그려 모시고 위패를 세워, 정성껏 절하며 향을 피우고 공양을 올렸다. 시로 이르되, ‘남모르게 쌓은 음덕은 산처럼 높고 무거우니, 천만의 사람을 살려낸 그 공이 실로 크도다.’

결국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80회 — 요녀가 양기를 길러 배우자를 구하고, 마음의 원숭이가 주인을 보호하 며 요사한 것을 알아보다

姹女育陽求配偶 心猿護主識妖邪

한편, 비구국의 임금과 신하, 그리고 백성들은 당승 일행 네 사람이 성을 떠날 때도 이십 리나 되는 거리까지 따라오며 차마 발길을 떼지 못했다. 당승은 억지로 마차에서 내려 말에 올라타 작별 인사를 나누며 길을 떠났고, 배웅하던 이들은 일행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돌아갔다.

네 사람이 한참을 길을 가다 보니 어느덧 겨울이 다 가고 봄도 저물어 갔다. 들꽃과 산나무들이 만발하여 경치가 더없이 아름다웠다. 그러다 앞쪽에 다시 높고 험준한 산맥이 나타났다. 당승은 마음이 불안해져서 물었다.

"제자야, 저 앞의 높은 산에 길은 있느냐, 없느냐?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그 말씀은 먼 길을 떠나는 수행자의 말이라기보다는,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귀한 집 도련님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부터 '산이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길은 스스로 산을 뚫고 나가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어찌 길의 유무를 걱정하십니까?"

당승이 대답했다.

"산이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렇게 험한 산세 사이에 요괴가 나타날까 두렵고, 뻘뻘한 숲속 깊은 곳에서 요괴가 튀어나올까 걱정되는구나."

그러자 저팔계가 거들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이 근처는 극락세계와 아주 가까우니, 분명 아무 일 없이 평온할 겁니다."

스승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산기슭에 다다랐다. 손오공은 여의금고봉을 꺼내 들고는 바위 절벽 위로 올라가 외쳤다. "스승님, 이쪽이 산을 넘는 길인데 아주 걷기 편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삼장은 하는 수 없이 말의 속도를 높였다. 사오정이 말했다. "둘째 형님, 짐을 한쪽 어깨에 메세요." 그러자 저팔계가 정말로 짐을 받아 어깨에 댔고, 사오정은 말의 고삐를 잡았다. 삼장은 안장 위에 편안히 앉아 손오공을 따라 절벽 위 큰길로 향했다. 눈앞에 펼쳐진 산의 풍경은 이러했다.

구름과 안개는 봉우리 끝을 감싸 안았고, 맑은 시냇물은 골짜기 사이로 졸졸 흘러내린다. 온 길에는 백 꽃향기가 가득하고, 만 그루 나무는 뽕뽕하게 우거져 있구나. 매화는 푸르고 오얏꽃은 하얗게 피었으며, 버들잎은 푸르고 복사꽃은 붉게 물들었다. 진달래 울음소리에 봄은 저물어가고, 제비의 지저귀에 입춘의 계절도 끝을 향한다. 험준한 바위와 푸른 소나무 덮인 숲, 굽이굽이 험한 고갯길과 기묘하게 솟은 바위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은 아찔하고, 넝쿨과 풀나무는 무성하게 자라났구나. 수천 개의 바위는 창을 세워놓은 듯 빼어난 자태를 뽐내고, 만 개의 골짜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는 멀리서 보니 거대한 파도처럼 넘실댄다.

삼장이 천천히 산세를 감상하다가 문득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고향 생각에 마음이 울컥하여 말을 돌리며 말했다. “제자야! 천계의 명을 받들어 비단 병풍 아래에서 관문을 수령하고, 보름달 아래 등불을 구경하며 동토를 떠나니, 당나라 왕과 천지가 갈라졌구나. 이제 막 용과 호랑이가 풍운을 만난 듯 기세가 좋건만, 스승과 제자가 되어 이 험한 길을 달리고 있구나. 무산의 열두 봉우리를 다 지나고 나면, 대체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자꾸 고향 생각만 하시니 전혀 출가한 수행자 같지가 않습니다.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그저 앞만 보고 가십시오. 옛말에 ‘부귀를 얻으려거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삼장이 대답했다. “네 말이 맞기는 하다만, 서천까지 가는 길이 아직도 저 멀리 있구나.” 저팔계가 거들었다. “스승님, 여래 부처님께서 그 삼장경을 아까워하셔서, 우리가 가져가려는 걸 아시고는 슬쩍 옮

겨 놓으신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리도 오지 않는단 말입니까?” 사오정이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그저 큰형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묵묵히 건디다 보면 결국 도착하는 날이 오겠지.”

스승과 제자들이 한가로이 이야기를 나누며 나아가는데, 문득 눈앞에 검은 소나무가 뻣뻣하게 들어선 거대한 숲이 나타났다. 당승은 겁이 나 다시 외쳤다. “손오공, 방금 그 험한 산길을 겨우 벗어났는데 어찌 하여 또 이런 어두컴컴한 송림을 만난단 말이나? 분명 예사로운 곳이 아닐 게다.” 손오공이 말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삼장이 대답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곧은 길만 믿다가 어진 이의 변덕에 당한다’는 말도 있지 않느냐. 나도 너와 함께 여러 송림을 지나왔지만, 이곳처럼 깊고 멀어 보이는 숲은 처음이다. 저것 좀 보아라.

동서로는 뻣뻣하게 흔들리고 남북으로는 줄을 지어 서 있구나. 동서로는 구름 끝까지 뻗어 있고, 남북으로는 푸른 하늘을 침범할 듯하네. 가시덤불은 사방을 촘촘히 에워싸고, 마디풀은 가지를 휘감아 위아래로 뒤엉켰구나. 덩굴은 칩을 휘감고 칩은 다시 덩굴을 얹어매니, 동서로 가는 나그네는 길을 잃고 남북으로 가는 상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네. 이 숲속에 반년만 머물러 보라, 해와 달조차 분간할 수 없으리니. 몇 리를 걸어도 북두칠성조차 보이지 않는구나.

그늘진 곳의 천 가지 풍경과 햇빛 드는 곳의 만 가지 꽃들을 보아라. 천 년 된 회나무와 만 년 된 측백나무, 추위를 건디는 소나무와 산복숭아, 들작약과 마른 연꽃이 웅기종기 겹겹이 쌓여 있으니, 그 어지러운 모습은 신선이라 해도 다 그려내지 못하리라. 또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어보라. 앵무새는 휘파람을 불고 두견새는 울어대며, 까치는 가지

사이를 누비고 까마귀는 먹이를 물어다 주네. 꾀꼬리는 춤추듯 날고 뻐꾸기는 노래하며, 메추라기는 울고 제비는 정답게 속삭이네. 깃쟁이새는 사람 말을 흉내 내고 흰눈썹새는 불경이라도 읽는 듯하구나.

또한 큰 짐승이 꼬리를 흔들고 호랑이가 이빨을 부딪치는 것을 보라. 오랫동안 미인 분장을 한 여우와 숲을 뒤흔드는 푸른 이리의 울음 소리까지 들리니, 설사 탐을 든 천왕이 이곳에 온다 한들 요괴를 물리치려다 혼비백산하여 달아날 것이로다.”

손오공은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철봉을 휘둘러 앞길을 가로막은 나무들을 쳐내며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당승을 이끌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한참을 유유자적하게 걸어갔으나 반나절이 지나도록 숲을 빠져나갈 길은 보이지 않았다.

당승이 말했다. “제자야, 지금까지 서천으로 오며 수많은 험한 산과 숲을 지났지만, 다행히 이곳은 맑고 우아하여 평온하게 지나올 수 있었구나. 숲속의 기이한 꽃과 풀들이 참으로 마음을 끄는구나. 내가 잠시 여기 앉아 쉬어야겠다. 우선 말을 세워두고, 배도 고프니 네가 가서 먹을 만한 공양거리라도 좀 빌려 오너라.”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말에서 내려앉으십시오. 이 손자가 공양거리를 구해 오겠습니다.”

삼장이 말에서 내리자 저팔계가 나무에 말을 매어 두었다. 사오정은 짐을 내려놓고 발우를 챙겨 손오공에게 건네주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편히 앉아 계십시오. 겁내실 것 없습니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삼장이 소나무 그늘 아래 단정히 앉자, 저팔계와 사오정은 근처에서 꽃과 열매를 찾아다니며 한가롭게 놀기 시작했다.

한편,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구름 사이를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보니 송림 사이로 상서로운 구름이 아스라히 피어오르고 신령한 안개가 자욱하게 감돌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소리 높여 외쳤다.

"종구나! 정말 좋아!"

그가 왜 좋다고 외쳤겠는가? 바로 당승이 금선장로의 환생이자 열번의 생을 수행해 온 덕망 높은 분이라, 머리 위에 이런 상서로운 기운이 감도는 것이라 칭찬한 것이다.

"만약 나 손오공이 오백 년 전 천계를 뒤흔들며 온 세상을 떠돌아다닐 때를 생각해보라지. 온갖 요괴를 거느리고 스스로 제천대성이라 칭하며 용과 호랑이를 굴복시키고 명부의 기록까지 지워버렸지. 그때는 머리에 세 겹의 금관을 쓰고 황금 갑옷을 입었으며, 손에는 금고봉을 쥐고 발에는 구름을 걷는 신발을 신고 있었다네. 수하에 사만 칠천 마리의 요괴를 거느리니 모두 나를 대성 어르신이라 부르며 우러러보았으니, 참으로 대단한 존재였지.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친 기운을 다 벗어던지고 낮은 몸이 되어 스승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스승님의 머리에 이토록 상서로운 구름과 안개가 감도는 것을 보니, 동토로 돌아가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나 또한 반드시 정과(正果, 깨달음의 경지)를 얻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한창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숲 남쪽에서 검은 기운 한 줄기가 뭉게뭉게 솟구쳐 올라왔다. 손오공이 깜짝 놀라 외쳤다.

"저 검은 기운 속에 분명 요물이 숨어 있구나. 팔계나 사오정은 저런 검은 기운을 내뿜지 않는데 말이야."

손오공은 공중에 떠서 그 검은 기운을 자세히 살피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한편, 당승은 송림 속에 앉아 마음을 닦으며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을 읊조리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사람 살려!" 하는 울음 섞인 비명이 들려왔다. 당승이 깜짝 놀라 말했다. "아이고, 이럴 수가! 이 깊은 숲속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다니? 필시 굶주린 짐승들이 덮치려는 모양이구나.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당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 년 된 측백나무와 만 년 된 소나무 사이를 지나, 덩굴이 엉킨 숲을 헤치며 다가갔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커다란 나무에 한 여인이 묶여 있었다. 상체는 칠푼덩굴로 나무에 묶여 있고, 하체는 땅에 파묻힌 상태였다. 당승은 발걸음을 멈추고 여인에게 물었다. "보살님, 무슨 사정이 있기에 이곳에 묶여 계신 겁니까?" 하지만 당승은 평범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이 여인이 분명 요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요괴는 당승이 다가와 묻자 눈물을 샘물처럼 쏟아냈다. 복숭아 빛 뺨에는 눈물이 흐르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물고기를 가라앉히고 기러기를 떨어뜨릴 만큼 아름다웠고, 별처럼 빛나는 눈에는 슬픔이 서려 있어 달을 가리고 꽃을 부끄럽게 할 만큼 절세가인이었다. 당승은 그 미모에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한 채 다시 입을 열어 물었다. "보살님, 도

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려고 계신가요? 빈승에게 말씀해 주시면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괴는 교묘한 말솜씨와 거짓된 눈물로 다급하게 대답했다. "스님, 저는 여기서 이백여 리 떨어진 빈파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시고 평소 선행을 베풀며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왔지요. 그러다 마침 청명절을 맞아 친척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조상님 묘를 돌보러 왔습니다. 가마를 타고 무리를 지어 황량한 들판을 지나고 있었지요. 무덤 앞에 제사를 지내고 막 종이말을 태우려는데, 갑자기 징과 북 소리가 울리더니 칼과 몽둥이를 든 강도 무리가 달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섭던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들은 말과 가마를 타고 각자 목숨을 건져 달아났지만, 저는 너무 어려서 도망치지 못하고 땅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강도들은 저를 산속으로 끌고 가더니, 첫째 대왕은 저를 부인으로 삼으려 하고, 둘째 대왕은 아내로 삼으려 하며, 셋째와 넷째도 제 미색을 탐내며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습니다. 수십 명의 강도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다투는 바람에, 결국 저를 이 숲에 묶어두고 강도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벌써 닷새 밤낮을 이렇게 묶여 있어 이제 곧 목숨이 다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님을 만난 것은 조상님이 덕을 쌓은 덕분인가 봅니다. 부디 자비로운 마음으로 제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저승에 가셔도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친 여인은 비처럼 눈물을 흘렸다.

당승은 참으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터라, 차마 눈물을 참지 못하고 목이 메어 "제자들아!" 하고 외쳤다.

한편, 저팔계와 사오정은 숲속에서 먹을 꽃과 열매를 찾고 있다가 스승이 애처롭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멍하니 멈춰 섰다. 저팔계가 말했다. "사 스님, 스승님께서 여기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신 건가요?"

사오정이 웃으며 대답했다. "둘째 형님, 헛소리 마세요. 우리가 여기 까지 오는 동안 사람 구경 한 번 못 했는데, 아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저팔계가 다시 말했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님께서 누군가와 함께 울고 계신 것 같은 말이야. 어서 가서 보자고."

사오정은 정말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 말을 끌고 짐을 맨 채 달려왔다. 그리고 당승의 곁에 도착해 물었다. "스승님, 무슨 일이십니까?"

당승은 손으로 나무 위에 묶인 여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팔계야, 저 여인을 풀어주어 목숨을 구해주거라."

철없는 저팔계는 그것이 요괴인지 아닌지 구분도 하지 못한 채, 곧장 달려가 손을 댔다.

한편, 공중에 떠 있던 손오공은 검은 기운이 더욱 짙어져 상서로운 빛을 완전히 뒤덮는 것을 보았다. 그는 깜짝 놀라 외쳤다. "이런, 큰일 났다! 검은 기운이 상서로운 빛을 가리는 걸 보니, 요괴가 스승님을 해치려는 게 분명하구나. 공양을 구하는 건 나중 일이다. 어서 스승님을 보러 가야겠다." 손오공은 곧장 구름을 돌려 숲속으로 내려갔다. 그곳에 가보니 저팔계가 정신없이 밧줄을 풀고 있었다. 손오공이 다가가 저팔계의 귀를 덥석 잡더니 바닥에 팽개쳐 버렸다. 멍청하게 있던 저팔계

가 고개를 들고 일어나며 말했다. “스승님께서 사람을 구하라고 시키셨는데, 왜 네 힘만 믿고 나를 이렇게 내동댕이치는 거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형제여, 저 녀석 말은 듣지 마. 저건 요괴야. 소란을 피워서 우리를 속이려는 거라고.” 그러자 삼장이 꾸짖었다. “이 고약한 원숭이야, 또 허튼소리를 하는구나. 어찌 저런 여인을 보고 요괴라고 단정 짓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께서서는 모르시겠지만, 이젠 제가 예전에 수없이 해본 일입니다. 사람 고기를 먹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법을 스승님이 어찌 아시겠습니까?” 저팔계가 입을 빼죽거리며 말했다. “스승님, 저 필마온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 여인은 이 근처 사람입니다. 우리가 동토에서 멀리서 왔으니 이곳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어찌 요괴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쫓아버리고는, 저놈이 근두운을 타고 신통력을 부려 저 여인과 눈이라도 맞추려는 모양입니다. 아주 대놓고 탄질을 하려는 거예요.” 손오공이 호통을 쳤다. “이 멍청한 놈아, 함부로 떠들지 마라! 나 손오공이 서천으로 오면서 게으름 피운 적이 있더냐? 너처럼 여색에 눈이 멀어 목숨을 경시하고, 이익만 좇으며 의리도 모르는 놈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요괴의 사위 노릇이나 하다가 나무에 묶여 있을 것이다.” 삼장이 말했다. “됐다, 됐어. 팔계야, 네 사형이 평소에 보는 눈이 틀린 적이 없으니, 저 말이 맞다면 더는 따지지 말고 어서 가자꾸나.” 손오공이 기뻐하며 말했다. “좋습니다, 스승님. 이제 살았군요. 어서 말에 오르십시오. 송림 밖으로 나가면 공양을 대접할 마을이 있을 겁니다.” 그리하여 네 사람은 요괴를 내버려 둔 채 길을 떠났다.

한편, 요괴는 나무에 묶인 채 이를 갈며 분통을 터뜨렸다.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손오공의 신통력이 대단하다고 떠들기에 궁금했는데, 오늘 직접 보니 과연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었구나! 저 당승이라는 자는 동정의 몸으로 수행하여 아직 정기가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았으니, 그를 잡아다가 합궁하여 태을금선(하늘의 신선)이 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저 원숭이 놈이 내 술수를 알아채고 그를 구해 가버리다니! 만약 줄을 풀어 나를 내려주기만 했다면, 내가 손쉽게 잡아갈 것을 어찌하지 못했단 말인가? 저놈의 감언이설에 속아 데려가 버리니, 내 공들인 일만 허사가 되었구나. 다시 한번 소리를 질러 저놈이 어떻게 나오나 보겠다."

요괴는 밧줄을 풀지 않은 채, 부드럽고 애처로운 목소리를 바람에 실어 당승의 귓가에 울려 퍼지게 했다. 그가 대체 무엇이라 불렀겠는가? 요괴가 외쳤다.

"스님, 스님!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을 눈앞에 두고도 구하지 않으시다니, 어찌 양심도 없이 부처님께 빌어 경전을 구하려 하십니까?"

말 위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은 당승이 즉시 말의 고삐를 당기며 말했다. "손오공, 가서 저 여인을 구해 내려오너라." 손오공이 물었다. "스승님, 길을 가던 중에 어찌하여 갑자기 저 여인이 생각나십니까?" 당승이 대답했다. "저 여인이 저기서 또 울고 있지 않느냐."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팔계야, 너도 들리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귀가 커서 막혔는지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손오공이 또 물었다. "사오정, 너는 들리느냐?" 사오정이 말했다. "짐을 지고 앞만 보고 가느라 정신이 없어서 듣지 못했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나도 아무 소리 안 들린다. 스승님, 저 여인이 대체 뭐라고 울기에 스승님 귀

에만 들린다는 말씀입니까?” 당승이 말했다. “저 여인의 울음소리가 참으로 일리가 있구나. 저 여인이 이르기를,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도 구하지 않으면서, 무슨 마음으로 부처를 모시고 경전을 구하려 하는가!’라고 하지 않느냐.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칠층탑을 쌓는 것보다 낫다’고도 하였다. 그러니 어서 가서 구해주는 것이 경전을 구하고 부처를 모시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께서 저렇게 고집을 피우시니 정말 약도 없군요. 생각해보십시오. 스승님께서 동토를 떠나 서천으로 오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험한 산을 넘고 수많은 요괴를 만나셨습니까? 요괴들에게 붙잡혀 동굴로 끌려간 적이 한두 번인가요? 그때마다 이 손오공이 나타나 철봉을 휘둘러 수만 마리의 요괴를 때려잡으며 스승님을 구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괴 하나를 구해주겠다고 저러시다니요?” 당승이 말했다. “제자야, 옛사람이 이르기를, ‘선한 일이 작다고 해서 행하지 말지 말고, 악한 일이 작다고 해서 행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니 어서 가서 구해주거라.”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께서 정 그러시다면, 이 뒷감당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스승님께서 구하시겠다는데 제가 억지로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스승님께서서는 또 화를 내시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승이 말했다. “원숭이 녀석아, 잔말 말고 가만히 앉아 있거라. 나와 팔계가 가서 구해오마.”

당승이 숲속으로 돌아가 저팔계에게 명령하여 밧줄의 윗부분을 풀게 하고, 갈퀴로 흙을 파내어 아랫부분까지 자유롭게 해주었다. 그 여인은 비틀거리며 치마를 추스르고는, 기쁜 기색으로 당승을 따라 송림을 나서다 손오공을 만났다. 손오공은 그 모습을 보고 그저 냉소를 멈추지 않았다. 당승이 꾸짖으며 말했다.

"이 고약한 원숭이 녀석아, 무엇 때문에 웃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께서서는 좋은 친구를 만난 운수도 좋으시고, 아름다운 여인까지 만나는 운수도 좋으시군요!"

당승이 다시 호통을 쳤다.

"이 망할 원숭이가 허튼소리를 하는구나! 나는 태어나자마자 승려가 되었고, 이제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서천으로 향하며 지극한 마음으로 불공을 드리고 경전을 구하고 있다. 이익이나 녹봉을 탐하는 자도 아닌데, 내게 무슨 운수가 다했다는 말이나?"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서는 어려서부터 승려로 지내시며 경전 읽고 불공 드리는 법만 배우셨지, 세상의 법도나 법률은 보지 못하셨나 보군요. 이 여인은 젊고 얼굴도 무척 고운데, 저희는 출가한 몸으로 이 여인과 길을 함께 가다 혹시라도 나쁜 사람을 만나 관가에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전을 구하러 가는 일이나 불공을 드리는 일은 다 제쳐두고, 무조건 간통을 저질렀다는 누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런 일이 없더라도 사람을 유인해 온 죄를 물을 텐데, 스승님은 승려 자격증인 도첩 문제로 매를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저팔계는 군대에 끌려가야 하며, 사오정도 죄인으로 불려 나갈 것입니다. 저 또한 결백을 증명하려 아무리 애써본들 결코 깨끗하게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당승이 엄하게 꾸짖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었는데, 어찌 해가 되겠느냐? 이 여인을 데리고 가되,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 내가 책임지겠다."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께서 일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하시지만, 스승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일이라는 걸 모르시는군요."

당승이 물었다.

"내가 이 여인을 숲에서 구해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어찌 해치는 일이 된다는 말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저 여인이 숲속 나무에 묶여 있을 때, 만약 사나흘이나 열흘, 보름 정도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었다면 차라리 몸이라도 온전하게 저세상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리고 나가면 스승님은 말을 타고 바람처럼 빠르게 가실 텐데, 저희는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 여인은 발이 작아 걷기가 힘든데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여인을 뒤처지게 만들면, 혹시라도 늑대나 호랑이 같은 짐승을 만나 한입에 잡아먹히기라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목숨을 해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삼장이 말했다. "네 말이 맞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네가 잘 생각해보렴."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그냥 업어서 스승님 말에 같이 태워 가지요."

삼장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내가 어찌 저 여인을 말에 같이 태우겠느냐? 저 여인은 어떻게 가겠느냐?"

삼장이 다시 말했다. "팔계에게 업고 가게 하자꾸나."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멍청한 녀석에게 복이 굴러들어왔구나!"

그러자 저팔계가 대답했다. "'먼 길을 갈 때는 가벼운 짐이 최고라는 데', 저더러 사람을 업고 가라니 그게 무슨 복입니까?"

손오공이 쏘아붙였다. "입만 살아서는! 저 여인을 업고 가면서 입을 쉴 새 없이 놀려 사사로운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그게 딱 네 적성에 맞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들은 저팔계는 가슴을 쿵쿵 치며 펄쩍 뛰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차라리 스승님께 매를 맞는 게 낫지, 저 여인을 등에 업고 가다가는 절대로 깨끗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형님은 평생 저를 도둑놈으로 몰아세우실 게 뻔하잖아요. 전 못 업습니다!"

삼장이 말했다. "됐다, 됐어. 나도 몇 걸음은 더 걸을 수 있으니, 내가 내려가면 천천히 같이 가자꾸나. 대신 팔계는 빈 말이라도 끌고 가도록 해라."

손오공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 녀석, 아주 장사 잘했네! 스승님이 직접 네가 말 끌도록 배려해 주시잖아."

삼장이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이 또 헛소리를 하는구나. 옛말에 '말은 천 리를 가도 모는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가지 못한다'고 했다. 만약 내가 길에서 천천히 걷는다고 해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가겠느냐? 내가 천천히 가면 너희도 천천히 가거라. 다 같이 이 보살님을 모시고 산을 내려가서, 암자나 절, 혹은 민가라도 만나면 그곳에 머물게 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여인을 구하는 길이다."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말씀이 옳습니다. 어서 길을 떠나시지요."

당승이 앞장서서 걷고 사오정이 짐을 짊어졌으며, 저팔계는 빈 백룡마를 끌고 여인을 안내했고, 손오공은 철봉을 손에 든 채 일행을 이끌며 나아갔다. 채 이십삼십 리도 가지 않아 날이 저물 무렵이 되자, 저 멀리 누각과 전각이 늘어선 사찰이 보였다.

당승이 말했다. "제자들아, 저곳은 분명 암자나 관, 혹은 사찰일 것이니 오늘 여기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나서자꾸나."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들 조금씩 움직입시다."

이윽고 일행이 문 앞에 도착하자 손오공이 일행에게 분부했다. "너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어라. 내가 먼저 들어가서 목을 곳을 알아볼 테니, 만약 자리가 나면 사람을 보내 너희를 부르게 하마."

사람들은 모두 버드나무 그늘 아래 서 있었고, 오직 손오공만이 철봉을 든 채 여인을 감시하며 곁을 지켰다.

삼장이 걸음을 옮겨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문들은 여기저기 쓰러지고 흩어져 있었다. 문을 밀고 안을 살펴보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 긴 회랑은 적막하고 오래된 사찰은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마당에는 이끼가 가득하고 길목마다 잡풀이 무성했다. 반딧불이만 등불처럼 날아다닐 뿐, 물시계 소리 대신 개구리 울음소리만이 들려왔다. 삼장은 그 광경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정말로 전각들은 무너져 내렸고 회랑은 적막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부서진 벽돌과 기와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기둥과 들보들은 모두 비뚤게 꺾여 있었다. 앞뒤로는 푸른 풀이 무성하게 자라났고, 먼지 속에 향을 피우던 주방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종루는 무너져 북은 가죽이 다 벗겨졌으며, 유리 등불도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부처님의 금빛 몸체는 빛을 잃었고, 나한들은 여기저기 쓰러져 누워 있었다. 관음보살상은 비에 씻겨 진흙탕이 되었고, 버드나무 정병은 땅에 떨어져 있었다. 낮에는 승려 한 명 보이지 않고, 밤이면 여우들이 깃들여 잠을 자는 곳이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천둥처럼 울려 퍼지니, 이곳은 호랑이와 표범이 숨어 지내기에 딱 좋은 곳이었다. 사방의 담장은 모두 무너졌고 문짝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시로 이르되,

오랜 세월 고찰은 돌보는 이 없으니 황폐하고 쓸쓸하여 무너짐이 더 해가는구나. 거센 바람은 사찰의 면면을 찢어놓고 장대비는 불상의 머리를 씻어내렸네. 금강역사는 부서져 비에 젖어 흩어지고 땅의 신들은 머물 집 없어 밤을 지새우네. 탄식할 만한 것이 또 두 가지 있으니 땅에 떨어진 구리종이 높은 누각을 떠나 있구나.

삼장은 겨우 용기를 내어 이층 문 안으로 들어갔다. 종루와 북루는 모두 무너져 있었는데, 오직 구리종 하나만이 땅에 박혀 있었다. 종의 윗부분은 눈처럼 하얗고 아랫부분은 쪽빛처럼 푸르렀다. 알고 보니 세월이 너무 오래 흘러 윗부분은 비에 씻겨 하얗게 변했고, 아랫부분은 흙 기운 때문에 구리빛이 감도는 것이었다. 삼장이 손으로 종을 어루만지며 크게 외쳤다.

"종아, 너도 한때는 높은 누각에 걸려 울려 퍼졌고, 화려한 들보 사이에서 멀리까지 소리를 전했었지. 닭이 울면 아침을 알리고, 저녁이 되면 노을을 배웅하기도 했었지. 구리를 녹였던 도인은 어디로 갔으며, 종을 만들던 장인은 어디로 갔느냐. 그들은 이미 저세상으로 떠나 흔적도 없고 너는 소리조차 낼 수 없구나."

삼장이 큰 소리로 찬탄을 올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절 안의 사람들을 깨우고 말았다. 마침 그곳에는 향을 피우고 공양을 올리는 일을 맡은 도인이 있었는데, 사람 목소리를 듣고는 벌떡 일어나 깨진 벽돌 하나를 집어 들더니 종을 향해 냅다 내리쳤다.

"땡—!"

종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깜짝 놀란 삼장이 뒤로 나자빠졌다. 겨우 몸을 일으켜 서둘러 자리를 뜨려는데, 이번에는 나무뿌리에 걸려 다시 한번 엎어지고 말았다. 바닥에 쓰러진 삼장은 고개를 들고 다시 외쳤다.

"아이고, 좋아! 이 빈승이 막 너를 찬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땡땡 울려대는구나. 아마도 서천으로 가는 길에 찾는 이가 없어, 오랫동안 버려져 있다가 정령이 된 모양이로구나!"

도인이 급히 앞으로 달려가 그를 부축하며 말했다. "어르신, 어서 일어나십시오. 종이 정령이 되어 그런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종을 쳐서 울린 것입니다."

삼장이 고개를 들어 보니 도인의 얼굴이 검고 험상궂게 생겼다. 삼장이 말했다. "너 혹시 도깨비나 요괴는 아니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대당에서 온 사람이며, 내 수하에는 용과 호랑이를 굴복시킬 만큼 용맹한 제자가 있다. 만약 그를 마주친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자 도인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어르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요괴가 아니라 이 절에서 향을 올리고 제사를 모시는 도인입니다. 어르신의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오기에 얼른 마중을 나가려 했습니다만, 혹시나 사악한 귀신이 문을 두드리는 것일까 걱정되어 깨진 벽돌 하나를 들고 나와 종을 한 번 울려 놀란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야 감히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어르신, 어서 일어나십시오."

그제야 삼장은 안심하며 말했다. "주지, 하마터면 나를 죽일 뻔했구나. 어서 나를 안으로 안내하거라."

도인이 당승을 안내하여 삼층 문 안쪽까지 이끌었는데, 밖에서 보던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푸른 벽돌로 채운 무지개 빛깔 담장 위로 초록 기와가 얹힌 유리 전각이 솟아 있고, 황금으로 장식된 성스러운 불상과 백옥으로 만든 계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대웅전 위로는 푸른 빛이 감돌고 비라각 아래에서는 서슬 퍼런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문수전은 오색구름이 맺힌 듯하고 윤장당은 꽃과 비취색 채색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삼단 지붕 끝에는 보병 모양의 첨탑이 솟아 있고, 오복루 안에는 평평한 수놓은 덮개가 놓여 있었다. 수천 그루 푸른 대나무가 선방의 평상 위로 흔들리고, 만 가지 푸른 소나무가 불교의 문을 비추고 있었다. 벽운궁 안에서는 금빛이 쏟아져 나오고 자줏빛 안개 속에서는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아침이면 사방으로 향기로운 바람이 멀리 퍼지고, 저녁이면 높은 산 너머로 그림 같은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침 햇살이 해진 옷을 비추고, 달빛이 남은 경전을 비추는 듯한 풍경이었다. 또한 반쯤 가려진 등불 빛이 뒷마당을 밝히고 한 줄기 향 연기가 중정을 비추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본 당승은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물었다. "도인, 앞쪽은 이토록 형편없는데 뒤쪽은 어찌 이리도 정갈한 것이요?"

도인이 웃으며 대답했다. "나으리, 이 산에는 요괴와 강도들이 워낙 많습니다. 날이 맑으면 산을 따라다니며 약탈을 일삼고, 날이 흐려지면 절로 숨어 들어오곤 합니다. 그놈들이 불상을 밀어 넘어뜨려 앓는

의자로 쓰고, 나무를 가져다 불을 지피기도 하지요. 저희 절 승려들은 힘이 약해 그들과 맞서 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쪽의 허물어진 방들은 그 강도들이 머물도록 내버려 두고, 새로 시주를 받아 저 뒤쪽의 사찰을 다시 지은 것입니다. 깨끗한 곳과 더러운 곳이 나뉘어 있는 것이, 원래 서방 세계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당승이 말했다. "과연 그러하구려."

길을 가다 보니 산문에 '진해선림사'라는 다섯 글자가 적혀 있었다. 막 발걸음을 옮겨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한 스님이 걸어 나왔다.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머리에는 비단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귀밑에는 구리 고리 귀걸이를 달았다. 옷은 거친 털실로 짠 옷을 입었는데, 은처럼 번뜩이는 흰 눈이 눈에 띄었다. 손에는 뽕뽕이북을 흔들며 입으로는 이방의 불경(번경)을 외는데 알아듣기 어려웠다.

삼장은 본래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그는 서천 길에서 만나는 라마 스님이었다.

라마 스님이 문밖으로 나와 삼장을 살펴보니, 눈매가 맑고 이목구비가 수려하며 이마는 넓고 정수리는 평평했다. 귓볼은 어깨까지 내려오고 손은 무릎을 넘을 정도로 길었으니, 마치 나한이 세상에 내려온 듯 매우 단정하고 우아했다. 라마 스님은 삼장에게 다가가 친근함을 표시하려는 듯, 싱글벙글 웃으며 손을 비비고 코를 만지며 귀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그리고는 그를 방장실로 안내하여 인사를 마친 뒤 물었다.

"어르신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삼장이 대답했다. "제자는 동토 대당의 명을 받들어 서천 천축국의 대뢰음사에 불경을 구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마침 해가 저물어가는 길이라, 하룻밤 묵어 가고자 이 사찰을 찾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다시 길을 떠날 테니 부디 편의를 좀 봐주십시오."

그러자 라마 스님이 웃으며 말했다. "에이,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좋아서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몸을 받아 태어났으나 타고난 운명에 화개살(華蓋)이 끼어 집안에서 거두어 키울 수 없는 팔자라, 어쩔 수 없이 속세를 끊고 출가한 것이지요. 이미 불문 제자가 되었으니, 부디 허튼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삼장이 말했다. "저는 그저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라마 스님이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동토에서 서천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길에는 산이 있고, 산에는 동굴이 있으며, 동굴 안에는 요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처럼 혼자 다니는 데다 몸까지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경전을 구하러 간다는 말입니까?"

삼장이 대답했다. "원주께서도 제 말이 옳다고 생각하시겠지요. 빈승 혼자라면 어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저에게는 세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으며 저를 보살피기에, 무사히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마 스님이 물었다. "그 세 제자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산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라마 스님이 당황하며 외쳤다. "스승님, 이곳에는 호랑이와 이리가 있고 요괴와 귀신이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에도 멀리 나가지 못하고, 해가 지기 전에는 문을 걸어 잠그곤 합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사람을 밖에 두다니요!"

그러고는 급히 소리쳤다. "제자야! 어서 가서 저분들을 안으로 모셔 오너라!"

어린 라마 두 명이 밖으로 뛰어 나오다가 손오공을 보고는 깜짝 놀라 자빠졌고, 저팔계를 보고는 또 한 번 자빠졌다. 아이들은 얼른 일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며 외쳤다.

"스님, 운이 없어도 너무 없네요! 스님의 제자들은 보이지도 않고, 요괴 세 마리가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잖아요!"

삼장이 물었다.

"어떻게 생겼기에 그러느냐?"

어린 라마가 대답했다.

"한 명은 뇌공처럼 입이 툭 튀어나왔고, 한 명은 멧돌처럼 입이 툭 튀어나왔으며, 또 한 명은 얼굴이 푸르스름하고 송곳니가 돌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한 여인이 있는데, 아주 곱고 예쁘장하게 생겼더라고요."

삼장이 웃으며 말했다.

"네가 잘 몰라서 그렇구나. 못생긴 세 명은 내 제자들이고, 저 여인은 내가 송림에서 목숨을 구해온 사람이라네."

그러자 라마가 말했다.

"아이고, 스님! 스님은 이렇게 인자하고 멋지신데, 어찌 저런 못생긴 제자들을 데리고 계신가요?"

삼장이 말했다.

"못생기긴 했어도 다 쓸모가 있는 아이들이라네. 어서 안으로 모시렴. 조금이라도 늦었다가는 저 입 툇 튀어나온 녀석이 사고를 칠지도 몰라.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이라 안으로 쳐들어올지도 모르니 서두르거라."

어린 스님이 급히 달려 나가 벌벌 떨며 무릎을 꿇고 말했다. "나리들, 당 나리께서 모시라고 합니다." 그러자 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 그냥 모셔오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저렇게 벌벌 떨고 난리예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우리가 못생겨 보여서 겁을 먹은 모양이지." 팔계가 투덜거렸다. "말도 안 돼요. 우리도 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인데, 누가 못생겼다는 거예요?" 손오공이 말했다. "그 못생긴 것 좀 대충 정리해봐라." 팔계는 정말로 입을 쭉 집어넣고 고개를 숙인 채 말을 끝냈고, 사오정은 짐을 짊어졌으며, 손오공은 뒤에서 여자를 통제하며 몽둥이를 들고 일행을 이끌며 안으로 들어갔다. 일행은 무너진 복도를 지나 삼중문을 통과한 뒤, 말을 매어두고 짐을 내려놓았다. 방장실로 들어

가 라마 승려들을 만나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 그사이 어린 스님은 안으로 들어가 칠팔십 명의 어린 라마들을 데리고 나왔다. 스님들은 예를 갖추어 인사를 마친 뒤, 정성껏 공양을 준비하여 대접하기 시작했다.

시로 이르되, "자비로운 마음으로 공덕을 쌓으니, 불법이 흥할 때 승려들이 서로를 찬탄하네."

결국 이들이 어떻게 사찰을 떠나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